

90-23

#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分析

1990. 1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1980年代가 우리나라에 있어 激變의 時代였다는 점에는 누구도 異論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人口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누적된 社會變動의 結果요 또한 지속적인 人口政策의 效果로서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만큼 심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30년간 특히 1980년대에 있었던 出産力의 급격한 減少는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社會變動에 深大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出産力이 감소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出産力 水準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人口規模의 增加가 멈추고 계속 減少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現實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人口의 減少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論難이 있을 것이지만 장래 人口變動의 크기와 방향을 展望하고 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는 데는 論難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保健社會研究院은 지난 30년 가까이 政府의 人口政策樹立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出産力抑制라는 人口政策의 目標를 훌륭하게 달성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人口成長抑制 中心의 人口政策結果로 나타날 수 있는 社會經濟的인 問題의 診斷과 장래에 대한 對備策을 마련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報告書는 當院 人口研究室의 研究陳과 院外 專門家들이 위와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모아 엮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필자의 見解가 일치할 수 없고 심지어 相反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人口變動을 돌아보고 現狀況을 바로 이해하며 장래 우리나라가 당면한 人口學的인 挑戰을 展望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研究報告書가 모든 社會·經濟開發政策 樹立의 基準要素가 되는 人口의 理解와 政策需要의 展望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으로 이 研究事業을 담당한 研究陳 여러분과 筆者 諸位께 感謝하고 致賀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本稿에 표명된 見解는 각 執筆者의 主觀이며 當院의 공식적인 見解가 아닌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1990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池 達 顯

# 目 次

緒 論 .....	3
I. 人口變遷理論과 우리나라 人口成長 .....	高甲錫 ... 9
II. 우리나라 婦人 出產類型의 變動 .....	曹大熙 ... 39
III. 差別出産力의 變動과 그 要因 .....	金泰憲 ... 75
IV. 우리나라 婦人의 理想子女數 變動 .....	曹大熙 ... 103
V. 韓國의 出産性比 分析 .....	金日炫 ... 133
VI. 差別 死亡力과 經濟社會開發, 1970~1986 .....	金泰憲 ... 155
VII. 人口推計를 위한 將來 生命表의 作成에 관한 研究 ...	崔仁鉉 ... 187 曹大熙
VIII. 人口移動의 實態와 展望 .....	鄭基源 ... 207
IX. 우리나라의 家口 및 家族構造의 變動 .....	崔鳳鎬 ... 257
X. 結婚率 및 初婚年齡의 變動과 展望 .....	金柔敬 ... 293
XI. 우리나라 人力需給構造의 變化展望 .....	具成烈 ... 361
XII.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動과 展望 .....	崔 焯 ... 395



## 緒 論

우리나라에서 人口問題가 본격적으로 論議가 된것은 1960年 軍事政權當局이 經濟開發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人口成長의 抑制가 갖는 重要性에 주목하게 된 후부터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人口政策은 人口成長의 抑制 곧 出産力의 減少에 치우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政策研究도 自然 出産力 決定要因에 대한 研究에 치우치게 되었다. 이 出産力의 低下를 염두에 둔 人口研究는 國際機關이나 外國의 援助機關의 풍부한 재정적 支援을 받아 保健社會研究院의 全身인 家族計劃研究院과 大學의 研究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研究들은 대부분 人口現象인 出産力을 從屬變數로 놓고 人口에 미치는 사회경제학적인 諸要因과 政策變數의 영향을 評價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人口變動이 사회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이나 保健福祉政策上的의 의미에 관한 研究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이 出産力에 관한 研究마저 人口事業을 지원하던 國際機關이나 外國 援助機關의 財政支援의 中斷으로 시들해지고 다만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家族計劃研究院, 人口保健研究院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문적인 研究는 몇몇 學者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人口變動이 가져다 주는 研究對象의 풍부성에도 불구하고 순수 학문적인 研究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 인구학적인 研究의 소홀로 인해 기초적인 資料의 生産도 부실하여 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의 適時供給도 원할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널리 알려진대로 우리나라 人口變動은 出産力의 빠른 減少와 꾸준한 死亡率의 減少 그리고 활발한 人口移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의 出産力 減少는 세계에서조차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國際社會에서 家族計劃事業의 成功事例로 들먹여지고 있을 정도다. 이와같은 出産力의 變動은 물론 政府의 강력한 支援을 받은 家族計劃事業의 結果로 말

할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 전반적인 變動이라는 脈絡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出産力의 減少는 人口規模의 變化에 보다는 人口構造의 變動과 그 사회경제적 影響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人口現狀을 단순한 사회경제적 要因의 從屬變數로서가 아니라 社會變動의 方向과 質에 制約을 가하는 獨立變數로서 다뤄야 할 필요가 절실히 졌다는 것이다.

매사가 그렇듯이 장래의 展望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理解가 앞서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는 韓國社會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들어서는데 人口變動이 가져올 영향을 展望함에 있어 1960년 이후 우리나라가 겪은 人口變動을 좀 더 여러 측면에서 또 좀 더 순수 인구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해하자는 目的을 가지고 계획되었다. 애초에 단순한 이해로 그치기 보다는 우리나라 人口의 展望과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가능하면 실증적인 資料의 分析에 기초하여 論文을 작성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어떤 主題는 성격상 실증적인 資料의 分析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것도 있다.

第1章 「人口變遷理論과 우리나라의 人口成長」은 우리나라의 人口成長을 人口變遷理論에 비취 우리나라의 人口成長段階를 구분하고, 西歐社會와 日本의 人口變換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特性을 살펴본 것이다. 筆者는 우리나라의 人口成長이 西歐와 日本이 거친바 있는 低位成長의 정체적 현상을 겪지 않고 바로 人口減退期로 들어가게 된다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論文은 報告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問題의 範圍와 方向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전인차는 역시 出産力의 減少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많은 主題가 出産力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第2章의 「우리나라 婦人 出産類型的 變動」은 우리나라 婦人의 年齡別 出産率과 그 變動을 일본과 대만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婦人의

出產類型의 特性을 찾아보고자 Brass의 方法을 적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婦人의 出產水準과 類型을 전망하고자 하였으나 Brass의 方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일본·대만과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婦人의 出產類型의 特性은 일본에 비하여 특정연령층에 集中하는 정도가 높고 低年齡層에 기울어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出產力이 저하하면서 高年齡層의 出產比重이 커져가는 일본의 예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出產力의 低下에 의한 人口增加率의 減少效果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다.

第3章 「差別出產力의 變動과 그 要因」은 結婚年齡, 婦人의 出生時期, 教育, 居住地 등에 따라 出產力의 差異가 상존하고 있지만 이 差異가 사회경제적인 變動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筆者는 이와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要因의 影響弱화라기 보다는 그 요인자체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社會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資料도 出產水準의 收斂現象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第4章 「우리나라 婦人의 理想子女數 變動」은 1965년 이후 1988년 家族計劃實態 및 出產力 調査에서 수집된 婦人의 理想子女數에 대해 코호트分析을 가하여 理想子女數의 減少를 時期, 코호트, 年齡 效果로 나눠보고자(Decompose)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婦人들의 理想子女數가 준 것은 주로 사회전반적인 認識과 霧圍氣의 變化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준다. 특기할 것은 理想子女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年齡效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거의 밑바닥에 이른 理想子女數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과 따라서 더이상의 出產力 減少는 配偶出產率의 低下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을 가능케 해준다.

第5章 「韓國의 出產性比 分析」은 요즈음 社會問題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 出產性비에 관한 것이다. 筆者는 센서스 및 申告資料의 分析을 통해 出生性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것이

地域과 母의 年齡 出產順位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 母의 社會人口學的인 特性은 出生性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男兒選好度에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出生性比의 增加가 안고 있는 諸般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男兒選好觀을 拂息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第6章부터 8章까지는 死亡力에 관한 것이다. 第6章 「差別死亡力과 經濟 社會開發, 1970-1986」은 死亡率이 社會경제적 發展의 惠澤을 많이 받는 측에서부터 먼저 떨어질 것이라는 大前提아래 도시·농촌별, 교육수준별, 성별, 혼인상태별 差別死亡率이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즉 한 人口의 平均死亡水準은 生活水準이 다른 특성별 人口의 構成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그 構成比의 變化에 따라 변천 한다는 전제하에 差別死亡率의 變動을 설명하고 있다.

第7章 「人口推計를 위한 將來 生命表의 作成에 관한 研究」은 Brass의 Logit System을 적용하여 將來 人口推計에 필수적인 韓國人 固有生命表를 작성하려고 시도한다. 기존의 標準生命表에 의존하지 않고 작성된 11개의 生命表에 대하여 Logit System의  $\alpha$ 와  $\beta$ 값을 구한 다음 이 두 값의 과거 趨勢를 통하여 장래의 값을 推定하여 다시 生命表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方法을 이용한 將來 生命表의 作成은 결코 번잡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까운 生命表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이 方法에 의해 최종단계의 生命表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서 適合性의 與否는 檢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第8章 「人口移動의 實態와 展望」은 人口移動의 實態를 移村向都의 人口移動이라는 거시적 接近과 居住地 移動의 選別性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社會경제적 特性의 分析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시도한다. 미시적 分析은 1983년 調查資料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分析에서 거의 사용된 일이 없는 logit regression을 사용하고 있다.

第9章 「우리나라 家口 및 家族構造의 變動」은 우리나라의 家口變動이

小家族化, 核家族化 및 脫家族化라는 現代社會의 일반적인 傾向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筆者는 이와 같은 變化가 都市地域에서 먼저 시작되어 農村地域으로 확산되는 것을 강조하고 이 현상을 젊은 年齡層 人口의 都市轉入이라는 人口移動으로 설명한다. 또 離婚率이 상승하는 것과 전에는 희귀한 家族形態 즉 離婚한 사람들끼리 전번結婚에서 생긴 子女들을 데리고 사는 家族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특기하고 있다.

제10장 「結婚率 및 初婚年齡의 變動과 展望」에서는 거의 모든 資料를 망라하면서, 만들수 있는 거의 모든 表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初婚年齡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보여준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出産力이 떨어지는데 기여할 만큼 크게 상승하였던 初婚年齡이 많이 누그러지는 경향이 완연하며 初婚年齡의 도시·농촌간 差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11장 「우리나라 人力需給構造의 變化展望」은 본 報告書에 수록된 어떤 論文보다도 당초의 의도했던 展望部門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人力의 供給과 수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數를 推計하고 그 過·不足을 산업별·학력별로 전망하며 이를 기초로 몇가지 對策까지 제시해 준다.

제12장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動과 展望」은 이 報告書의 結論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韓國社會가 都市化와 産業化의 擴大過程에서 社會體系가 급격히 해체되는 過程에 있는 것으로 보고 人口變動이 社會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다. 1962년 이래로 추진해온 人口政策으로 人口成長抑制라는 당초의 人口政策的 目標은 달성하였는지는 몰라도 人口가 야기하는 問題를 해결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이러한 人口問題는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問題로서 정책적 對應을 기다릴 것이라고 장래를 전망하고 있다.

이상 12개의 論文은 각기 별개의 論文으로서 독립적으로 작성되었기 때

문에 서로 상반되는 見解나 상호 모순이 되는 주장이 없을 수 없다. 또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變動趨勢를 추리고 이를 기초로 將來를 전망한다는 본래의 意圖와 약간 빗나간 점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內容이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問題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第 1 章 人口變遷理論과 우리나라 人口成長

高 甲 錫\*

- I. 序 論
- II. 人口變遷理論의 本質
- III. 人口變遷理論에 따른 우리나라 人口成長 樣相
- IV. 亞細亞 몇 나라의 人口變遷比較
- V. 結 論

---

## I. 序 論

지난 30年間(1960~1990)에 우리나라의 人口成長 내지는 人口變遷(Demographic Transition)에 관한 研究論文이 적지 않게 發表되었다. 그러나 이 時期의 우리나라 人口成長은 高成長에서 低成長의 過程을 겪는 過渡期的 段階에 있었고 人口變遷 역시 未完의 段階에 있었기 때문에 人口變遷이 完成된 以後 또는 人口의 低成長率이 實現된 以後의 人口變動 樣相에 對해서는 豫斷적이고 深層的인 分析企圖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本稿는 1990年을 起點으로 하여 人口의 低成長率이 達成됨으로써 人口變遷의 後期段階로 보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人口變動 樣相을 考察해보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招聘研究員

특히 本稿에서는 人口變遷 理論의 本質을 簡略히 紹介함과 同時에 亞細亞 主要國의 人口變遷 樣相을 比較함으로써 向後 우리나라의 人口變動 推移를 展望하는데 參考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本稿에서 敍述할 內容은 1960年代 以前의 人口變動을 概觀하고 1960~1990年の 30年間に 우리나라 人口가 어떻게 變動되었으며 그에 따른 構造變動과 分布變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對해 綜合的으로 分析해보는데 力點을 두기로 하였다.

## II. 人口變遷理論의 本質

人口變遷理論(The Theory of Demographic Transition)은 때로는 人口轉換理論이라고도 일컫는다.

19世紀 末葉 西歐社會에서는 出産力이 低下하고 있었으며 이 現象은 一般的인 常識에 속했다. 그런데 이러한 人口學的 現象이 人口增加率과 關聯하여 어떠한 意味가 있는지에 確實하게 學論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에 對해 歷史的 經驗을 土臺로 客觀的인 意味賦與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實로 人口理論 중 人口變遷(轉換)理論은 實際的인 歷史的 經驗에서 導出되었다. 西歐文明社會의 人口發展 樣相을 究明하는데 많은 學者들은 人口가 어떠한 類型이나 段階를 거쳐 發展해 가는가에 對한 過程을 살펴볼 수 있었다.

1909年 Landry는 人口發展을 三段階로 區分 要約했으며 이것을 經濟的인 生産性에 結付시켜 說明코자 했다.

즉 그는 人口發展을 原始的 段階(Primitive Regime), 中間的 段階(Intermediate Regime), 그리고 近代的 段階(Modern Regime)로 類型化하여 人口成長을 說明하였다. 또한 그는 이 세 段階의 出生·死亡水準을 說明함에

있어 原始的 段階에서는 出生・死亡率이 높아 人口成長은 거의 停滯狀態였고 中間的 段階에서는 먼저 死亡率이 低下하여 人口增加率이 높게 나타나지만 出産力도 低下하기 시작해 隔差가 적어져 結果的으로 人口增加率 이 낮아지는 現象이 보인다는 것이다. 끝으로 近代的 段階에서는 小産・小死를 보여 人口增加率이 鈍化되어 또다른 停滯狀態를 示顯한다는 것이다.

이 Landry의 人口變遷理論을 援用하면 그가 指摘한 原始的 段階는 우리나라의 경우 1960年代 以前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960年代 以前에는 妊娠과 出産이 人爲的으로 調節되었거나 出産 自體가 父母의 經濟的 動機에 의해 制限을 받는 等の 行態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960年代 以前에 특히 1910~1960년까지는 점차적으로 微細한 死亡水準의 低下는 있었지만 顯著한 改善이 없었으므로 거의 原始水準이라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1945~1960年の 死亡水準 改善 역시 우리나라의 社會・經濟的 發展程度에 따른 寄與도가 아니고 單純한 醫藥品の 普及에 起因하기 때문에 出産力과 死亡率의 變化要因은 1960年代 以後부터 內在하였고 本格化했다고 해도 큰 無理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Landry가 指摘한 中間的 段階는 1960~1990年の 期間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時期에 多産에서 小産으로 移行하게 되며 특히 結婚이나 子女所有가 經濟的인 生活與件에 의해 調節되고 또한 多死에서 小死로 轉換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舉論한 바와 같이 死亡水準이 먼저 팔목할만치 低下함에 따라 出産力이 그 뒤를 이어 低下하기 始作한 것도 이 類型에 들어가는 理由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andry의 第3段階 發展過程은 소위 近代的 段階이다. 이 과정은 小産・小死가 이루어진 時期로서 우리나라는 1990年代 以後가 該當될 것으로 생각된다.

1929年 Thompson은 Landry와 마찬가지로 人口가 發展하는 過程이 出生과 死亡水準에 따라 세가지 類型이 있음을 指摘하였다. 즉 그는 어느 나라이고 歷史的인 經驗資料에 의하면 第1類型은 出産 및 死亡率이 急激히

低下하는 狀態인데 出產率이 死亡率보다 低下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人口增加率이 점차 下降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人口變遷史를 볼 때 이 類型에 屬하는 時期가 1960~1990年의 30年間을 잡을 수 있다.

Thompson의 第2類型을 出產 및 死亡率이 어느 나라이고 그 나라의 어느 地域 또는 特殊階層에서 조금씩 低下하는 樣相을 보이는 狀態를 말한다. 低下의 時期는 死亡水準이 出產水準보다 약간 앞서기는 하나 人口增加率이 거의 停滯 내지 安定狀態이거나 人口增加가 顯著하지는 못한 것이 第2類型的의 特徵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마 1945~1960年의 時期가 이 第2類型에 該當될 듯 하다.

나아가서 Thompson이 말한 第3類型은 出產과 死亡이 전혀 調節되지 않은 狀態를 말한다. 물론 이 類型에서도 出生水準보다 死亡水準의 改善을 위한 努力이 있어 人口增加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45年 以前 時期가 여기에 該當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年 以前 특히 日帝治下의 1910~1945年의 35年間에 아주 微細한 死亡水準 改善을 전혀 無視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全般的인 改善이나 顯著하지 못했다는 것을 確實히 해둘 必要가 있겠다.

1945년에 發表한 Blacker의 人口變遷 내지 人口發展過程의 段階別 樣相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즉 第1段階는 高位停滯期로서 多產·多死 形態를 지니고 있다. 이 時期는 前近代의 傳統社會의 産業化 以前 社會이며 거의 自然狀態의 높은 出生水準과 역시 높은 死亡水準을 維持한 것이 特徵이라 하겠고 우리나라는 1910年代 以前 時期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當時에는 人口增加率이 微微하다. 그러나 人口成長 自體는 自然條件과 戰爭, 饑餓 및 疾病 등에 의해 調節되고 있었다.

第2段階는 初期擴張期이다. 이 時期에는 出生水準이 從來와 마찬가지로 높은 狀態이긴 마찬가지이지만 死亡水準이 낮아지기 시작하므로써 出生·死亡水準의 隔差로 인해 人口增加率이 서서히 增加하는 段階라 하겠다. 우

나라는 1910~1960年の 期間이라 할 수 있다. 이 時期는 日帝의 侵略을 받아 많은 것을 收奪 당했으나 植民統治의 一環으로 遂行된 몇가지 政策이 作用하여 微微한 死亡率低下가 있었으며 1945~1960年の 死亡率 減退가 顯著하기 始作했던 時期이다. 따라서 1955~1960年の 人口增加率は 6・25動亂 以後의 아기 豐年(Baby Boom)이라는 奇現象 때문에 爆發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時期가 多産狀態이 高出産率을 示顯하였지만 完全한 小死形態는 이루지 못하였다.

第3段階는 後期 擴張期로 多産・小死狀態로서 아직도 完全한 低出産 水準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出産率이 低下하는 過程에 있으며 第2段階와 마찬가지로 더욱 小死形態를 이루어 人口增加率의 速度가 빨라지는 時期이다. 우리나라는 1960~1990年の 30年間이 이 Blacker의 第3段階 人口發展過程이라고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時期의 出産力이나 死亡力이 比較的 빨리 低下하고 있으며 오직 完全한 低出産, 低死亡水準을 보이지 않았다는 事實에 注目해야 한다.

第4段階의 人口變遷過程은 完全하게 이루어진 小産・小死形態이다. 人口史的인 觀點에서 볼 때 出産力이 2 水準 以下이고 死亡率은 平均壽命이 70歲 前後에 있을 때 人口成長은 低位停滯期에 있게 된다. 이 期間의 人口增加率は 1~0% 水準을 提示하게 되고 出産水準이 아직은 死亡水準보다 높아 人口가 微細하나마 增加하는 狀態를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2020年の 時期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第5段階에 접어들면 小産・小死라는 形態는 第4段階와 마찬가지로 出生과 死亡率이 同一하거나 오히려 死亡率이 出生率보다 높아 人口增加가 負의 現象을 보이므로써 人口減退現象이 생기는 狀態이다. 우리나라는 西紀 2020年 以後에 이 人口減退期가 豫想되며 이 時期에는 人口增加가 負의 現象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以上에서 Blacker의 人口變遷에 따른 人口成長의 5段階說을 記述하였다.

1947年 Notestein은 人口變遷理論을 앞의 Landry, Thompson, Blacker 보

다는 더욱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提示하였다.

즉 그는 近代 歐美社會에서는 人口增加가 産業化의 過程에 隨伴된 現象으로서 먼저 死亡率이 低下하기 시작했고 이는 生活水準의 向上에서 그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고 說明하였다. 그러나 出産力 低下는 近代化 過程에서 아주 느리게 反應하였다는 것이다. 이 出産力 低下는 人爲的인 避妊 行動이 싹뻗기 때문이고 이 避妊行爲를 誘發한 것은 個人主義의 成長과 都市産業社會의 生活樣式이 作用한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특히 Notestein은 西歐社會에서 近代化作業의 推進力으로서 死亡率低下가 出産力 低下보다 屬치 못할 事情에 있었음을 부연하면서 人口變遷理論上의 人口發展 (Demographic Evolution)을 세가지 類型 또는 段階(Three Demographic Types or Stages)로 區分하여 說明하였다.

첫번째 類型은 初期段階의 人口減少現象에 있는 나라로서 歐美諸國과 濠洲를 列舉하고 이들 國家는 人口變遷을 完成했으며 그것은 出産力이 再生産水準보다 한결 낮은 水準까지 이르는 形態라고 指摘하였다.

두번째 類型은 人口變遷이 한창 進行중인 나라로서 그 當時 蘇聯과 日本 그리고 몇개의 南美諸國을 例示하였다. 이들 國家들은 아직도 比較的 높은 人口增加率을 示顯하고 있으나 出産力の 低下 速度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그들 나라들의 人口學의 特徵이라 指摘하였다.

세번째로 列舉한 類型은 人口增加가 아직도 높은 狀態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充分히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높은 出産力을 維持하고 있는데 비해 死亡率은 低下하고 있어서 높은 人口增加率을 보이는 大多數의 亞細亞, 아프리카 및 中南美 諸國이라고 指摘하였다.

이 세가지 類型은 歐美社會의 經濟發展과 人口變遷과의 關係를 其他 世界各國에도 適用할 수 있음을 歷史的인 資料에 依據해 立證했다.

1950年代 Loale과 Hoover는 Notestein과 똑같은 見解를 가지면서 經濟發展期의 人口變遷 過程을 産業國家의 經驗에서 說明하였다. 즉 그들은 低所得水準의 農業社會는 높은 出産力과 死亡率이 特徵이라 하겠으며 出産

력이 높은 상태에서 安定되며 死亡은 微細한 變動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然環境에 의해 作用되었을 뿐이라고 說明하였다. 그런데 經濟가 發展됨에 따라 이 死亡力은 出產力보다 먼저 低下하는 現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社會가 組織化되고 專門化하며 醫療技術(知識)이 普及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時間이 지나면 出產力도 減少하여 人口增加率 역시 減少하는 傾向을 갖는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人口가 發展함에 있어 人口變遷理論이 一般化되어 쓰이는 傾向에 있었으나 많은 學者들은 이것을 하나의 定立된 理論으로 쓰이기에는 限界點이 있음을 強調하였다.

즉, 人口變遷理論이 歐美의 歷史的 經濟資料에 依據함으로써 歐美와 類似하지 않은 나라의 經驗的 資料가 人口變遷理論을 說明하는데 不充分하다는 것이다.

1960年代 Cowgill은 人口變遷理論을 說明하는데 있어 人口增加의 波長的 類型은 經濟發展의 結果라기 보다 出生 및 死亡에 對한 行態에서 찾아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으며 Billig는 人口發展의 段階를 資本主義 國家와 社會主義 國家를 分離하여 取扱하면서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人口發展이 그들 國家의 社會變動(Social Transformation)과 產業化 進展이 크게 關聯되어 있다고 指摘하였다.

以上에서 人口變遷理論의 本質에 對해 살펴보았다. 人口變遷理論은 어디까지나 人口發展 過程을 觀察하는 道具로써 完全히 一般化된 理論은 아니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人口가 發展해 나가는데 定型化된 Schedule이 있는 것도 아니고 出生・死亡水準의 變動과 그 進展이 各樣各色이기 때문에 一律적으로 人口變遷을 說明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人口變遷理論에 立脚해 어떻게 人口成長 내지 人口發展이 進行되어 왔는지 吟味해보기로 한다.

### Ⅲ. 人口變遷理論에 따른 우리나라 人口成長 樣相

우리나라 人口發展史를 볼 때 人口變遷 側面에서 우리나라 人口가 다섯 개의 段階 내지 類型으로 區分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 ① 1910年 以前 : 原始的 段階
- ② 1910~1960年 : 初期 擴張期 段階
- ③ 1960~1990年 : 後期 擴張期 段階
- ④ 1990~2020年頃 : 低位 停滯期 段階
- ⑤ 2020年 以後 : 人口減退期 段階

로 類型化할 수 있다. 1910年 以前 즉 李朝時代의 우리나라 人口는 原始的 段階에 있었음이 分明하다. 이 類型은 多産・多死의 人口學的 特徵을 지니고 있으며 오랫동안 人口成長이 停滯狀態에 있었다. 李朝初期의 人口를 約 500~550萬으로 推定하고 1900年代 初의 人口를 1,700萬으로 假定하면 이 期間 5世紀의 人口增加率은 0.2% 水準에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어떤 研究에 의하면 이 期間의 出生率은 35~40 水準을 維持하였고 死亡率은 32~37에 있었음을 推算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높은 出生 및 死亡水準은 傳統社會의 表出으로써 産業化 또는 技術進步 以前 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普遍화된 人口秩序 내지 人口成長 樣相이다. 이 時代에는 天災, 地變, 戰爭, 饑餓 등에 의해 소위 말사스(Malthus)的 調節이 끊임없이 反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서서 西歐文物에 對한 鎖國政策이 沒落하고 開放이 試圖된 동안 日本은 韓國을 強占함으로써 韓半島가 日帝에 의해 植民地가 되면서부터 原始的 段階의 人口秩序는 微細한 變動樣相을 보였다. 더욱이 1945年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 1953年の 6・25動亂의 休戰을 거치면서 韓半島와 南韓에는 初期擴張期(1910~1960年)의 人口類型을 가졌다.

이 時期의 人口變動率을 보면 出生率이 45 水準에서 停滯하고 있으나

死亡水準은 35~20을 보이고 있어서 死亡率이 적지않게 低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人口成長率이 1~2%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初期擴張期의 마지막 5年間인 1955~1960年の 期間에는 約 3%의 人口增加率을 示顯하였다.

1910年 日帝에 의해 植民政策의 一環으로 實施된 戶口調査에 의하면 當時 韓半島 人口는 1,600萬이었으며 0~14歲 人口는 全體人口의 約 40%이었고 65歲 以上 人口는 4% 水準에 있었다. 그러나 35年後인 1945년에는 韓半島 人口가 2,500萬 水準으로 增加하였고 構造面에서는 年少人口(0~14歲 人口)가 約 45%에 이르게 되었으며 老年人口(65歲 以上)는 2% 線으로 構成比에서 減少하는 傾向을 보였다. 이러한 人口變動樣相은 1916~1945年 사이에 韓半島로부터의 人口流出狀況을 度外視한다면 높은 停滯的 出産力을 維持하였고 微細한 死亡率 減少가 서서히 進行된 것으로 判斷된다.

한편 1945~1960年 15年間은 2次世界大戰의 終戰과 함께 海外 歸還民이 많았고 여기에다 南·北韓分斷으로 인한 流出入 人口 그리고 6·25動亂으로 인한 避難民의 南下 등이 있어 그야말로 人口擾亂期에 있었기 때문에 人口變動의 激動期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期間에 戰爭을 通한 一時의 人命喪失 以外에는 死亡水準이 急激히 改善되어 人口 成長을 한층 더 促進하는 要素가 潛在하고 있었다. 그것은 8·15解放을 거쳐 6·25動亂의 休戰에 이르기까지 막심한 社會·經濟的 不安과 動搖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戰後復舊와 社會安定 그리고 貧困의 打破問題가 本格的으로 舉論되면서 저렴한 醫藥品의 普及과 醫藥技術의 導入 등에 의해 嬰兒死亡率을 비롯해 一般 死亡水準을 急激히 低下시키는 時期였다.

따라서 이 初期擴張期의 우리나라 人口는 成長速度를 점차 加速化하는 特徵을 갖고 있었다.

1945年 南·北韓을 합친 韓半島 人口는 2,500萬이었던 것이(南韓이 1,600萬, 北韓이 900萬) 結果的으로 1960年 韓國(南韓)의 人口는 2,500萬

規模로 增加하였다. 우연하게도 1945年の 韓半島 全體의 人口規模와 一致한다.

封鎖人口의 特徵을 가졌고 準安定人口傾向을 가졌던 1955~1960年の 人口變動樣相을 보면 그 5年間に 約 350萬의 人口가 增加하였고 年平均 增加率은 史上 類例없는 3%를 示顯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初期擴張期의 人口學的 特徵인 多産・小死를 마감하고 小産・小死時代로 移行하는 過渡期的 過程을 걷게 된 것을 말해준다.

1955~1960年에 人口規模面에서는 커다란 變動이 일어났으나 構造面에서는 그렇게 큰 差異가 없었다. 즉, 1955년에는 0~14歲 年小人口가 總人口의 41% 이었던 것이 1960年에도 41%를 示顯하므로써 아주 類似한 典型的 피라밋 人口構造를 나타냈다.

65歲 以上 老年人口 構成比 역시 1955년에는 3.3% 그리고 1960년에는 3.8%를 보임으로써 微細한 構造變動이 있었을 뿐이다.

初期擴張期의 人口成長 類型은 1910~1960年の 50年間을 維持하였으나 그것은 出産水準에는 變化가 없었으며 오직 死亡水準에 變化가 일어나 그것이 低下하였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死亡水準의 低下에 따라 그리고 社會經濟的 發展推移에 따라 出産力의 變化가 일어나는, 換言하면 小産形態를 達成하는 時期가 到來하였다. 즉 1960~1990年の 人口成長은 小産・小死가 이루어지는 後期擴張期 人口發展 段階로 定義할 수 있다. 이 期間 人口學的 特徵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小産・小死가 定着되는 段階이나 아직도 出産水準은 死亡水準보다 높아 人口成長率이 1~3% 線을 나타내는 時期이다.

後期擴張期에 속한 1960~1990年の 30年間은 우리나라 人口史 내지 人口政策史에서 金字塔을 이룬 時期라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 期間에 우리나라는 多産에서 小死로 平均壽命 50歲에서 70歲로 完全히 移行했기 때문이다. 물론 1960年の 平均壽命 53歲가 아주 낮은 水準의 死亡率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多産에서 小産形態로 바뀌어진 出産力 變遷樣相이 政府가 推進했던 家族計劃事業에 의해 크게 影響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指摘했듯이 人口政策史의 意味에서 높이 評價해도 마땅할 것 같다.

1960~1990年의 後期擴張期에는 한결같이 政府主導下에 家族計劃事業이 推進됨으로써 小子女 價値觀이 確立되었으며 이것은 避妊行動으로 連結되어 低出産力을 實現하였다.

1960年에 合計出産力이 6이었으나 1990年에는 1.6 水準으로 低下하였고 1985年에 이미 人口 代置水準인 2.1에 到達하였다.

한편 1960年의 平均壽命이 53歲이었으나 1990年에는 70歲 水準을 記錄하였다.

이 두가지 人口指標와 關聯하여 日本과 比較해 보면 出産力에 있어서는 1920年에 日本은 合計出産力이 5.5이었으나 그것이 1960年에 2.0水準으로 低下하였고 그 以後 1990년까지는 2.1~1.7 사이에서 微微한 起伏을 反復하고 있다. 死亡力에 있어서는 日本은 1947年에 平均壽命이 52歲이었으나 1965年에 70歲에 이르고 있다.

韓國과 日本의 人口變遷 過程이 앞에서 指摘한 單純한 두가지 指標로 볼때 相異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즉 韓國이 平均壽命 伸張速度面에서 보면 53歲(1960年)로부터 70歲(1990年)에 이르는데 30年이라는 歲月이 所要되었으나 日本은 52歲(1947年)에서 70歲(1965年)에 到達하는데 不過 18年밖에 所要되지 않았다. 換言하면 韓國은 53歲에서 70歲로 平均壽命을 伸張하는 時期에 每年 約 0.5歲의 壽命延長現象이 있었으나 日本은 그의 倍인 1.0歲의 延長現象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韓國이 平均壽命 52~53歲를 達成한 뒤 그를 延長시키는데 日本보다 保健醫療의 直接的인 要件이 劣惡한데다 其他의 後進的 要素 즉 社會, 經濟, 文化, 環境 등 諸般事項이 作用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出産力 低下速度面에서는 韓國이 6에서 2.1까지 低下하는데 30年間(1960~1990年)이 걸렸는데 日本은 5.5~2.1로 가는데 무려 40年間이

所要되었다. 이는 韓國에서는 高出産에서 低出産을 實現함에 있어 每年 約 0.13의 出産力을 低下시켰으나 日本은 0.08水準에 그쳤다는 것을 말한다.

韓國과 日本이 出産力 低下速度面(高出産에서 低出産까지)에서 顯著的 差異를 보인 것은 出産力 低下時期가 日本은 主로 1940~1950年代이고 韓國은 1970~1980年代이기 때문에 避妊藥劑나 技術에서 韓國은 커다란 利點을 가졌으며 특히 家族計劃普及이 政府事業으로 推進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評價된다.

지난 30年間(1960~1990年)의 우리나라 出産力 및 死亡力의 低下速度는 人口增加 速度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어 人口規模 및 構造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總人口가 2,500萬이었으나 지난 30年間(1990年)에 約 1,800萬의 人口가 增加하였다.

이는 지난 30年間에 人口가 約 70%가 增加한 셈이고 平均增加率은 1.9%에 該當된다(〈表 1〉 參照).

表 1 우리나라 人口規模變動 樣相과 人口增加率 : 1960~1990

年度	總人口('000)	增加數('000)	增加率(%)
1960	2,500	—	—
		647	2.37
1970	3,147	—	—
		665	1.74
1980	3,812	—	—
		485	1.25
1990 <sup>1)</sup>	4,297	—	—

註 : 1) 人口센서스數値가 아니고 人口推計值임

〈表 1〉의 人口增加 樣相을 10年 間隔으로 볼때 人口증가율이 1960~1970年은 2.4%, 1970~1980年은 1.7%, 그리고 1980~1990年은 1.3%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人口成長率의 差異는 後期擴張期의 人

口學的 特徵인 多産・小死에서 小産・小死로 移行하는 過程이기 때문이다. 1960年の 人口增加率이 3%이었으나 1990年の 그것이 1%에 그치고 있음을 볼때 더욱 明瞭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後期擴張期 人口動態率은 아직도 出生>死亡이라는 不等式이 成立되며 第4段階인 低位停滯期에 접어들면 出生≒死亡關係가 成立되어 人口增加率은 아주 微微한 狀態에 접어들게 된다. 지난 30年間の 人口動態率을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우리나라 人口動態率 變動推移 : 1960~1990

年度	總人口(,000)	出生率	死亡率(千名當)	增加率(百名當)
1960	2,500	46.8	17.0	2.98
1970	3,147	31.4	9.6	2.18
1980	3,812	23.4	6.7	1.67
1990 <sup>1)</sup>	4,297	16.4	6.2	0.97 <sup>2)</sup>

註 : 1) 人口推計資料에 의거함

2) 海外移民을 包含하고 있음

資料 : 家族保健資料集, 保健社會部, 1988.

특히 <表 2>에서 1960年の 出生率 47과 死亡率 17, 그리고 人口增加率 3%는 1990年の 出生率 16, 死亡率 6 그리고 人口增加率 1%와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이 結果는 人口構造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주고 있다.

지난 30年間の 人口構造 變貌를 보면 <表 3>과 같다.

表 3 우리나라 人口構造의 變動 樣相 : 1960~1990

	1960	1970	1980	1990
總人口(,000)	24,989	31,470	38,124	42,973
0~14歲(%)	42.9	42.1	34.0	25.9
15~64歲(%)	53.8	54.6	62.2	69.4
65歲(%)	3.3	3.3	3.8	4.7
扶養比	85.9	83.3	60.8	44.1

資料 : 最近의 人口政策動向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3〉에 의하면 1960년에는 典型的인 後進國型 人口膨脹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즉 0~14세 年少人口는 總人口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老年人口(65歲 以上)는 3.3%에 不過해 底邊이 넓은 피라밋型 人口構造를 示顯하였다. 그러므로 生産年齡人口(15~64歲)는 構成比가 적어 扶養比 특히 年少人口에 대한 負擔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年代의 人口 構造 傾向은 1970年代에도 持續되었다. 1970年代에 家族計劃普及에 따른 刮目할만한 出產力 低下가 일어났음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現象이 보여진 것은 人口構造가 現時的 出生·死亡率 水準에 의해 決定된 것이 아니고 過時的 累積的 出生·死亡 水準에 의해 決定됨으로써 10年間의 時差에 의해 顯著한 構造變動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年과 1990年에는 急激한 構造變動 樣相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年少人口의 構成比는 1980年에 總人口의 34%, 1990年에는 26%를 보이고 있다. 1970~1980年間에는 8%가 減少하였고 1980~1990年間에도 마찬가지로 8%나 低下하였다. 이러한 年少人口의 構成比 減少傾向은 出產力이 人口代置水準(合計出產力이 2.1, 出生時의 平均壽命이 70歲 前後) 以下로 低下하면 할수록 鈍化하게 된다. 最近의 將來人口<sup>2)</sup> 展望에 의하면 西紀 2000~2020年間에는 이 年少人口(0~14歲)의 構成比가 22% 水準에서 17% 水準으로 轉換하게 된다는 것이다.

1980~1990年の 老年人口 構成比는 3.8%와 4.7%를 보여주고 있어 構成比 自體에 있어서는 顯著한 增加推移가 보여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推移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出產力의 急進的 低下와 死亡率의 漸進的 改善이 있다 할지라도 20年內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證明해주고 있다.

1980~1990年에는 生産年齡人口의 構成比가 增加하여 各各 62%와 69%를 占하고 있어 이 10年 사이에 7%의 上昇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1980年에도 55%에서 62%로 增加함으로써 7%「포인트」가 增加하였다. 이러한 生産年齡人口의 肥大와 老年人口의 微增樣相에 의해 扶養比

는 急激한 下降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70년에 扶養比가 83이었으나 1980년과 1990년에는 各各 61과 44로 低下하고 있다. 이 扶養比 역시 지난 20年間(1970~1980, 1980~1990)에 22%「포인트」前後의 變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急激한 扶養比 減少傾向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왜냐하면 生産年齡人口의 構造比 增加傾向이 向後 人口構造에서 顯著하지 못하여 老年人口의 構成比 增加 推移가 緩慢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老年人口(65歲 以上)는 實數面에서 1960~1990年 사이에 約 121萬名이 늘어났다. 즉 1960년에는 約 82萬名이었으나 1990년에는 203萬名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서 西紀 2000년에는 이 老年人口가 約 300萬에 이르게 되고 그 20年後에는 約 600萬名으로 增加하게 될 것이다. 1960~1990年의 30年間に 約 120萬이 增加하였으나 1990~2020年의 30年間에는 約 400萬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人口의 老齡化 現象이 차츰 速度를 빨리하고 2020年 以後에는 本格的인 老齡化 人口構造를 갖게 될 것이다.

後期擴張期를 지나 人口增加의 低位停滯期(1990~2020年)를 거쳐 人口減退期(2020年 以後)를 맞기 前에 人口變動의 構造的 側面을 예의 注視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즉 2020년에는 65歲 以上の 老齡人口는 總人口의 12%를 차지하게 되고 (<表 4> 參照) 그 以後 繼續해서 每年 1%씩 增加하는 逆피라미트型 人口構造를 示顯하게 된다.

表 4 人口增加率과 人口構造 : 1990~2020年

					單位 : 1,000名
年度	總人口	0~14歲	15~64歲	65歲 以上	人口增加率(%)
1990	42,973	11,070(25.87%)	29,697(69.40%)	2,026( 4.73%)	0.97
2000	46,828	10,132(21.64%)	33,724(72.02%)	2,972( 6.35%)	0.75
2010	49,486	9,624(19.45%)	35,579(71.90%)	4,283( 8.66%)	0.30
2020	50,193	8,264(16.46%)	36,183(72.09%)	5,746(11.45%)	0.01

資料 : 最近의 人口政策動向과 展望 - 第6次5個年計劃을 中心으로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한 人口推計에 의하면 이 老齡人口의 構成比가 無限定하게 擴大한 것은 아니고 西紀 2040年頃에 總人口의 23% 前後를 示顯함으로써 絶項에 達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어쨌든 이 低位停滯期(1990~2020年)의 우리나라 人口는 1~0%의 人口成長을 記錄할 것이며 2020年 以後에는 負의 成長率을 보이는 人口減退期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1910年 以前의 多產·多死의 特徵인 原始的 段階, 1910~1960年의 多產·小死의 初期擴張期 段階, 1960~1990年의 小產·小死를 이룩하는 後期擴張期 段階, 1990~2020年의 小產·小死이면서 人口增加率이 1~0%이고 零의 成長을 成就하는 段階, 그리고 2020年을 分水嶺으로 하여 零의 成長率을 實現한 다음 人口增加率이 負로 나타나는 人口減退期 段階 등 다섯개의 段階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人口는 變遷과 發展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1990~2020年의 30年間의 人口變動 樣相, 그리고 그 以後의 人口展望은 向後의 人口變動 내지 出產力 및 死亡力에 의해 左右될 것임은 分明하다. 그런데 1990~2020年의 出產力과 死亡力은 現在 展望하는 것 보다 實在值가 더 低下할 可能性이 높음으로써 零의 成長度를 앞당길 可能性이 있으며 結果的으로 人口減退期가 빨리 오게 되고 그것이 길어질 展望이다. 이 問題에 對한 檢討는 보다 深層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課題인 것 같다. 왜냐하면 將來人口 展望에서 1990年 以後의 出產力을 1.70 水準에서 常數로 假定 하였으나 이미 1990년에 1.6 水準의 出產力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더욱 下降할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의 出產力이 어디까지 低下할 것이며 그것은 年間起伏이 전혀 없는 狀態에서 繼續해서 低下 일변도로 나아갈 것인지에 對해 將來人口 展望作業에서는 考慮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V. 亞細亞 몇 나라의 人口變遷 比較

多産・多死에서 小産・小死로 完全히 移行하는데 換言하면 人口變遷 (Population Transition)을 完成하는데 西歐社會는 흔히 100~150年이 所 要되었다고 한다. 人口變遷을 두개의 變遷要素 즉, 出産力과 死亡力으로 나누어 視察할 수도 있고 變遷의 出發點과 完了點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學者間에 見解를 달리한다. 그러나 大多數의 學者는 變遷期間을, 出産力 에서는 避妊이 전혀 없는 傳統的이고 自然狀態에 맡겨진 出産力 水準(5~7)에서 人口代置水準인 2.1에 到達하는 時間을 말한다. 한편 死亡力에서는 近代文明의 影響을 받지 않은 換言하면 生命이 自然狀態의 罹病・治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死亡水準으로부터(平均壽命 40歲 前後) 近代 醫藥의 惠澤을 받아 勿論 營養, 環境 등 諸般與件下에서 이루어지겠지만 平均 壽命이 70歲 水準에 이르는 期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人口變遷期間은 換言하면 多産・多死로부터 小産・小死로 完全히 移行된 期間은 1945~1990年의 45年間 또는 1960~1990年의 30年間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初期擴張期(1910~1960年)의 後半期에는 死亡力低下 現象이 微微하나마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死亡力變遷이 서서히 始作되었으며 특히 1945年 解放 以後에는 抗生劑의 導入과 D. D. T 살포를 통한 防疫活動 등으로 死亡力이 低下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까지 刮目할만한 死亡力 減退現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겨우 平均壽命이 50歲 水準에 있으므로 이런 狀態를 아직 多死現象으로 定義할 때 人口變遷期間을 30年으로 잡을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1990年을 分水嶺으로 하여 人口變遷을 完了하였다. 소위 小産・小死 形態의 人口學의 特徵을 갖게 되었다.

19世紀末에서 20世紀 中半에 이르기까지 西歐社會에서는 人口變遷을 完了한 것에 비추어 볼때 約 1世紀의 時差를 두고 完全한 人口變遷을 가져

은 우리나라는 때늦은 感이 없지 않으나 所要期間은 西歐社會에 비해 1/3 내지 1/5로 短縮할 수 있었다.

이러한 人口變遷期間 短縮現象은 亞細亞 몇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우선 出產力 變遷을 살펴보면 <表 5>와 같다.

表 5 亞細亞 몇 나라의 出產力 變遷樣相 比較

國家	變遷時點	完了視點	變遷期間
韓國	1960(43)	1987(17)	27年
日本	1920(36)	1957(17)	37年
中國	1963(43)	1979(18)	16年
臺灣	1960(40)	1987(17)	27年
싱가폴	1955(44)	1975(18)	20年

註：( )內的 數字는 出產率임

資料：1) I. B. Taeuber,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New Jersey, 1958.

2) 韓英子, 韓國의 轉換速度와 人口構造變動, 韓國人口學會誌, 1989.

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84.

<表 5>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出產力 變遷을 完成하는데 27年間이 所要 되었으나 日本은 37年間 그리고 中國은 17년에 不過하다. 臺灣과 싱가폴은 各 27年 그리고 20年間이다. 우연하게도 臺灣과 韓國은 所要期間이 一致하고 있어서 人口學 研究에서 關心이 集中될 수 있다.

出產調節이 거의 없는 狀態의 出生率이 日本을 除外하고는 모두 40을 超過하고 있는 높은 出產水準을 보이고 있으며 이 當時의 合計出產率은 5~6을 示顯하고 있다. 日本이 韓國이나 其他 漢字文化圈보다 낮은 것은 그 當時의 人口變動統計의 未備로 因한 出產漏落에서 起因한 것 같다.

아무튼 亞細亞 諸國 특히 漢字文化圈 國家는 西歐社會의 出產力 變遷期間보다 크게 短縮하고 있고 이는 日本을 除外하고는 出產調節을 國家施策으로 推進한 結果라 하겠다. 특히 中國(本土)의 경우 16年間에 出產力 變遷을 成功했다는 것은 中國政府의 家族計劃政策의 強度 그리고 그에 呼應

하는 國民의 出產行態 變動樣相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몇 나라의 死亡力 變遷樣相을 比較해 보면 <表 6>과 같다.

表 6 亞細亞 몇 나라의 死亡力 變遷樣相 比較

國家	變遷視點	完了期間	變遷期間
韓國	1960(13, 50)	1990(6.0, 70)	30年
日本	1948(12, 52)	1965(7.1, 70)	17年
中國	1965(15, NA)	1987(6.0, NA)	NA
臺灣	1950(13,52)	1980(4.8, 71)	30年
싱가폴	1945(15,50)	1975(5.1, 70)	30年

註：( )은 死亡率 및 平均壽命임

資料：<表 5>와 같음

이들 亞細亞諸國의 死亡力 變遷은 平均壽命 50歲 以前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고 看做되나 本格的인 變遷은 死亡率 15를 前後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韓國은 死亡力 變遷을 完了한 期間이 30年이 걸렸으며 臺灣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臺灣은 死亡力 低下時期가 빨랐다. 臺灣이 韓國보다 死亡力을 빨리 低下시킬 수 있었던 것은 二次大戰後 社會·經濟的인 側面에서 韓國보다 安定된 狀態가 크게 作用한 것으로 推測된다.

亞細亞 몇 나라 중 日本이 死亡力을 變遷시키는데 가장 짧은 期間인 17年을 所要하였으나 韓國을 包含한 其他 諸國은 30年이 所要되었다.

人口變遷(Population Transition)을 完了한 時期는 그것을 出產力과 死亡力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人口增加의 두 要素를 同時에 考慮한 人口 代置(Population Replacement)水準 達成時期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小產·小死形態의 出產力과 死亡力 水準을 意味하게 된다. 즉, 合計 出產率이 2.1 水準이고 出生時의 平均壽命이 70歲에 接近하는 時點이다. 이는 純再生產率이 1에 該當되는 年度이다.

따라서 韓國은 人口變遷을 完成한 年度가 1990年頃이고 日本은 1965年,

싱가폴이 1975年, 臺灣이 1985年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人口變遷過程은 人口史에 있어 從來 西歐社會에서 보지 못한 빠른 進展임을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다.

특히 韓國과 日本 그리고 싱가포르의 人口變遷 完了 時點으로 볼때 約 4 半世紀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人口變遷 完了 以後의 出産力과 死亡力의 水準 및 形態가 類似點이 많다고 보기는 差異點이 많다고 指摘할 수 있다(〈表 7〉 參照).

表 7 出産順位別 年間 出生構成比 比較 : 韓國 및 日本

出産順位	韓國(1987)	日本(1985)	싱가폴(1986)
計(%)	100.0	100.0	100.0
첫째아	54.1	42.1	45.5
둘째아	37.9	39.3	35.4
세째아	6.0	15.7	14.2
네째아	2.0	2.9	4.9
出生率	15.5	11.9	15.2
合計出産率	1.6	1.8	1.6

資料 : 最近의 人口政策動向과 展望 - 第6次 5個年計劃을 中心으로,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7〉에 의하면 韓國은 年間(1987年) 總出生의 出生順位를 볼때 첫째와 둘째 順位가 92%를 點하고 있으나 日本은 8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婦人이 둘째 順位의 出生을 가진 다음 세째 順位로 進歩하지 않은 낮은 出生順位 進度率(Parity Progress Ratio)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바로 첫째내지 둘째 出生을 가진 다음 斷産하고 있는 出産形態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出生率이 韓國보다 낮은 것은 日本人口의 老齡化 構造 때문에 可妊女性의 比率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實質的으로 出産力을 比較하면 日本은 韓國보다 조금 높다. 즉 合計出産率을 보면 韓國이 1.6(1988年)이고 日本은 1.8(1985年)로 0.2의 差

異를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亞細亞 몇 나라의 出産力 및 死亡力 變遷을 살펴보았다. 이들 모두는 1990年 以後 低位停滯期 人口成長 形態를 持續할 것으로 豫測된다. 그러나 變遷完了 時點의 差異에 따라 人口構造의 變動速度 특히 老齡化構造의 變遷推移에는 差異가 있게 된다.

人口의 年齡構造 變遷推移를 보면 <表 8>과 같다.

表 8 亞細亞 몇 나라의 年齡構造變遷 推移 比較

國家	1960			1970			1980			1990			2020		
	-14	15~64	65+	-14	15~64	65+	-14	15~64	65+	-14	15~64	65+	-14	15~64	65+
韓國	41.9	54.3	3.8	42.0	54.2	3.8	34.0	50.5	4.5	26.5	68.6	4.9	18.0	70.9	11.1
日本	30.2	64.1	5.7	24.0	69.0	7.0	23.5	77.4	9.1	24.5	63.7	11.8	15.3	62.3	23.4
싱가폴	43.2	55.6	2.2	38.7	58.1	3.2	27.1	68.3	4.6	22.8	70.7	6.5	16.8	67.9	15.3

資料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Estimates and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84, New York, 1986.

<表 8>이 最近資料에 의한 豫測人口 構造는 아니지만 比較 를 위해 이 資料를 使用하면 韓國과 日本 그리고 싱가포르는 年齡構造面에서 적지 않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1990年을 基準으로 할때 日本은 老年의 人口構成이 10%를 超過하고 있으나 韓國과 싱가폴은 5~7%線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日本은 1960年代初에 人口變遷을 完了하여 低位成長을 持續함으로써 人口 老齡化現象이 1990年代에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과 싱가폴은 人口變遷 換言하면 出産力과 死亡力의 變遷完了가 1985~1990, 그리고 1970年 中半에 各各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은 老齡化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西紀 2020年의 人口構造를 보면 韓國은 年少人口(14歲 以下)가 總人口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日本은 各各 17%와 15%를 보이고 있어 微細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老年人口(65歲 以上)의 構成比는 이 세 나라에 顯著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韓國은 65歲 以上 老年

人口가 11%에 그치고 있지만 日本은 23% 싱가포르 15%를 보이고 있어 人口의 老齡化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扶養比 및 老齡化 指數를 韓國, 日本 및 싱가포르를 살펴보면 <表 9>와 같다.

表 9 亞細亞 몇 나라의 扶養比 및 老齡化 指數 比較

年 度	韓國				日本				싱가폴			
	年 小 扶 養 比	老 齡 扶 養 比	計	老 齡 化 指 數	年 小 扶 養 比	老 齡 扶 養 比	計	老 齡 化 指 數	年 小 扶 養 比	老 齡 扶 養 比	計	老 齡 化 指 數
1960	77	7	84	9	47	19	66	19	77	4	81	5
1970	77	7	84	9	35	10	45	29	67	6	73	8
1980	67	9	76	18	30	13	43	35	40	7	47	17
1990	39	9	48	18	38	19	57	48	32	9	41	29
2020	25	16	41	62	25	38	63	153	25	23	48	91

資料 : <表 8>과 같음.

<表 9>에 의하면 1990년의 韓國, 日本 및 싱가포르의 老齡化指數는 各各 18, 48, 29를 보여주고 있어 日本이 빨리 人口의 老齡化 段階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日本이 1960年代 初에 이미 人口變遷을 完了했기 때문에 그 結果가 人口의 年齡構造에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폴은 韓國보다 老齡化 速度가 빠르나 時差는 約 10年 程度인 것으로 보여진다. 日本과 韓國과의 老齡化 時差는 約 20~30年 程度로 보여지고 있다. 西紀 2020年の 우리나라 老齡化指數는 62에 不過하나 日本은 153 그리고 싱가폴은 91로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人口構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30年間 社會·經濟的인 側面에서 보다 나은 人口學的 條件을 갖고 있다 하겠다.

## V. 結 論

人口變遷理論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出生・死亡에 關한 經驗的 資料에 의해 뒷받침된다. 高率의 出生 및 死亡率에서 低率의 出生 및 死亡率에 이르는 時代와 所要期間이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一律적으로 人口變遷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西歐社會에서는 18~20世紀中半에 約 150年間に 걸쳐 人口變遷을 完了한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出生과 死亡은 그 나라 내지 나라안의 地域的條件에 따라 社會・經濟・文化 등 諸般變數가 作用해서 그 秩序가 確立되고 差異가 있게 된다. 따라서 같은 西歐社會라 할지라도 佛蘭西와 西班牙는 人口變遷時點과 期間이 다르다. 佛蘭西는 1900年代初에 人口變遷이 完了되었지만 西班牙는 1950年代를 넘어서 完了되었다. 期間에 있어서도 佛蘭西가 150年間을 所要했지만 西班牙는 200년이 걸렸다.

한편 東洋에서는 日本이 最初로 1960年代初에 人口變遷에 成功했으며 그 뒤를 따라 싱가폴, 臺灣, 韓國 및 中國이 1970年代 後半에서 1980年代末에 이르기까지 모두 人口變遷을 完了했다. 이러한 現象은 西歐社會보다 人口變遷 完了時點이 적어도 50年の 間隔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人口變遷에 所要된 期間은 東洋社會의 漢字文化圈 國家들이 훨씬 짧은 것은 特異한 事實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初期擴張期인 1910~1960年 사이의 微微한 死亡率 減少傾向을 無視한다면 實로 1960~1990年 사이 30年間に 높은 出生 및 死亡率 水準에서 낮은 出生 및 死亡率 水準으로 轉換하게 되므로써 새로운 人口變遷 樣相을 보여주었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더욱이 中國은 1960年代 中半에서 1980年代 中半에 이르는 約 20年間に 걸쳐 특히 出產力 變遷을 成功하였다는 것은 人口史에 있어 刮目할만한 記錄이라 하겠다. 이러한 出產力의 急進的인 低下現象은 中國政府의 人口政策 換言하면 人口調節 내지

家族計劃(生育計劃)政策이 國家主導에 의해 體系的으로 그리고 빈틈없이 推進되었으며 이것이 國民에 의해 좋은 受容되었기 때문이며 이 事實은 注目할 만한 歷史的 意義를 지닌다 하겠다.

出産力과 死亡力의 變遷을 가져오면 人口構造 역시 變遷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人口變遷(出産力과 死亡力의 變遷)以後의 人口構造變動은 그 나라의 社會・經濟・文化 등 各 部門에 커다란 影響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出産力이나 死亡力이 變化하지 않은 安定人口(Stable Population)에서는 人口構造가 크게 바뀌어지지 않겠으나 非安定人口 즉 人口變遷期의 人口는 構造가 바뀌어지고 人口變遷이 完成된 以後에는 扶養人口의 一時的 減少와 20~30年 時差를 둔 以後의 老年人口의 急增現象들이 展望되기 때문이다.

具體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低位停滯期인 1990~2020年の 人口構造를 보면 1990년에는 年少人口比가 全體人口의 26%에 이르고 있으나 2020년에는 16% 水準에 머물러 人口構成이 항아리형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老年人口는 1990년에 全體人口의 5%에 不過했던 것이 2020년에는 12% 水準을 보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人口構造는 西紀 2020年 以後에 完全한 老齡人口構造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人口構造를 30年 間隔으로 볼때 1960年 人口構造는 典型的인 少年人口構造, 1990年の 人口構造는 中年人口構造, 그리고 2020年 以後에는 老年人口構造를 갖게 된다. 少年人口構造의 特徵은 0~14歲 人口가 全體人口의 40% 前後를 차지한 것에 비추어 65歲 以上 人口는 4% 內外에 不過하다. 그러나 中年人口構造는 0~14歲 人口가 全體人口의 25% 線이며 老年人口(65歲 以上 人口)는 少年人口와 마찬가지로 4~5%의 構成比를 가질 뿐이다. 이 中年人口構造는 生産年齡 人口(15~64歲 人口)가 肥大해진다. 老年人口構造의 特徵은 年少人口가 全體人口의 20%에 이르지 못하고 逆으로 65歲 以上の 老年人口 構成比가 全體人口의 10線을 넘어서는 人口構造이다.

이러한 構造의 特徵을 가진 우리나라 人口는 앞에서 指摘한 몇 段階의

發展過程을 거쳐 급기야 1990년에 人口變遷을 完了하게 되고 低位停滯期와 人口減退期를 맞게 될 것이다.

즉 人口發展上 原始的 段階인 1910年代 以前을 第1段階로 한다면 第2, 第3 段階는 1910~1960年, 그리고 1960~1990年の 初期擴張期와 後期擴張期 人口發展段階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段階에서 우리나라 人口成長에 換言하면 量的 膨脹에 貢獻한 時期는 初期擴張期の 中半에서 後期擴張期の 中半에 이른 時期라 말할 수 있다. 具體的으로 年代로 表現하자면 1930年代에서 1970年代의 約 半世紀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90年代 以後에는 우리나라 人口 역시 西歐社會나 日本 등의 經驗과 마찬가지로 低位 成長의 停滯的 現象을 免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 30年後인 西紀 2020年頃부터서는 人口減退期가 招來될 것이다.

1990~2020年の 人口動向을 豫測해보면 1990年の 1%線 人口增加率은 2020년에 0%의 人口成長率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30年間に 人口增加率은 1990年代에 0.8~1.0%의 人口增加率을 維持할 것으로 보이며 2000年代에는 0.3~0.8% 그리고 2010年代에는 0.3~0.1%의 人口增加率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人口增加率의 減少와 끝내 零의 成長率을 示顯하게 되면 人口增加率의 負的現象이 必然的으로 到來하며 그것은 西紀 2020年 以後에 現實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西紀 2020年을 前後하여 우리나라 人口(南韓人口에 限함)는 約 5,000萬名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起點으로 해서 人口는 減退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이러한 豫測은 向後의 出生·死亡水準이 人口豫測時의 假定值가 어느 程度 正確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뿐이라는 것을 指摘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出生力 假定은 1985年 以後 細分해서 1.7 水準의 合計出生率을 維持한다고 보았으며 死亡力 假定은 1985年 以後 2020년까지 出生時의 平均壽命 延長이 5~6歲 程度로 棼으로써 比較的 出生力이나 死亡力을 保守的인 立場에서 假定을 認定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 人口가 零의 成長年度를 앞당길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이 零의 成長率을 앞당기게 되면 當該年의 우리나라 人口는 5,000萬名 未滿이 될 것이다. 왜 이러한 可能性을 提示하느냐 하면 지난 數年間(1985~1990年)의 出產力 低下 추세나 死亡力 動向으로 보아 出產力이나 死亡力의 假定이 너무 保守的으로 假定된 것 같은 느낌이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988年의 合計 出產率이 이미 1.6 水準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反轉하여 더 높아질 소지는 없고 오히려 더 下降할 소지가 潛在하고 있기 때문이며 死亡力 역시 醫療保險의 全面的 實施 그리고 社會·經濟的 發展에 힘입어 平均壽命의 延長이 向後 30年間에 5~6歲보다는 더 길어질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結論的으로 人口變遷理論과 우리나라 人口成長을 照鑑해 볼때 1990年代 以後에는 小產·小死 形態를 이루어 人口成長率은 1% 以下の 低成長率을 示顯하다가 零의 成長 그리고 負의 成長率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깊이 考慮해야 할 問題는 “適正人口” 問題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人口는 一定時點에 어떤 規模이며 그 當時의 人口構造는 어떤 形態이고 나아가서 人口分布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對해 經濟, 社會, 文化 環境 等の 諸般側面에서 깊이 究明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適正人口의 論議는 人口變遷完了 以後의 出生·死亡 秩序에 影響을 줄 수 있는 人口政策 自體와 結付시켜 活潑히 展開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註

- 1) Kwon, T.H. et al., The Population of Korea,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y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 2)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最近人口動態 現況 吳 新人口 推計結果, 1988.

## 參 考 文 獻

- 孔世權 外,「韓國家族計劃事業—1961~1985」, 家族計劃研究院, 1981.
- 保健社會部, 家族保健事業, 參考資料, 1989.
- 韓國人口保健研究院,「最近의 人口政策動向과 展望 —第6次5個年 計劃을 中心으로—」, 1989.
- 韓英子,“韓國의 人口轉換速度와 人口構造變動”,「韓國人口學會誌」, 1989.
- 韓英子, 高甲錫,“韓國과 臺灣의 主要 社會指標 比較考察,”「韓國人口學會誌」, 9권, 2호, 1986.
- 韓國人口保健研究院,「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1987.
- Caldwell, John C, “Toward A Restatement of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 No 3~4, pp.321~366.
- Coale, A. J.,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considered,”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iege*, 1973, pp.53~72.
- Cassen, Robert, “Current Trends in Population Change and their caus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 No 2, June 1978, pp.331~353.
- Carlsson, Gosta, “The Decline of Fertility : Innovation or Adjustment Process,” *Population Studies* 20(2), Nov, 1966, pp.149~174.
- Dep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 1973, PP.58~63.
- Davis, K. and J. Blak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 No. 3, April, 1958.
- I. B. Taeuber, *The Population of Japan*, Princeton, New Jersey, 195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cfarquhar, Roderick, “The Post—Confucian Challenge,” *The Economist*,

Feb. 9, 1980, pp.67~72.

Peter N. Hess, *Population Growth and Socio-Economic Progres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 Determinant of Fertility Transition*, Prager Publishers, New York, 1988.

“Simons, John and Tim Dyson, “Some Recent Contributions to the Explanation of Fertility Decline in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 John’s College, Cambridge, 19~20, September, 1979.

United Nations, *Population by Sex and Age, The 1988 Revision*, 1989.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Estimated and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84*, 1986.



## 第2章 우리나라 婦人 出產類型의 變動

曹大熙\*

- I. 序論
- II. 出產類型과 出產力 모델
- III. 도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出產類型과 그 變動의 特性
- IV. Brass모델의 適用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出產力 變動의 特性
- V. 出產類型 變動의 展望

---

### I. 序 論

보통 天災地變이나 戰爭으로 인한 人命損失과 人口減少를 겪은 사회는 상당 기간 높은 出產力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아기풍년(Baby Boom)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停戰이 된 후 1960년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出產率을 보였다. 이때 태어난 소위 베이붐 世代는 지금은 出產力이 가장 旺盛한 20대 후반을 거의 끝내게 되었다. 그동안 出產力은 合計出產率 6에서 人口代置水準에도 훨씬 못 미치는 1.6으로 까지 감소되었으며 出生兒의 絕對數도 줄어들어 드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出產力의 격감은 당연히 出產類型(Age Pattern Of Fertility)의 변화도 수반하기 마련이다. 부인 자신의

---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人口研究室 責任研究員

생애주기(Life Cycle) 물론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가 크게 달라지고 이 영향은 사회 생활의 각 부분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인들의 出産類型上 특징은 늦게 시작하여(늦게 결혼하여) 서둘러 짧은 터울로 아이를 낳고 일찍 斷産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出産類型은 出産率이 저하하면서 형성된 것으로써 그 과정이 이웃나라 日本이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속도로 出産率의 저하를 체험하고 있는 臺灣과는 또다른 樣相을 나타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出産類型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살피는 중에 어떤 일관된 경향을 찾을 수 있다면 人口推計를 할 때 필요한 出産率 變動의 假定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우리나라의 出産力 變動과정을 日本과 臺灣의 그것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장래 우리나라 出産力 變動을 人口數學的으로 推定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出産類型과 出産力 모델

出産類型(Marriage Pattern)은 주어진 한 인구의 出産力의 年齡分布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수준에서 볼때 出産速度 혹은 터울과 出産期間에 관계된다. 인구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出産類型도 모델생명표에서와 같이 어떤 수학적 兩數로 표현되는 標準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인구의 出産類型은 이 標準이 되는 函數의 變換(Transformation)으로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착안하고 몇가지 안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Coale Trussel Model과 Brass의 Relational Gompertz Fertility Model이 그것이다. UN의 MANUAL X(United Nations, 1983)에 이 두가지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Coale – Trussell Model

Louis Henry(1961)는 출산의 自發的인 調節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곳의 結婚關係 안에서 일어나는 출산(配偶出產)의 연령별 분포가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가 말하는 자발적인 출산의 조절이란 出産力(出産力은 출산아가 늘어남에 따라 변하게 된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그는 자발적인 출산조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인구에서 觀察된 出産力을 ‘自然 出産力’(Natural Fertility),  $h(x)$ 라고 명명하였다. 물론 출산조절이 없는 사회의 出産力  $h(x)$ 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年齡構造가 같다는 것이 그 水準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보건상태나 모유수유 그 밖에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1974년 Coale과 Trussell(1974)은 이 自然出産力  $h(x)$ 를 확장시켜 출산조절이 행하여지는 인구의 出産力까지도 나타내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配偶出産力이 自然出産力을 따르거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自然出産力과 일정한 유형의 차이를 가지고 변하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x$ 세 에서의 配偶出産力  $\phi(x)$ 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1)과 같다.

$$\phi(x) = Mh(x)\delta(x) \dots\dots\dots (1)$$

여기서  $M$ 은 출산조절이 없는 상태에서의 出産力(自然出産)의 수준을 나타내는 係數(Parameter)이고,  $\delta(x)$ 는 연령  $x$ 의 함수로 자발적인 출산조절이 이뤄질때 自然出産力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낸다. Coale과 Trussell은 몇개의 인구로부터  $\delta(x)$ 을 다음 (2)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elta(x) = dxp(m\nu(x)) \dots\dots\dots (2)$$

이 관계식에서  $\nu(x)$  함수는 모든 인구의 出産力에서나 거의 동일한 값

을 보이고 계수  $m$ 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들은 위의  $\nu(x)$ 를 인위적인 출산조절을 실시할 때 어느 인구에서나 동일하게 보여주는 自然出產力과의 類型兩數로,  $m$ 을 그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보았다. 위의 식 (1)과 (2)에서 (3)을 유도해 낼 수 있다.

$$\phi(i) = Mh(i)\exp(m\nu(i)) \dots\dots\dots (3)$$

위 식에서 식 (1)과 (2)의 연령을 나타내는  $x$ 가  $i$ 로 대치되었는데 이것은 出產力은 일반적으로 5세 간격으로 구하기 때문에 각 함수를 5세 간격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연령 계급별  $h(i)$ 과  $\nu(i)$ 을 보면 <表1> 과 같다.

<表 1> 연령 계급별 自然出產力 標準類型과 실제와의 차이

年 齡 階 級	i 값	自然出產力	自然出產力과의 차이
		h(i)	$\nu(i)$
15-19	1	0.411	0.000
20-24	2	0.460	0.000
25-29	3	0.431	-0.279
30-34	4	0.395	-0.667
35-39	5	0.322	-1.042
40-44	6	0.167	-1.414
45-49	7	0.024	-1.671

이 모델은 어떤 인구의 出產力에나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Coale과 Trussell은 두개의 계수  $M$ 과  $m$ 을 구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식 (4) 및 (5)와 같다.

$$M = \phi(2)/h(2) \dots\dots\dots (4)$$

$$m = 0.2 \sum_{i=3}^7 [\phi(i)/Mh(i)]/\nu(i) \dots\dots\dots (5)$$

두번째 방법은 수식 (3)을 다음식 (6)으로 바꿔 最少自乘法을 써서 M 과 m을 추정하는 것이다. Coale과 Trussell는 이 最少自乘法을 써서 係數 (Parameter)를 구하도록 권장하는데 이 경우 15-19세 연령 계급과 45-49세 연령계급은 제외시키도록 제의하고 있다.

$$\ln(\phi(i)/h(i)) = \ln(M) + m\nu(i) \dots\dots\dots (6)$$

Coale와 Trussell의 모델에서는 配偶出産力을 다루기 때문에 一般出産力을 계산하려면 별도의 婚姻力(Nuptiality)모델이 필요하다. 이 모델 혼인력 함수를 G(x)로 표시한다면 出産力 f(x)는 식 (7)과 같이 된다.

$$f(x) = G(x)\phi(x) \dots\dots\dots (7)$$

이 식 (7)에서 G(x)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개의 係數의 추정이 요청되기 때문에 Coale등의 방식은 매우 번거롭고 자칫 계산상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비해서 Brass의 방식은 훨씬 간편하다.

## 2. Brass의 Relational Gompertz Fertility Model

Brass(1978)는 Coale-Trussell의 모델에서 年齡別出産力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계수(Parameter)의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標準 出産力曲線”(Standard Fertility Schedule)과 실재하는 出産力曲線 間的 관계에서 찾아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F(x)를 x세까지의 累積出産力의 比率 F(x)/TF가 고펜르츠 分布函數 (Gompertz Distribution Function)를 따른다고 보았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식 (8)과 같다.

$$F(X)/TF = \exp(A \exp(Bx)) \dots\dots\dots (8)$$

여기서 A와 B는 常數이고 A는 0보다 크다. 이 수식을 두번 반복해서 自然代數를 취하여 연령 x에 대한 線型函數로 표현할 수 있는게 각각 (9), (10)과 같다.

$$\ln(F(x)/TF) = A \exp(Bx) \dots\dots\dots (9)$$

$$\ln(-\ln(F(x)/TF)) = \ln(-A) + Bx. \dots\dots\dots (10)$$

위 식 (10) 자연대수를 취할 수 앞에 반드시 -부호가 붙어야 한다. 왜냐하면 식 (9)에서 F(x)/TF는 1보다 작고 이것의 代數를 취하면 陰數가 되는데 陰數의 代數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식 (10)의 좌변  $\ln(-\ln(F(x)/TF))$ 를 F(x)의  $\eta$ 變換이라 하고  $\eta(F(x))$ 로 표시한다면 식 (10)은 식 (11)과 같이 된다.

$$\eta(F(x)) = \ln(-A) + Bx \dots\dots\dots (11)$$

$\eta(F(x))$ 가 연령의 線型函數로서 표현되는 이 모델은 관찰된 중간 연령층에서는 F(x)/TF에 매우 근접하지만 양 극단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Brass는 연령 x를 연령 x의 함수인 특정 標準出產力의  $\eta$ 變換으로 置換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견에 따라 방정식 (11)을 (12)로 표현할 수 있다.

$$\eta(F(x)) = \alpha + \beta\eta(Fs(x)) \dots\dots\dots (12)$$

여기서 觀察된 出產力의  $\eta$ 변환은 標準出產力의  $\eta$ 變換의 線型函數이다. 이것은 Brass 자신이 이미 제안한 로질 생명표체계(Logit Life Table System)와 매우 흡사하다. Logit 모델 生命表의 경우에는  $\alpha$ 와  $\beta$  두 계수가 각각 死亡力의 水準과 高低年齡層 間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비해서 식 (12)에서는 각각 출산곡선의 위치, 다른 말로 하면 平均出產年齡과 出產 集中程度 혹은 分散度로 해석된다.

Brass는 Coale-Trussell의 모델로 부터 하나의 出産分布曲線을 골라 標準出産力으로 정하였는데 이 標準出産力의 각 연령 각세별  $\eta$  變換值를 보면 <表2> 와 같다.

<表 2> 標準出産力의 연령 각세별  $\eta$  變換值

年 齡 (x)	$\eta$ 變換值	年 齡 (x)	$\eta$ 變換值
11	3.18852	31	-0.84272
12	2.70008	32	-0.99014
13	2.37262	33	-1.14407
14	2.07262	34	-1.30627
15	1.77306	35	-1.47872
16	1.49286	36	-1.66426
17	1.25061	37	-1.86597
18	1.04479	38	-2.08894
19	0.85297	39	-2.33192
20	0.69130	40	-2.62602
21	0.53325	41	-2.95500
22	0.38524	42	-3.32873
23	0.24423	43	-3.75984
24	0.10783	44	-4.25499
25	-0.02564	45	-4.80970
26	-0.15853	46	-5.41311
27	-0.29147	47	-6.12864
28	-0.42515	48	-7.07022
29	-0.56101	49	-8.64839
30	-0.70000	-	-

이 Brass Model은 Coale-Trussell이 고안한 모델에 비해 훨씬 사용이 간편하고 시뮬레이션이나 推計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 III. 圖表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出產類型과 그 變動의 特性

우리나라에서 出產力 분야의 연구는 그 정책상의 중요성 때문에 인구연구의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出產力 연구는 그동안 出產率과 社會經濟的 變數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왔다. 따라서 出產力의 추정을 위한 조사나 分析作業이 꾸준히 이뤄짐으로써 이 방면의 통계는 다른 인구 동태 통계에 비해 착실하게 축적되어 왔다. 出產力의 추정은 다른 人口動態율과 마찬가지로 申告資料를 이용하여 直接 計算하는 방법, 센서스 등의 2차적 資料로 부터 間接 推定하는 방법, 目標調査 結果로 推定하는 방법, 그리고 이상 세 가지 방법들을 조합, 절충하여 추정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이상적인 것이 申告資料를 사용하여 出產力을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고의 漏落과 遲延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동태율을 계산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그 計算過程에서 상당부분 間接推定과 자료의 補整作業을 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出產率 推定の 主流을 이뤘은 標本調査에 의한 추정은 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전신인 家族計劃研究院, 人口保健研究院이 담당하여 왔다.

이 조사자료는 그안에 포함된 질문(변수)의 다양성 때문에 많은 인구전문가들에게 資料銀行의 구실을 해왔다. 이 경우 표본조사구에서 발견되는 부인들로 부터 얻어 낸 出產力 情報를 이용하여 연령별 出產力을 계산하여 왔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 標本檢査 結果에 間接推定法을 적용하여 出產率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出產率을 추정하는데 嫡生兒法(Own Children Method)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 경우 센서스보고서 제3권(出產力) 중 15세 이상 부인의 年齡別 平均出生子女數를 이용하여 왔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

는 다른 간접추정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變動趨勢나 연령분포가 매끄럽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그 계산과정에 標準化와 平滑의 수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하는 기복을 지나치게 平滑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상 여러가지 出產力 통계중 어느 것을 이 분석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년도의 出產率을 계산해 놓은 것이 없는데다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출산률을 이으려 할 때 變動趨勢의 一貫性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사용할 出產率 統計를 선정함에 있어 가능한 間接推定에 의한 出產率을 빼면서 되도록 많은 資料點(Data Point)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表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함께 제시된 <表 4>와 <表 5>는 각각 日本과 臺灣의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년도별 연령별 出產率이다.

出產類型的 변화를 살피기 앞서 出產水準의 변화를 日本 및 臺灣과 비교하여 보면 <圖 1>과 같다. 이 圖表에서 볼 수 있는것과 같이 우리나라와 臺灣은 아주 비슷한 속도로 合計 出產力이 감소하여 왔다. 出產率의 變動曲線을 보면 日本이 가장 매끄럽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가장 起伏이 심하며 臺灣은 中間形態이나 日本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차이는 日本과 臺灣의 出產率은 申告에 의해 收集된 原資料를 사용하여 계산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 대 이후를 제외하고는 표본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표본조사가 갖는 한계성이 들어난 것이라 하겠다. 日本의 出產率이 1966년을 제외하고 별다른 屈曲이 없는 이유를 出產이 出產計劃에 의해 이뤄지며 이 出產計劃이 外部의 與件變化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安定되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臺灣의 出產率이 日本의 것보다 약간 屈曲이 진 것도 이런 점에 비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起伏이 매우 심하기는 하지만 減少 速度가 臺灣과

〈表 3〉 1960년 - 1988年間 우리나라의 出産率 變動趨勢

年度	年齡別 出産率							TFR
	15-19	20-24	25-30	30-34	35-39	40-44	45-49	
1960 <sup>1)</sup>	34	254	359	300	230	114	17	6.540
1961 <sup>1)</sup>	28	245	317	254	212	133	16	6.025
1962 <sup>1)</sup>	17	229	313	277	200	76	13	5.816
1963 <sup>1)</sup>	15	226	329	273	208	105	17	6.075
1964 <sup>1)</sup>	29	198	304	246	159	78	14	5.303
1965 <sup>1)</sup>	18	187	291	322	132	58	9	4.674
1966 <sup>1)</sup>	21	201	328	217	178	78	7	5.145
1967 <sup>1)</sup>	12	174	277	221	132	52	6	4.368
1968 <sup>1)</sup>	11	196	333	204	156	49	6	4.768
1969 <sup>1)</sup>	13	186	315	243	107	53	1	4.599
1970 <sup>1)</sup>	9	177	309	196	105	47	17	4.299
1971 <sup>1)</sup>	6	188	341	234	124	41	3	4.684
1972 <sup>2)</sup>	10	146	301	220	88	19	3	3.935
1973 <sup>3)</sup>	11	159	276	164	74	29	3	3.580
1975 <sup>4)</sup>	10	147	275	142	49	18	1	3.210
1977 <sup>5)</sup>	6	134	244	119	29	13	0	2.725
1980 <sup>6)</sup>	8	168	263	93	24	5	0	2.805
1981 <sup>7)</sup>	12	161	245	94	23	3	0	2.690
1984 <sup>8)</sup>	7	162	187	52	8	1	0	2.085
1985 <sup>6)</sup>	9	119	162	40	8	2	0.4	1.702
1986 <sup>6)</sup>	8	109	167	39	7	2	0.4	1.662
1987 <sup>9)</sup>	3	104	168	39	6	3	0	1.615
1988 <sup>6)</sup>	5	94	173	42	7	1	0	1.610

- 자료 : 1) 文顯相 外, 出産力과 家族計劃, 家族計劃研究院, 1972  
 2) 宋建庸 外,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査 報告書, 家族計劃研究院, 1973  
 3)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년 韓國出産力調査報告, 1977.  
 4) 朴炳台 外, 1976년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5) 卞鍾和 外, 1978년 家族計劃 및 出産力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9  
 6)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人口動態申告結果 및 將來人口推移, 1989.  
 7) 文顯相 外, 1982년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8) 曹大熙 外, 1985년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 韓國人口 保健研究院, 1986  
 9) 文顯相 外, 1988년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4〉 1930-88年間 日本の 出生率 變動趨勢

年度	年齢別 出生率							TFR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30	31.5	200.6	249.1	217.4	163.4	71.8	7.9	4.709
1947	14.9	167.6	270.3	234.9	157.3	56.9	5.3	4.541
1948	17.6	183.0	257.2	211.4	148.1	58.4	4.5	4.399
1949	16.1	181.3	266.7	213.3	134.6	48.7	3.2	4.315
1950	13.3	161.5	237.8	175.7	104.9	36.1	2.1	3.650
1951	10.7	141.9	217.7	162.2	90.0	28.8	1.5	3.262
1952	8.8	130.8	206.1	148.3	77.3	23.1	1.3	2.976
1953	7.4	121.4	192.9	132.7	65.5	18.3	1.1	2.694
1954	6.5	114.6	182.6	119.9	56.9	15.0	0.9	2.481
1955	5.9	112.0	181.5	112.8	49.7	12.7	0.7	2.369
1956	5.1	107.4	177.2	101.3	43.5	10.7	0.6	2.223
1957	4.4	99.8	170.4	90.3	35.8	8.4	0.5	2.043
1958	4.0	107.0	182.1	89.5	32.7	7.5	0.4	2.110
1959	4.1	107.8	179.8	84.0	28.3	6.5	0.4	2.039
1960	4.3	107.2	181.9	80.1	24.0	5.2	0.3	2.004
1961	4.4	101.1	182.4	78.5	21.0	4.5	0.3	1.961
1962	4.1	100.3	186.6	78.1	19.1	3.9	0.3	1.976
1963	3.8	98.7	192.0	81.1	18.8	3.5	0.2	2.005
1964	3.3	102.7	196.6	83.0	18.7	3.2	0.2	2.049
1965	3.3	113.0	204.2	86.8	19.4	3.1	0.2	2.139
1966	3.6	91.3	145.2	62.3	16.1	2.7	0.2	1.578
1967	4.3	109.4	218.3	91.7	20.1	2.8	0.1	2.226
1968	4.3	99.1	207.6	87.8	20.1	2.7	0.2	2.134
1969	4.4	92.9	206.9	86.5	20.2	2.7	0.2	2.131
1970	4.5	96.6	209.3	86.0	19.8	2.7	0.2	2.135
1971	4.6	106.9	212.3	87.8	19.7	2.7	0.2	2.157
1972	4.9	115.6	205.4	87.4	19.0	2.7	0.1	2.142
1973	5.0	117.5	206.7	86.9	188.8	2.6	0.1	2.140
1974	4.7	115.5	200.9	79.5	16.9	2.4	0.1	2.049
1975	4.1	107.0	190.1	69.6	15.0	2.1	0.1	1.909
1976	3.7	99.9	184.5	65.9	14.2	2.0	0.1	1.852
1977	3.4	92.3	183.2	67.5	14.0	1.9	0.1	1.801
1978	3.5	86.3	184.7	71.9	13.7	1.8	0.1	1.792
1979	3.5	80.8	184.6	74.3	13.2	1.6	0.1	1.769
1980	3.7	77.0	181.2	72.9	12.9	1.7	0.1	1.744
1981	3.9	73.5	180.6	71.7	13.1	1.7	0.1	1.723
1982	4.1	71.6	184.1	74.8	14.4	1.8	0.1	1.755
1983	4.4	70.8	185.1	79.0	16.2	1.8	0.1	1.787
1984	4.5	67.6	184.1	83.4	17.7	1.9	0.1	1.797
1985	4.1	61.8	177.9	85.5	17.6	1.8	0.1	1.744
1986	3.6	51.4	159.3	92.8	18.7	2.3	0.1	1.641
1987	3.7	55.2	165.8	90.1	17.8	1.9	0.1	1.673
1988	3.6	51.4	159.3	92.8	18.7	2.3	0.1	1.641

資料：日本 厚生省，人口統計資料集，1982-1989年

日本 厚生省，人口問題研究，第 157號. p.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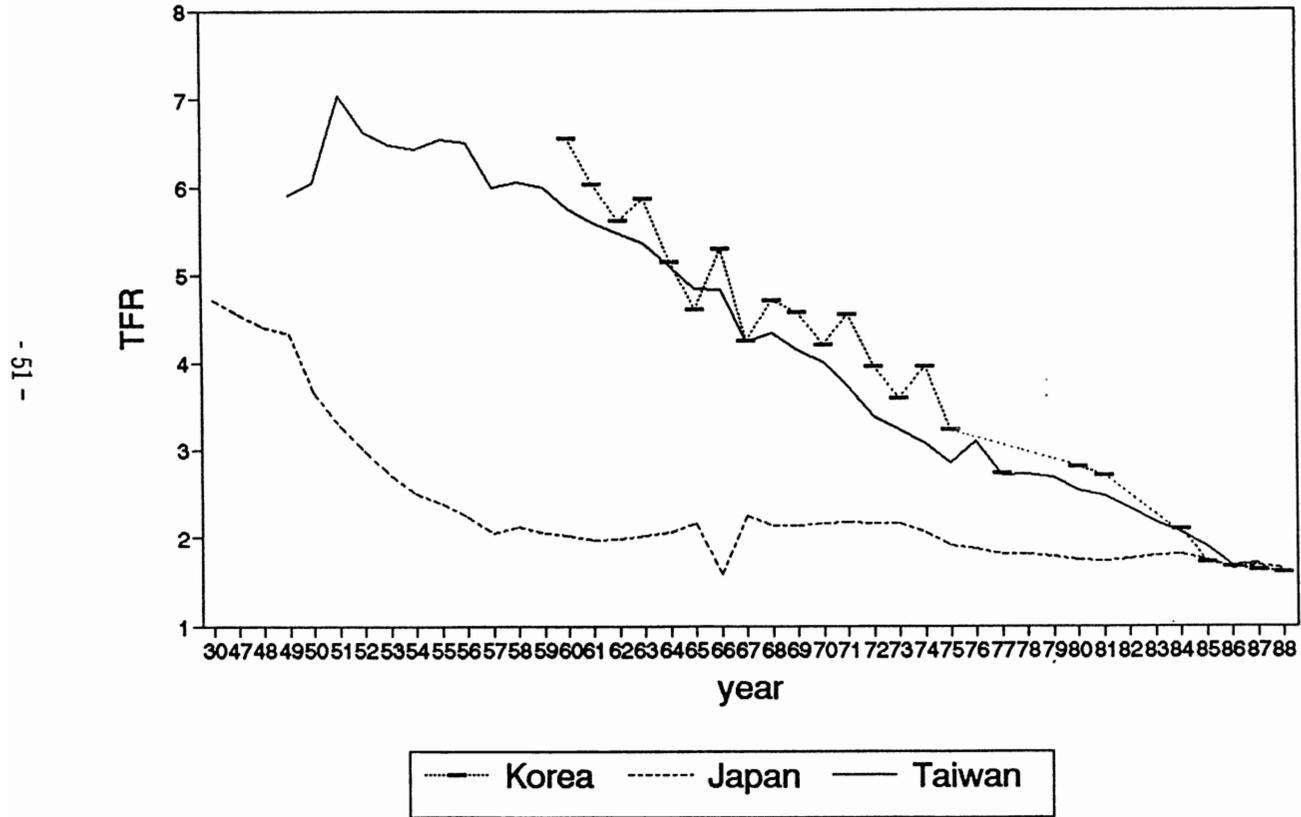
〈表 5〉 1949—88年間 臺灣의 出産率 變動趨勢

年度	年齡別 出産率							TFR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49	61	241	290	264	186	111	27	5.900
1950	61	246	297	269	191	112	30	6.030
1951	68	287	350	311	226	132	34	7.404
1952	53	272	342	294	220	113	29	6.615
1953	48	265	336	292	218	108	27	6.470
1954	48	263	334	292	218	104	26	6.425
1955	50	273	341	295	219	103	25	6.530
1956	51	264	340	296	222	105	23	6.505
1957	45	249	325	295	197	92	17	6.000
1958	43	248	336	281	199	90	14	6.055
1959	46	258	334	270	190	86	14	5.990
1960	48	253	333	255	169	79	13	5.750
1961	45	248	342	245	156	71	10	5.585
1962	45	255	338	235	145	65	10	5.465
1963	41	252	337	231	139	60	10	5.350
1964	37	254	335	214	120	52	8	5.100
1965	36	261	326	195	100	42	6	4.825
1966	40	274	326	188	91	38	6	4.815
1967	39	250	295	158	70	28	4	4.220
1968	41	256	309	161	68	26	4	4.325
1969	40	245	298	151	63	23	4	4.120
1970	40	238	293	147	59	20	3	4.000
1971	36	224	277	134	51	16	3	3.705
1972	35	208	257	117	41	13	2	3.365
1973	33	203	250	105	37	12	2	3.210
1974	34	197	235	96	35	10	2	3.045
1975	37	194	215	83	27	8	2	2.830
1976	38	213	240	87	28	8	1	3.075
1977	37	194	206	73	23	6	1	2.700
1978	36	194	213	73	20	5	1	2.710
1979	35	194	209	72	18	4	0	2.660
1980	33	180	200	69	16	4	1	2.515
1981	31	176	197	69	14	3	1	2.455
1982	29	166	186	66	14	3	0	2.320
1983	26	154	174	62	13	2	0	2.155
1984	23	144	168	60	13	2	0	2.050
1985	20	129	158	56	12	2	0	1.885
1986	18	112	139	52	12	2	0	1.675
1987	16	109	147	54	12	2	0	1.700

자료 : 臺灣省政府 民政廳, 臺灣人口統計, 1970—1988.

〈圖 1〉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합계 출산율 변동추세

TRENDS OF 2 TOTAL FERTILITY CHANGES KOREA, JANPAN and TALWAN



매우 비슷하다. 日本은 合計出産率이 終戰이후 10년도 못되어 代置水準에 도달하였지만 우리나라와 臺灣은 전쟁이 끝난 후(우리나라는 6·25동란, 臺灣은 國共內戰)의 베이비붐에서 대치수준에 이르는데 20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였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이 감소곡선의 형태가 日本의 灣曲線과 다른 直選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臺灣의 類似性を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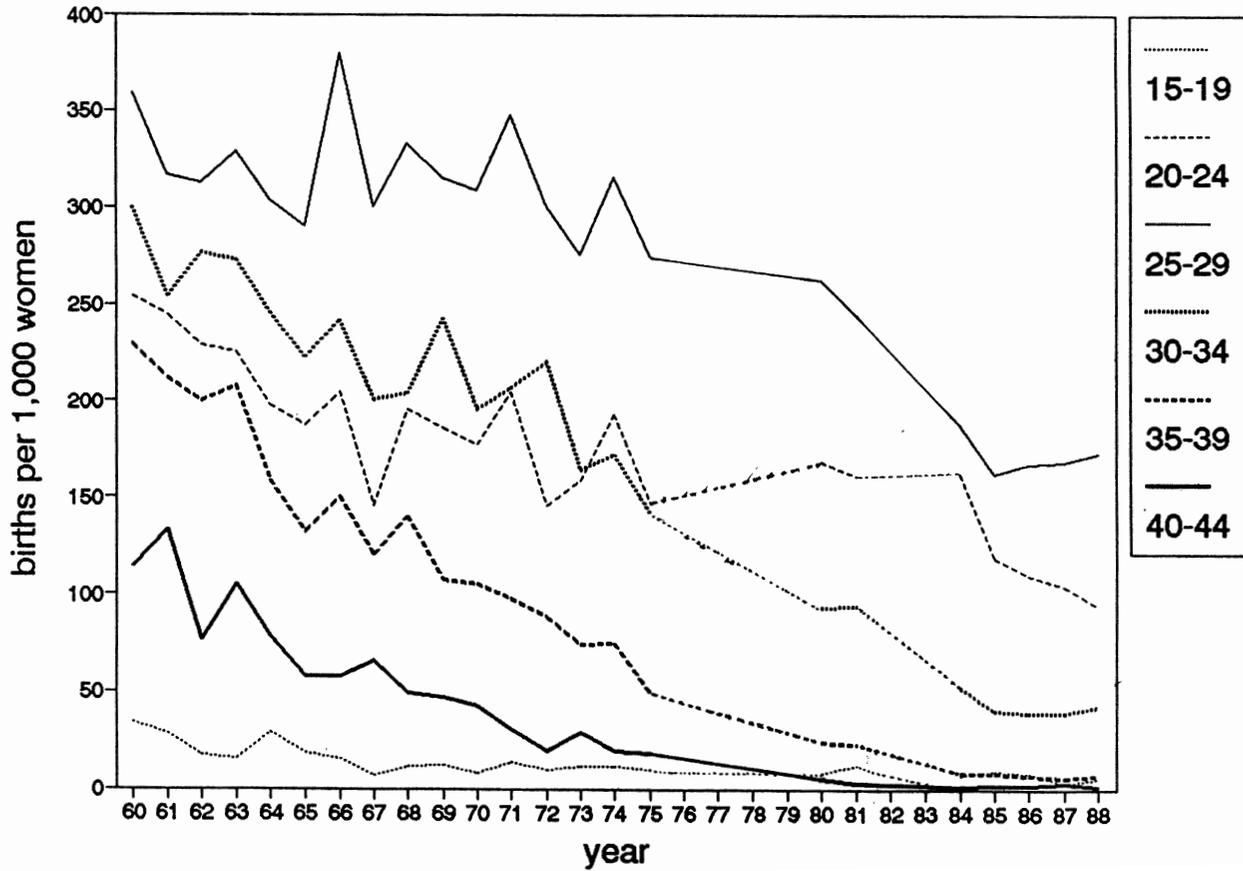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合計出産率의 감소가 주로 어느 연령층에 의해서 인가를 살펴 보기 위해 각연령별 사망율의 연도별 變動狀況을 도표로 표시하면 <圖 2>와 같다. 여기서 각 연령별 出産率의 變動은 合計出産力에서 보다 더 심한 굴곡을 보이고 있다.

1960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그 절대치나 비율 면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35-39세의 出産率로서 거의 20분의 1로 떨어졌다. 40세 이상에서 출산하는 부인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도표만 보아도 우리나라 부인의 출산행태와 유형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出産類型의 변화는 출산의 연령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좋다. 몇개 주요 연도의 出産分布를 겹쳐 국가별로 따로 그려본 것이 <圖 3-1>, <圖 3-2>, <圖 3-3>이다. 이 도표는 出産類型의 변화 뿐만 아니고 出産類型의 특성도 잘 보여준다.

위의 <圖 3-1>에서 分布曲線의 아래 쪽과 X축 사이에 있는 면적이 出産力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때, 25-29세를 중심으로 좌측에서 보다 우측에서 감소된 면적이 월등 넓은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出産力 減少의 대부분이 30세 이상 高年齡層의 出産率 감소, 다시 말해서 早期斷産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 부인들의 대부분이 斷産을 목적으로 避妊을 실시하며 주로 不妊手術에 의존하고 있다는 傾向과 합치된다. 多出産時期의 出産分布曲線은 25-29세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이 비슷한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왔는데 高年齡層의 出産率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짐에 따라 오른쪽에서 찌그러진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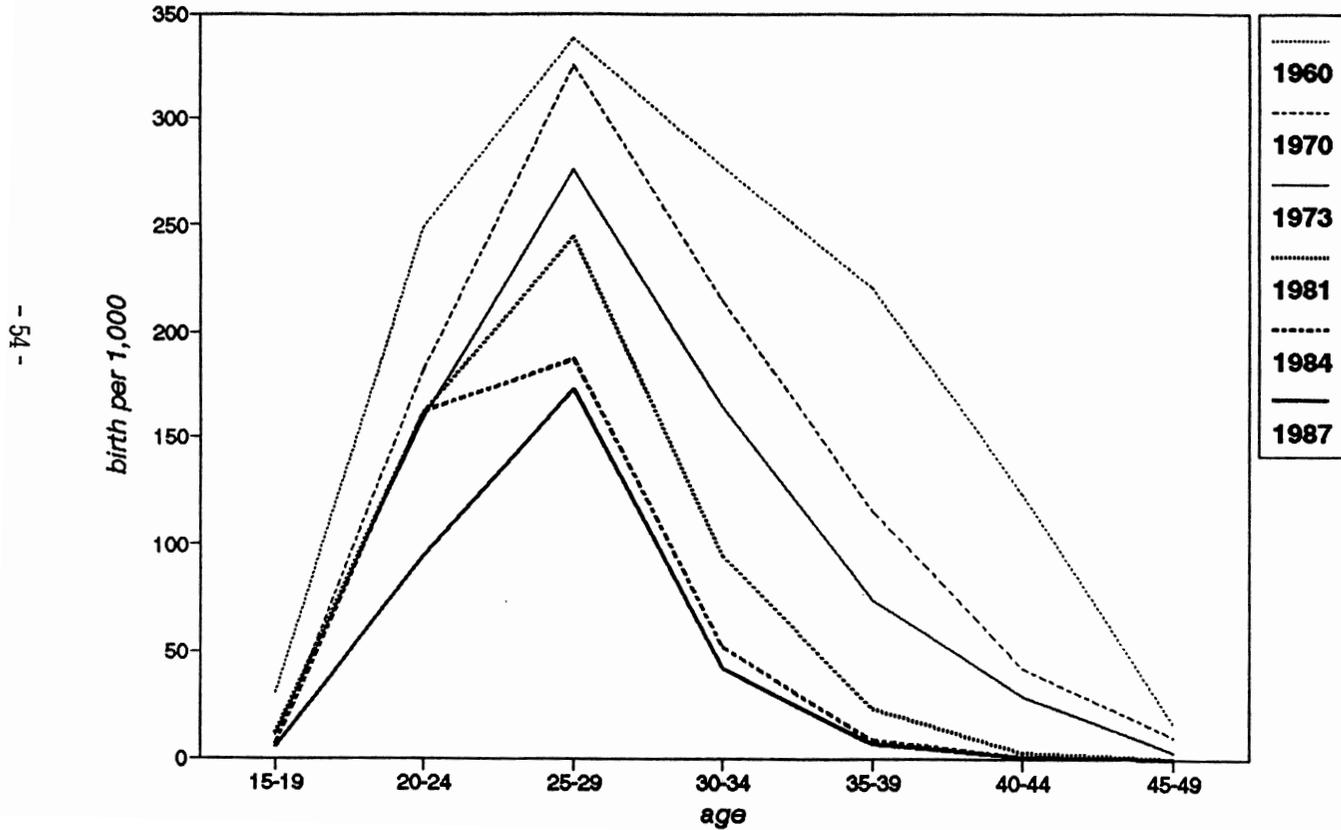
〈圖2〉 우리나라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추세

TRENDS OF ASFR CHANGE FOR KOREAN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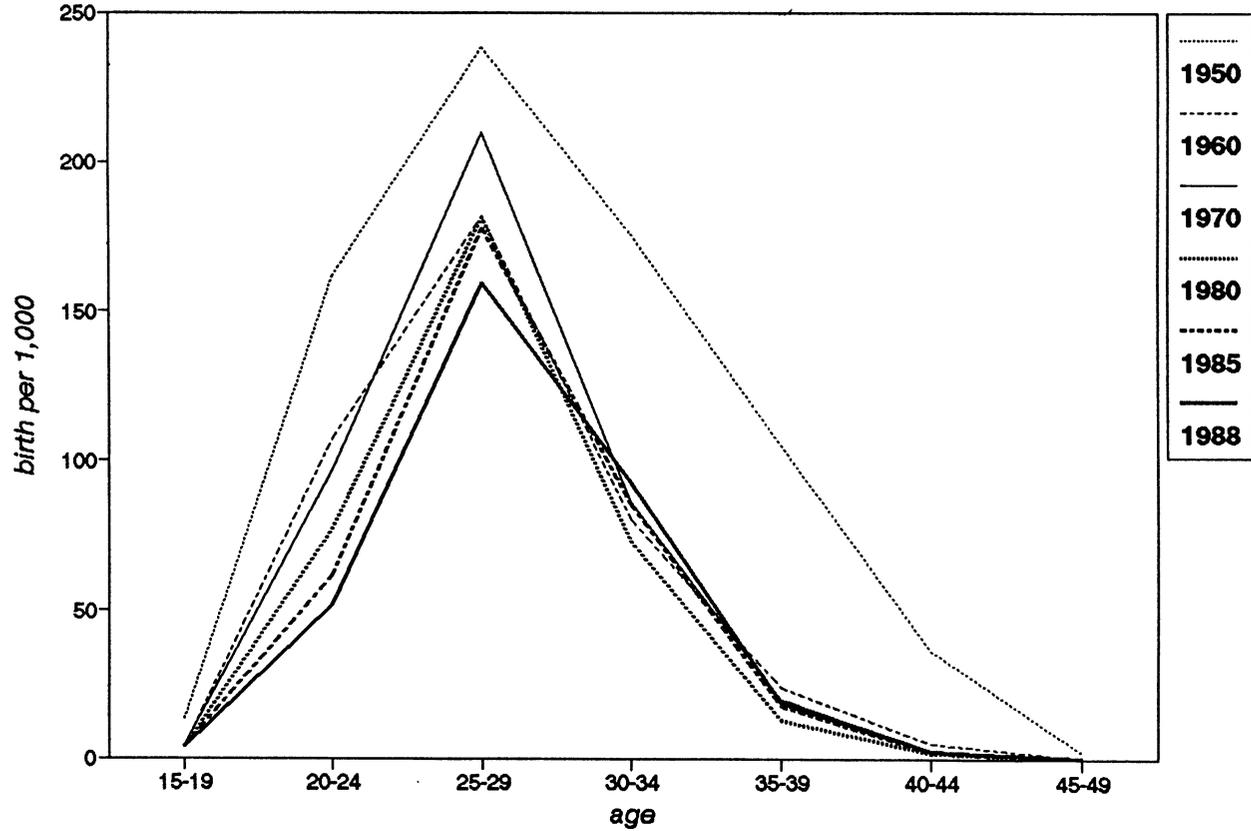
〈圖 3-1〉 우리나라의 출산유형 변동

PATTERN OF FERTILITY DECLINE Korea, 1960-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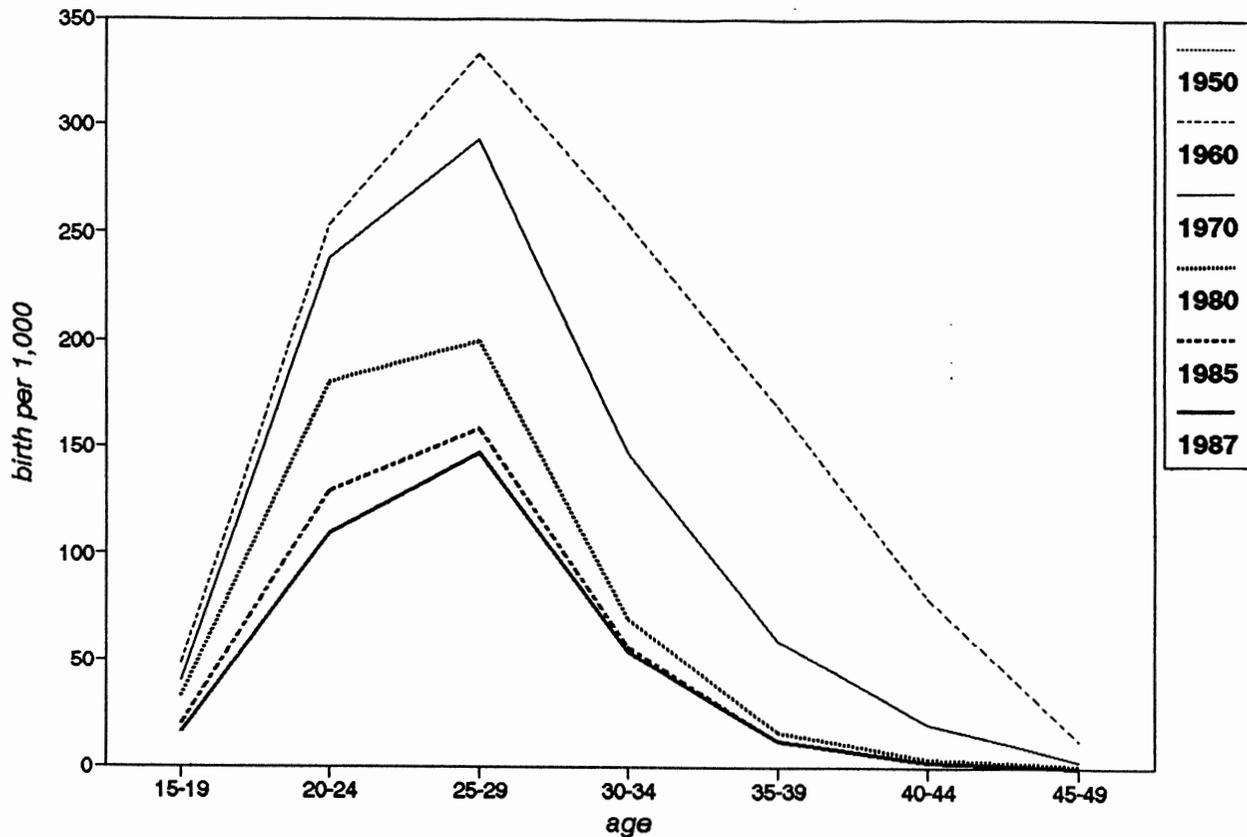
〈圖 3-2〉 일본의 출산유형 변동

PATTERN OF FERTILITY DECLINE Japan, 1950-1988



〈圖 3-3〉 대만의 출산유형 변동

PATTERN OF FERTILITY DECLINE Taiwan, 1950 - 1987



이런 점에서 日本은 出産力의 감소가 全 年齡層에서 균형을 이루며 감소하여 온 것을 보여준다. <圖 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出産分布曲線의 형태가 出産力이 높았던 1950년대나 현재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30-39세 부인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르러 出産率이 다시 높아지기까지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臺灣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면서 出産分布曲線이 變貌해온 것으로 보인다. <圖 3-3>에서 臺灣은 高出産時期에도 다른 두 나라에 비해 高年齡層의 出産率이 낮은 반면 15-24세의 低年齡層의 出産率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臺灣의 出産率이 低年齡層에서 비교적 높은 것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初婚年齡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 나라 간 出産年齡分布上的 差異는 동일한 出産水準에 있을 때의 出産分布曲線을 겹쳐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圖 4-1>부터 <圖 4-4>는 4개의 出産水準에서 세 出産力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出産力이 아주 높을 때(TFR=6) 우리나라와 臺灣의 出産曲線은 거의 일치하였지만(이 때의 出産力은 自然出産力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出産力이 점점 떨어지면서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出産力水準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는 臺灣에 비해 低年齡層의 出産率이 낮고 29-29 연령층에 集中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왔다는 점이다. 日本은 우리나라나 臺灣에 비해 더 均衡的이고 또 變化의 樣相이 安定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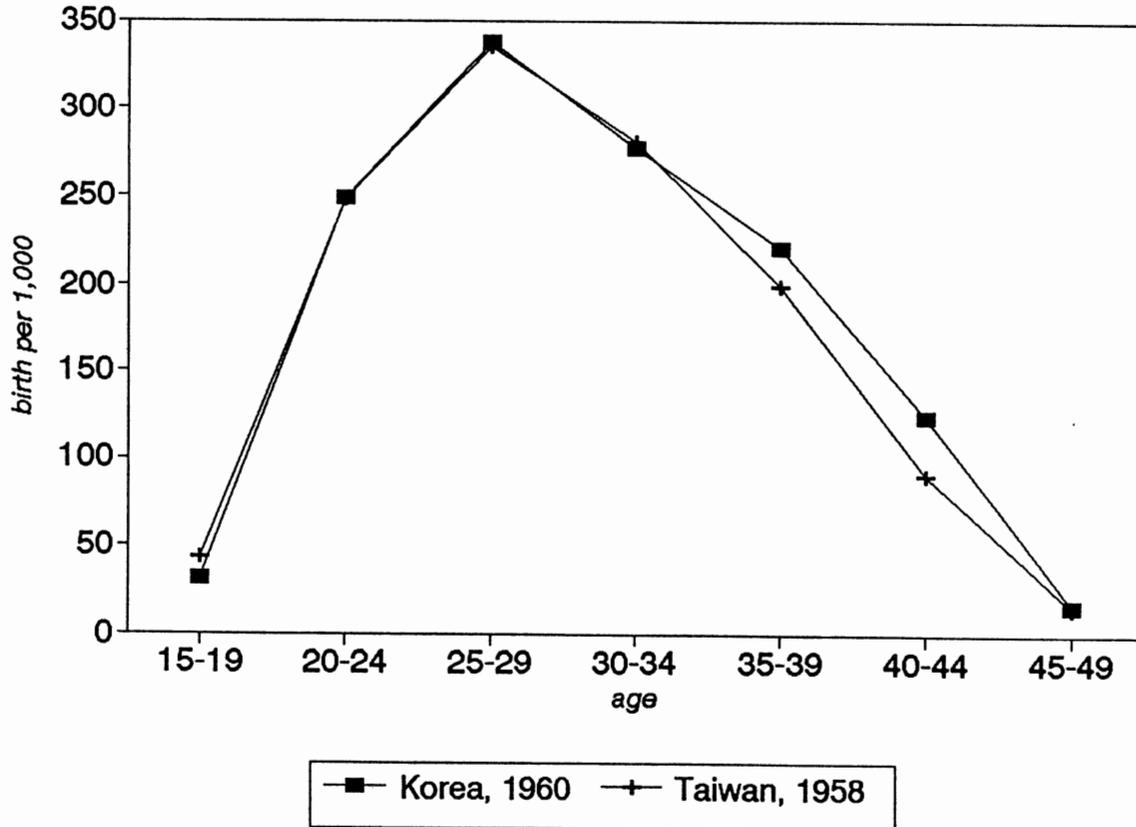
이 출산의 年齡分布曲線에서 양쪽의 面積이 같도록 자른 수직선의 X座標값이 平均出産年齡인데 우리나라는 一貫되어 日本과 臺灣의 中間값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平均出産年齡은 人口成長의 速度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같은 出産水準에 있는 인구라 할지라도 平均出産年齡이 낮으면 낮을수록 世代交替가 빨라지고 따라서 人口增加가 높아진다. 極端的인 假想的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世代交替의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일정기간중 出生者數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合計出產率 1.6과 日本의 1.6은 人口成長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出產力 調節政策에 考慮해야 할 점 중의 하나로서 出產速度와 이에 관련된 사항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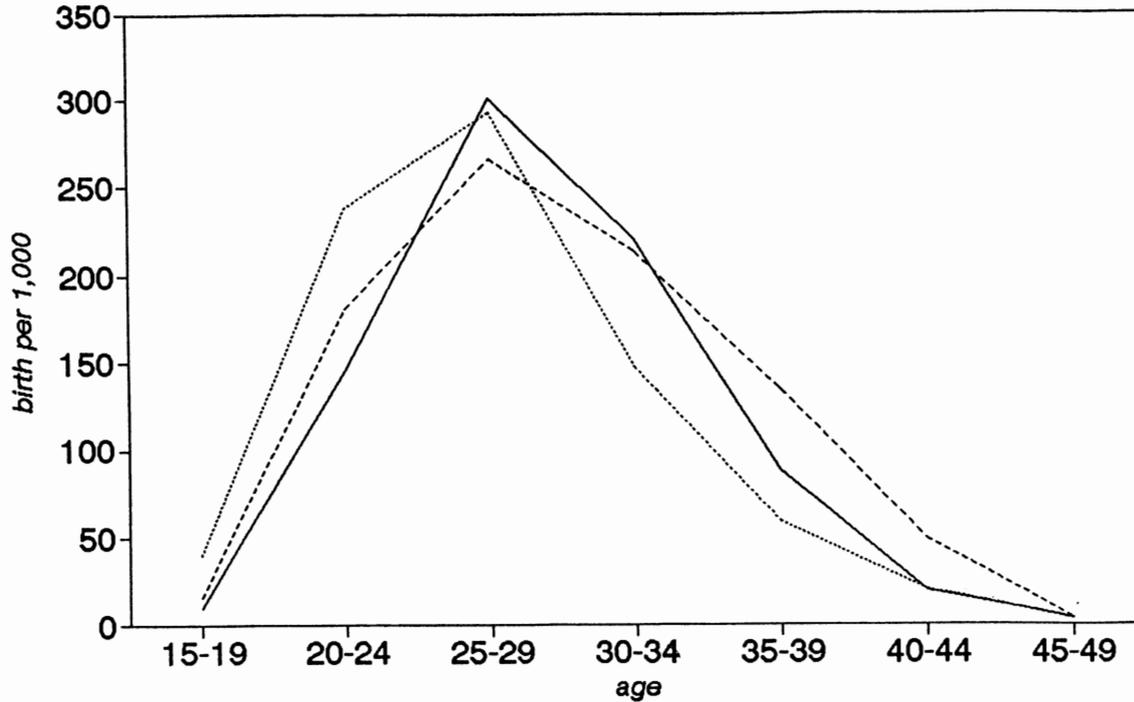
〈圖 4-1〉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 ≃ 6)

AGE PATTERN OF TWO FERTILITIES Korea and Taiwan, TFR is about 6



〈圖 4-2〉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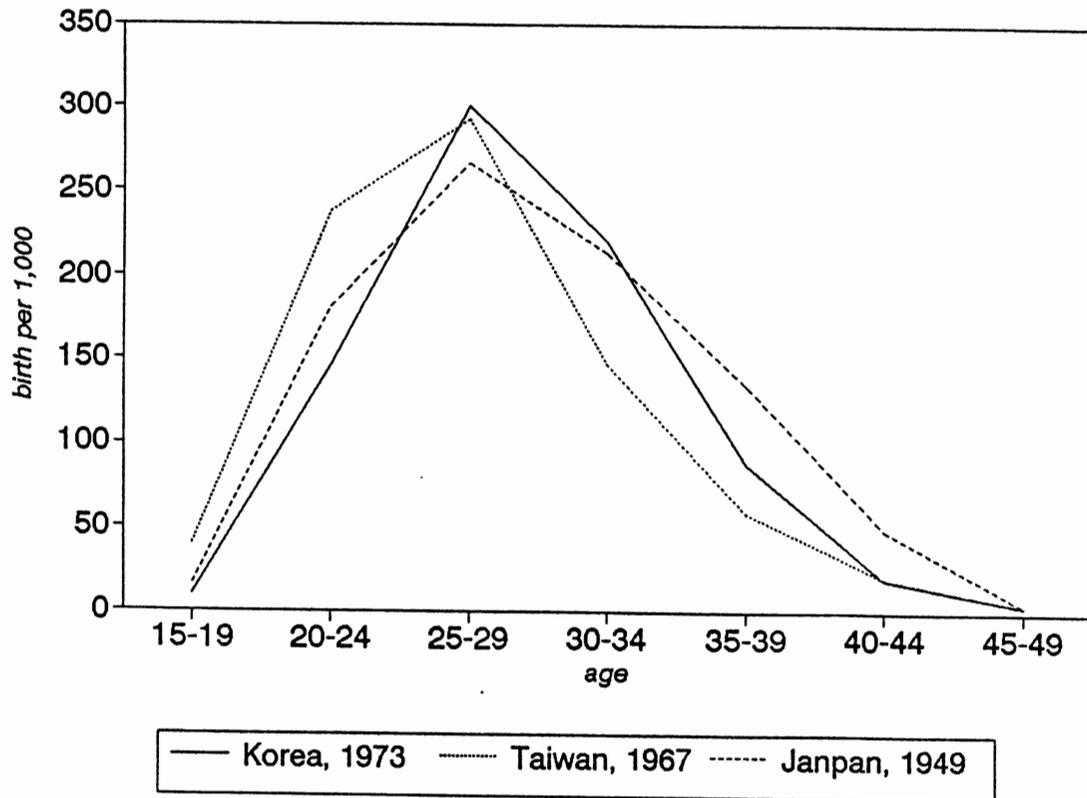
AGE PATTERN OF THREE FERTILITIES When TFR are about 4.8



— Korea, 1973    ..... Taiwan, 1967    - - - - - Japan,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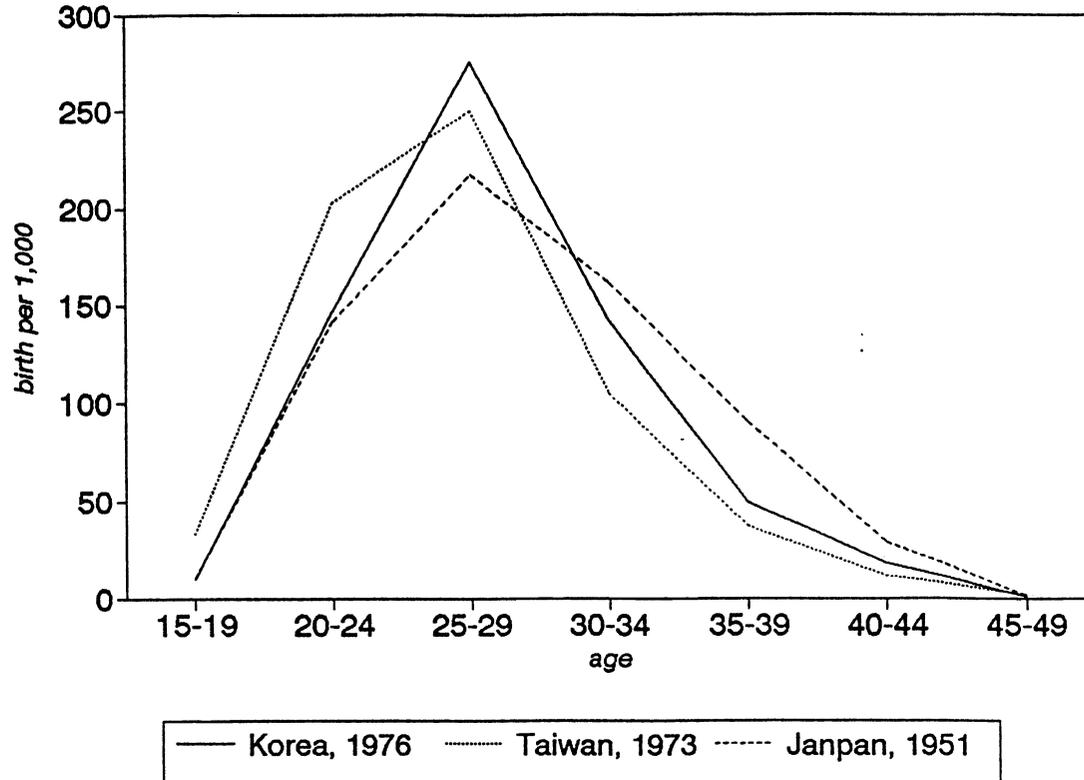
〈圖 4-3〉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4.0)

AGE PATTERN OF THREE FERTILITIES When TFR are about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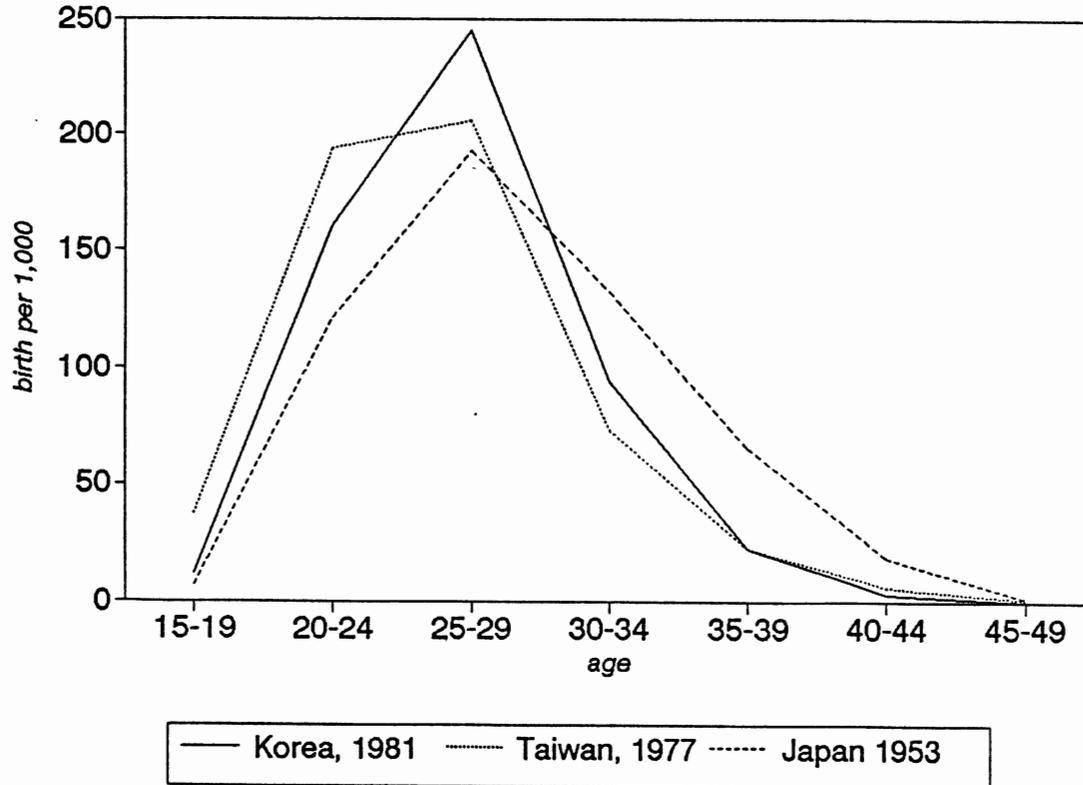
〈圖 4-4〉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3.2)

AGE PATTERN OF THREE FERTILITIES When TFR are about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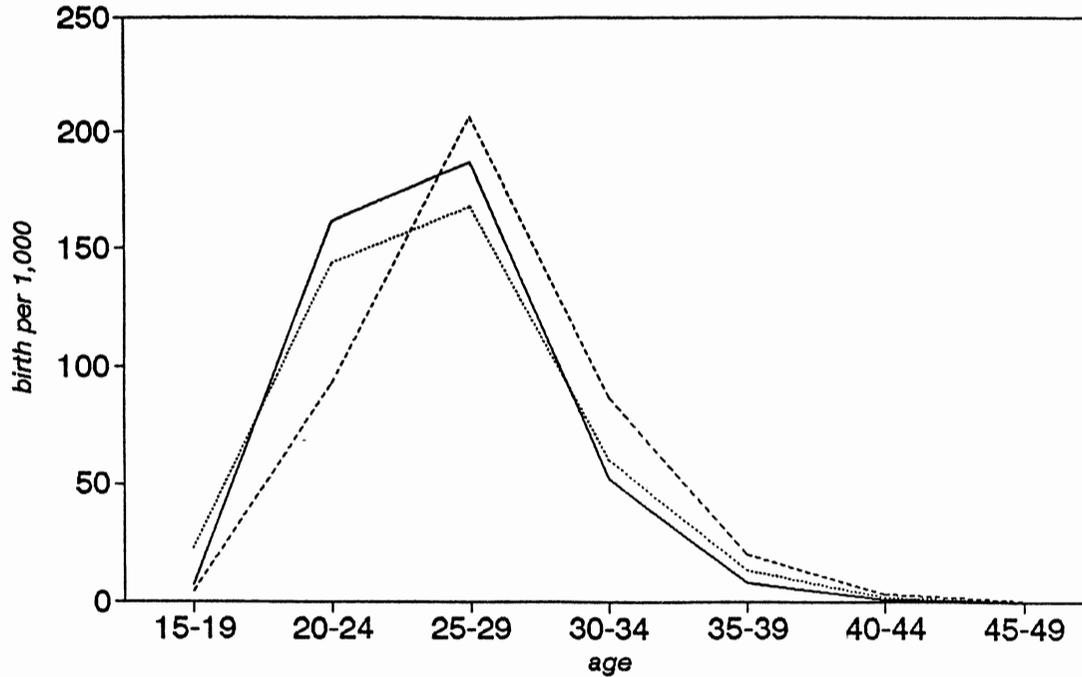
〈圖 4-5〉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2.7)

AGE PATTERN OF THREE FERTILITIES When TFR are about 2.7



〈圖 4-6〉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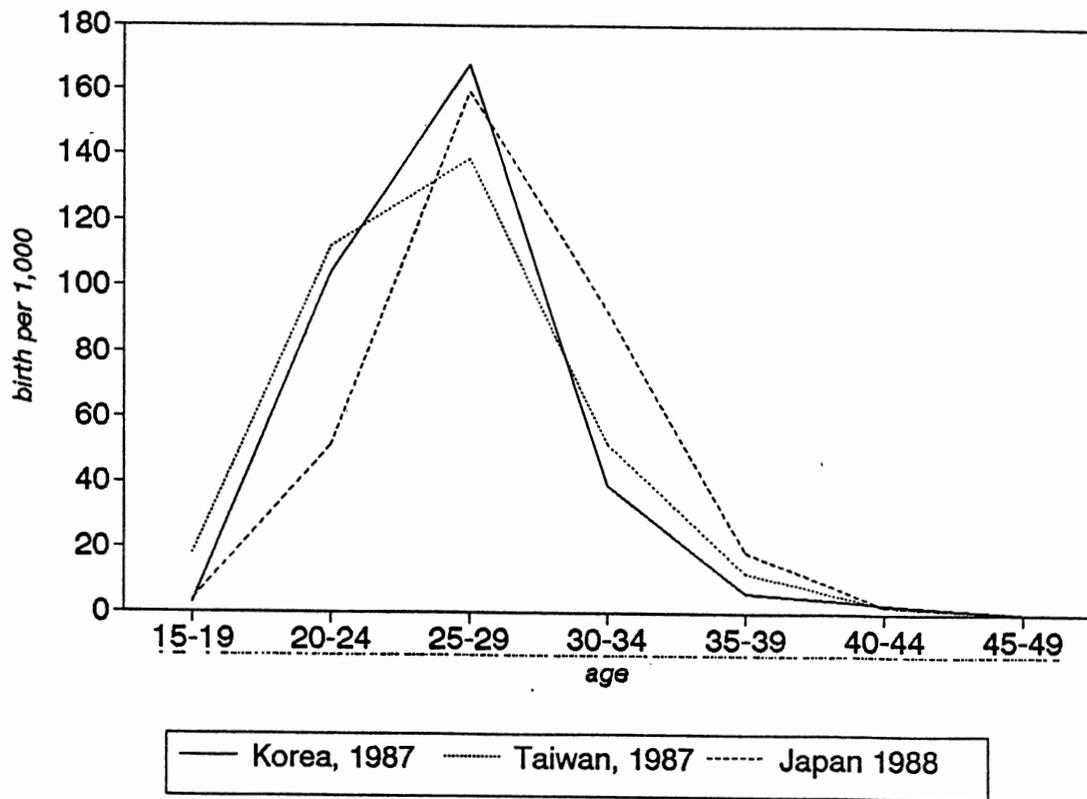
AGE PATTERN OF THREE FERTILITIES When TFR are about 2.1



— Korea, 1984    - - - - Taiwan, 1982    ····· Japan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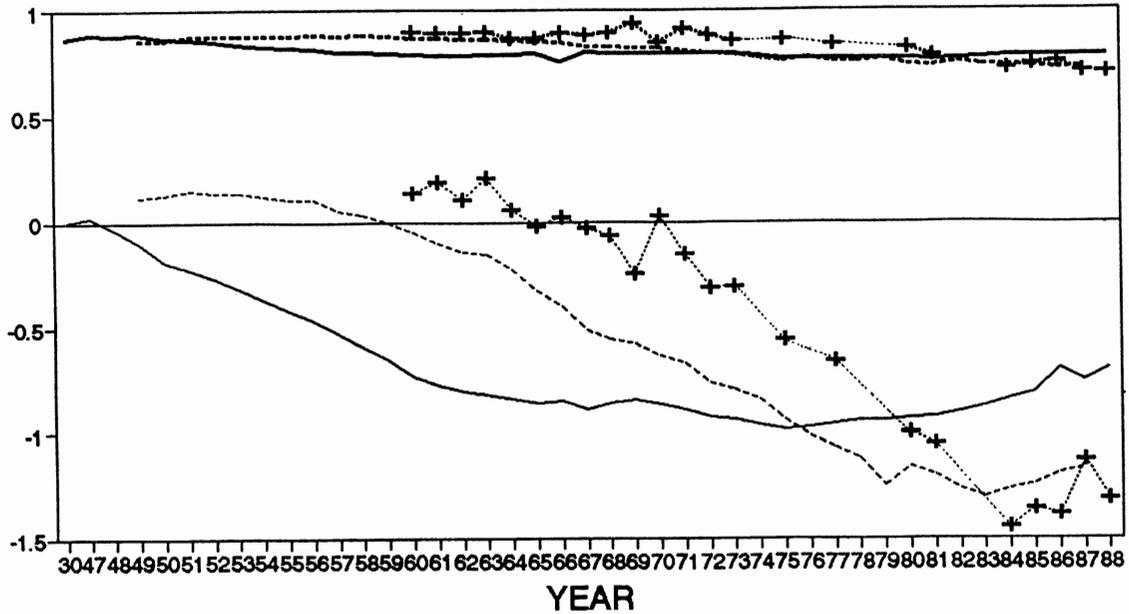
〈圖 4-7〉 3개국의 출산 유형 비교(TFR ≃ 1.6)

AGE PATTERN OF THREE FERTILITIES When TFR are about 1.6



〈圖 4-8〉 3개국의 출산 유형 변화 추세

TREND OF CHANGING PATTERN COEFFICIENTS



---+---	KOREA ALPHA	---+---	KOREA BETA	——	JAPAN ALPHA
——	JAPAN BETA	-----	TAIWAN ALPHA	-----	TAIWAN BETA

#### IV. Brass 모델의 適用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出産力 變動의 特性

제 II장에서 설명된 것처럼 Brass의 모델을 사용하면 出産類型을 簡明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복수의 出生력을 비교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위에서 사용한 우리나라의 出産力 자료를  $\eta$ 변화시키면 <表 6>과 같다. 또 이 표에 나온 각 연도별  $\eta$  變換值를 앞서 제시한 <表 2>의 標準出産力  $\eta$  변환치 중 19, 24, 29 ... 44, 49세의 것에 대하여 회귀시키면 각 연도별  $\alpha$ ,  $\beta$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表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위의 <表 7>에서  $\alpha$ 값이 0보다 작으면 標準 出産力에 비해 出生분포가 우측으로 쏠려 있는 것을 나타내고 0보다 클 경우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출산시기에서는 자측으로 쏠려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出産力이 떨어짐에 따라 점점 우측으로 쏠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beta$  값은 出生력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指數로서 1보다 크면 標準出産力보다 집중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집중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위 表에서 우리나라의 出生의 집중정도는 자연出産力에근사한 Brass의 標準出産力 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미세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rass의  $\alpha$ 와  $\beta$ 값은 어디까지나 Brass가 임의로 정한 標準出産力에 대한 한 인구가 갖는 出産類型의 상대적인 지수일 뿐이므로 우리나라의 出産類型상 특성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出産類型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인구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 만들어진 것이 <圖 4>이다.

이 도표의 윗쪽에 물려 있는 것이  $\beta$ 값의 變動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alpha$ 값의 變動이다. 여기서 日本은  $\alpha$ 값이든  $\beta$ 값이든 우리나라와 臺灣에 비해 폭이 좁고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앞 장에서 보았던 바와 일치한다. 우선 우

〈表 6〉 우리나라 出生率의  $\eta$  變換値

年度 \ 年齡	-19	-24	-29	-34	-39	-44	-49
1960	1.295	0.414	-0.351	-1.130	-2.249	-4.337	-7.177
1961	1.325	0.395	-0.337	-1.033	-2.025	-4.315	-7.095
1962	1.433	0.419	-0.358	-1.214	-2.496	-4.455	-7.026
1963	1.472	0.459	-0.336	-1.108	-2.209	-4.277	-7.068
1964	1.272	0.412	-0.415	-1.273	-2.367	-4.289	-6.936
1965	1.369	0.405	-0.485	-1.409	-2.580	-4.620	-6.823
1966	1.359	0.428	-0.466	-1.221	-2.452	-4.988	-6.938
1967	1.456	0.437	-0.454	-1.406	-2.679	-4.978	-6.774
1968	1.496	0.425	-0.562	-1.388	-2.825	-5.067	-6.862
1969	1.449	0.425	-0.545	-1.646	-2.803	-6.822	-6.823
1970	1.517	0.426	-0.594	-1.520	-2.560	-3.914	-6.758
1971	1.620	0.454	-0.579	-1.622	-3.035	-5.742	-6.843
1972	1.474	0.481	-0.610	-1.893	-3.563	-5.568	-6.669
1973	1.429	0.363	-0.748	-1.831	-3.085	-5.473	-6.574
1975	1.426	0.342	-0.926	-2.190	-3.505	-6.464	-6.465
1977	1.506	0.307	-1.049	-2.523	-3.724	-4.302	-6.302
1980	1.447	0.148	-1.406	-2.936	-4.716	-6.331	-6.331
1981	1.336	0.126	-1.377	-3.005	-5.186	-5.597	-6.289
1984	1.408	-0.102	-1.844	-3.825	-6.032	-5.342	-6.034
1985	1.290	-0.022	-1.831	-3.473	-4.951	-6.746	-5.832
1986	1.315	0.043	-1.851	-3.562	-4.970	-7.010	-5.808
1987	1.543	0.100	-1.827	-3.566	-4.674	-5.088	-5.779
1998	1.427	0.165	-1.779	-3.683	-5.773	-5.085	-5.776

〈表 7〉 Brass의  $\alpha$ ,  $\beta$  값을 통해 본 出產類型的 변화

年度	韓 國		日 本		臺 灣	
	$\alpha$	$\beta$	$\alpha$	$\beta$	$\alpha$	$\beta$
1930			0.00410	0.86666		
1947			0.02152	0.88677		
1948			-0.02834	0.87967		
1949			-0.10074	0.88314	0.11519	0.85462
1950			-0.18631	0.96609	0.12840	0.85499
1951			-0.22323	0.85853	0.14598	0.87234
1952			-0.26475	0.84802	0.13448	0.87333
1953			-0.31474	0.83555	0.13445	0.97327
1954			-0.36268	0.82535	0.12472	0.87474
1955			-0.41912	0.82001	0.10410	0.87754
1956			-0.46454	0.91090	0.10594	0.87433
1957			-0.52438	0.79848	0.05519	0.88197
1958			-0.58831	0.80099	0.03601	0.87615
1959			-0.64591	0.79187	0.00085	0.86814
1960	0.13783	0.89823	-0.72725	0.78596	-0.04755	0.86965
1961	0.18792	0.89204	-0.76222	0.78037	-0.10182	0.86299
1962	0.10147	0.89252	-0.79702	0.77907	-0.14016	0.86045
1963	0.20717	0.89557	-0.81566	0.78477	-0.15048	0.85607
1964	0.05880	0.86777	-0.83071	0.78838	-0.22086	0.84873
1965	-0.20717	0.86718	-0.85294	0.79389	-0.32963	0.84134
1966	0.02098	0.89363	-0.84470	0.75130	-0.39364	0.82595
1967	-0.02828	0.87966	-0.88268	0.80075	-0.51407	0.82667
1968	-0.05930	0.89009	-0.84987	0.79269	-0.54834	0.81838
1969	-0.24172	0.93379	-0.83677	0.79149	-0.57280	0.81905
1970	0.02856	0.84258	-0.85351	0.79123	-0.62800	0.80671
1971	-0.14654	0.91200	-0.87972	0.79300	-0.66833	0.79671
1972	-0.31002	0.87830	-0.91641	0.79212	-0.76052	0.79671
1973	-0.29941	0.85636	-0.93030	0.79168	-0.78837	0.78763
1974			-0.95806	0.78345	-0.82969	0.77672
1975	-0.54665	0.86452	-0.97565	0.77167	-0.93007	0.75578
1976			-0.96924	0.76662	-1.00573	0.77713
1977	-0.65275	0.83744	-0.94803	0.76740	-1.06892	0.75356
1978			-0.93681	0.76980	-1.11927	0.75144
1979			-0.93654	0.77012	-1.25158	0.76661
1980	-0.99209	0.1647	-0.92600	0.76698	-1.15826	0.73943
1981	-1.04923	0.78350	-0.91814	0.76563	-1.20091	0.73500
1982			-0.89135	0.77071	-1.27126	0.74958
1983			-0.86740	0.77585	-0.30597	0.74029
1984	-1.44956	0.72016	-0.83035	0.78042	-1.27194	0.73765
1985	-1.36161	0.74547	-0.83379	0.78056	-1.24151	0.72972
1986	-1.38398	0.75292	-0.69255	0.78290	-1.18759	0.71861
1987	-1.12951	0.70533	-0.74850	0.78117	-1.16472	0.72502
1988	-1.31130	0.70157	-0.69255	0.78290		

리나라  $\alpha$ 값의 變動을 살펴보면 0을 약간 상회하던 60년대 전반부에서 시작하여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1980년대 중간부터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臺灣도 그 이 變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日本도 0부근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감소하다가 1975년 바닥에 이르고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日本은 臺灣과 우리나라보다 일찍 바닥에 도달하였을 뿐 아니라 變動曲線의 最低點이 우리나라와 臺灣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곳에 까지 내려갔다.

出產分布가 좌측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평균 출산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lpha$ 값이 0으로부터 아랫쪽으로 멀리 내려가면 멀리 내려갈수록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그만큼 世代交替가 느려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 도표만을 보고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日本에 20여년 늦게 平均出產年齡의 延長趨勢에 들어가 日本이 기록한 하한선에 도달하였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臺灣은 日本과 비슷한 과정을 우리나라 보다는 먼저 거치고 우리나라 보다 높은 값(平均出產年齡)을 기록하고 反轉하는 趨勢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추세는 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므로 그 지속여부는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다.

$\beta$ 값도  $\alpha$ 값과 마찬가지로 出產水準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alpha$ 값과 비슷한 趨勢를 踏襲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대 특히 그 후반부에 출산이 집중되는 정도는 出產力이 떨어짐에 따라 감소되어 왔지만 오래전에 저출산에 도달한 日本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堅實한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臺灣이 이와 같은 日本의 前轍을 밟게 될 것인지의 여부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 V. 出產類型 變動의 展望

出產水準이 변화하면 출산의 연령분포 곧 出產類型의 변화가 바로 뒤따를 것인가? 현재의 出產類型이 지속될 것인가? 出產水準은 변하지 않지만 出產類型만 변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의문은 將來人口를 推計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구추계에서 出產力에 관한 가정은 合計出產率로 주어지는데 각 연령층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人口推計프로그램을 보면 추계하는 사람의 자의에 맡기고 있는데 연령구조가 급변하는 인구에서는 合計出產力의 연령별 배분이 출생수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출생의 추계를 위해서는 출산수준의 변화에 따른 出產類型의 변화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Brass의 모델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問題狀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alpha$ 값과  $\beta$ 값을 정하고 그에 따라 연령별 出產率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出產率을 구하는 것은  $\alpha$ 와  $\beta$  값을 구할 때 거쳤던 과정을 거꾸로 밟으면 된다. 제 II장의 식 (12)에 주어진  $\alpha$ 와  $\beta$ 값을 대입하여  $\eta F(x)$  즉  $F(x)$ 의  $\eta$  變換值를 구하고 다음식 (13)으로 각 연령별로  $F(x)$ 를 구하면 된다.

$$F(x) = \exp(-\exp(\eta F(x))) \dots\dots\dots (13)$$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F(x)$ 는 最終累積出產力에 대한  $x$ 세까지의 出產力의 比率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각 연령 계급별  $F(x)$ 를 구한 다음, 맨 뒤에서부터 바로 앞의  $F(x)$  값을 빼서 구하든지, 반대의 순서를 취하든지 하여 각 연령계급별 비율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lpha = -0.25$ 이고  $\beta = -0.25$ 라 했을 때 각 5세 간격별 출산비율을 구하면 <表 8>과 같다.

〈表 8〉 연령별 출산비율(FP)의 계산. ( $\alpha = -0.26$ ,  $\beta = 0.8$ )

年齡階級(i)	年齡(x)	$\eta F_s(x)$	$\eta F(x)$	F(x)	FP(i)
15-19	19	0.85927	0.43742	0.21252	0.21252
20-24	24	0.10783	-0.16374	0.42786	0.21153
25-30	29	-0.56101	-0.69881	0.60824	0.18038
30-34	34	-1.30627	-1.29502	0.76041	0.15217
35-39	39	-2.33192	-2.11554	0.88642	0.12601
40-44	44	-4.25499	-4.02170	0.98224	0.09582
45-49	49	-8.64839	-7.16871	0.99924	0.01700

결국  $\alpha$ 값과  $\beta$ 를 정하는 것이 關鍵인데  $\alpha$ 와  $\beta$ 값이 出產水準이 변함에 따라 따라서 변한다고 보고 合計出產率과 대하여 回歸方程式을 풀어 값을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출산을 대신  $\alpha$ 와  $\beta$ 값 자체의 연도별 變動趨勢에 관련시켜 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여 人口推計를 위한 出產類型을 推定한 것은 없다. 새로운 試圖로서 이 방법을 適用할 가치가 있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더욱 精巧하게 다듬어지고 필요하면 大幅的인 修正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서 Brass가 제시한 標準出產力이 自然出產率에 가까운 것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력이 매우 낮은 곳에서는 出產類型의 比較分析을 위한 手段으로서는 모르지만 將來出產力의 類型을 預測하는 데는 未洽하고 따라서 人口推計에 미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報告」, 1977.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人口動態申告結果 및 將來人口推移」, 1989.
- 臺灣省政府 民正廳, 「臺灣人口統計」, 1970-1988.
- 文顯相 外, 「出產力과 家族計劃」, 家族計劃研究院, 1972.
- \_\_\_\_\_, 「1982年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 朴炳台 外, 「1976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8.
- 卞鍾和 外,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產力實態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9.
- 宋建庸 外,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 調查 報告書」, 家族計劃研究院, 1973.
- 日本 厚生省, 「人口統計資料集, 1982-1989年」.
- 日本 厚生省, 「人口問題研究」, 第157號, p93.
- 曹大熙 外, 「1985年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 Brass, W, *The relational Gompertz model fo fertility by age of woman*, Lodon School of Hygeiene and Tropical Medicine. 1978.
- Cho, Dae Hee, “A Multivariate Analysis of Nuptiality and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Multivariate Analysis of Nuptiality and Fertility for Selected ESCAP Countries,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9, UN, ESCAP, Bangkok, 1983.
- Goale, A.J., T.J. Trussell. “Model fertility schedules : variations in the age structure of childbearing in human populations”, *Population Index*, 40: 185-258, 1974.
- Henry, L. “Some data on natural fertility”, *Eugenics Quarterly*, 8:81-91, 1961.
- KIPH, CCITFP, *Comparative Study of Fertility Control Experiences in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china*, Proceedings of Workshop, 3-10, November, 1986, Seoul, Korea.
- United Nations, *Manual X Indirect Techniques for Demographic Estimation*, New York, 1983. pp:23-26.



## 第 3 章 差別出産力の 變動과 그 要因

金 泰 憲\*

- I. 序 論
- II. 年 齡 別 出 産 率 的 變 化
- III. 初 婚 年 齡, 出 産 間 隔 과 出 産 力
- IV. 經 濟 · 社 會 特 性 別 差 別 出 産 力
- V. 要 約 및 結 論

---

### I. 序 論

우리나라의 出産水準은 1960년 이후 정부의 노력과 個人의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출산률의 감소는 모든 집단에서 똑같이 감소하지 않는다. 個人이나 社會의 特性에 따라 출산수준의 변화 정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出産力에 관한 研究는 단순한 平均 出産率의 測定에만 국한하지 않고 特定別 出産水準을 비교하므로써 한 사회의 출산수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산수준의 조절이 필요한 人口政策에서도 출산수준을 낮추어야 할 집단이나 높여야 할 집단을 밝히고, 그 집단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므로써 그 사회의 適正人口水準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

\* 韓國敎員大學校 一般社會敎育學科 敎授

이와같이 여러 인구집단간의 출산수준의 차이를 연구하는 분야가 差別出産力이다. 이때 우리는 인구가 갖는 인구 자체의 특성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위치에 따라 인구를 몇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집단간의 출산력의 차이를 규명하게 된다.<sup>1)</sup>

차별출산력 연구를 위하여 분류할 수 있는 인구집단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인구학적 분류로 모의 연령, 현존 출생아수, 모의 결혼연령등이며, 경제·사회적 특성으로 부모의 교육정도, 소득수준, 직업, 거주지, 가족형태 등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인구의 집단을 분류하고 이 변수들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써 그 출산수준의 변화를 설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연구는 1960년대부터 출산수준의 측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韓國家族計劃研究院의 1971年 全國出産力調査로 차별출산력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출산력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후, 世界出産力調査의 일환으로 실시된 1974年 韓國出産力調査(1974 KNFS)이후 다양하고 충분한 출산력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출산력에 관한 연구들을 기초로하고 필요한 분석을 추가하여 差別出産力の 時系列分析을 하므로써, 그동안 경제·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힐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차별출산수준의 변화를 검토하므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수준의 변화를 예상하고 인구정책으로서의 출산조절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출산수준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지않는다. 출산은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출산을 직접 결정하여 주는 것은 초혼연령, 피임실천여부, 수유기간등의 중간변수이며,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이 이들 중간변수를 결정하므로써 출산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sup>3)</sup> 그러므로, 出産水準을 직접 決定하여 주는 年齡別 出産率의 변화를 검토한 후, 바로 위에서 들은 중간변수중 출산수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初婚年齡, 그리고 피임의 영향을 직접받는 出產間隔과 出產力의 關係를 分析하였다. 이어서 중간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 변수별로 출산수준에 미치는 순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 II. 年齡別 出產率의 變化

한 사회의 出產率은 人口의 性·年齡別 構造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출산수준과 그 사회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특성에 따라 한 사회의 출산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측정하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年齡別 出產率을 계산하게 된다.

年齡別 出產水準이 平均出產水準을 결정하고, 연령별 출산수준의 변화에 따라 평균 출산수준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출산력의 변천과정을 연령별 차별출산력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表 1〉은 1960년 이후 연도별 연령별 출산률과 합계출산률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合計出產率은 1960년에 6.0으로 자연출산력<sup>4)</sup>에 불과 2.0정도의 차이만을 보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4년에 출산력의 대체수준인 2.1이 되었으며, 1987년에는 합계출산률이 1.6에 도달하였다.

출산률의 감소는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다. 기간별로 낮은 연령층에서나 높은 연령층에서, 또는 중간연령층에서의 감소가 전체의 출산률감소를 유도하였다. 〈表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60년대에는 出產率의 減少가 35-39세와 20-24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두가지

Table 1. Age-Specific Fertility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1960-1987

Age	1960 <sup>1)</sup>	1968 <sup>2)</sup>	1976 <sup>1)</sup>	1984 <sup>3)</sup>	1987 <sup>4)</sup>
15-19	37	7	10	7	3
20-24	238	146	147	162	104
25-29	330	301	275	187	168
30-34	257	201	142	52	39
35-39	196	120	49	8	6
40-44	80	65	18	1	3
45-49	14	7	1	0	0
TFR	6.0	4.2	3.2	2.1	1.6

- Sources : 1) Park, B. T.,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8, pp. 113-124.
- 2) Koh, K. S. and D. P., Smith, The Korean 1968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 National Family Planning Council(NFPC), 1970, p. 39.
- 3) Cho, D. H. et al., The 1985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IPH, 1985, pp. 31-32.
- 4) Moon, H. S., et al.,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IPH, 1989, P. 122.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教育水準의 向上에 따른 初婚年齡의 上昇이다. 우리나라 出産力 減少의 初期에는 피임보다 初婚年齡의 上昇에 의한 出生률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 여자의 平均 初婚年齡은 1960년에 21.5세이던 것이 1975년에는 23.7세로 20-24세의 有配偶率이 같은 기간에 64.8퍼센트에서 37.2퍼센트로 낮아졌다.<sup>5)</sup> 한편, 30대의 出生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1962년 제1차 經濟開發計劃의 일환으로 시작된 初期의 家族計劃事業은 30대에 이미 원하는 자녀수만

큼 출산을 한 부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출산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이다.<sup>6)</sup>

Table 2. Contribution to Declines in Fertility by Women of Various Age Groups, 1960-1987

Age	1960-68	1968-76	1976-84	1984-87
TFR	6.0-4.2	4.2-3.2	3.2-2.1	2.1-1.6
Decline in TFR	1.8	1.0	1.1	0.5
Percentage of Decline Attributable to Women Aged:				
15-19	8.6	-1.5	1.3	4.8
20-24	39.1	-0.5	-6.7	69.0
25-29	8.3	12.7	39.1	10.7
30-34	16.0	28.8	40.0	15.5
35-39	21.7	34.6	18.2	2.4
40-49	6.3	25.9	8.0	-2.4
Total	100.0	100.0	100.0	100.0

Sources : Same as Table 1.

1968년 이후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出産水準의 減少는 30세 이후에서 연령별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이 때에는 理想子女數인 3-4명을 이미 출산한 부인이 단산하는데에 人口增加抑制政策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家族計劃에 대한 認識이 증가함에 따라 40대 연령층에 까지 斷産을 위한 가족계획이 확장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오면서 이상자녀수는 종래의 4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2명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斷産時期가 빨리지고 있다. 그러므로, 1970년대초까지 出産率의 減少가 집중되었고, 30대 후반에서 출산률 감소에 기여가 높은 연령층은 점점 낮아져서 30대초로 옮겨졌다. 또한 전체

출산수준이 대체수준까지 떨어질 때에는 전체의 출산력이 낮은 수준에 이미 도달되는 것이므로 출산력 감소에 기여하는 연령층은 年齡別 出產率 자체가 높은 연령층인 20-29세와 30-34세이므로 자연히 이들 집단의 출산력 감소폭이 컸다고 하겠다. 1970년대 이후 20-24세에서의 출산률이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結婚年齡이 上昇하면서 初產時期를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sup>7)</sup> 20대에 출산률이 집중되므로 이 연령층에서 높아진다고 하겠다.

1984년 이후의 출산수준은 代替水準以下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연령별 출산률은 10대와 30대 후반에서는 더 이상 감소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20대의 기대자녀수가 2명 미만으로 줄어든 80년대 중반 이후<sup>8)</sup>에는 출산률의 절대수준이 높은 20대의 연령별 출산률의 감소가 合計出產率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 이후 초혼연령의 상승<sup>9)</sup> 과 초기 가족계획 실천의 선별적 지원으로 20-24세와 35-39세의 출산률의 감소가 합계출산률 감소를 주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30대 후반의 가족계획 실천과 이상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단산시기가 점차 빨라져서 1980년 전후에는 25-29 및 30-34세의 출산률 감소가 합계출산력 감소분의 80퍼센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대체수준이하의 출산력에서는 출산력이 집중되어 있는 20대에서 감소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외의 연령계층에서는 출산률 자체가 낮았으므로 합계출산력을 낮추는 데 기여한 폭도 작았다고 하겠다.

### Ⅲ. 初婚年齡, 出產間隔과 出產力

출산과 임신은 결혼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出產時期는 家族規模와 人口成長의 程度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up>10)</sup> 그러므로, 피임이나 출산에 미치는 다른 환경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결혼연령과 출산간격의 변화가 출

산할 수 있는 기간과 출산회수를 결정하므로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여자 1인당 출산회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結婚年齡과 出產間隔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한 사회의 人口變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간단한 수리적 접근으로 초혼연령과 출산간격이 어떻게 인구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表 3>의 모델은 모든 여자가 여아 두명씩만 낳고, 수명이 60세로 균일할 때 결혼연령과 출산간격의 차이에 따른 여성인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sup>11)</sup> 즉, 모든여자가 15세에 결혼하고 6년 간격으로 두명의 여아를 출산하고 60세에 사망한다면, 150년후의 여자인구는 101배가 되며, 여아의 출산간격을 2년 늘려 8년으로 했을 때에는 약 반으

Table 3. Hypothesized Female Population Growth under Varying Assumptions on Birth Intervals and Ages at First Marriage

Age at First Marriage	Length of Birth Interval	Years since the First Female Born				
		40	80	110	130	150
		<u>Size of Female Population</u>				
15	6	3	13	25	52	101
	8	3	10	22	29	55
25	4	3	6	12	23	29
	6	3	6	11	14	24

Notes : The Hypothesis under Consideration are:

- 1) Every Female marries at the Same Age and has Two Daughters in Her Life
- 2) The Length of the Life Span is 60 Years.

Source : Kim, T. H., "Age at First Marriage and Birth Interval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11,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pp. 1 - 14.

로 준 55배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간격이 동일하고 결혼시기만 15세에서 25세로 늦출 경우 150년후의 여성인구는 15세 결혼때와 비교하여 4분의 1도 안되는 24배에 불과하다.

이러한 假定下의 모델은 어디까지나 理論的인 것이지 現實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결혼연령과 출산간격은 經濟·社會·文化的 要因에 의하여 변하며, 避妊, 離婚, 不妊 등의 이유로 出產水準을 일정한 유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初婚年齡의 上昇과 出產間隔의 延長은 개인의 출산수준을 낮추고,<sup>12)</sup> 인구증가 속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자녀수는 초혼연령에 따라 약 1명의 차이가 나고 있다 (<表 4> 參照).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한지 10-19년이 지난 부인의 출산자녀수는 18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4.5명이었으며 22

Table 4.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To Women Who Have Passed 10-19 Years 1974 and 15-19 Years For 1987 Since First Marriage by Age at First Marriage, 1974 and 1987

Age at First Marriage	1974 <sup>1)</sup>	1987 <sup>2)</sup>
< 18	4.5	3.34
18-19	4.3	\ 1 3.03
20-21	4.1	
22-24	\ 1	2.91
25-27		1 3.6
28<	1	2.37

Sources : 1) Kim, T. H.,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p. 74.

2) Choi, B. H. Fertil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Decomposition and Micro-Level Analysis, M. A. Thesis,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1989, pp. 71-72.

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는 3.6명으로 그 차이가 1명 정도였다. 13년후인 1987年 人口動態特別調査에서도 똑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출산력의 절대수준이 위의 두 조사 사이(13년간)에 약 25퍼센트 감소하였으나 初婚年齡別 出產子女數의 차이는 비슷한 水準을 유지하였다.

出產水準에 영향을 주는 出產間隔은 婦人の 出生年度가 늦을수록 빨라지고 있다(〈表 5〉 參照). 1943년 출생부인의 경우 첫출산간격이 18.8개월이었으나, 1960년 출생부인의 경우 5개월 이상 단축되어 13.6개월이 되었다. 두번째 출산간격의 감소경향도 마찬가지이다. 출산간격의 변화는 初婚

Table 5. The First and Second Birth Intervals by the Female's Birth Year, 1943-1960

Female's Birth Year	1st Birth Interval (Months)	2nd Birth Interval (Months)
1943	18.8	31.7
1945	16.8	29.5
1950	16.7	28.4
1955	15.7	27.5
1960	13.6	-

Source : Moon, H. S. et al. ,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p. 134.

年齡의 變化와 逆의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sup>13)</sup> 〈表 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요인, 즉 모의 교육정도나 거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국졸이하인 부인의 첫째나 둘째의 출산간격이 상대적으로 몇개월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出產水準은 결혼연령이 상승할 때 減少하는 逆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변함이 없

Table 6. The First and Second Birth Intervals by Educational Level of Women Aged 25-29, 1987

	Primary Sch. & Low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Higher	Total
The First Birth Interval					
Nation	14.3	13.7	13.7	13.6	13.8
Urban Areas	13.9	13.8	13.8	13.7	13.8
Rural Areas	14.7	13.7	13.7	13.4	13.7
The Second Birth Interval					
Nation	28.2	26.8	27.2	28.4	27.3
Urban Areas	31.6	27.1	27.8	28.6	28.0
Rural Areas	25.5	25.9	25.4	27.0	25.6

Source : Moon, H. S. et al.,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pp. 135-136.

었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간격은 婦人의 出生코호트나 初婚年齡과의 關係 (逆의 關係)는 있으나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의 특성별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것은 최근에 避妊普及이 일반화되었으며, 결혼이 늦어질수록 원하는 자녀수 만큼 결혼후 바로 출산을 한 후 피임을 하거나 단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산·피임행위는 다른 어떤 특성의 영향보다는 초혼연령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고 하겠다.

#### IV. 經濟·社會 特性別 差別出產力

社會·經濟的 要因과 出產水準의 關係를 분석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변수들은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 종교 등으로 다양하다. 이

때 논의에 이용될 出産水準으로 特性別 合計出産力이나 出産子女數(또는 現存子女數)를 계산하여 특性別 차이를 비교하고, 그 특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이 研究에서는 調査統計局과 家族計劃研究院이 공동으로 실시한 1974年 韓國出産力調査,<sup>14)</sup> 家族計劃研究院의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sup>15)</sup>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1985 및 1988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健調査<sup>16)</sup> 조사통계국의 1987년 인구동태특별조사<sup>17)</sup>의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위의 각 조사에서 채택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하므로 차별출산력의 변화를 토론할 수 있는 변수인 모의 거주지역, 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등 3가지 요인에 대해서만 집중 토론하였다.<sup>18)</sup> 또한 특性別 출산수준으로 합계출산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표본규모의 제약과 특性別, 연령별 출산률 계산과정에서 誤差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性別 출산자녀수를 출산수준으로 이용하였다.<sup>19)</sup> 다만, 연령별(또는 결혼기간별) 출산수준이 다르므로 어느정도 출산이 완료되었고, 최근 출산수준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연령계급(또는 결혼기간) 35-39세(또는 15-19년)의 기혼부인의 출산자녀수를 차별출산력 분석의 기초지표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多分類分析(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결과를 이용하였다.

## 1. 地域別 出産水準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1960년 이래 農村(郡部)의 출산률이 都市(市部)의 출산률보다 높았다(表 7) 參照). 전국평균 합계출산률은 도시에서 보다 24퍼센트나 높았으며, 1974년에는 48퍼센트까지 높아졌으나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7년에는 그 차이가 33퍼센트로 줄어들었다.

출산률이 감소하면서 都市와 農村間의 出産率의 差異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연령집단을 20-24세, 25-29세와 30-39세의 셋으로 구분할 때, 출산률의 차이는 25-29세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극소하지만, 나머지

Table 7. Age—Specific Fertility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by Residence, 1960, 1974 and 1987

Age	1960 <sup>1)</sup>		1974 <sup>1)</sup>		1987 <sup>2)</sup>		Ratio of Rural to Urban Fertility Rates		
	Urban	Rural	Urban	Rural	Urban	Rural	1960	1974	1987
15—19	22	48	6	16	1	9	2.18	2.67	9.00
20—24	223	291	135	192	92	156	1.30	1.42	1.70
25—29	316	354	262	298	165	177	1.12	1.14	1.07
30—34	250	308	129	206	40	35	1.23	1.60	0.88
35—39	184	237	42	103	4	13	1.29	2.45	3.25
40—49	81	115	15	45	4	3	1.42	3.00	0.75
TFR	5.4	6.7	2.9	4.3	1.5	2.0	1.24	1.48	1.33

- Sources :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World Fertility Survey: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pp. 89—93.
- 2) Moon, H. S, et al.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p. 128.

연령층에서의 차이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sup>20)</sup> 25—29세에서 출산률이 비슷한 것은 대부분이 25세이전에 결혼하므로 이 연령층에서 婚姻比의 차이가 없고, 결혼후 원하는 자녀수의 출산을 하는 연령이므로 지역에 관계 없이 출산률이 높았다. 그러나 20—24세 연령층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역별 초혼연령의 차이 때문에 婚姻比가 높은 농촌지역에서의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39세에서는 농촌의 출산률이 소자녀로 단산하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출산률 감소속도가 더 빠르므로, 이 출산률에서 지역간의 비는 더 커진다. 그러나 1987년의 30—34세 연령층에서는 도시의 출산

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률 자체가 여자 1000명당 40이하로 낮아져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때로는 도시지역 여자의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원하는 자녀의 출산이

Table 8.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by Year, Residence and Education of Women : Ever-Married Women Aged 35-39, 1974-1987

	1974 <sup>1)</sup>	1976 <sup>2)</sup>	1984 <sup>3)</sup>	1987 <sup>4)</sup>
All Women	4.39	4.07	2.96	2.60
1. Place of Residence				
Urban	3.76	3.55	2.75	2.45
Rural	5.01	4.60	3.53	3.01
(R/U)	(1.33)	(1.30)	(1.28)	(1.23)
2. Education of Women				
Primary Sch. or Less	4.64	4.38	3.37	3.01
Middle Sch.	3.70	3.43	2.89	2.63
High Sch. or Higher	3.10	3.07	2.50	2.23
(Primary/High)	(1.50)	(1.43)	(1.35)	(1.35)

- Sources :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World Fertility Survey: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pp. 89-93.
- 2) Park, B. T.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pp. 113-124.
- 3) Cho, D. H. et al., The 1985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85, pp. 31-32.
- 4) Moon, H. S. et al.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pp. 122-128.

30대에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35-39세인 기혼여자의 출산자녀수를 연도별로 비교할 때에도 1974년 이후 농촌의 출산수준이 도시보다 높았다(〈表 8〉 參照).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이것은 〈表 7〉에서 1974년 보다 1987년에 농촌과 도시의 합계출산률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人口現象은 경제·사회개발의 진전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사망률 변천은 경제·사회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며, 변천과정에서 인구집단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開發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을 비교할 때 개발초기에는 개발의 혜택을 도시에서 먼저 받게되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커지다가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농촌에서도 개발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그 차이는 감소하게 된다.<sup>21)</sup>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출산률의 차이도 사망률의 차이의 변화와 같이 농촌지역의 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의 출산률 감소속도가 도시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률의 차이가 점차 좁아졌다고 하겠다.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앞으로 농촌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간 개발의 혜택의 차이가 줄어들므로 오늘날 선진국의 예<sup>22)</sup>에서와 같이 地域間的 出產水準은 서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 2. 教育程度別 出產水準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sup>23)</sup>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더 많은 부인이 피임법을 사용한다.<sup>24)</sup> 그러므로 교육수준과 출산력 사이에는 일반적인 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출산력은 감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ogue<sup>25)</sup>는 교육정도와 출산력사이의 역의 관계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며, 이것은 다른 어떤 변수

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연령층에서의 출산률 자체가 여자 1000명당 40이하로 낮아져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때로는 도시지역 여자의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원하는 자녀의 출산이

Table 8.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by Year, Residence and Education of Women : Ever-Married Women Aged 35-39, 1974-1987

	1974 <sup>1)</sup>	1976 <sup>2)</sup>	1984 <sup>3)</sup>	1987 <sup>4)</sup>
All Women	4.39	4.07	2.96	2.60
1. Place of Residence				
Urban	3.76	3.55	2.75	2.45
Rural	5.01	4.60	3.53	3.01
(R/U)	(1.33)	(1.30)	(1.28)	(1.23)
2. Education of Women				
Primary Sch. or Less	4.64	4.38	3.37	3.01
Middle Sch.	3.70	3.43	2.89	2.63
High Sch. or Higher	3.10	3.07	2.50	2.23
(Primary/High)	(1.50)	(1.43)	(1.35)	(1.35)

- Sources : 1)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World Fertility Survey: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7, pp. 89-93.
- 2) Park, B. T.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pp. 113-124.
- 3) Cho, D. H. et al., The 1985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85, pp. 31-32.
- 4) Moon, H. S. et al. The 1988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9, pp. 122-128.

30대에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35-39세인 기혼여자의 출산자녀수를 연도별로 비교할 때에도 1974년 이후 농촌의 출산수준이 도시보다 높았다(〈表 8〉 參照).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 이것은 〈表 7〉에서 1974년 보다 1987년에 농촌과 도시의 합계출산률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人口現象은 경제·사회개발의 진전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사망률 변천은 경제·사회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며, 변천과정에서 인구집단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開發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을 비교할 때 개발초기에는 개발의 혜택을 도시에서 먼저 받게되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커지다가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농촌에서도 개발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그 차이는 감소하게 된다.<sup>21)</sup>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출산률의 차이도 사망률의 차이의 변화와 같이 농촌지역의 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의 출산률 감소속도가 도시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률의 차이가 점차 좁아졌다고 하겠다.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앞으로 농촌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간 개발의 혜택의 차이가 줄어들므로 오늘날 선진국의 예<sup>22)</sup>에서와 같이 地域間的 出產水準은 서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 2. 教育程度別 出產水準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sup>23)</sup>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더 많은 부인이 피임법을 사용한다.<sup>24)</sup> 그러므로 교육수준과 출산력 사이에는 일반적인 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출산력은 감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ogue<sup>25)</sup>는 교육정도와 출산력사이의 역의 관계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며, 이것은 다른 어떤 변수

와 출산력의 관계 보다도 강하고 변함없는 관계라고 단정하고 있다.

〈表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정도와 출산력의 관계는 명확히 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률이 높았던 1974년이나 代替水準以下로 떨어진 1987년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자들의 출산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수준별 출산률의 차이

Table 9. Mea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by Year, Education of Women and Occupation of Husband : Ever Married Women with 15-19 Years of Marriage Duration, 1974 and 1987

	1974 <sup>1)</sup>	1987 <sup>2)</sup>
All Women	4.4	2.9
1. Education of Women		
None	5.0	3.3
Primary Sch.	4.5	3.2
Middle Sch.	3.7	2.8
High Sch.	3.4	2.6
College or Higher	3.1	2.5
2. Husband's Occupation		
No Job	4.3	2.6
Prof. & Manag.	3.7	2.7
Clerical	3.9	1 2.7
Sales & Service	3.7	2.8
Agricultural	5.1	3.5
Skilled Manual	4.2	2.9
Unskilled Manual	4.6	1 2.9

Sources : 1) Kim, T. H. ,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pp. 53-74.

2) Choi, B. H. , Fertil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Decomposition and Micro-Level Analysis, M. A. Thesis,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1989, pp. 71-72.

는 감소하고 있다. 즉, 1974년에 국민학교이하의 교육을 받은 집단의 출산률이 고등학교이상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50퍼센트나 높았으나, 이 차이는 계속 감소하여 1980년대에는 그 차이가 35퍼센트로 감소하였다. 교육정도별 差別出産力의 변화도 앞에서 거주지역별 출산률의 차이가開發이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는 차별출산력의 변화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개발의 영향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미칠 때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계층간의 출산수준의 차이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表 8〉의 資料가 연령계급 35-39세의 출산률만을 비교하였으므로, 초혼연령의 차이에 따라 결혼기간을 15-19년으로 統制한 후 教育程度別 平均 出産子女數<sup>26)</sup>를 〈表 9〉에서 비교하였다. 이 때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률이 낮아졌다. 또한 1974년의 교육정도별 출산률의 차이가 1987년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sup>27)</sup>이 〈表 8〉에서의 變化類型과 동일하였다.

### 3. 男便의 職業別 出産水準

男便의 職業은 差別出産力을 研究할 때 經濟·社會的 狀態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선진국에서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을 때 남편이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직 종사자인 부인들의 출산률이 가장 낮으며, 1차산업 즉 남편의 직업이 농업과 광업종사자일 경우에 가장 높았다<sup>28)</sup>(〈表 9〉 參照).

우리나라의 出産水準도 남편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에 농림어업직종사자의 출산수준이 중간이었는데, 이 패턴은 1974년과 1987년 공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1987년도의 직업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1974년에 비하여 훨씬 작아졌다. 이것은 교육수준의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출산수준의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29)</sup> 또한 經濟社會開發의 진전에 따라 개발의 영향이 생활수

준이 낮은 계층, 농촌사회 등에 까지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 4. 多變數分類分析(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지금까지의 差別出產力 分析은 단순히 한두가지 變數의 特性別 平均 出產水準을 비교하므로써 그 차이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출산수준은 個別 變數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그러므로 출산수준에 대한 변수 각각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다른 變數에 의한 영향을 統制한 후 研究對象 變數만이 순수하게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우리가 가장 간단히 이용하는 技法이 '標準化'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한두가지의 변수만의 영향을 통제할 뿐이므로, 여기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 單一 變數와 出產水準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多變數分類分析(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權泰煥<sup>30)</sup>은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資料를 이용하여 30개 변수의 특성 각각에 대한 출산수준의 차이와 각 변수별로 출산자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Eta계수와 몇가지 모델을 통하여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계산한 純相關關係의 程度를 나타내는 Beta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사통계국의 1987년 인구동태 특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崔鳳鎬<sup>31)</sup>가 10個의 變數에 대한 Eta값을 산출하였으며, 변수를 달리하여 5가지의 모델을 만든 후 Beta의 값을 추정하였다.

〈表 10〉은 앞에서 고려한 4가지의 변수에 대한 연도별 Eta값을 수록하고 있다. 1974년 자료는 權泰煥의 분석자료중 35-39세 연령계층의 출산수준과 4가지의 個別 變數와의 Eta값이며, 1987년 자료는 崔鳳鎬의 分析중 결혼기간이 15-19년된 여자에 대한 결과이다. 4가지 변수 모두 출산자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감

소하고 있다.<sup>32)</sup> 이것은 그 동안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特性間의 差異의 比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0. Eta Values Betwee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and Selected Variables : Ever Married Women Aged 35-39 for 1974 or Those with 15-19 Years of Marriage Duration for 1987

Variables	1974 <sup>1)</sup>	1987 <sup>2)</sup>
1. Women's Education	0.40	0.24
2. Current Place of Residence	0.43	0.25
3. Husband's Occupation	0.38	0.26
4. Age at First Marriage	0.43	0.16

Notes : Based on NBOS & KIFP, World Fertility Survey: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7; and NBOS, The 1987 Special Demographic Surve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1988.

Sources : 1) Kwon, T. H. ,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Y. S. Chang(ed.),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pp. 190-210.

2) Choi, B. H. , Fertil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Decomposition and Micro-Level Analysis, M. A. Thesis,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1989, pp. 82-84.

〈表 10〉의 Eta 값은 단순히 각각의 변수와 出產子女數의 相關關係를 보여주는 係數이며, 다른 변수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계산한 變數別 Beta 값은 〈表 11〉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崔鳳鎬의 5가지 모델중에서 〈表 10〉에서 고려한 變數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3가지 모델을 택하였다. 可妊年齡期의 모든 여성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表 10〉의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세가지 모델 모두 女子의 教育水準이 출산자녀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변수

의 統制 이전에는 현거주지의 영향이 강하였으나(表 10) 參照) 女子의 教育水準, 女子의 經濟活動狀態<sup>33)</sup> 및 男便의 職業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후에는 그 차이가 극히 작아졌다. 이것은 통제이전에 지역별 출산자녀수의 차이가 컸던 것은 지역자체의 여건의 차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교육수준의 차이, 남편직업의 차이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11. Beta Values Betwee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and Selected Variables : Ever Married Women Aged 15-49, 1987

	Model I	Model II	Model III
Women's Education	0.36	0.43	0.36
Women Economic Activities	0.01*	0.02	0.00*
Residence	0.05	0.04	0.08
Ideal Number of Children	0.31	-	-
Husband's Occupation	-	0.15	-
Age at First Marriage	-	-	0.23

Note : \*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Source : Choi, B. H. , Fertil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 Decomposition and Micro-Level Analysis, M. A. Thesis,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1989, p. 83.

한편,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結果를 이용한 金斗燮<sup>34)</sup>의 分析에 따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전 居住地와 出產子女數의 相關關係의 程度를 나타내는 Eta값이 0.37이었으며, 가구소득, 여자의 교육수준, 그리고 남편의 직업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후의 Beta값이 0.28로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낮아졌다. 이와같이 거주지역과 출산자녀수의 순상관관계의 정도를 표시하는 Beta값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地域別 特性을 결정하는 복합적 요인의 변화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地域別 出產率의 차이는 地域間의 文化와 生活形態의 差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또 經濟社會狀態

別 人口의 構成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sup>35)</sup> 그러므로, 1974년과 1987년 사이에 이루어진 經濟社會開發은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 경제·사회적 차이 등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최근 農村의 開發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地域自體의 特性的 差異가 出產子女數에 미치는 影響은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출산수준의 변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社會·文化的 要因이나 個人的 特性別 出產水準의 差異를 분석하였다. 출산수준을 직접 결정하여 주는 연령별 출산률의 변화, 초혼연령과 출산간격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특성별 출산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960년 이후 초혼연령의 상승과 선별적인 가족계획의 실천으로 20-24세와 35-39세의 出產率 부터 감소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이상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斷產時期가 빨라져서 1980년경에는 25-29세 및 30-34세의 출산률감소가 두드러졌으며, 年齡別 出產은 25-29세의 年齡階級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초혼연령이 꾸준히 상승하여 25세로 접근하고 期待子女數가 2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合計出產率이 代替水準 보다 낮은 장래의 年齡別 出產은 25-29세 연령층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이외의 연령집단에서의 출산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結婚年齡이 상승할 때 감소하는 逆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자녀의 出產間隔은 부인의 出生年度나 初婚年齡과 逆相關關係가 있다.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폭의 둔화에 따른 출산수준의 감소효과는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상당히 감소하게 되므로 피임보급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라에서는 높은 결혼연령과 짧은 출산간격으로 인구규모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구정책에서 결혼연령의 상승에 의한 출산률 조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출산간격을 연장하면 개인의 出產子女數의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人口增加幅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都市와 農村에서 출산수준의 감소는 도시에서 먼저 나타났으며, 도시의 출산수준이 어느정도 낮아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촌의 출산률 감소속도가 도시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農村과 都市間의 出產率의 差異는 점차 좁아졌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수준은 앞으로 농촌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접근하게 될 것이다.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자녀의 수가 적은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명확한 逆의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는 教育程度別 出產水準의 差異는 197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변화와 같이 경제, 사회개발의 진행에 따라 개발의 영향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미칠 때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계층간의 차이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남편의 직업별 출산수준의 차이의 변화도 教育程度別 差異와 類似한 現象으로 나타났다.

출산수준을 결정하여 주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개별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이용된 變數는 現居住地, 女子의 教育程度와 經濟活動狀態, 그리고 男便의 職業 등이었다. 다른 變數의 影響을 統制한 후에도 교육정도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나 지역별 출산률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1974년 보다 1987년에 더욱 뚜렷하였다. 이것은 지역간의 문화와 생활상태의 차이나 경제·사회상태별 인구구성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던 地域別 出產率의 差異가 그동안 이루어진 경제·사회개발로 地域別 經濟·社會·文化的 差異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現象이라 하겠다.

註

- 1) R. Freedman, 'Differential fertility,' International Encyclopedia for the Social Sciences, Vol. 5, MacMilan and Free Press, 1968, pp. 377-381.
- 2) Park, B. T., et al.,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2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82; 曹大熙 外, 1985年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調查統計局, 1987 人口動態特別調查,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8.
- 3) Davis, K & J.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3), 1956, pp. 211-235; Bongaarts, J. & R. G. Potter,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pp. 10-14.
- 4) Hutterite족의 1946-50년 합계출산률 8.1과 Cocos섬 주민의 1938-46년 합계출산률 8.2가 대표적인 자연출산력 수준이다(李興卓, 人口學: 理論과 實際, 1987, 206-207 參照).
- 5) Kim, T. H.,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pp. 27-30.
- 6) 1971년 피임보급대상자의 평균연령이 34-35세였고, 그들의 평균자녀수는 4명을 상회하였으며 그 이후 평균연령과 평균자녀수는 점점 낮아졌다(孔世權 外, 韓國家族計劃事業: 1961-1980, 家族計劃研究院, 1981, . 141-144).
- 7) Kim, T. H., 'Age at First Marriage and Birth Interval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XI: 1-14,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pp. 1-14.

- 8) 調査統計局, 韓國의 社會指標, 1989,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9, pp. 276-277.
- 9) 1960년대 전반기 출산률 저하의 40% 이상이 혼인연령의 상승에 기인한다(權泰煥, 金斗燮, 人口의 理解,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0, p. 109).
- 10) Ruzicka, L. T. , 'Age at marriage and timing of first birth,' Population Studies, Vol. 30, 1976, p. 527.
- 11) Kim, T. H. (1981), pp. 82-87.
- 12) Bumpass, L. L. and E. K. Murrugu, 'Age at Marriage and Completed Family Size,' Social Biology, Vol. 24, 1977, pp. 31-37.
- 13) Kim, T. H. (1982), pp. 2-8.
- 14)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Seoul, 1977.
- 15) Park, B. T. , et al. (1979).
- 16) 曹大熙 外(1985); 文顯相 外(1989).
- 17) 調査統計局(1988).
- 18) 이때 이용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朴在榮, 出生·死亡水準의 推定과 經濟·社會的 變數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人口問題研究所, 釜山, 1980; Kwon, T. H. ,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Y. S. Chang et al. (eds.)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pp. 173-212; 文顯相 外, (1989); 李奎植·李任田, '子女의 出產順位 및 性構成과 差異出產力.' 洪文植 外(eds.) , 韓國의 出產力變動과 家族計劃事業 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pp. 41-76; Choi, B. H. , Fertil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Decomposition and Micro-Level Analysis, Unpublished M. A. Thesis,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1989, pp. 62-84.

- 19) 지역별 출산수준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다양하므로 1960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령별 출산률과 합계출산률의 차이의 변화를 직접 논의하였다.
- 20) 15-19세와 40-49세의 출산률은 매우 낮으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출산률을 비교할 때, 그 비가 불규칙하게 변화할 수 있다.
- 21) Kim, T. H. ,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pp. 141-172.
- 22) Jones, E. F. ,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Achieved Fertility,' WFS Comparative Studies, No. 21, 1982, p. 15.
- 23)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United Nations, New York, 1973, p. 89.
- 24) 이 연구의 제3절과 Kim, T. H. (1981), pp. 112-115 참조.
- 25) Bogue, D. J. , Principles of Demograph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1969, p. 693.
- 26) 여기에서 이용된 1987년 자료는 <表 8>의 자료와 다른 조사통계국의 1987년 인구동태특별조사 자료이다.
- 27) 무학자의 출산수준이 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계층보다 1974년에 61% 더 높던 것이 1987년에는 32% 정도로 줄었으며,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계층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계층에 비하여 같은 기간에 32% 더 높던 것이 23% 정도로 낮아졌다.
- 28)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The World's Population, Q. H. Stanfo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2, pp. 105-114.
- 29) 1974년 자료에서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면 농림어업종사자의 출산수준만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다른 직종에서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Kim, T. H. , 1981, pp. 59-61 참조).

- 30) Kwon, T. H. (1982), pp. 173-212.
- 31) Choi, B. H. (1989), pp. 73-84.
- 32) 분석의 대상을 1974년에는 35-39세 연령층의 여자로, 1987년에는 결혼기간 15-19년의 여자로 하였다. 이 때 평균결혼연령이 20-24세 사이에 있으므로 두 분석의 대상의 연령이나 결혼기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33) 경제활동상태는 무직 및 농림어업종사자와 비농림어업종사자의 2가지로 분류되었다(Choi, B. H. , 1989, pp. 65-66 참조).
- 34) Kim, D. S. , Socio-Economic Status, Inequality and Fertility,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pp. 71-73.
- 35) *ibid*, p. 51.

## 參 考 文 獻

- 孔世權 外, 韓國家族計劃事業：1961—1980, 家族計劃研究院, 1981.
- 權泰煥·金斗燮, 人口의 理解,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0.
-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朴在榮, 出生·死亡水準의 推定과 經濟·社會的 變數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人口問題研究所, 釜山, 1980.
- 李奎植·李任田, ‘子女의 出產順位 및 性構成과 差異出產力,’ 洪文植 外 (eds.), 韓國의 出產力變動과 家族計劃事業 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pp. 41—76.
- 李興卓, 人口學：理論과 實際, 法文社, 서울, 1987.
- 曹大熙 外, 1985年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 調查統計局, 1987年 人口動態特別調查,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8.
- 調查統計局, 韓國의 社會指標, 1989,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9.
- Bogue, D. J. , *Principles of Demograph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1969.
- Bongaarts, J. and R. G. Potter,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Bumpass, L. L. and E. K. Mburrugu, ‘Age at Marriage and Completed Family Size’, *Social Biology*, Vol. 24, 1977, pp. 31—37.
- Choi, B. H. , *Fertil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Decomposition and Micro-Level Analysis*, Unpublished M. A. Thesis,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1989.

- Davis, K. and J.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4, No. 3, 1956, pp. 211 – 235.
- Freedman, R. , 'Differential fertility,' *International Encyclopedia for the Social Sciences*, Vol. 5, Macmilan and Free Press, 1968, pp. 377 – 381.
- Jones, E. F. ,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Achieved Fertility,' *WFS Comparative Studies*, No. 21, 1982.
- Kim, D. S. , *Socio-Economic Status, Inequality and Fertility*,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 Kim, T. H. ,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Unpublished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 \_\_\_\_\_, 'Age at First Marriage and Birth Interval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XI,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pp. 1 – 14.
- \_\_\_\_\_,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 Koh, K. S. and D. P. Smith, *The Korean 1968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 National Family Planning Council (NFPC), Seoul, 1970.
-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2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82.
- Kwon, T. H. ,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Y. S. Chang et al. (ed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pp. 173 – 212.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Seoul, 1977.

Park, B. T. et al. , *The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9.

Ruzicka, L. T. , 'Age at Marriage and Timing of First Birth,' *Population Studies*, Vol. 30, 1976, p. 527 – 538.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The World's Population*, Q. H. Stanford(e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2, pp. 105 – 114.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United Nations, New York, 1973.

# 第 4 章 우리나라 婦人의 理想子女數 變動

曹 大 熙\*

- I. 序 論
  - II. 分析方法과 資料
  - III. 分析結果
  - IV. 要約 및 結論
- 

## I. 序 論

### 1. 出産力과 子女價値觀

避妊法의 사용이 普遍化되고 避妊法의 구득이 용이한 社會일수록 出産率 곧 子女數는 生物學的인 要因에 의해서보다는 社會・經濟的 要因에 의해 좌우되리라는 것은 복잡한 理論의 引用이 필요없는 自明한 사실이다. 그 중 價値體系의 下位概念으로서 子女價値觀의 變化없이는 避妊手段의 可用性을 높여주는 것만으로 出産率의 變化를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소한 그렇게 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이슬람 국가에서 多子女出産에 높은 價値를 賦與하는 宗教的 信念이 抑制政策에 커다란 障礙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

\*韓國保健社會研究員 人口研究室 責任研究員

이러한 子女價値觀의 重要性 때문에 人口成長抑制政策을 펴나가기 위한 情報을 蒐集하거나 人口政策을 평가하는 所謂 KAP調查에 어떤 식으로든 選好하는 子女數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全國的인 규모의 KAP調查가 실시된 1960년대 초부터 거의 모든 調查에 理想子女數를 묻는 質問이 들어있다. 이 部類의 調查들은 주로 Freedman (1975)의 出產力決定 모델에 理論的인 근거를 두고 設計되었는 바, 이 모델에서는 價値體系의 下位價値로서의 子女價値觀이 出產子女數 곧 出產力에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調查結果를 정리해 보면 子女價値觀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平均 理想子女數도 꾸준히 감소해온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表 1〉, 〈表 2〉 參照).

이 두가지의 일관된 경향은 形式理論上 세가지의 相關關係를 想定할 수 있다. 첫째가 두가지 경향이 아무런 관계없이 우연히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둘째가 이 두가지 경향이 제 3의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가지 경향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因果關係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두번째 가능성을 취한다면 우리는 教育水準의 향상을 그 제 3의 요인으로 指目할 수 있다. 1965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查에서 시작하여 모든 調查結果에서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理想子女數가 應答者의 教育水準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理想子女數와 出產子女數(혹은 生存子女數)가 함께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와같은 식으로만 설명하고 끝내버릴 수 없다고 본다. 教育이라는 要因이 理想子女數라는 子女價値觀보다는 出產行動과 因果的으로 거리가 멀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의 해석을 취한다고 할 때 原因-結果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子女價値觀이 변하고 그 결과로 出產力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음은 그 반대로 出產行動이 변화하고 그 행동에 걸맞는 態度를 가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個人水準의 社會心

理的 次元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될지 모르나 社會全般的인 현상을 설명하는 假說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理想子女數로 표현되는 子女價値觀의 變化가 出産力의 低下에 寄與했다는 것은 不動의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子女價値觀을 포함해서 부인이 표시되는 出産計劃이나 意思가 차후 出産行動을 얼마만큼 豫測할 수 있는가는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중요한 主題가 아닐 수 없다. Westoff와 Ryder(1977), Freedman, Hermalin과 Chang(1975), Hermalin, Freedman, Sun과 Chang(1979), Foreit와 Suh(1980), Vlassof(1990) 등의 연구는 KAP調査에서 밝힌 부인들의 응답이 얼마만큼 실제 出産行動을 豫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몇개 안되는 實證的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모두 子女의 追加出産 意思와 追加希望子女數가 차후 出産에 영향을 미치는지 與否와 그 程度를 밝히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로서 응답자들의 자녀가치관은 추가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分析模型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다 개인수준의 意思決定과 그 결과를 분석한 것들이기도 하다. 理想子女數라는 子女價値觀이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는 社會 全般的인 集合的 次元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社會 全般的인 脈絡에서도 그 중요성이 浮刻되고 檢討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 理想子女數의 變動이 出産力의 變動을 豫測할 수 있는 指標가 될 수 있다면 集合的인 水準(Aggregational Level)에서 理想子女數의 變動 자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런 연구분석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코호트 分析法(Cohort Analysis)이라 생각된다.

우선 1965년 이후 調査結果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인들의 平均理想子女數 變化를 年齡階級別로 정리하면 다음 <表 1>과 같다. 이 表의 맨 아랫단 全體 年齡階級の 平均理想子女數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下限線에 接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年齡階級別로 보더라도 첫째 年齡이 높을수록 理想子女數가 많으며, 둘째 모든 年齡階層에서 平均 理想子女數가 꾸준

〈表 1〉 年齡別 年度別 平均 理想子女數의 減少

年齡	1965 <sup>1)</sup>	1968 <sup>2)</sup>	1971 <sup>1)</sup>	1973 <sup>3)</sup>	1976 <sup>4)</sup>	1978 <sup>5)</sup>	1982 <sup>6)</sup>	1985 <sup>7)</sup>	1988 <sup>8)</sup>
15~24	3.7* (509)	3.5 (676)	3.4* (547)	3.0 (190)	2.4 (628)	2.5 (374)	2.1 (573)	1.8 (741)	1.8 (522)
25~29	3.7 (898)	3.5 (1,620)	3.4 (1,067)	2.9 (394)	2.5 (1,203)	2.5 (711)	2.2 (1,147)	1.9 (2,003)	1.9 (1,832)
30~34	4.0 (856)	3.9 (1,567)	3.7 (1,159)	3.1 (428)	2.8 (1,108)	2.7 (681)	2.5 (995)	2.0 (1,692)	2.0 (1,784)
35~39	4.1 (717)	4.1 (1,298)	3.9 (1,063)	3.3 (400)	3.0 (1,143)	2.8 (688)	2.6 (801)	2.1 (1,371)	2.0 (1,345)
40~44	4.2 (427)	4.2 (963)	4.1 (780)	3.4 (259)	3.2 (982)	2.9 (581)	2.9 (830)	2.2 (1,202)	2.1 (1,032)
全體	3.9 (3,445)	3.8 (6,170)	3.7 (4,616)	3.1 (1,671)	2.8 (5,064)	2.7 (3,035)	2.5 (4,346)	2.0 (7,010)	2.0 (6,515)

註：\*는 20~24歲에 婦人들만 포함됨.

資料：1) “出産力과 家族計劃 -1971年 出産力 및 人工妊娠中絶調査 中間報告-”,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2, p.73, TableⅢ-15.

2) “1968年度 韓國婦人의 出産力 및 家族計劃 實態調査報告”, 國立家族計劃研究所, 1970, p.85, 表 61.

3)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 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4, p.35, 表 2-4.

4)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p.84, 表 5-3.

5)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産力 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p.159, 表 4-7

6)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pp.107~108, 表-2.

7)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p.223, 表-32.

8) “1988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42, 表 Ⅲ-4.

히 감소해 왔고, 셋째 젊은 年齡階層일수록 빨리 下限線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圖 1〉이다.

한편 平均 生存子女數도 〈表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꾸준히 감소해왔다. 1966년에서 1988년에 이르는 20여년간에 3.6명에서 2.0명으로 56퍼센트 가량이 떨어졌다. 이와같은 平均 生存子女數의 減少, 다른 말로 出産力

의 減少는 理想子女數의 減少와 無關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인들은 결혼초에 생각하던 理想子女數보다 많은 子女를 갖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든다면 1960년대 중간시기 쯤

〈表 2〉 年齡別 年度別 平均生存子女數의 減少

年齡	1966 <sup>1)</sup>	1967 <sup>2)</sup>	1971 <sup>1)</sup>	1973 <sup>3)</sup>	1976 <sup>4)</sup>	1978 <sup>5)</sup>	1982 <sup>6)</sup>	1985 <sup>7)</sup>	1988 <sup>8)</sup>
15세 미만	2.0 (38)	2.0 (41)							
15~24	2.0 (367)	2.0 (426)	1.0	1.0 (227)	0.9	0.9 (391)	0.9 (573)	1.1 (741)	1.0 (522)
25~29	2.5 (861)	2.5 (943)	2.1	2.0 (431)	1.9	1.9 (737)	1.7 (1,147)	1.7 (2,003)	1.5 (1,832)
30~34	3.8 (896)	3.7 (870)	3.3	3.2 (479)	3.1	2.9 (703)	2.6 (995)	2.3 (1,692)	2.1 (1,784)
35~39	4.5 (717)	4.5 (760)	4.2	4.1 (467)	3.8	3.7 (723)	3.2 (801)	2.9 (1,371)	2.5 (1,345)
40~44	4.8 (489)	5.0 (584)	4.6	4.5 (312)	4.4	4.4 (612)	3.9 (885)	3.5 (1,202)	2.9 (1,032)
全體	3.6 (3,368)	3.6 (3,624)		3.1 (1,916)		2.8 (3,166)		2.3 (4,401)	2.0 (7,010)
									2.0 (6,515)

資料 : 1) 保健社會部, 1968, “1967年度 全國家族計劃實態 調查報告”, p.178, Table VIII-24.

2) 家族計劃研究院, 1972, “出產力斗 家族計劃 -1971年 出產力 및 人工妊娠 中絶調查 中間報告-”, p.56, Table III-6.

3) 家族計劃研究院, 1974, “1973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產力 調查”, p.62, 表 2-23.

4) 家族計劃研究院,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p.81, 表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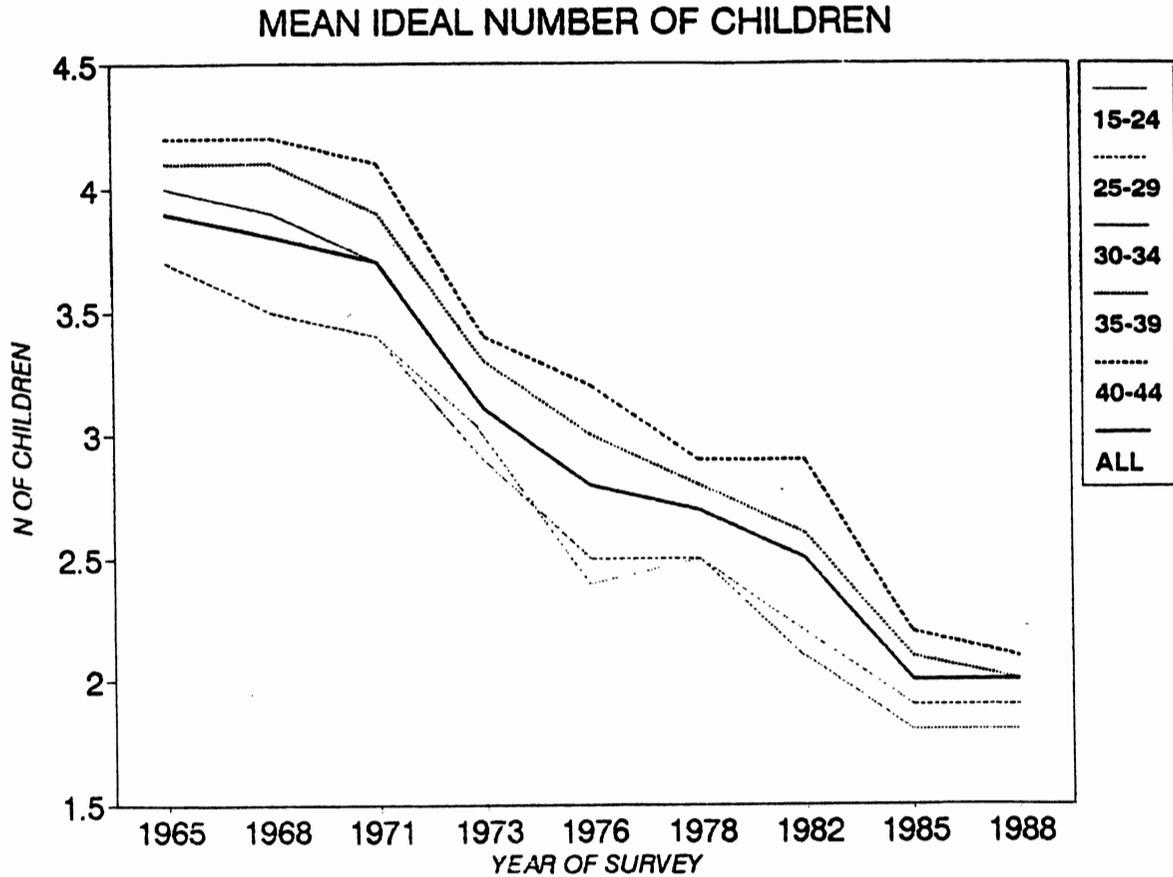
5)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產力 實態調查”, p.172, 表 4-15.

6)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報告”, p.160, 表-89.

7)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1985年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p.211, 表-25.

8)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1988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p.42, 表 III-4.

〈圖 1〉 平均理想子女數의 變動



에 20대 전반에 속하던 부인들의 平均 理想子女數는 3.7명이었는데 出産을 거의 끝마쳤다고 보아도 무방한 1980년대 중간시기(이때의 연령이 40대 전반에 속한다)의 平均 生存子女數가 3.5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理想子女數와 出産 終結時의 生存子女數와의 一致現象을 위의 表만을 가지고 속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調査應答者를 찾아내어 몇명의 子女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一致與否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調査研究을 全國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의 子女數에 대한 價値觀(혹은 態度)에 관한 연구는 韓國 社會에서는 전통적으로 少子女보다는 多子女를, 女兒보다는 男兒를 선호해 왔다는 전제아래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즉 우리나라의 子女價値觀이 出産力 減少에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出産力을 감소시키는 人口政策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多子女 및 男兒選好 態度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調査研究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調査研究는 子女에 관한 태도의 여하를 平面的으로 記述하거나 몇가지 社會經濟的인 要因과 交叉시켜 그 相關性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選好하는 子女數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教育水準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이, 그리고 농촌 거주지보다는 도시거주자 중에서 더 우세하다는 것을 반복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調査結果를 縱적으로 연결시켜서 選好하는 子女數가 꾸준히 줄어든 것이 새로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진 결과인지, 나이가 들면서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나타난 결과인지, 그도 아니면 出生時期의 여하나 年齡에 상관없이 社會全般的인 변화 때문인지에 관해 분석하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本稿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全國的인 規模로 실시된 1965年 全國家族計劃 實態調査 결과와 그 이후에 얻어진

調査資料를 연결하여 子女數에 관한 價値觀 혹은 態度的 尺度가 된다고 보는 理想子女數의 減少에 대하여 Cohort分析을 가해 보려는 것이다.

## II. 分析方法과 資料

### 1. Cohort分析의 概要

코호트 分析法은 人口學者들이 일정 시기에 태어난 人口가 어떻게 消滅되어 가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것인데, 꼭 같은 방법으로 出生코호트의 結婚力이나 出生코호트 혹은 結婚코호트의 出產力 분석에도 적용이 되었다. Ryder 등(1956, 1964, 1965)은 이 코호트분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놓음으로써 1970년대에 이르러 人口現象 뿐만 아니라 一般 社會現象이나 態度的 變化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人口現象을 그 分析對象으로 할 때는 각 코호트가 나이가 들어감에 문제로 삼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대상이 일반 社會현상으로 되면서부터 연령에 의한 변화보다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코호트 分析法은 한마디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 이를테면 特定 政黨에 대한 支持度, 合計出產力이나 態度 등에 변화를 주는 影響을 세가지 효과 즉 코호트 效果(Cohort Effect), 年齡 效果(Age Effect), 時期效果(Period Effect)로 갈라 보려는 시도이다. 대부분의 社會현상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자들이 橫斷面的인(Cross-Sectional)자료의 분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두개 이상의 橫斷面的인 자료를 연결시킴으로써 縱斷面的인(Longitudinal)분석을 가할 수 있다는 理論的인 明快性에 매력을 느끼고 이 코호트

분석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방법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政黨支持率과 같은 政治行態나 다양한 態度的 變化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자주 적용되었다.

한편으로 態度나 行動의 變化는 人口學的인 現象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효과를 數量的으로 區分해 낸다는 것에 대해 懷疑를 表明하고 비판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Glenn(1976)이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Mason 등을 중심으로 한 數量的 分析 一邊倒의 연구들을 '부질없는 試圖(Futile Quest)'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이 비판의 요점은 社會現象이란 數量的으로 분석할 수 있을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數量的 統計分析 結果만으로는 社會形象의 變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時期(Period)와 年齡(Age)라는 요인은 연구대상이 된 社會現象에 附加的으로 영향을 미치는(Additivity)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Compounded) 作用하는 것이며 코호트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變動을 云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조차 하므로 附隨的인 情報 혹은 知識(Side Information)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Glenn의 이와같은 비판에 대한 逆批判이 없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數量的이고 統計學的인 기술에 의지하여 機械的으로 分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 分析方法에 의한 연구의 성패는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는 분석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분석모델은 연구하는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2. 分析된 資料와 그 問題點

態度的 變化를 보는 가장 理想的인 資料는 2회 이상의 追究調査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와같은 자료의 수집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극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코호트 분석은 다른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와 같이 가능하면 여러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또 코호트 분석을 가할 자료는 가능하면 코호트의 연령계급과 자료수집 시점간의 간격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5세 간격으로 통계치를 계산할 것이라면 매 5년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가로 방향으로 연도를 세로 방향으로 연령구분을 표시토록 하고 해당하는 간에 얻어진 수치를 적어 넣으면 年齡效果, 코호트效果, 時期效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로로 비교하여 보면 같은 연령층의 시기별 변화를 찾아볼 수 있고, 세로로 비교하여 같은 시기의 코호트별 차이를 알아볼 수 있으며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의 年齡效果를 살필 수 있다.

코호트 분석에 사용되는 이상적인 자료는 동일한 測定道具를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設問調査의 경우 가능하면 文句가 전혀 동일한 질문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면 좋다. 물론 동일한 어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질문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비교의 타당성(Comparability)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이런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다음의 <表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家族計劃과 出產力 關係 全國規模의 調査는 이 表에 적힌 것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다. 1965~1968년간에는 매년 실시되었는데 코호트 분석에서는 調査자료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뒤야 하기 때문에 1966년과 1967년의 것은 제외시켰다. 1974년 世界出產力 調査資料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정평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理想子女數를 묻는 질문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1973년에 韓國行動科學研究所에서 실시한 家族計劃에 관한 調査도 尙大한 자료가 들어있지만 原資料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빠지게 되었다. 1978년에 실시된 全國家族計劃

〈表 3〉年度別 利用된 調査資料

調査年度	調 査 名	應答婦人數	質 問 內 容
1965	全國家族計劃實態調査*	3,445 (15~44세)	부인께서는 보통 부인들이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968	韓國婦人の 出産力 및 家族計劃 實態調査	6,170 (15~44세)	부인의 개인사정을 떠나서 보통 부인들이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971	出産力과 家族計劃實態調査*	4,616 (15~44세)	부인의 개인사정을 떠나서 보통부인이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976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5,064 (15~49세)	아주머니께서는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982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	4,346 (15~49세)	아주머니께서는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985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7,010 (15~49세)	아주머니께서는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988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	6,515 (15~49세)	아주머니께서는 몇명의 子女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보고서에 수록된 연령계급별 분류가 본고의 코호트 분류와 일치하거나 거의 일치하므로 표와 도표에 포함시켰음. 그러나 통계처리에서는 제외되었음.

및 出産力調査의 자료는 保存狀態가 좋지 않은 관계로 유감스럽게도 분석이 불가능했고 이듬해 1979년 Westinghouse社의 지원으로 실시된 家族計劃實態調査에는 理想子女數에 관한 문항이 빠져 있어서 제외되었다.

이 표에 적힌 全國規模의 標本調査에서 사용된 標本抽出 方法과 抽出率이 일정하지 않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이 調査들에서 理想子女數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된 질문들이 동일하지 않고 약간은 다르다는 점이다. 즉 1971년도 이전의 調査에서는 ‘보통’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특히 1971년 調

查에서는 '부인의 개인사정을 떠나서'라는 단서를 붙여 응답자 개개인의 의견이나 意思와는 다른 一般的이면서도 觀念的인 子女價値觀을 묻고 있다는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1976년도 이후의 調査에서는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出產計劃을 묻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다. 1985년과 1988년도 調査에서 文句가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1976년과 1982년도 調査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질문문구 상의 차이는 調査間 比較의 妥當性을 떨어뜨리는 흠으로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지나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비교의 타당성을 따진다면야 같은 질문문구를 사용해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家族計劃 및 出產力 관계의 標本調査에서 질문의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응답의 차이는 응답자의 인식의 차 때문에 나타나는 개인차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위에 列擧된 자료 중 原資料가 이용가능한 5개 調査에서 1920년 이후부터 1964년에 태어난 응답부인들의 出生年度와 理想子女數 등 필요한 항목만을 골라 새로운 자료화일을 작성하였다. 이때 각 조사별로 5년 간격별 코호트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300명이 넘지 않을 경우는 제외시켰다. 일단 연도별로 재작성된 자료화일을 연결시켜 하나의 화일로 합하였는데 이때 調査年度를 하나의 변수로서 追加시켰다. 그 결과 사례수가 30,866이 되었다. 1985년과 1988년의 調査는 比例標本(Proportional Sampling)이 아니고 각 조사구별로 승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32,186이 되었다. 이것을 조사년도별 코호트별로 표시하면 다음 <表 4>와 같다.

이와같은 자료의 操作은 立體的인(時系列的인) 자료를 오히려 平面化시켜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주어진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制限點과 마땅한 分析方法의 不備로 불가피하였다. 여기서 資料上의 制限點이란 (1) 각 년도별 標本이 相異하다는 점, (2) 각 년도별로 모든 코호트가

〈表 4〉 코호트別 調査年度別 應答者數

出生年度	調 査 年 度					合 計
	1968	1976	1982	1985	1988	
1920~24	847					847
1925~29	1,059	481				1,540
1930~34	1,290	399				2,229
1935~39	1,467	1,164	899	1,111		4,671
1940~44	1,749	1,186	927	1,305	952	6,119
1945~49		1,235	923	1,414	1,097	4,669
1950~54		858	1,055	1,658	1,350	4,921
1955~59			1,031	2,055	1,920	5,006
1960~64				852	1,332	2,184
1925~64	6,442	5,863	4,835	8,395	6,651	32,186

들어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3) 코호트의 年齡階級 間隔과 調査間의 時差가 相異하며 특히 調査間 時差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말한다. 첫째의 制限點은 각 조사에서 뽑힌 표본이 그 당시 전체 코호트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며 또 이 분석이 個人水準의 微視的인 分析이 아니고 集合的(Aggregational)인 水準의 傾向을 살피는 巨視的인 分析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고 본다. 두번째의 制限點은 3개 이상의 조사에 포함된 코호트의 코호트내 분석(Intra-Chort Analysis)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制限點은 標準코호트表(Standard Cohort Table)의 作成을 不可能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通常的인 코호트 분석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通常的인 분석이라는 것 역시 다른 統計分析처럼 定型化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분석방법들을 적절히 驅使한다면 자료가 가지고 있는 制限點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고에서는 變散分析(Analysis of Variance)과 이에 결들여 多重分類分析法(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理想子女數의 變動에 미친 코호트 效果, 年齡效果 및 時期效果의 相對的인 重要性

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 Ⅲ. 分析結果

앞 장에서 말한 자료를 통계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코호트별 연도별 理想子女數의 변화와 이에 결들여 生存子女數의 코호트별 연도별 변화를 보면 <表 5>와 <表 6>과 같다. 이 두 표를 앞서 제시한 <表 1>, <表 2>와 비교하면, 앞서 제기된 一般的인 傾向 외에 平均理想子女數가 實際子女出產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예를 들면 1940~1944년에 출생한 부인들의 結婚初라고 할 수 있는 20~24세 가졌던 理想子女數가 平均 3.7명이었는데 出產을 거의 마쳤다고 할 수 있는 43~47세 때의 실제 生存子女數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3.5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차이는 젊은 부인들일수록 더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차이가 늦게 태어난 부인들일수록 벌어지는 것은 아직 出產을 채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理想子女數나 希望子女數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實際子女數가 줄어든 때문이며 이 경향이 젊은 부인들일수록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인들의 경우 理想子女數가 實際子女數의 決定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子女出產에 들어가기 전에 理想子女數를 묻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몇 명의 子女를 두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와같은 調査는 長期間과 많은 經費가 소요되고 調査對象의 관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시된 적이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 인용한 Foreit와 徐文姬의 연구가 그 예다. 이 연구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子女를 더 낳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理想子

〈表 5〉 코호트별 年度別 平均 理想子女數

出生年度	1965	1968	1971*	1976	1982	1985	1988
1920~24	<u>40~44세</u> 4.2	<u>43~47세</u> 4.2					
1925~29	<u>35~39세</u> 4.1	<u>38~42세</u> 4.1	<u>40~44세</u> 4.1	<u>46~49세</u> 3.3			
1930~34	<u>30~34세</u> 4.0	<u>33~37세</u> 4.0	<u>35~39세</u> 3.9	<u>41~45세</u> 3.3			
1935~39	<u>25~29세</u> 3.7	<u>28~32세</u> 3.7	<u>30~34세</u> 3.7	<u>36~40세</u> 3.0	<u>42~46세</u> 2.9	<u>45~49세</u> 2.4	
1940~44	<u>20~24세</u> 3.7	<u>23~27세</u> 3.5	<u>25~29세</u> 3.4	<u>31~35세</u> 2.8	<u>37~41세</u> 2.8	<u>40~44세</u> 2.2	<u>43~47세</u> 2.2
1945~49			<u>20~24세</u> 3.4	<u>26~30세</u> 2.6	<u>32~36세</u> 2.5	<u>35~39세</u> 2.1	<u>38~42세</u> 2.1
1950~54				<u>21~25세</u> 2.4	<u>27~31세</u> 2.4	<u>30~34세</u> 2.0	<u>33~37세</u> 2.1
1955~59					<u>22~26세</u> 2.2	<u>25~29세</u> 1.9	<u>28~32세</u> 2.0
1960~64						<u>20~24세</u> 1.8	<u>23~27세</u>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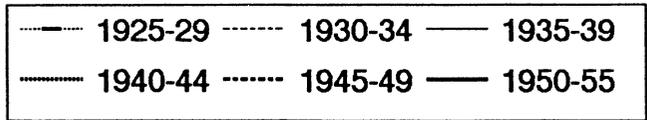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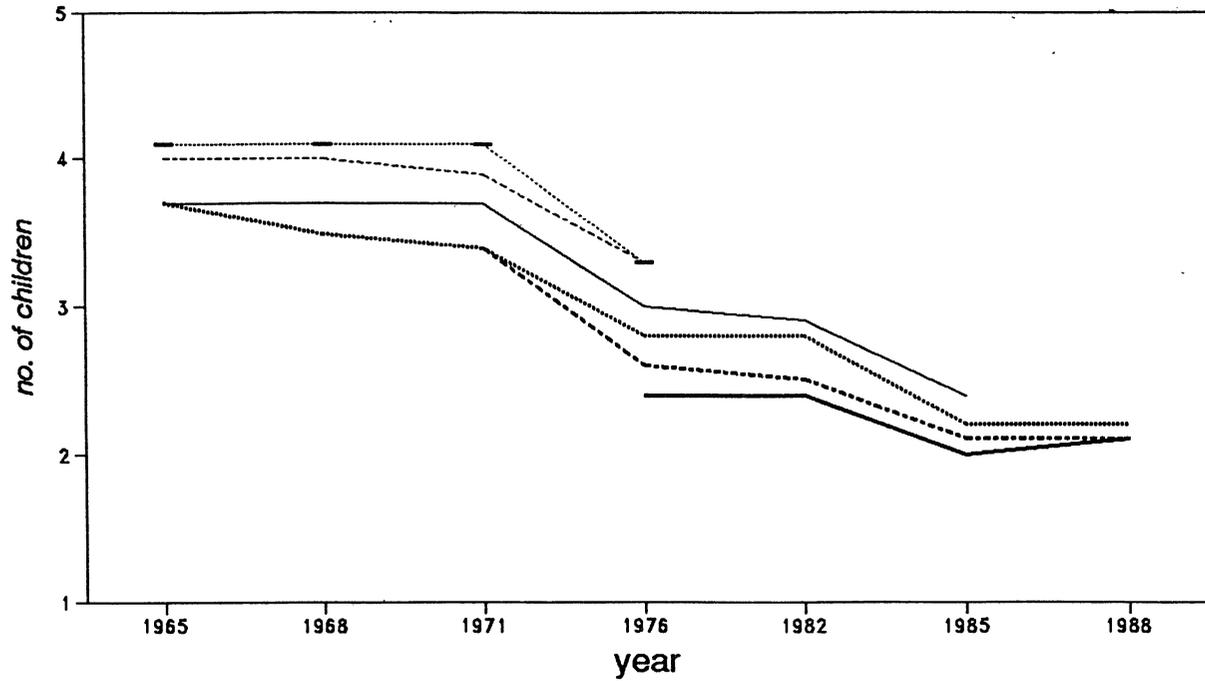
\*코호트에 해당하는 연령과 1세 차이가 있음.

女數이고 이 追加子女希望 여부는 實際 追加 子女의 出産에 적잖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코호트별 變化를 보면 理想子女數가 그렇게 빨리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부터 1939년에 태어난 부인들의 理想子女數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1955년 이후 3년간 아무런 變化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기간 중에 1940~1944년생의 젊은 부인들만의 平均理想子女數가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 부인들의 子女價値觀은 1971년까지 거의 變化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 크게 變化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 기간 중에 平均 理想子女數가 이처럼 크게 떨어졌는지에 관해서 자료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다만 1970년대 초에 시작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표어에 잘 나타나 있듯이 ‘적당히’에서 ‘둘

〈圖 2〉 코호트별 平均 理想子女數의 變動

CHANGE OF IDEAL NO. OF CHILDREN BY COHORT



〈表 6〉 코호트別 年度別 平均 生存子女數

出生年度	1966*	1968	1974	1976	1982	1985	1988
1920~24	40~44세 4.8	43~47세 4.8					
1925~29	35~39세 4.5	38~42세 4.7	44~48세 4.7	46~49세 4.8			
1930~34	30~34세 3.8	33~37세 4.1	39~43세 4.5	41~45세 4.5			
1935~39	25~29세 2.5	28~32세 3.2	34~38세 4.0	36~40세 3.8	42~46세 4.2	45~49세 4.1	
1940~44	20~24세 2.0	23~27세 2.7	29~33세 3.1	31~35세 3.3	37~41세 3.6	40~44세 3.5	43~47세 3.5
1945~49			24~28세 1.9	26~30세 2.3	32~36세 2.9	35~39세 2.9	38~42세 2.9
1950~54					27~31세 2.3	30~34세 2.4	33~37세 2.4
1955~59					22~26세 1.4	25~29세 1.7	28~32세 1.9
1960~64						20~24세 1.0	23~27세 1.1

\*코호트에 해당하는 연령과 1세 차이가 있음.

만'으로 子女數를 낮추고자 하는 政府支援의 대대적인 弘報活動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1976~1982년 기간 중에도 理想子女數의 변화는 거의 없다가 그 후 1985년 기간 중에 또 한번의 대폭 감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둘만'이 아니라 '하나도 족하다'는 정부지원의 家族計劃 캠페인에 힘입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처럼 정부지원의 家族計劃弘報에 의해 理想子女數가 크게 바뀐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家族計劃弘報가 일반 국민들이 별 저항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 理想子女數를 묻는 질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성질의 것이기에 각종 大衆傳達媒體를 통해서 보거나 들은 '公認된' 가치를 부담 없이 자기의 견해인 것으로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表 5〉에서 주의를 끄는 사실은 최근에 이르러 理想子女數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젊은 코호트에서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조차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反轉 현상은 1985년 調査와 1988년 調査 결과의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1940~1949년간에 태어난 부인들은 平均 理想子女數가 줄지 않고 있는데 반해 1950년 이후부터 1964년 이전에 출생한 부인들의 平均 理想子女數는 미세하기는 하지만 0.1씩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었다.

全般的으로 子女價値觀의 변화도 젊은 코호트에서 시작이 되어 나이드는 코호트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一般化해도 무방한 것 같다. 이와 같이 젊은 부인들에게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비교적 새로운 변화에 대해 感受性이 예민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여기에 교육이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理想子女數의 전반적인 감소는 앞에서 얘기된 것처럼 세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코호트 효과로서 少子女價値觀을 가지고 있는 코호트가 많아짐으로서 理想子女數가 감소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年齡效果로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理想子女數가 줄어드는 혹은 늘어나는 경우이며, 셋째는 時期效果로서 社會全般的인 價値觀이나 霧圍氣 혹은 認識이 少子女 選好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理想子女數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이 세가지 효과를 가려내기 위해서 變散분석을 가할 수 있다. 이 變散分析은 從屬變數인 理想子女數가 위의 세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檢證하고 각 效果의 相對的인 크기를 推定할 수 있도록 해준다. 먼저 위의 세가지 변수를 因果關係上 동일한 수준에 놓고(세가지 변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回歸的 技法(Regression Approach)<sup>1)</sup>에 의한 變散分析을 한 결과 <表 7>을 얻었다.

이 <表 7>에서 變散의 44퍼센트 가량이 모델에 포함된 要因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가지 중 時期要因으로 돌릴 수 있는 變散이 가장 크고 이에 비해 코호트나 年齡에 의해 설명되는 變散의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인에

〈表 7〉 回歸的 技法에 의한 變散分析 結果表

變散의 要因	變散	自由度	平均變散	F값	有意水準
主要因 :	15932.570	18	885.143	1347.011	0.000
코호트	182.484	8	22.810	34.713	0.000
年齡	80.197	4	13.366	20.341	0.000
時期	1153.863	4	288.466	438.988	0.000
설명된 變散	15932.570	18	885.143	1347.011	0.000
殘餘變散	20187.460	30721	0.657		
總計	36120.030	30739	1.175		

\* 相互作用에 의한 變散은 각 변수별로 交叉表를 만들 경우 공간이 있으므로 계산이 불가능함.

의한 차이가 有意水準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즉 위의 세가지 요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날 確率은 0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호트와 年齡을 알면 時期를 알 수 있고, 또 年齡과 時期를 알면 出生時期 곧 코호트를 알 수 있다. 즉 코호트와 年齡과 時期라는 세가지 요인은 相互 規定的이다. 이 相互 規定에 어떤 순서를 부여함으로써 論理展開上 의미가 통하는 설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여기서는 코호트→年齡→時期로 順位를 정하였다. 즉 한 부인이 태어난 時期가 年齡을 決定하고 年齡을 통해 이 부인이 어떤 時期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식이다. 물론 그 論理上 序列에 變化를 줄 수도 있다. 부인이 어떤 코호트에 속해 있는가를 맨 앞에 놓고 다음에 시기를 두고 마지막에 연령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코호트를 맨 앞에 둔 것은 주된 연구의 관심이 理想子女數가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다는 정해진 코호트의 理想子女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있기 때문이고, 年齡을 時期보다 앞세운 것은 너무나 뻔한 時期別 理想子女數의 차이보다 연령별 차이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연 理想子女數가 변하는지의 여부가 학문적 흥미가 더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差等的 技法(Hierarchical Ap-

proach)에 의한 變散分析이다.

差等的 技法에 의한 變散分析은 설명되는 變散의 要因別 配分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獨立變散 즉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독립변수의 값을 알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變散은 한 要因에만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요인 혹은 세 요인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序列的 接近에서는 제1요인에 줄 수 있는 모든 變散을 돌리고 나머지 중에서 제2요인에 줄 수 있는 모든 變散을 그 나머지를 제3요인에 돌리는 식으로 配分하는 것이다. 반면 앞서 그 결과표를 제시한 回歸的 技法에서는 각 요인에 排他的으로 돌아가는 부분만을 각 요인에 배분한다.

〈表 8〉은 差等的 技法에 의해 變散分析을 통해 얻은 결과다. 이 表에서 설명되는 變散 중 코호트와 연령으로 돌아가는 분량이 앞의 〈表 7〉에서보다 월등 커진 반면 時期의 것은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호트와 年齡이 갖는 F값도 월등 커지게 되며 그 有意性도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表 7〉과 〈表 8〉은 각 요인의 효과가 갖는 통계적 有意성을 분명하게 해준다. 또 이 표에 나타난 수치를 사용해서 각 요인이 갖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表 8〉 差等的 技法에 의한 變散分析表

變散의 要因	變散	自由度	平均變散	F값	有意水準
主要因 :	15932.570	18	885.143	1347.011	0.000
코호트	12138.503	8	1517.313	2309.048	0.000
年齡	2640.203	4	440.034	669.644	0.000
時期	1153.863	4	288.466	438.988	0.000
설명된 變散	15932.570	18	885.143	1347.011	0.000
殘餘變散	20187.460	30721	0.657		
總計	36120.030	30739	1.175		

\* 相互作用에 의한 變散은 각 변수별로 交叉表를 만들 경우 空欄이 있으므로 計算이 불가능함.

지 다시 말해서 從屬變數인 平均子女數가 각 요인의 여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답과 아울러 각 요인이 갖는 효과의 그 상대적 크기까지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 <表 9>에 제시된 多重分類分析 結果이다.

<表 9> 多重分類分析 結果表

變散別 區分	事例數	調整되지 않은 平均値와의 差 $\eta$	調整된 平均値와의 差 $\beta$
全體(平均=2.60)	30740	R=.664	R <sup>2</sup> =.441
코호트		.58	.16
1 1920~24	677	1.62	.43
2 1925~29	1367	1.28	.39
3 1930~34	2107	1.07	.30
4 1935~39	3974	.53	.17
5 1940~44	5961	.17	-.01
6 1945~49	4605	-.28	-.11
7 1950~54	4877	-.45	-.16
8 1955~59	4990	-.62	-.13
9 1960~64	2181	-.73	-.06
年齡		.18	.12
1 15~19	27	.88	-.16
2 20~24	2359	-.27	-.27
3 25~29	7501	-.23	-.13
4 30~34	6950	-.04	.01
5 35~39	5820	.11	.08
6 40~44	4982	.22	.12
7 45~49	3101	.30	.15
時期		.63	.53
1 1968年	5979	1.25	1.05
2 1976年	5666	.24	.17
3 1982年	4109	-.12	-.02
4 1985年	8335	-.55	-.48
5 1988年	6651	-.57	-.47

이 <表 9>에서 전체의 평균은 자료 중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에서 타당한 값을 갖는 사례 30,740명의 평균이므로 각각 調査別 平均의 평균도 아니고 1965~1988년간의 평균은 더욱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調整되지 않은 평균과의 차이는 다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평균과의 차이를 말하고 調整된 평균과의 차이는 다른 요인을 고려할 경우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령이나 코호트에 상관없이 볼때의 1988년도 平均 理想子女數는  $2.60 - 0.57 = 2.03$ 명이고 연령과 코호트 1988년도 應答婦人의 연령과 코호트상의 特性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勘案한 후의 平均 理想子女數는  $2.60 - 0.47 = 2.13$ 명이라는 것이다.  $\eta$ 와  $\beta$ 는 각각 다른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고려한 후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이 값을 제공하여 각 변수의 값을 알고 난 후 平均을 추정하면 전혀 모르고 추정할때 범하는 오류 중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가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먼저 理想子女數가 각 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그 설명력이 얼마나 큰가를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 값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최근에 전에 태어난 부인들일수록 理想子女數가 거의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 負(-)의 相關關係는 다른 요인의 효과를 統制하였을 경우에도 변함이 없지만 코호트별 理想子女數의 變化幅과 함께 그 상관계수도 0.58에서 0.16로 대폭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일견 어느 코호트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理想子女數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호트 자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코호트 값이 커질수록(최근에 태어난 부인일수록) 理想子女數가 줄어들다가 1950년 이후 출생 부인들부터는 다시 理想子女數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表 10>의 調整된 平均과의 差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앞에서 出産期에 들어설 우리나라 부인들의 理想子女數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理想子女數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15~19세 연

령계급을 제외하면(사례수가 27밖에 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相關關係의 方向이 뒤바뀌어 나이가 들수록 理想子女數가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상관계수도 크게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理想子女數도 늘어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드는 것’(Aging)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드는 부인들일수록 오래전에 태어난 코호트에 속하거나 調查時期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 코호트의 효과와 시기효과를 통제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理想子女數가 늘어나는 傾向이 미약하지만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傳統的인(혹은 保守的인) 價値나 態度로 돌아가는 性向이 있기 때문이거나 경제적 與件이 好轉되어 子女를 더 많이 낳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出產한 子女數에 맞춰 理想子女數를 대담함으로써 價値와 行動의 불일치를 감소시키려는 심리적 성향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beta$ 값이 0.12로서 연령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부분이 전체 變散의  $0.12^2=1.4$ 퍼센트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10〉 코호트別 分散分析 結果

코호트	全 體		年齡效果 <sup>+</sup>		年齡效果 <sup>++</sup>		時期效果	
	F값	有意度	F값	有意度	F값	有意度	F값	有意度
1925~29	44.094	.000	1.607	.186	58.487	.000	.917	.338
1930~34	78.363	.000	3.772	.010	103.388	.000	3.290	.070
1935~39	152.821	.000	3.148	.014	376.449	.000	.217	.000
1940~44	190.713	.000	2.192	.041	339.024	.000	63.404	.000
1945~49	33.920	.000	5.401	.000	59.513	.000	59.513	.000
1950~54	31.461	.000	11.136	.000	17.718	.000	69.641	.000
1955~59	14.703	.000	4.387	.004	1.749	.155	46.834	.000
1960~64	4.851	.002	1.767	.195	8.380	.004	2.723	.099

<sup>+</sup>回歸的 技法

<sup>++</sup>差等的 技法

〈表 11〉 코호트別 多重分類分析 結果

要因別 區分	코호트							
	1925~29 (平均=3.88)		1930~34 (平均=3.67)		1935~39 (平均=3.14)		1940~44 (平均=2.77)	
	D1	D2	D1	D2	D1	D2	D1	D2
年 齡	$\eta=.34$	$\beta=.11$	$\eta=.36$	$\beta=.49$	$\eta=.52$	$\beta=.19$	$\eta=.50$	$\beta=.09$
15-19	-	-	-	-	-	-	.71*	.01
20~24	-	-	-	-	-	-	.68	-.02
25~29	-	-	-	-	.56	-.35	.73	.03
30~34	-1.88*	-1.19	.16	-.61	.70	-.22	.03	-.18
35~39	.15	-.19	.37	-.40	-.15	.02	.04	-.09
40~44	.30	-.04	-.48	.59	-.09	.17	-.44	.03
45~49	-.54	.15	-.39	.68	-.72	.21	-.51	.14
時 期	$\eta=.33$	$\beta=.43$	$\eta=.35$	$\beta=.84$	$\eta=.53$	$\beta=.70$	$\eta=.53$	$\beta=.56$
1968년	.27	.34	.33	.77	.67	.92	.71	.70
1976년	-.54	-.69	-.45	-1.06	-.10	-.17	.06	.21
1982년	-	-	-	-	-.19	-.36	.01	.02
1985년	-	-	-	-	-.75	-.93	-.61	-.65
1988년	-	-	-	-	-	-	-.54	-.65

셋째 時期效果는 거의 絶對的이다. 물론 최근에 이를수록 理想子女數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코호트 效果나 年齡效果를 統制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순전히 이 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變散의 비율은  $0.53^2=28.1$ 퍼센트에 이르며 전체 설명분  $R^2=0.441$ 의  $.281/.441=63.7$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코호트별 분석을 행하면 코호트내 年齡效果와 時期效果를 檢證할 수 있고 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表 10〉과 〈表 11〉는 각각 2개 이상의 연도에 걸쳐 있는 8개 코호트의 變散分析 결과와 多重分類分析 결과에 주요 수치를 골라 재정리한 것이다.

〈表 10〉에서는 거의 모든 코호트에서 연령과 시기에 따라 理想子女數가

<表 11 繼續>

要因別 區分	코호트							
	1945~49 (平均=2.31)		1950~54 (平均=2.15)		1955~59 (平均=1.99)		1960~44 (平均=1.87)	
	D1	D2	D1	D2	D1	D2	D1	D2
年 齡	$\eta=.21$	$\beta=.15$	$\eta=.14$	$\beta=.16$	$\eta=.03$	$\beta=.06$	$\eta=.06$	$\beta=.03$
15-19	-	-	-	-	-	-	-	-
20~24	.19*	-.24	.13	-.29	.07	-.14	-.04	-.02
25~29	.19	-.24	.19	-.13	.00	-.00	.03	.02
30~34	.27	-.05	-.04	.08	-.02	.04	-	-
35~39	-.11	.07	-.11	.04	-.01*	.07	-	-
40~44	-.15	.11	-	-	-	-	-	-
45~49	1.69*	1.26	-	-	-	-	-	-
時 期	$\eta=.27$	$\beta=.39$	$\eta=.23$	$\beta=.35$	$\eta=.13$	$\beta=.17$	$\eta=.07$	$\beta=.04$
1968년	-	-	-	-	-	-	-	-
1976년	.25	.43	.20	.42	-	-	-	-
1982년	.23	.22	.22	.23	.16	.21	-	-
1985년	-.24	-.31	-.17	-.25	-.05	-.05	-.05	-.03
1988년	-.10	-.26	-.09	-.14	-.03	-.03	.03	.02

D1 : 調整안된 平均과의 차이 D2 : 調整된 平均과의 차이

\* 사례수가 50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임.

달라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1925~1934년 코호트와 1960~1964년 코호트에서 有意도가 뚝 떨어지는 것은 이 코호트에서 분류 카테고리가 2개 밖에 되지 않고 연령과 시기를 교차시킬 때 사례수가 모든 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하며 극단적인 값을 갖는 소수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年齡效果은 1935~1939년 코호트와 1940~1944년 코호트에서 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955~1959년 코호트에서는 差等的 技法에 의해 變散分析을 가했을 경우에 오히려 有意성이 사라지는 豫想하지 못했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코호트를 제외하면 差等的 技法을 適用하였을 때에 F값이 월등히 커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서의 全體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연령과 理想子女數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때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年齡效果를 統制할 경우 연령은 理想子女數와 正(+)<sup>의</sup>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다(〈表 11〉 參照). 전체로 보았을 때보다 그 一貫性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코호트내의 연령별 分散 자체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年齡效果의 相對的 크기를 보면 들쭉날쭉하여 一貫的인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表 11〉는 理想子女數에 대한 時期效果는 모든 兩極端의 코호트를 제외하면 모든 코호트에서 一貫性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beta$ 係數로 時期效果의 相對的 크기를 비교해보면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앞서 〈圖 1〉에서 본 事實과 一致한다. 또 〈圖 2〉에서 코호트별 理想子女數의 연도별 변화곡선이 최근에 이를수록 감소하는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으로도 이런 사실을 確認할 수 있겠다.

#### IV. 要約 및 結論

社會 全般的인 變化와 이에 따른 價値觀의 變化없이 避妊手段의 普及擴大라는 醫療爲主의 家族計劃만으로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出産力이 急激하게 감소하였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出産力과 직결되는 가치관이 家族觀 내지는 子女觀으로서 이는 주로 理想子女數라는 개념으로 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查를 통해 계속 측정되어 왔다. 本稿는 그동안 保健社會研究院(前 家族計劃研究院 및 人口保健研究院)이 調查하여 보관하여 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理想子女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몇가지 一般的인 傾向을 발견하고 통계적으로 검증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理想子女數는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그 下限線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減少의 速度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앞으로의 出產力 低下에 대한 子女價値觀의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여자들의 不婚率에 의해 크게 좌우되리라는 展望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理想子女數의 減少趨勢는 주로 社會全般的인 認識의 變化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政府가 支援하는 家族計劃弘報事業이 상당히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 사실은, 理想子女數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1968~1976년간과 1982~1985년간으로서 이 기간 중에 각각 政府가 ‘두 子女 갖기 運動’과 ‘한 子女 갖기 運動’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된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셋째 우리나라 부인의 理想子女數는 出生코호트별로 有意한 차이를 보여주리라는 것은 豫想하던 바대로였다. 즉 최근에 태어난 부인들일수록 理想子女數가 줄어드는 一貫性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경향은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일수록 근대적인 學校教育을 받을 기회가 많고 傳統的인 多子女價値觀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울 것이며 또 相對的으로 少子女 選擇의 社會的인 霧圍氣에서 자라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學校教育이 이미 普遍化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코호트 效果에 의한 理想子女數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0년 이후에 태어난 부인들부터 코호트효과에 의한 理想子女數의 實質的인 減少는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增加하는 쪽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은 이 展望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

넷째 같은 코호트 같은 시기에 있는 부인들의 理想子女數가 나이가 들면서 약각씩 높아지는 年齡效果(Aging Effect)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年齡效果의 相對的 크기는 코호트에 따라 一貫性있게 변하지는 않았다. 1955년 이후에 出生한 부인들의 年齡效果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코호트는 出產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理想子女數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아질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 몇가지 발견된 사실들을 100퍼센트 信賴할만한 一般化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全國規模의 調査 결과이기  
는 하지만 전혀 다른 표본에서 얻어진 것이고 調査應答 婦人들의 年齡構  
造가 심한 偏差를 보이고 있으며 調査地域 範圍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分析作業은 이상 몇가지 의미있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유사한 방법을 純粹 人口學的인 현상이 아닌  
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 家族計劃研究院,「出產力斗 家族計劃 -1971年 出產力 吳 人工妊娠中絶調查 中間報告書」, 1972.
- \_\_\_\_\_ ,「1973年 全國家族計劃 吳 出產力 調查」, 1974.
- \_\_\_\_\_ ,「1976年 全國出產力 吳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 國立家族計劃研究所,「1968年度 韓國婦人 吳 出產力 吳 家族計劃 實態調查 報告」, 1970.
- 保健社會部,「1967年度 全國家族計劃實態 調查報告」, 1968.
- 韓國人口保健研究院,「1978年 家族計劃 吳 出產力 實態調查」, 1979.
- \_\_\_\_\_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報告」, 1982.
- \_\_\_\_\_ ,「1985年 出產力 吳 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 \_\_\_\_\_ ,「1988年 全國 出產力 吳 家族保健實態調查」, 1989.
- Foreit, K. G., Suh, M. H., “The Effect of Reproductive Intentions on Subsequent Fertility among Low-Parity Korean Women, 1971~76”,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11, 3:91~104, 1980.
- Freedman, R., *Sociology of Fertility*, Irvington, New York, 1975.
- Freedman, R., Hermalin, A. I., Chang, M. C., “Do Statement about Desired Family Size Predict Fertility? The Case of Taiwan, 1967~1970”, *Demography*, vol. 13, 3:407~416, 1975.
- Glenn, N. D., “Cohort Analysts’ Futile Quest : Statistical Attempts to Separate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900~904, 1976.
- Hermalin, A. I., Freedman, R., T. H. Sun and Chang, M. C., “Do Intentions Predict Fertility? The Experience in Taiwan, 1967~74,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10 3:75~95, 1979.

- Ryder, N. B., "Problems of Trend Determination during a Transition in Fertilit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34: 5~21, 1956.
- \_\_\_\_\_, "Notes on the Concept of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59: 447~463, 1964.
- \_\_\_\_\_,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843~861, 1965.
- SPSS Inc., *SPSS/PC+ V2.0 MANUAL*, 1988.
- Vlassof, C., "Fertility Intentions and Subse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in Rural India",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1, 4: 216~224, 1990.
- Westoff, C. F., Ryder, N. B.,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vol. 14, 4: 431~453, 1977.

## 第 5 章 韓國의 出産性比 分析

金 日 炫\*

- I. 序 論
- II. 出産性比 推移
- III. 差別 出産性比
- IV. 多變數 分析
- V. 結 論

---

### I. 序 論

最近 우리나라 人口의 動態의 變化樣相은 80年代 중반에 始作된 出産水準의 急激한 低下로 인하여 人口學의 變遷(Demographic Transition)의 마지막 段階인 後期的 均衡狀態(Post-Transitional Stage or Old Balance)에 進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出産水準의 急激한 減少는 1962年 以來 始作된 經濟開發의 成功的인 推進과 이에 따른 諸般 社會學的 要素들의 變化 즉, 教育水準, 都市化, 産業化와 效果的인 避妊方法의 導入 및 높은 實踐率 等に 基因한다 하겠다. 특히, 이러한 社會·經濟學的 要因들의 變化는 韓國社會에서 오랫동안 깊게 뿌리를 내려왔던 傳統的인 家族觀 및 子女觀을 變革, 少子女觀 等 近代의 家族觀 形成에 主要한 役割을 하였으

---

\*經濟企劃院 人口統計課長

며, 이는 避妊實踐과 連結되어 원하는 낮은 出生兒數를 減少시켜 窮極의 으로는 出產水準의 激減에 寄與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社會·經濟學的 要因들이 韓國人의 男兒選好思想(또는 男兒選好度)에 미치는 影響은 의문시 되고 있다. 오직 少數의 研究들만이 男兒選好思想이 韓國에서 그 基盤을 잃어가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는 반면, 男兒選好思想의 推移에 關聯된 大部分의 研究들은 韓國에서의 男兒選好思想은 그 強度面에서 큰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에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오늘날의 韓國과 같은 低出產力 社會에서 男兒選好思想의 影響力은 過去 高出產力 社會에서와는 달리 지대하다 하겠다. 즉, 高出產力 社會에서는 夫婦들이 많은 子女數를 達成하는 過程에서 無作爲 生理的 過程을 통하여 出產性比가 全體적으로 均衡에 가까워져 男兒選好思想이 人口의 性比에 미치는 影響力은 微弱하나, 이와 달리 低出產力 社會에서는 少數의 원하는 子女數의 한도내에서 適正數의 아들을 맞기 위해서 胎兒 性鑑別을 통한 人工落胎 및 男兒出產을 위한 各種 醫療技術을 利用하게 되면, 그리고 일단 원하는 數의 男兒를 갖게되며 生存女兒數와 상관없이 出產行爲를 中止하게 되므로 男兒選好가 人口의 性比 不均衡에 미치는 影響은 深刻하다 하겠다. 이러한 男兒選好思想의 影響은 優先적으로 出產性比에 影響을 끼치게 되며, 특히 男兒選好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또는 반응)정도가 母의 社會·經濟學的 및 人口學的 特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推定되므로, 向後 出產性比水準을 展望하고 이로 인하여 發生될 수 있는 諸般 問題點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母의 特性別 差別 出產性比의 分析이 必須 不可缺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減少하고 있는 出產力 水準과 男兒選好思想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 韓國에서 出產性比가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를 살펴본 과 同時에 母의 社會·經濟學的 및 人口學的 特性 등이 出產性比에 어떠한 影響을 끼치고 있는지를 把握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II. 出產性比 推移

出生年度別 出生性比(出生時 女兒 100名當 男兒數)의 推移는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度別 出生兒數는 1970年 1,035千名을 나타냈으나 이는 一般的으로 減少하여 1988년에는 655千名으로 1970年の 約 35.7%가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出生性比는 1970年 109.5%에서 1988년에는 113.6%로 다른 先進國 및 대만, 이집트보다 높은 水準에서 계속 增加하고 있는데(<表 2>), 이는 出生兒數와 出生性比가 反比例的으로 相互作用하고 있음을 추측케 하고 있다. 이러한 出產性比의 增加趨勢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는 一般的으로 父母의 人口學的(母의 年齡, 出產順位 等) 및 社會·經濟的 特性, 특히 男兒選好思想 等이 複合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出產性比와 이들 諸要因들과의 關係糾明을 위한 分析이 必要하다 하겠다.

### 1. 母의 年齡別 出生性比

일찌기 Ciccoo(1938)<sup>2)</sup>는 1915~1934年 美國統計資料를 利用하여 父母의 年齡이 많을수록 性比가 낮아지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韓國의 統計資料를 基盤으로 한 研究結果를 보면, 강과 조(1959)<sup>3)</sup>는 父母의 年齡과 性比는 서로 相關關係가 있으며, 父齡의 相關度가 더 크다고 하였다. 한편, Novitski(1953)<sup>4)</sup>은 1947~1949年 美國資料를 利用하여 父母의 年齡과 直接的인 關聯性은 없으나 父齡과는 密接한 關係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出產性比와 母의 年齡과의 關係는 1985年 前後 서로 다른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5年度 以前에는 出產性比는 母의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減少하는 樣相을 보여 역(Negative)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그 이후 資料에서는 오히려 母의 年齡과 함께 增

加하여 정(Positive)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出生性比와 母의 年齡間 이러한 상반된 두 관계의 設定은 주로 出生兒數 增減과 이에 따른 男兒出生을 위한 人工落胎 等の 醫療技術의 利用度

Table 1. Time Trends in Sex Ratios at Birth by Age of Mother : Republic of Korea

Age of Mother	Year of Occurrence						
	1970	1975	1981	1985	1986	1987	1988
15-19	112.3	110.6	109.7	106.3	111.1	112.4	107.8
20-24	110.5	119.0	106.5	107.1	109.2	106.2	108.9
25-29	109.3	110.7	106.5	109.8	111.6	109.2	113.3
30-34	108.9	110.2	109.0	121.4	125.3	118.1	125.9
35-39	109.3	105.9	112.1	130.4	132.5	121.7	136.0
40-44	109.3	100.9	113.6	120.0	119.9	140.1	129.5
45-49	104.4	88.9	104.3	119.5	123.2	105.3	169.0
All Ages	109.5	112.4	103.9	110.0	112.3	109.4	113.6
No. of Births ('000)	1035	872	893	674	658	651	665

Source : Calculated from Annual Report on the Internal Migration Statistic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Note : • Unit = Number of Male Births per 100 Female Births.

Table 2.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Sex Ratios at Birth in Recent Years

Nation	Year	Ratios	Nation	Year	Ratios
Korea	1985	110.0	USA	1985	105.2
	1986	112.3		France	1986
	1987	109.3	UK		1986
	1988	113.6		W. Germany	1986
Japan	1986	105.9	Egypt		1982
Taiwan	1986	107.3			
	1987	108.4			

Note : • Unit = No. of Male Births per 100 Female Births.

와 깊게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환언하면, 多出産力 構造 下에서 無作爲 生理過程을 통하여 적어도 1~2名の 男兒를 낳을 수 있는 確率이 높고 또 男兒出生을 위한 醫療技術의 發達과 그 利用이 比較的 制限되었던 1985年 以前에는 주로 父母의 年齡이 적을수록 性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低出産力 構造下에서 夫婦의 男兒選好度를 充足시키기 위한 醫療技術의 利用이 容易해짐에 따라 1985年 以後에는 비록 低年齡層에서 出産性比는 이전과 다소 비슷하나 母의 年齡增加와 함께 오히려 增加하여 이들 高年齡層에서 既存 子女中 아들이 없는 경우에 醫療技術 等 手段을 利用한 男兒出産이 높은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 2. 出産 順位別 出産性比

母의 年齡은 出産順位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出産順位와 出産性比間의 關係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母의 年齡과 出産性比間의 關係와 類似함을 假定할 수가 있다. 즉, <表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80年과 그 以前 年度에서 出産性比는 出産順位가 增加함에 따라 다소 增加하는 趨勢이나 그 以後에는 出産順位가 높아짐에 따라 急速히 增加하

Table 3. Time Trends in Sex Ratios at Birth by Order of Birth and Year of Occurrence : Republic of Korea

Birth Order	Year of Occurrence									
	1970	1975	1980	1982	1988	1984	1985	1986	1987	1988
Total	109.5	112.4	103.9	106.9	107.7	108.7	110.0	112.3	109.4	113.6
1st	115.5	120.0	105.7	105.5	106.0	106.4	106.3	107.6	105.2	107.2
2nd	107.1	109.8	104.2	106.1	106.3	107.5	108.2	111.7	109.5	113.5
3rd	106.6	110.8	102.7	109.3	112.5	118.5	131.7	141.4	131.8	170.5
4th or more	109.5	105.7	99.1	114.2	122.1	131.7	153.8	157.4	157.2	199.1

Source : Same as in Table 1.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8년의 경우 첫째아인 경우 出産性比는 107.2로 比較的 낮고 있으나 둘째아에서 113.5 그리고 네째 또는 그 이상의 出産에서는 199.1로 男兒가 女兒에 비해 2倍 程度가 태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地域別 出産性比

農村에서 出産性比가 都市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一般的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農村에서 勞動力의 供給이라는 側面에서 都市보다 農村이 男兒

Table 4. Time Trends in Sex Ratios at Birth by Place of Birth and Year of Occurrence : Republic of Korea

Place of Birth	Year of Occurrence									
	1970	1975	1980	1982	1993	1984	1985	1986	1987	1988
Whole Country	109.5	112.4	103.9	106.9	107.7	108.7	110.0	112.3	109.4	113.6
Seoul	105.2	112.9	105.1	107.9	109.0	108.3	108.7	111.2	107.8	110.9
Pusan	102.5	116.6	104.3	106.8	106.4	105.8	109.6	112.7	108.2	112.3
Daegu	—	—	93.7	106.6	108.3	113.7	122.0	127.2	122.0	135.4
Inchon	—	—	96.5	104.5	106.9	106.4	108.7	110.5	105.8	109.9
Kwangju	—	—	—	—	—	—	—	—	106.5	107.4
Kyonggi	109.4	105.3	104.8	105.9	105.6	106.5	107.0	107.7	106.7	109.5
Kangwon	108.6	104.3	100.8	106.3	106.4	107.6	109.0	107.3	105.9	109.1
Chungbuk	112.6	98.7	103.9	105.9	106.8	108.9	110.6	113.3	108.4	113.5
Chungnam	113.6	110.9	102.7	107.2	106.3	110.8	109.5	110.5	109.6	114.5
Chonbuk	110.1	107.3	102.4	107.2	108.6	109.0	108.7	108.2	106.3	109.3
Chonnam	108.2	102.9	103.1	107.7	108.5	110.2	106.4	111.4	108.1	112.3
Kyongbuk	111.5	112.3	105.2	107.2	108.9	113.6	120.7	122.0	119.3	126.1
Kyongnam	111.6	147.7	104.5	105.7	108.0	108.3	110.3	114.8	113.3	119.5
Cheju	102.0	103.6	99.2	107.2	106.3	108.9	111.1	118.4	109.6	112.4

Source : Same as in Table 1

Note : Unit = No. of Male Births per 100 Female Births

를 選好하는 程度가 더 크고 또한 男兒에 대한 老後生活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意識構造가 農村에서 性比를 높이는 要因으로 作用한 結果라고 많은 研究에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學說과 달리 都市와 農村間 出產性比의 差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7년에 都市의 出產性比가 109.0이었으며 農村에서는 110.6으로, 그리고 1988년에는 113.8로 각기 나타나 거의 類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理由로는 家族計劃事業과 男兒選好思想이 混沌變數로 介入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맹, 1983).<sup>3)</sup>

Table 5. Sex Ratios at Birth, Standardized and Unstandardized for Age of Mother and Birth Order by Place of Birth : Republic of Korea, 1988

Place of Birth	Unstandardized	Standardized	
		Age of Mother	Birth Order
Whole Country	113.6	113.6	113.6
Seoul	110.9	110.8	112.0
Pusan	112.3	112.0	115.0
Daegu	135.4	136.4	146.6
Inchon	109.9	109.8	110.3
Kwangju	107.4	107.6	107.6
Kyonggi	109.5	120.0	109.4
Kangwon	109.1	109.4	109.6
Chungbuk	113.5	114.0	114.6
Chungnam	114.5	114.7	116.1
Chonbuk	109.3	109.6	109.6
Chonnam	112.3	114.9	112.5
Kyongbuk	126.1	127.7	132.7
Kyongnam	119.5	119.9	124.0
Cheju	112.4	112.8	112.6

Source : Calculated from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1988,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Note : • Unit = No. of Male Births per 100 Female Births

• Whole Country is used for the Standard Population

市部와 郡部間의 出産性比 差異보다는 오히려 市道別 地域間의 差異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慶北과 大邱地域에서 出産性比가 가장 높고 있으며 이는 계속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觀察되고 있다. 그리고 最近들어 慶南地域에서도 上昇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 忠南, 忠北地域이 全國 平均水準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地域別 出産性比의 差異는 地域別 상이한 母의 年齡 및 出産順位 分布에 의해 歪曲되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可能性을 排除하여 좀더 精確한 比較分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88年 資料를 利用, 各 地域의 母의 年齡과 出産順位分布를 全國을 基準으로 하여 標準化하여 <表 5>에 나타냈다. 그러나 두 標準化 이후에도 出産性比는 標準化 以前과 거의 같고 있으며, 大邱와 慶北 경우에는 오히려 더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地域間 出産性比의 差異 특히 大邱와 慶北의 높은 出産性比는 母의 年齡 또는 出産順位分布 差異 이외의 다른 要因의 影響에 基因한다 하겠다.

### Ⅲ. 差別 出産性比

出産性比는 주로 生物遺傳學的 요인에 의해 決定됨은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避妊과 妊娠中絶 특히, 性鑑別 等の 醫療手段을 이용한 인위적 出産調節이 가능한 여건하에서 選好子女數 및 男兒選好度 等은 出産性比 決定에 지대한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子女觀 및 男兒選好度 등 가치관은 夫婦의 제반 人口學的・社會經濟學的 變數 等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男兒選好度の 경우 低年齡層, 社會・經濟學的 地位(Status)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既存의 많은 研究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章에서는 生物遺傳學的 要因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年齡을 統制變數 (Control Variable)로 하여 出產性比와 母의 人口學的·社會經濟學的 特性과의 關係를 分析하였다. 出產性比와 母의 제특성간의 關係분석에서 生物遺傳學的 要因으로부터 發生할 수 있는 효과(Effect)를 어느정도 제거하기 위하여 各 特性別로 全體 母의 分布를 基準으로 상이한 母의 年齡別分布를 標準化(Standardized)하여 표에 나타내었다.

한편, 이 分布에 이용된 資料는 1987년에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實施한 人口動態特別調查 資料를 이용하였으며, 本資料의 質은 우수한 것으로 다른 研究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일반적으로 人爲的 要素가 排除되는 경우에 出產性比는 出產順位와 逆關係를 形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vitski and Sandler, 1956)<sup>6)</sup>. 出產順位와 出產性比와의 關係는 母의 年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30歲 未滿의 母의 年齡層에서 出產性比은 出產順위가 높아짐에 따라 급속히 增加하고 있는 반면, 30歲 以上の 年齡層에서는 첫번째 出生兒에서 123.8로 가장 높고 두번째 出生兒부터는 100 以下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低年齡層에서 보여주고 있는 正(+ )의 關係는 社會的으로 一般化되고 있는 少子女觀下에서 既存出生兒의 性比가 不均衡(女兒優勢)인 婦人層이 계속적인 出產行爲에서 男兒를 出生하기 위한 努力(胎兒 性鑑別 等의 手段의 利用)의 結果로서 추측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세번째 또는 以上の 順位에서 나타난 높은 出產性比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겠다. 한편, 30歲 以上の 年齡層에서는 生物遺傳學的인 그리고 社會的 認識側面에서 이들 年齡層 婦人들의 可妊期間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少數(1名 정도)의 원하는 子女數가 男兒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첫 出生兒의 出產性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年齡層에서 두번째 그리고 그 以上の 出產順位の 出產性比는 100以下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첫出生兒가 女子이며 그 結果 以後出產에서 男兒를 出產하기 위한 제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타 요인 등으로 인

Table 6. Differentials in Sex Ratios at Births by Age of Mother and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Mother : Republic of Korea, 1987

Characteristics of Mother	Age of Mother			Total	
	<25	25-29	>30		
Total (No. of Cases)	113.0 (394)	105.3 (1677)	103.5 (700)	105.9 (2771)	(105.9)
<u>Birth Order</u>					
1st	106.7	102.7	123.8	106.0	(108.6)
2nd	120.6	107.2	88.5	101.5	(104.4)
3rd and over	266.7**	122.9	94.0	119.0	(136.0)
<u>Sex Composition of Children Previous</u>					
1 Boy 0 Girl	126.7**	112.7	86.5	104.3	(108.1)
0 Boy 1 Girl	144.4**	101.9	93.7	101.9	(105.9)
<u>The Extent of Son Preference</u>					
Quite necessary	82.0	116.5	124.2	116.4	(113.5)
Better	160.4	105.4	96.9	108.8	(111.1)
Doesn't matter	116.2	98.2	100.7	100.8	(101.4)
Don't know	28.6*	209.1	50.0*	122.7**	(131.8)**
<u>Ideal No. of Children</u>					
0	-	-	-	-	-
1	152.1	136.5	135.9	138.8	(138.6)
2	101.7	95.1	90.4	94.7	( 94.8)
3+	84.2	86.1	140.0	104.7	( 99.5)
<u>Attitudes on Having Only One Child</u>					
Agree	125.9	113.8	110.0	114.6	(114.6)
Need at least 2	107.2	97.2	99.4	99.2	( 99.2)
Don't know	100.0*	89.1	73.9*	86.9	( 86.8)
<u>Experience of Children Death</u>					
Have lost	100.0*	84.2**	115.0**	100.0	( 94.2)
Have not lost	114.0	105.8	102.5	106.1	(106.1)

(Table 6. Continued)

Characteristics of Mother	Age of Mother			Total	
	<25	25-29	>30		
<u>Age at First Marriage</u>					
<20	97.6	118.8**	90.9**	101.5	(108.7)
20~21	166.7	127.4	142.9**	144.9	(126.9)
22~23	86.1	96.2	116.0	96.7	( 88.6)
24~25	75.0*	102.1	103.5	101.9	( 98.6)
26~27	100.0*	121.6	87.4	105.7	(109.9)
27>	300.0*	250.0*	109.0	116.1	(221.4)
<u>Place of Current Residence</u>					
Urban	109.8	114.4	107.1	111.8	(111.9)
Rural	121.2	77.9	90.8	87.7	( 87.3)
<u>Education</u>					
Not schooling or primary	114.0	96.0	81.1	97.7	( 94.8)
Middle	102.0	95.8	117.6	101.6	(102.0)
High	123.7	102.7	107.5	106.5	(106.9)
College & over	94.1*	121.3	97.9	112.2	(111.5)
<u>Mother's Work Status</u>					
Currently working	79.3	134.7	127.4	123.7	(125.0)
Currently not Working	122.0	101.3	97.9	103.1	(103.4)

Source : Calculated from 1987 Special Demographic Survey, 1988,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Note : • Unit = No. of mlae births per 100 female births.

• The figures in parentheses are sex ratios standardized for age of mother.

• \* Less than 20 cases.

\*\* Less than 50 cases.

하여 여아출산 확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出産性比와 出産順位와의 관계에 대한 母의 年齡의 影響으로 세번째 以上の 高出産順位에서 出産性比가 가장 높고 있으며(118.0), 그 다음으로 첫번째와 두번째 出産順位 順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이한 母의 年齡分布의 影響을 제거한 후에도 出産順位別 出産性比는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既出産子女의 性構成과 出産性比와의 관계는 既出産兒數가 두명 이상인 경우 子女構成別 件數(Case)가 적기 때문에 既出産子女가 한명인 경우에 국한하였다. 既存에 出産하였던 1名の 子女의 性과 相關없이 出産性比는 母의 年齡의 增加에 따라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全年齡層에서 標準化 前과 後에서 나타난 出産性比는 첫번째 子女가 男兒인 경우에 女兒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人の 男兒選好思想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一般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男兒選好度는 특히 人爲的 出産兒 性調節에 直接的인 動機가 될 수 있는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年齡層에서 약간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出産性比는 男兒選好도와 正(+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全年齡層 平均出産性比도 男兒選好程度의 增加와 함께 出産性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標準化後에도 同一한 結果가 導出되었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理想子女數와 出産性比는 逆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즉, 理想子女數가 增加함에 따라 出産性比는 減少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出産兒의 性 또는 既出産 子女의 性の 結果가 婦人이 원하는 理想子女數에 影響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 즉, 出産兒의 性(또는 既出産子女의 性)이 男兒인 경우에 少子女觀 狀況에서 더 이상 자녀를 出産시킬 이유 또는 욕구가 감소하여 이들 부인들이 응답하는 理想子女數를 오히려 減少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婦人들 層에서는 원하는 子女의 性構成을 達成하기 위한 계속적인 出産行爲의 考慮로 인하여 응답하고 있는 理想子女數가 增

加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한 少子女觀과 出產性比와의 관계도 理想子女數와 出產性比와의 關係와 같은 맥락에서 說明될 수 있겠다.

出產性比는 子女死亡經驗有無와 逆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子女의 死亡을 經驗한 婦人들의 數가 적어, 年齡別 比較分析이 어렵고 있으나 標準化 以前과 以後의 全年齡層의 平均 出產性比는 經驗하지 않은 婦人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子女의 死亡을 經驗한 婦人層들이 子女의 數에 대한 關心이 相對적으로 커 子女의 性에 대하여 關心을 쏟을 수 없는 心理的 壓迫感 때문에 풀이된다.

出產性比와 初婚年齡間 關係에서 모든 母의 年齡層에서 初婚年齡이 20 또는 21歲인 경우에 가장 높고 있으며 그외에는 일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母의 年齡別分布 差異의 影響을 제거한 후, 出產性比는 初婚年齡 20~21歲에서 비교적 높고 있으나 初婚年齡層 22~23歲에서 가장 낮고 있으며 初婚年齡이 28歲 以上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初婚年齡이 높은 경우 相對적으로 社會적으로 認識된 또는 生物遺傳學的 可妊期間이 단축되어 원하는 소수의 子女中 원하는 性(男兒)을 얻는데 노력한 결과 때문에 풀이된다.

반대로 低年齡層 특히 22~25歲 사이에 結婚하여 30歲 以前에 出産을 한 경우 비교적 젊은 年齡層에서 出産行爲를 갖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可妊期間에 대해 여유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원하는 子女의 性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出産性比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eitelbaum과 Mentel(1971)<sup>7)</sup>에 의하면 社會的 地位에 따라 出産性比가 달라지는데 즉, 부유한 계층의 婦人이 아들을 낳는 確率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中流層 그리고 빈곤한 階層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로 社會的 地位에 따른 營養狀態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人爲的인 手段에 의한 선택적인 出産調節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社會·經濟學的 階層間 男兒選好度 및 選好子女數에 따라 변화될 수가 있겠다.

우선, 母의 現居住地別 出產性比를 살펴보면, 社會・經濟的 環境이 보다 나은 都市에서 農村에 비해 出產性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部分的으로 都市에서 보다 成功的인 家族計劃事業의 結果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男兒選好思想의 相互作用의 結果에 기인한다 하겠다. 한편, 25歲 未滿의 低年齡層에서는 農村이 都市보다 높고 있는데, 都市의 경우도 109.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育程度와 出產性比의 관계는 母의 年齡別로 살펴볼 때 뚜렷하지 못하지만, 全年齡層 平均出產性比를 살펴볼 때 正(+)의 관계를 形成하고 있는데, 이는 高學歷 所持婦人層 대부분이 보다 나은 社會的・經濟的 地位를 향유하고 있고 또한 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家族計劃事業과 男兒選好思想이 相互作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母의 就業狀態와 出產性比의 關係에서 25歲 未滿 年齡層을 제외한 全年齡層에서 現在 就業中인 母의 出產性比가 그렇지 않은 母에 비해 높고 있으며, 그 結果로서 全年齡層의 平均出產性比도 現在 就業中인 母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婦人의 社會・經濟的 狀態를 고려할 때, 일을 하고 있는 婦人의 경우 원하는 子女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比較的 높은 年齡層(적어도 1子女를 이미 出生하였을 確率이 높은)에서 出產兒의 性에 대한 人爲的 調節 可能性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25歲 未滿의 低年齡層에서는 現在就業中인 母의 出產性比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年齡層에서 이번 現在出產兒는 대부분 첫번째 順位로서 人爲的 出產調節의 介入餘地가 적어 보다 遺傳學的 要素에 의해 決定된 結果로 해석될 수 있다.

## IV. 多變數 分析

出產性비를 決定하는 要因들로서는 一次的으로 生物遺傳學的(Biological)인 그리고 二次的으로 人口學的 및 社會·經濟學的 變數들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들 變數들은 出產兒 性에 個別的으로 影響력을 行한다기보다는 주어진 틀(Framework)속에서 서로 相互作用을 통하여 影響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生物遺傳學的 變數들은 資料性質上 구하기가 힘드므로, 本 分析에서는 男兒選好度, 選好子女數와 人口學的 變數 및 社會·經濟學的 變數들이 變數들간의 相互作用 關係에서 出產性비에 미치는 影響力 및 그 方向을 考察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分析技法으로는 위의 獨立變數들을 出產兒性에 一時에 回歸시키는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方法을 이용하였다.

한편, 이 分析에 利用된 變數들 中 人口學的인 變數는 母의 年齡, 死亡子女數, 總出生兒數, 生存男兒數, 生存女兒數, 出產順位, 初婚年齡이 그리고 社會·經濟學的 變數들은 現居住地(도시=1, 농촌=2), 就業狀態(한다=1, 안한다=2), 教育程度, 男便의 職業(專門, 行政 및 事務職=1, 販賣 및 서어비스직=2, 生産職=3, 農林水産職=4)이 그리고 男兒選好도와 選好子女數가 包含되었다.

分析에 包含된 이들 獨立變數들의 出產兒性에 대한 說明力은 약 24.1%로서 比較的 높고 있으며, 統計的으로도 유사성(Prob>F=.0001)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變數들 中 가장 높은 影響력을 행사하고 있는 變數로는 既生存女兒數(회귀계수  $b = -.4197$ )로서 統計的 유의성(Prob>1T1=.0001)을 가지며 出產兒性에 Negative決定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影響력을 행사하고 있는 變數는 既生存男兒數(회귀계수  $b = .3655$ )로

서 統計的 유의성(Prob>1T1=.0001)을 가지며 出産兒性과 Positive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關係로 미루어볼 때, 다른 社會·經濟學的 및 人口學的 變數들을 통제할 때 出産兒의 性は 既存 生存男兒數가 많을수록 男兒가 될 경우가 높으며 逆으로 既存 生存女兒數가 많을수록 女兒가 될 경우가 높아 出産兒性은 주로 生物遺傳學的 要素에 의해 決定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의 變數들 中 選好子女數(b=-.0717)가 統計的 유의성(Prob>1T1=.0001)을 가지고 出産兒性에 negative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Table 7. Effect of Each of Mother's Characteristics on Sex of the Birth : Republic of Korea, 1987.

Mother's Characteristics	b	Prob>1T1
Intercept	.5941	.0001
Son Preference	.0116	.1179
Ideal No. of Children	-.0717	.0001
Age of Mother	.0002	.9624
Age at First Marriage	.0003	.9460
No. of Children Ever Born*	.0513	.1192
No. of Dead Children*	-.0952	.0701
No. of Living Sons*	.3655	.0001
No. of Living Daughters*	-.4197	.0001
Birth Order	.0556	.0675
Place of Current Residence	-.0605	.0053
Educational Attainment	.0062	.5920
Work Status	-.0400	.1026
Husband's Occupation	.0283	.0530

Source : Calculated from 1987 Special Demographic Survey, 1988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Note : 1) R<sup>2</sup>=24.1%

2) Prob>F=.0001

3) \* =does not include the birth under the analysis.

나고 있는데, 이는 家族計劃事業과 男兒選好思想이 複合的으로 出産兒性의 決定에 影響을 끼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現居住地 역시 統計的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b = -0.0605$ ,  $\text{Prob} > |T| = .0053$ ), 都市居住와 男兒出産이 Positive하게 連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른 變數들은 統計的 유의성을 喪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V. 結 論

1962년부터 始作된 經濟開發 및 이에 竝行되어 實施되어 온 家族計劃事業의 成功的인 推進의 結果로 少子女觀이 形成되어 出産力이 急激히 減少하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人의 男兒選好度의 強度는 종래와 比較하여 큰 變化가 없어, 避妊과 妊娠中絶 특히 胎兒性鑑別 等の 醫療手段을 利用한 人爲的 出産兒의 性調節이 可能한 與件下에서 出産性比가 增加, 결국 人口性構造의 不均衡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勸案하여, 本研究는 韓國에서의 出産性比의 推移를 把握하는 한편, 母의 諸般特性과 出産性比間의 關係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研究結果로서 韓國人의 出産性比는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母의 年齡層이 그리고 出産順位가 높을수록 그 增加速度는 더욱 빠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少子女觀의 社會全般으로 擴散에 따라 극히 制限된 選好子女數들 中 男兒를 갖기 위한 努力의 結果로, 이는 既出産兒의 性比에 不滿足스러운 또는 늦게 子女를 두게 된 婦人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解析될 수 있다. 地域別 出産性比의 差異에서는 大邱와 慶北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 慶南, 忠南, 忠北地域이 全國 平均水準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母의 年齡과 出産順

位 分布 差異를 考慮기 위한 標準化 以後에도 地域間 出產性比差異는 標準化 以前과 거의 비슷한 樣相을 보여, 地域間 出產性比 差異는 母의 年齡 또는 出產順位 分布 差異 以外의 다른 要因의 影響에 基因한다 하겠다.

한편, 母의 人口學的 및 社會・經濟學的 特性別 差別 出產性比 分析에서는, 生物遺傳學的 影響을 어느정도 排除하기 위하여 母의 年齡을 標準化 하였으며, 그 結果로 出產順位가 높을수록, 1 子女觀을 가질수록, 男兒選好度가 강할수록,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도시에서 居住者가 그리고 現在 일을 하고 있는 母들에게서 出產性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死亡子女經驗 및 選好子女數와 負(Negative)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出產性比는 初婚年齡이 낮거나 높은 層에서 높고 있으며, 22~25 歲 사이에서 100以下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分析結果에서 나타난 母의 特性別 出產性比의 差別性이 다른 要因 특히 生物遺傳學的 影響을 排除한 단순히 언급된 特性의 差異에서 나타난다고 確信할 수 있기에는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生物遺傳學的인 要因과 人爲的인 出產兒 性調節行爲는 이들 外生變數(Exogenous Variables) 즉, 母의 特性과 相互作用하여 出產性比에 影響을 끼치고 있으며, 위의 結果는 이들 變數들간의 關係를 고려하여 볼때 어느 정도 妥當性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韓國人의 出產性比는 계속 增加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出產性比와 正(Positive)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성들 즉, 初婚年齡, 都市化, 教育程度, 就業狀態 등은 韓國社會에서 계속 增加하는 方向으로 전개될 것이며 또한 영・유아 死亡率 및 選好子女數의 減少도 出產性比의 增加에 寄與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推定은 出產性比의 增加趨勢를 勘案하여 볼때 충분히 妥當性이 있다 하겠다.

한편, 다른 變數들과의 相互關係 속에서 각 變數들의 出產兒性에 대한 決定力 分析을 위한 多重回歸分析에서는 生存女兒數, 生存男兒數, 選好子

女數 및 現居住地 順으로 統計的 유의성을 가지고 出産兒性에 決定力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變數들은 統計的 유의성을 喪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變數 특히 社會・經濟學的 特性을 감안할 때에는 生存兒의 性比가 出産兒性的 決定에 중요하며, 특히 選好子女數와 出産兒性的 逆關係는 家族計劃事業이 選好子女數를 줄이는 대신에 男兒出産을 높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人口의 性比 不均衡을 초래할 出産性比를 適切하게 均衡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措置가 必要할 것인가. 母의 特性은 出産性比에 直接的으로 影響力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母(또는 夫婦)가 지니고 있는 實質的인 男兒選好度 및 選好子女數를 통하여 間接的으로 影響力을 행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家族計劃事業은 오히려 出産兒性的 人爲的인 조절에 動機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觀點에서 出産性比가 안고 있는 諸問題點을 窮極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韓國人의 男兒選好思想을 拂息 내지 弱化시키는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註

- 1) 金日炫(1987), “韓國의 人口成長 推移와 展望”,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韓國 人口保健研究所.
- 2) Cicco, A. : Variation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the United States. Human Biology, pp.10~36, 1938.
- 3) Kang Y. S. and W. K. Cho : Data on the biology of Korean Population. Human Biology, pp.31~244, 1959.
- 4) Novitski, E. : The dependence of the secondary sex ratio in humans on the age of the father. Science, pp.117~531, 1953.
- 5) K. H. Meng :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Secondary Sex Ratio, Catholic Medical College, 1983.
- 6) Novitski, E. and L. Sandler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ge, birth order and the secondary sex ratio in humans. Annals of Human Genetics, pp.12~21.
- 7) Teitelbaum, M. S., et al : Limited dependence of the human sex ratio at birth order and parental age. America Journal of Human Genetics, pp. 23~271, 1971.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1985人口動態統計年報」, 1986.
- \_\_\_\_\_ , 「1987特別人口調查」, 1988.
- \_\_\_\_\_ , 「人口移動統計年報」.
- \_\_\_\_\_ , 「人口動態統計年報」, 1988.
- 金日炫, “韓國의 人口成長 推移와 展望”,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尹鍾周, 「人口學」, 人口問題研究所, 1982.
- 李圭植, 李任田, “差異出產力과 避妊實踐率”, 「韓國의 出生率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趙南勳外, 「最近의 人口政策動向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Cicco, A., “Variation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the United States”, *Human Biology*, pp.10~36, 1938.
- Kang Y. S., W. K. Cho, “Data on the Biology of Korean Population”, *Human Biology*, pp.31~244, 1959.
- K. H. Meng, *Factors Affecting the Korean Secondary Sex Ratio*, Catholic Medical College, 1983.
- Novitski, E., “The Dependence of the Secondary Sex Ratio in Humans on the Age of the Father”, *Science*, pp.117~531, 1953.
- Novitski, E., L. Sandl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ge, Birth Order and the Secondary Sex Ratio in Humans”, *Annals of Human Genetics*, pp.12~21.
- Teitelbaum, M. S., et al, “Limited Dependence of the Human Sex Ratio at Birth Order and Parental Age”, *America Journal or Human Genetics*, pp. 23~271, 1971.



## 第 6 章 差別 死亡力과 經濟社會開發, 1970~1986

金 泰 憲\*

- I. 序論
- II. 資料와 分析方法
- III. 地域別 差別死亡力の 變化
- IV. 死亡水準과 教育程度別, 婚姻狀態別 人口 構成比의 變化
- V. 要約 및 結論

---

### I. 序 論

사회·경제적 요인별 差別死亡力은 현재의 사망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더욱이 이미 사망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사회에서 사망률의 추가감소는 어떤 질병의 감염이나 치사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그 사회의 각 계층간에 나타나는 사망률의 차이를 최소화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찾아야 하고, 그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1962년 이래 일련의 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초기의 개발계획에서 경제면에 중점을 둔 반면, 제 4

---

\* 韓國敎員大學校 一般社會敎育學科 敎授

차 계획 (1977-81) 이후 사회개발을 위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이루어 졌다. 제 4차 계획 기간중에 특히 중점을 둔 분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교육수준을 높여주고, 건강관리를 하여 줌으로써 기초적인 소득분배의 개선을 추구하였다.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은 농촌 전화사업, 상수도보급, 주택개량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졌다<sup>2)</sup>. 이러한 시도들은 농촌과 도시지역간, 농업과 제조업 또는 상업간, 사회·경제 피라미트의 저변층과 엘리트간의 불균형의 감소에 목적을 둔 사회발전의 주요 노력이었다<sup>3)</sup>.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특성별 인구간의 불평등의 감소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수준의 감소를 가속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4)</sup>.

지금까지 각국 또는 국가간의 사망력 연구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집단간에 유의할 만한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거나 하위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상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 거주자나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평균 사망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sup>5)</sup>.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지역의 거주자, 유배우 인구, 고학력 인구, 그리고 비농림어업 종사자의 사망수준이 다른 특성을 가진 인구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sup>6)</sup>. 비록 사회·경제적 특성별 差別 死亡力의 유형이 1970-86년 간에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특성별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死亡比가 변해 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sup>7)</sup>. 그러므로, 서로 다른 특성별 인구집단간의 불균등의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사망수준의 감소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분석하면, 전기간 동안 사망수준의 차이는 처음에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든가 낮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사망수준은 사회·경제적 개발과정에서 특성별 인구집단의 구성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사망수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집단의 서로 다른 사망수준과 특성별 인구집단의 구성비 분석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경제적 개발의 영향과 사망 변

천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변화하는 사망수준의 차이에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국 평균 사망수준의 변화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 구성비의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差別死亡力 分析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특성중에서 직업은 주로 교육수준에 의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教育程度와 婚姻狀態만을 分析 對象으로 하였다.

## II. 資料와 分析方法

### 1. 利用資料

호적신고제도와 인구센서스에서 얻어진 자료를 差別死亡力 分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死亡申告資料는 1970년 부터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신고자료의 완전성이 75 퍼센트 이상에 도달하였으므로 死亡力 研究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신고 자료의 불완전성 때문에 자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경제·사회적 특성별 사망력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資料(死亡申告와 人口센서스 資料)의 정의상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를 직접 분석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세권 등<sup>9)</sup>은 3개군(강화군, 홍천군 및 옥구군)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80년 사망신고자료와 특별조사 자료의 항목들을 서로 대조한 결과 教育程度와 婚姻狀態에 대한 一致率이 전국전수의 79 퍼센트를 상회하였으므로, 전국수준에서 差別死亡力의 패턴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누락이나 부실신고가 많은 5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층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센서스에서는 인구를 상주개념에 기초를 두고 조사하였다. 그러나 사망

신고에 의한 지역별 사망자수는 주민등록지에 따라 분류된다. 주민등록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할 지라도 20세 전후의 연령층, 특히 확고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옮기고 있다<sup>10)</sup>. 이러한 경우, 그들이 어디에서 사망하든지 그 사망은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에 신고된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서는 사망신고가 실제 보다 많게 될 것이고, 도시지역에서는 반대로 적게 될 것이다. 이것을 조사하는 최선의 방법은 센서스 직후나 센서스기간에 거주지 확인을 위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다<sup>11)</sup>. 이 연구를 위하여 그와 같은 목적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자료를 직접 이용할 것이다.

## 2. 分析 方法

### 가. 特性別 人口의 死亡水準 比較

死亡者數의 補完을 위한 方法은 다만 性·年齡別로만 가능한 場合에서<sup>12)</sup>, 그리고 人口特性別 死亡者數를 補完하기 위한 對照研究가 실시될 수 없는 場合에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특성별 인구집단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성·연령별 계층에 의해 보완된 인구 특성별 신고의 누락정도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특성별 死亡申告資料와 센서스資料의 比를 주의 깊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연도별 자료에서 누락정도가 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신고의 기간을 늘려 1970—72, 1974—76, 1979—81 및 1984—86 년의 사망자수에 1970, 1975, 1980 및 1985년도 센서스 결과를 연결 시켰다. 또한 자료의 오류가 사망수준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歲 年齡階級別 死亡率을 推定하였으나, 推定死亡率의 절대수준에는 여전히 오류가 내포되었으므로 특성별 인구집단의 死亡水準의 比로 差別 死亡力을 分析하였다. 이

상의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기간 t에 대한 특성 i의 인구 집단의 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

$$ASDR_{ix}^t = D_{ix}^t / P_{ix}^t \dots\dots\dots(1)$$

단,  $D_{ix}^t$ 는 대상기간 t, 연령계급 x, 특성 i에서 평균 사망신고자수이고,  $P_{ix}^t$ 는 기간 t의 중앙시점에서 연령계급 x와 특성 i의 추정 센서스 인구이다. 기간 t에서 연령계급 x에 대한 전국평균 연령별 사망률은 :

$$ASDR_{.x}^t = D_{.x}^t / P_{.x}^t \dots\dots\dots(2)$$

그러므로 특성별 차별사망률 연구를 위하여 전국 평균에 대한 인구특성의 연령별 사망률의 사망비가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MR_{ix}^t = ASDR_{ix}^t / ASDR_{.x}^t \dots\dots\dots(3)$$

**나. 地域別 人口의 死亡水準 比較**

도시와 농촌의 평균사망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구구조를 통일하므로써 인구구조의 차이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연령구조를 기초로 농촌의 추정사망수준을 계산하여 도시와 농촌의 사망수준을 직접 비교하였다. 이 표준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DR_{15-64}^t$ 를 도시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한 15-64세에 해당되는 농촌인구의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하면,

$${}^sDR_{15-64}^r = \sum_{x=1}^{10} (ASDR_x^r \cdot P_x^u) / P_{15-64}^u \dots\dots\dots(4)$$

단,  $ASDR_x^r$ 은 연령계급  $x$ 인 농촌인구의 사망률이고,  $P_x^u$ 는 연령계급  $x$ 의 도시인구이고,  $P_{15-64}^u$ 는 15-64세 도시인구이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사망비 MR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MR_{15-64} = {}^sDR_{15-64}^r / DR_{15-64}^u \dots\dots\dots(5)$$

다. 特性別 人口構成比의 變化에 따라 나타난 死亡水準의 變化程度 推定

教育水準 및 婚姻狀態別 死亡比와 人口構成比를 이용하여, 1970-72년부터 1984-86년 까지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망수준의 변화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만약 특성  $i$ 인 인구의 구성비가 주어진 기간 (예를 들면, 1970-72년 이래)동안 변화가 없었고, 1984-86년의 연령계급  $j$ 의 사망률,  $R_{j(84-86)}^{84-86}$ 을 1.0으로 놓으면, 1970-72년과 1984-86년간의 연령계급  $j$ 의 사망률의 상대적 비,  $R_{j(70-72)}^{84-86}$ 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R_{j(70-72)}^{84-86} = \sum_i (W_{ij}^{70-72} \cdot r_{ij}^{84-86}) \dots\dots\dots(6)$$

$W_{ij}^{70-72}$ 는 1970-72년 연령계급  $j$ , 특성  $i$ 인 인구의 구성비

$r_{ij}^{84-86}$ 는 1984-86년 연령계급  $j$ , 특성  $i$ 인 인구의 사망비

$R_{j(84-86)}^{84-86} = 1.0$ 이므로, 1970-72년과 1984-86년간의 특성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연령계급  $j$ 의 사망수준의 변화정도(퍼센트),  $P_j$ 는 다음과 같다.

$$P_j = (1.0 / R_{j(70-72)}^{84-86} - 1) \cdot 100 \dots\dots\dots(7)$$

그러므로  $P_j$ 의 값으로 부터 우리는 특성별 인구의 상대적 규모의 변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나 사망수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과 성·연령별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Ⅲ. 地域別 差別死亡力の 變化

#### 1. 都市·農村地域別 死亡水準의 差異

한 나라안에서 地域이 다른 경우라든가 經濟·社會的 特性이 다른 경우 서로 사망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死亡의 人口學的 研究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한 나라의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사망수준의 차이이고<sup>13)</sup>, 도시·농촌지역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즉 편익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또 도시지역에서 教育水準이 높고 중산층이상의 인구구성비가 높으므로 이들의 死亡率은 전국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된다<sup>15)</sup>.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平均死亡水準은 농촌지역 보다 훨씬 낮다. 40세 미만 연령층의 사망률은 남·여 모두 농촌지역에서 적어도 도시지역의 두 배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 15-19세와 여자 15-24세에서 크게 나타났다. 40세 이후에는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死亡率의 差異는 점차 작아져서 60세에 이르러 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 사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젊은이들이 자주 이동하므

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72, 1974-76, 1979-81 및 1984-86년의 도시와 농촌간 사망수준의 차이의 성·연령별 유형은 군복무기간인 남자 20-24세를 제외하면 男·女間에 아주 유사하게 나타났다. 남자 사망률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1974-76년 까지 늘어 났으며, 그 후 30세 이후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5-29세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한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여자의 경우 1970-72 및 1974-76년간 남자의 경우와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늘어 났으나 1979-81년에는 그 차가 감소되었으며, 1984-86년에 감소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많은 인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經濟·社會的 發展이 健康을 增進시켰고, 死亡水準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발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도시지역의 사망률의 감소가 농촌지역에서 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다<sup>16)</sup>. 그러므로 오늘날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환경이 비슷한 선진국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매우 작아졌다<sup>17)</sup>. 이와같이 우리 나라 사망률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의 변화는 농촌과 도시에서의 社會·經濟的 開發進度的 差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2. 都市·農村地域別 差別死亡力の 變化

한 나라의 사회·경제개발 과정에서의 死亡變遷은 都市·農村 地域別 死亡水準의 差異의 變化過程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망변천 이전이나 대도시의 생활여건이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보다 훨씬 나빴을 때 (예를 들면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서양 각국들과 1940년 이전의 일본), 도시지역의 사망수준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보다 더 높았다<sup>18)</sup>. 사망수준이 낮아

질 때 감소속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死亡水準은 도시지역에서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감소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시지역의 사망수준이 농촌지역 보다 더 낮아지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증가 하였다<sup>19)</sup>. 오늘날 開發途上國에서는 死亡率이 農村地域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都市地域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減少 하였다. 이것은 농촌보다 도시생활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사망의 위험들이 의료시설이나 공공보건서비스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새로운 사망위험 통제방법의 도입으로 분명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sup>20)</sup>. 都市地域에서 死亡水準이 낮은 것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뿐 만 아니라 都市人口의 社會·經濟的 特性和 교육, 소득, 주거조건 등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sup>21)</sup>.

우리나라에서 都市와 農村의 地域別 年齡別 死亡率을 비교하면 남·여 모두 도시·농촌 지역별 사망수준의 차이는 모든 연령계급에서 1970-72 및 1974-76년 사이에 증가하였고, 그 후 1979-8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네개의 서로 다른 期間 (1970-72, 1974-76, 1979-81 및 1984-86)의 5歲 階級別 都市人口를 기초로 標準化한 都市 死亡率에 대한 農村의 死亡比는 1974-76년에 남자의 경우 1.65까지, 여자의 경우 2.12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후 서서히 감소하여 1984-86년에는 남자의 경우 1.51, 여자의 경우 1.72로 상당히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사망수준 차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별 중학교 취학률<sup>22)</sup> 과 도시지역에 대한 농촌의 가구당 소득비의 두가지 指標를 채택하였다. 教育은 일반적으로 社會·經濟的 狀態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며<sup>23)</sup>, 소득(가구 소득이나 1인당 GNP)은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대표하고 있다<sup>24)</sup>.

<表 1>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1966년 農村地域의 중학교 취학률은 都市地域의 절반정도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에는 도시지역에서의 취학률이 70퍼센트를 상회하는 반면 농촌에서는 50퍼센트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

Table 1. Comparison of Mortality Ratio, Junior High School Enrolment Ratio and Income in Urban Rural Areas, Korea : 1966–1985

Year	Mortality Ratio <sup>1),2)</sup>		Junior High School <sup>3),4)</sup>		Household <sup>5)</sup>
	(Rural/Urban)		Enrolment Ratio		Income Ratio
	Males	Females	Urban	Rural	(Rural/Urban)
1985	1.51	1.72	.986	.998	1.109
1980	1.65	1.85	.945	.947	.959
1975	1.65	2.15	.818	.684	1.110
1970	1.35	1.51	.712	.460	.756
1968	—	—	.598	.329	.806

Notes: 1) Calculated from Standardized Crude Death Rates Based on Urban Population by 5–Year Age Group for the Age Range 5 to 64 Years.

2) Basic Years for the Calculation of Mortality Rates Corresponding to the Years, 1985, 1980, 1975 and 1970 are 1984–86, 1974–76 and 1970–72.

3) (Total Students at) / (School Age Population)  
(Junior High School)

4) School Age : 12–14 Years.

5) Based on Current Price.

Sources : a) Mortality Ratio : Korean Vital Statistics and Population Censuses.

b) School Enrolment Ratio : Korean Population Censuses.

c) Income Ratio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ocial Indicators in Korea, 1988,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1989, p.84.

었다. 1970년 이래 농촌지역에서의 중학교 취학률은 급속히 증가하여 1980년에 95퍼센트에 도달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취학률에 접근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 중학교 취학률의 변화로 부터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사망 수준 차이가 넓어 지던 것이 농촌지역의 취학률이 도시지역에 접근하면서 사망수준의 차이는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남·여 모두에게서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死亡水準의 差異는 농촌지역에서 중학교 취학 적령기의 아동중 약 3분의 2가 취학하였던 1975년경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중학교 취학률의 차이가 1970년대 후반에 충분히 작아졌을 때 (兩地域의 취학률은 1980년에 거의 일치하였음),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최대치에서 점차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교육이 성인의 사망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도시와 농촌지역의 사망수준 차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都市의 家口所得에 대한 農村의 家口所得의 比는 經濟·社會開發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6) 이래 우리 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에 주로 도시지역의 산업분야에 기초를 두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로 농촌경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第 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72-76)부터 所得分配의 均衡을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 대책에는 국토종합개발, 교육기회의 증진, 새마을운동 등을 포함하는 농촌개발계획들을 포함하였다<sup>26)</sup>. 그 결과로 농촌의 가구소득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975년경에는 도시의 가구소득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시의 가구소득에 대한 농촌의 소득비가 증가하여 농촌과 도시 가구 평균소득이 같게 되는 1975경 까지 남·여 모두에게서 都市 死亡水準에 대한 農村 死亡水準의 比는 增加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한발의 영향을 받은 1980년은 제외) 농촌과 도시의 가구 소득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사망비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1966-85년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사망수준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개발의 변화간의 관계를 기초로 요약하면, 연구대상기간중에 도시지역의 개발이 농촌지역 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사망수준이 농촌지역보다 먼저 감소하기 시작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

하였다. 또한, 都市와 農村地域間의 死亡水準의 差異는 1970년대 까지 넓어 졌다가 두 지역에서의 중학교 취학률과 평균 가구소득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을 때 부터 두 지역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 IV. 死亡水準과 教育程度別, 婚姻狀態別 人口構成比의 變化

##### 1. 教育程度別 死亡水準의 差異

Marthis<sup>28)</sup>와 Kitagawa and Hauser<sup>29)</sup>의 研究結果에 따르면 教育程度別 死亡力의 差異에는 두가지의 一般의인 類型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낮은 教育水準을 가진 층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히 높은 死亡危險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번째 유형은 教育程度와 死亡率間에는 逆의 相關關係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25-64세) 사망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낮아지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表 2〉參照). 이 사망수준과 교육정도의 逆의 關係는 젊은 연령층(25-44세)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70-72 및 1984-86년 모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강하였다. 남자 25-34세 연령층의 教育水準別 死亡比는 1984-86년에 무학자의 경우 12.22에서 초대이상자의 경우 0.32로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감소하였다. 이것은 무학인 남자의 사망위험이 초대이상인 남자에 비하여 무려 38배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급속히 감소하여 55-64세에서는 2배정도가 되었다<sup>30)</sup>. 한편, 여자의 경우 年齡階級別 死亡率의 差異가 남자보다 작지만 教育程度別 差異의 類型은 同一하였다.

1970-72년과 1984-86년간의 14년 동안 教育水準別 死亡危險의 差異가 크게 변화 하였다. 교육정도별 사망위험의 상대적인 차이는 시간이 흐

Table 2. Mortality Ratios by Educational Level, 10-Year Age Group and Sex,  
Korea ; 1970-72 and 1984-86

Age and Educational Level	Males		Females	
	1970-72	1984-86	1970-72	1984-86
25-34	1.00	1.00	1.00	1.00
None	3.41	12.22	2.20	15.01
Primary School	1.58	3.24	1.12	2.13
Higher School	.58	.76	.44	.60
College Higher	.35	.32	.29	.41
35-44	1.00	1.00	1.00	1.00
None	1.53	4.99	1.15	2.29
Primary School	1.38	2.28	1.09	1.33
Higher School	.60	.68	.50	.55
College Higher	.36	.29	.37	.37
45-54	1.00	1.00	1.00	1.00
None	.96	1.88	.95	1.33
Primary School	1.32	1.52	1.19	1.08
Higher School	.65	.71	.66	.62
College Higher	.41	.40	.52	.47
55-64	1.00	1.00	1.00	1.00
None	.84	1.09	.89	.95
Primary School	1.54	1.22	1.70	1.14
Higher School	.69	.76	1.02	.72
College Higher	.45	.49	.46	.57

Notew : Years of school completed :

- None :0 Year
- Primary School :1-6 Years
- Higher School :7-12 Years
- College Higher :13 Years and over

Source : Korea Vital Statistics and Population Censuses.

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젊은 연령계층(25-34 및 35-44세)에서 增加現象이 뚜렷하였다.

教育水準은 生活水準을 나타내는 指標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教育수준에 따라 死亡率이 差異가 나는 것은 의료나 보건 등의 서어비스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sup>31)</sup>. 일부 경제학자들도 “健康(Good Health)”을 유지하기 위하여 個人的 能力을 增進시키는 것으로 教育을 생각하고 있다. 즉, 현명하게 의료 서어비스를 받도록 하고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위험부담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教育의 역할이 크다는 데서 教育이 직·간접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2)</sup>.

教育이 直·間接으로 死亡水準을 낮춰 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教育수준을 가진 계층은 낮은 教育수준을 갖는 계층보다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반대로 낮은 教育수준의 계층에서 무학계층의 사망수준이 평균사망수준에 대한 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教育水準이 낮은 人口의 全 人口에 대한 構成比가 낮아질 때 점점 더 커진다. 이것은 무학인 남자의 전체 남자인구에 대한 구성비가 여자보다 낮으므로<sup>33)</sup> 남자의 경우 教育정도별 사망률의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 2. 婚姻狀態別 死亡水準의 差異

有配偶 人口의 死亡率이 未婚이나 死別·離婚 또는 別居中인 人口의 死亡率보다 낮다는 사실이 많은 研究에서 밝혀져 왔다<sup>34)</sup>. 이 사망률의 차이는 특히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結婚生活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남자가 獨身狀態로 되돌아 가는 데 따른 ‘충격’(수명을 단축시키는 충격)이 여자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sup>35)</sup>. Spiegelman<sup>36)</sup> 은 有配偶 男子의 死亡率이 낮은 것은 건강이 나빠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하였다. 더욱기 유배우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주의, 특히 병에 걸렸을 경우에 간호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독신자들 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婚姻狀態別 差別死亡力의 類型은 一般的인 現象을 따르고 있다 (<表 3>參照). 有配偶 人口의 死亡水準이 男·女 모든 年齡階級에서, 獨身者의 死亡水準보다 분명히 낮게 나타났다. 未婚者의 死亡水準은 남·여 모두 35세이상 연령계급에서 가장 높았으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그 차이가 훨씬 더 심하였다. 비록 1925년 이래 結婚時期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結婚하는 社會라는 점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sup>37)</sup>. 그러므로, 누구나 결혼하여야 하는 사회에서 35세 이후에도 未婚로 남아있는 극소수의 人口는 특수한 경우(일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적·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사별·이혼 및 별거 인구의 경우에도 역시 유배우 인구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외로움과 고민을 많이 느끼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손상된 건강상태로 재혼도 여의치 못하게 되므로 死亡率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結婚狀態別 死亡水準의 差異의 類型은 지난 14년 동안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表 3>參照). 유배우 인구와 미혼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모든 연령 계급에서, 그리고 남·여 모두에게서 점차 작아지고 있다. 한편, 유배우인구와 사별·이혼 및 별거중인 인구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는 여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지만, 남자의 경우 미미한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인구와 사별·이혼 및 별거 인구의 인구구성비의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미혼 인구의 인구구성비는 남·여 모든 연령계급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평균개념의 사망수준은 낮아졌고, 미혼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자들의 평균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고 하겠다. 반대로 미혼·이혼 및

Table 3. Mortality Ratios by Marital Status, 10-Year Age Group  
(25-64 Years) and Sex, Korea : 1970-72 and 1984-86

Age and Marital Status	Males		Females	
	1970-72	1984-86	1970-72	1984-86
25-34	1.00	1.00	1.00	1.00
Never Married	1.89	1.61	6.27	3.12
Married	.65	.66	.61	.63
Others*	.56	8.08	2.76	6.35
35-44	1.00	1.00	1.00	1.00
Never Married	13.57	7.14	42.01	15.66
Married	.82	.81	.74	.71
Others*	.88	5.19	1.81	2.39
45-54	1.00	1.00	1.00	1.00
Never Married	17.07	8.12	47.06	25.86
Married	.88	.88	.84	.78
Others*	3.67	4.00	1.20	1.61
55-64	1.00	1.00	1.00	1.00
Never Married	15.94	7.76	37.35	35.53
Married	.87	.87	.90	.79
Others*	2.32	2.84	1.02	1.20

Note: Includes the widowed, the divorced and the separated.

Sources: Korean Vital Statistics and Population Censuses.

별거 인구의 인구구성비가 남·여 모든 연령계급에서 점차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더 빨랐으며, 사망수준도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졌으며, 여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였다<sup>38)</sup>.

### 3. 教育程度와 婚姻狀態別 人口構成比의 變化가 死亡水 準 에 미치는 影響

한 國家나 社會의 死亡變遷은 각종 社會·經濟的 特性別 人口집단의 구성비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증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두 요인들은 사회경제 개발을 포함하는 사회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 경제·사회개발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사망수준의 차이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증가하였으나 농촌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였다.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사망수준의 차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조는 경제·사회개발과 함께 변화하므로, 여기서 사망수준과 이들 인구구성비의 변화간의 관계를 논하였다.

<表 4>는 1984-86년에 측정한 10세 연령계급별, 교육정도별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에 대한 推定死亡率(1984-86년의 특성별 인구구성비가 1970-72년의 구성비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의 상대적 사망비와 1984-86년에 推定死亡率로 부터 測定死亡率의 差異(百分比)를 보여 주고 있다.

教育程度別 人口의 構成比에 기초를 둔 상대적 사망률의 비는 가장 젊은 연령계급인 25-34세에서 남자의 경우 약 2배이고, 여자의 경우 약 3배나 되었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는 급격히 떨어져서 남·여 모두 1.0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수준의 감소정도(實測值와 推定值의 差異)가 1970-72년부터 1984-86년까지 25-34세 연령계급에서 남자의 경우 50퍼센트, 여자의 경우 67퍼센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감소정도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어 55-64세 연령계급에서는 남자의 경우 7퍼센트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오히려 3퍼센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젊은 연령계층에

Table 4. Relative Ratio of Death Rate and Proportional Change in Mortality Level in 1984-86, Owing to the Change of Proportion of Population Sub-Group Since 1970-72 by Educational Level and Marital Status, Korea

Age Group	Educational Level <sup>1)</sup>				Marital Status <sup>2)</sup>			
	Males		Females		Males		Females	
	R <sub>j</sub> <sup>3)</sup>	P <sub>j</sub> <sup>4)</sup> (%)	R <sub>j</sub> <sup>3)</sup>	P <sub>j</sub> <sup>4)</sup> (%)	R <sub>j</sub> <sup>3)</sup>	P <sub>j</sub> <sup>4)</sup> (%)	R <sub>j</sub> <sup>3)</sup>	P <sub>j</sub> <sup>4)</sup> (%)
25-34	1.989	-49.7	3.002	-66.7	.960	4.2	.940	6.3
35-44	1.775	-43.7	1.507	-33.7	.941	6.2	.933	7.2
45-54	1.406	-28.9	1.201	-16.8	.997	0.3	1.031	-3.0
55-64	1.069	-6.5	.970	3.1	1.034	-3.3	1.028	-2.7

Notes : 1) Four Groups: None, Primary School,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and College and Higher.

2) Three Groups: Never Married, Married, and Widowed/Separated/Divorced.

3) The Relative Ratio of Death Rate of Age Group in 1984-86 when the Proportions of Population Sub-Groups in 1979-81 are the Same as those in 1970-72 and the Observed Mortality Rate of Each Age Group in 1984-86 is put as 1.0.

4) The Percentage of the Mortality Change of Age Group j, Owing to the Change of Proportions of Population Sub-Groups between 1970-72 and 1984-86.

Sources : Table 2 , 3 and Population Censuses.

서 사망수준의 감소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이 사망수준의 감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남·여 모두 年齡이 높아지면서 百分比의 差異가 減少하는 것은 연령과 함께 교육수준의 향상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男·女 모두 가장 나이가 많은 年齡階級에서 死亡水準이 實測値와 推定値間에 차이가 없어 지는 것은 사망수준이 교육정도에 따라 더 이상 차이나지 않으며 결국은 누구에게나 유사한 수준의 사망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정도에 의한 결과와는 반대로, 婚姻狀態別 人口構成比에 기초를 둔 상대적비는 낮은 연령계급(남자의 경우 25-54세, 여자의 경우 25-44세)에서 1.0이하였으며 연령이 높아 질 수록 이 비는 약간씩 증가하여 가장 연령이 높은 계층(남자 55-64세와 여자 45-64세)에서 약 1.0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이 상대적 비를 기준으로 사망수준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실측치 보다 더 높게 되는데, 이것은 혼인상태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有配偶 人口의 경우 사망수준이 다른 혼인상태의 인구에 비하여 낮다는 일반적인 이론하에서, 우리나라 남·여의 미혼 인구구성비의 증가는 오히려 사망수준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연령이 높아지면서 흐려지고 있다.

## V. 要約 및 結論

社會·經濟的, 그리고 環境 側面에서의 개선으로 生活水準이 향상되면서 死亡率이 減少하기 시작하며 의학의 발달로 死亡變遷이 촉진되는 데 이것은 오늘날의 선진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망률의 감소는 먼저 공공보건정책의 실시와 서구의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이루어 졌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개발의 영향을 받아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망수준의 차이는 경제 사회개발의 진행에 따라 처음에는 넓어졌다가 점차 좁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sup>39)</sup>. 그러므로, 한 人口의 平均 死亡水

準은 生活水準이 서로 다른 特性別 人口의 構成比의 크기에 따라 決定되고, 그 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변천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도시의 평균 사망수준은 농촌에서 보다 훨씬 낮다. 40세 미만의 연령집단에서 農村의 사망률은 도시의 사망률의 2배나 되었으며, 특히 남자 15-19세와 여자 15-24세에서 차이가 컸다. 40세가 지나면서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 차이는 점차 감소하여 60세 전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젊은 연령층에서의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간의 특성의 차이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都市住民의 教育水準이 높다든가 健康狀態나 教育水準이 낮은 農村의 젊은층이 都市로 移動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都市와 農村別 差別死亡力의 性·年齡別 類型은 1970-72년부터 1984-86년간에 아주 비슷하였다. 그러나 地域別 死亡水準의 差異는 남·여 모두 1974-76년 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여자는 1974-76년 부터, 남자는 1979-81년 부터 서서히 감소하였다.

都市와 農村의 差別死亡力의 變化를 經濟·社會開發水準을 代表하는 2개의 指標, 中學校 就學率과 家口所得의 地域別 差異의 變化와 比較하였다. 地域別 差別死亡力과 經濟·社會開發間의 관계는 강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農村과 都市의 死亡比는 197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사망률의 차이는 경제·사회개발이 도시에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졌다고 하겠다. 둘째로, 農村의 經濟·社會開發水準이 都市의 水準에 접근한 때인 70년대 후반 부터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개발수준이 접근함에 따라 앞으로 개발의 혜택이 고르게 미치게 되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사망률의 차이는 더욱 작아질 것이다.

教育水準과 死亡水準間에 존재하는 逆 相關關係의 現象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으나 差別死亡力의 유형은 동일하였다. 1970-72년부터 1984-86년까지 14년 동안 교육정도별 사망수준의 차이가 증가한 것

은 무학이나 국민학교 교육만을 받은 인구의 구성비가 급속히 낮아졌으므로 그들의 평균사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婚姻狀態別 差別死亡力은 1970-72년과 1984-86년 까지 14년동안 남·여 구별없이 모든 연령계급에서 有配偶 人口의 死亡率이 다른 인구집단의 사망률 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그러나 이 婚姻狀態別 差別死亡力은 위의 기간동안 인구분포의 변화에 따라 변하였다. 未婚人口가 늘어나면서 미혼인구와 유배우 인구간의 사망률의 차이가 감소한 반면, 사별·이혼·별거중인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면서 유배우 인구의 사망률과 차이가 커졌다.

이와 같이 14년 동안 教育程度別 人口와 婚姻狀態別 人口의 構成比의 變化는 特性別 差別死亡力의 變化로 나타났으며, 이 特性別 人口의 構成比는 사망률의 변화와 함께 총 인구의 평균 사망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1984-86년의 특성별 인구구성비가 1970-72년의 구성비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984-86년의 推定死亡率을 계산하여 測定死亡率과 비교하였다. 教育程度別 人口構成比를 기초로 계산한 推定死亡率은 25-34세 연령계급에서 남·여 모두 推定死亡率은 測定死亡率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차이는 작아졌다. 그러나 婚姻狀態別 人口構成比를 기초로 할 경우 각 연령계급에서의 推定死亡率은 測定死亡率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經濟·社會開發過程에서 教育水準의 向上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집단의 인구구성비가 높아진 것은 1970-72년과 1984-86년간의 14년 동안에 특히 젊은 연령계층의 사망수준을 크게 낮추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未婚人口의 增加와 같이 結婚狀態別 人口構成比의 變化는 비록 그 영향이 크지는 않더라도 같은 14년 동안에 死亡水準의 減少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註

- 1) Hansluwka, H., "Some Considerations about Statistics on Mortality", *World Views on Population Problems*, Akadeiai Kiado, Budapest, 1968, pp. 139–156.
- 2) Korea, the Republic of, *The Four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2–1976*,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76, pp.11–12.
- 3) Jones, H., "Some Factors in Third World Social Policy",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17, No. 2, 1983, p.107.
- 4) Kim, T.H., "Changing Determinants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on the Basis of the Korean Experience, 1955–1973",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 20, No. 3, 1988;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 5) Benjamin, B.,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Mortality*, Mouton & Co., Paris, 1965; Antonovsky, A., "Social class, Life Expectancy and Overall Mortalit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45, No. 2, 1967, pp. 31–73; Kitagawa, E.M. and P.M. Hauser, *Differential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Socioeconomic Epidemi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Behm, H.,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ortality in Latin America", *Proceedings of the Meeting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UN/WHO Seminar, Mexico City WHO, 1980, pp.140–164; Miro, C.A. and J.E. Potter, *Population Policy: Research Priorities in the Developing World*, Frances Pinter, London, 1980; Ruzicka, L.T., "Implications of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in the ESCAP Region",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8, ESCAP, Bangkok, 1982, pp. 83–100; Kobayashi, K.,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Population of Japan*, Country Monograph Series, No.11, ESCAP, Bangkok, 1984, pp. 43–60;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Summary of Findings on Interaction of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Factors*, Vol. 1, New York, 1973; *Levels and Trends of Mortality since 1950*,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1982;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No. 16, New York, 1984, pp. 40–61.

- 6) 김태헌, “우리나라 성별 사망력의 차이와 사망패턴의 변화”, 교수논총, 제 5집, 제 2호, 한국교원대학교, 1989, pp.165–196; 윤덕중·김태헌, “사회·경제적 요인별 차별사망력의 변화, 1970–86: 사망신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제 12권, 제 2호, 1989b, pp. 1–21; Kim, T.H., (1990).
- 7) T.H.Kim, 1990 제 3장 참조.
- 8) Preston, S.H., “Use of Direct and Indirect Techniques for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Systems”, *Data Bases for Mortality Measurem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New York, 1984, pp.66–76; 김태헌, “우리나라 사망신고자료의 완전성 추정”, 통계, 제 13권, 제 2호, 대한통계협회, 1988, pp. 2–10; 윤덕중·김태헌,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 차별사망력 연구를 중심으로 (1970–1986), 한국교원대학교, 1989a; Kim, T.H. (1990); 권태환·김태헌, 한국인의 생명표: 1970–1985 사망유형의 분석을 중심으로,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서울대학교, 1990(발간중).
- 9) 공세권 등,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 10) 198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대도시 (서울 및

- 부산)로 이동한 총 인구중 15-19세 연령층의 구성비가 남자의 경우 23.5%, 여자의 경우 25.3%였다. 총 이동한 취업인구 중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이 남자의 경우 10.7%, 여자의 경우 23.4%였다.
- 11) Kitagawa, E.M. and P.M. Hauser(1973)참조.
  - 12) 사망신고자료의 완전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간접추정법들은 모두 성·연령별 자료의 보완만 가능하다 (Brass, W., *Methods for Estimating Fertility and Mortality from Limited and Defective Dat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75; Preston, S.H. *et al.* "Estimation the Completeness of Reporting of Adult Death in Populations that are Approximately Stable", *Population Index*, Vol. 46, No. 2, 1980, pp.179-202; Martin, L. G., "A Modification for Use in Destabilized Populations of Brass's Technique for Estimating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2, 1980, pp.381-395; Bennett, N.G. and S. Horiuchi, "Estimating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s in a Closed Population", *Population Index*, Vol. 47, No. 2, 1981, pp. 207-221; "Mortality Estimations from Registered Death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Demography*, Vol. 21, 1984, pp. 217-233; Preston, S.H., (1984참조).
  - 13) United Nations (1982), pp. 135-136.
  - 14) Miro, C.A. and J.E. Potter (1980), p.76.
  - 15) Ruzicka, L.T., "Mortality in Bangladesh: Levels, Trends and Differentials, 1950-1975", in K. Srinivasan and S. Mukerji (eds.), *Dynamics of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1981*, Himalaya Publishing House, Bombay, 1981, pp. 152-176.
  - 16) Preston, S.H. (1980), p. 289; Behm, H. (1983), pp. 17-21.
  - 17) United Nations (1973), p.132; De Carvalho, J.A.M. and C.H. Wood (1978), p.412.

- 18) United Nations (1973), pp. 132–134; De Carvalho, J. A. M. and C.H. Wood, “Mortality, Income Distribution, and Rural–Urban Residence in Brazi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4, No.3, 1978, pp.405–420; Kobayashi, K. (1984), p. 57.
- 19) Preston, S. H.,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Declin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 R. A. Easterlin(ed.), *Population Economic Chang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0, pp. 289–290; Behm, H., “Final Report on the Research Project on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in the Third World”,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in the Third World*, WHO, Paris, 1983, pp. 17–21.
- 20) United Nations (1973); Davis, K., “Cities and Mortality”,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3, IUSSP, Liege, 1973, pp.259–281.
- 21) Ruzicka, L.T., “Mortality Transition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Issues for Research”, *IUSSP Newsletter*, No. 17, 1983, pp.67.
- 22) 국민학교 취학률은 비록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에서 약간 높을 지라도, 1966년에 양지역에서 0.96이상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70년 이래 그 취학률은 1.0에 거의 도달하였다. 비록 농촌지역에서의 국민학교 취학률이 1.0에 도달한 것이 도시지역에서 보다 약간 늦었지만 양 지역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사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위의 교육단계인 중학교의 취학률을 채택하였다.
- 23) Kitagawa, E.M. and P. M. Hauser (1973).
- 24) Preston, S. H., *Mortality Patterns in National Popu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Recorded Causes of Death*, Academic Press, New York, 1976; Schultz, T. P., “Interpretation of Relations among Mortality,

- Economics of Household and the Health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Meeting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UN/WHO Seminar, Mexico City, June, 1979, WHO, Geneva, 1980, pp.382-422.
- 25) Korea, Republic of,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7-1981*,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1971, p.88.
- 26) Korea, Republic of (1976), p.11.
- 27) Kim, T. H., “Urban-Rural Mortality Differential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1970-1986”, Paper presented at IUSSP General Conference, New Delhi, 1989.
- 28) Mathis, E. 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eceased Person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Series 22, No. 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9.
- 29) Kitagawa, E. M. and P. M. Hauser (1973).
- 30) 55-64세 연령계급의 사망위험이 국민학교만 다닌적이 있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연령층에서 사망신고시 낮은 교육수준(특히 무학)을 높은 교육수준(여기서 국민학교)으로 보고한 결과인 것 같다. 이러한 보고상의 오류가 최근 감소함에 따라 이 역현상이 사라지고 있다.
- 31) Behm, H. (1980), p.154.
- 32) Grossman, M.,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d Schooling,” in N. Terleckyi(ed.), *Househo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5; Feldstein, P.J., *Health Care Economics*, Wiley, New York, 1979.
- 33) 1985년에 25-34세와 35-44세의 무학 남자의 인구구성비는 각각 0.5, 1.5%이고, 여자의 경우는 각각 0.8, 4.6%이다.
- 34) Mathis, E.S. (1969); Gove, W.R.,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9, 1973, pp.45–67; Tonnesen, B. L., “Mortality of Single and Married Persons in Norway, 1960–1962”,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in Finland, 1973–1974*, Vol. XIII, Helsinki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1974, pp. 71–82; Koskenvuo, M. *et al.*, “Mortality by Marital Status and Social Class in Finland during 1969–1971”,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Vol. 6, 1978, pp. 137–143; Kobayashi, K. (1984) 등.
- 35) Gove, W. R. (1973), pp. 59–60.
- 36) Fox, A. J. *et al.*, “Selection and Mortality Differential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36, No. 2, 1982, p.76에서 인용.
- 37) Kim, T. H.,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Unpublished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pp. 25–26.
- 38) 윤덕중 · 김태현(1989a), p.41 참조.
- 39) Kim, T. H. (1990), pp.154–159 참조.

## 參 考 文 獻

- 孔世權 外, 「韓國의 死亡力과 死亡原因」,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 金泰憲, “우리나라 死亡申告資料의 完全性 推定”, 「統計」, 第 13卷, 第 2號, 大韓統計協會, 1988, pp. 2-10.
- \_\_\_\_\_, “우리나라 性別 死亡力의 差異와 死亡패턴의 變化”, 「教授論總」, 第 5集, 第 2號, 韓國教員大學校, 1989, pp.165-196.
- 權泰煥, 金泰憲, 「韓國人의 生命表: 1970-1985 死亡類型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90 (發刊中).
- 尹德重, 金泰憲, 「社會·經濟的 變化가 死亡에 미치는 影響: 差別 死亡力 研究을 中心으로(1970-1985)」, 韓國教員大學校, 1989 a.
- \_\_\_\_\_, “社會·經濟的 要因別 差別死亡力의 變化 : 1970-1986: 死亡申告資料를 中心으로”, 「韓國人口學會誌」, 第 12卷, 第 2號, 1989b, pp. 1-21.
- 調查統計局, 「人口센서스報告」 1966, 1970, 1975, 1980, 1985,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68, 1972, 1977, 1982, 1987.
- \_\_\_\_\_, 「人口動態統計, 1970-1986」,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0-1987.
- \_\_\_\_\_, 「韓國의 社會指標, 1988」,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9.
- Antonovsky, A., “Social Class, Life Expectancy and Overall Mortalit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45, No. 2, 1967, pp.31-73.
- Behm, H.,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ortality in Latin America”, *Proceedings of the Meeting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UN/WHO Seminar, Mexico City, WHO, 1980, pp.140-164.
- \_\_\_\_\_, “Final Report on the Research Project on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in the Third World”, *Infant and Childhood Mortality in*

- the Third World*, WHO, Paris, 1983, pp.9–34.
- Benjamin, B.,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Mortality*, Mouton & Co., Paris, 1965.
- Bennett, N. G. and S. Horiuchi, “Estimating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in a Closed Population”, *Population Index*, Vol. 47, No. 2, 1981, pp.207–221.
- \_\_\_\_\_, “Mortality Estimation from Registered Death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Demography*, Vol. 21, 1984, pp.217–233.
- Brass, W., *Methods for Estimating Fertility and Mortality from Limited and Defective Dat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75.
- De Carvalho, J. A. M. and C. H. Wood, “Mortality, Income Distribution, and Rural Urban Residence in Brazi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4, No. 3, 1978, pp.405–420.
- Davis, K., “Cities and Mortality”,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Vol. 3, IUSSP, Liege, 1973, pp.259–281.
- Feldstein, P. J., *Health Care Economics*, Wiley, New York, 1979.
- Fox, A. J. et al., “Selection and Mortality Differential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36, No.2, 1982, pp. 69–79.
- Gove, W. R., “Sex,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9, 1973, pp. 45–67.
- Grossman, M.,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d Schooling,” in N. Terleckyi (ed.), *Househo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5.
- Hansluwka, H., “Some Considerations about Statistics on Mortality”, *World View on Population Problems*, Akademiai Kiado, Budapest, 1968, pp. 139–156.

- Jones, H., "Some Factors in Third World Social Policy",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17, No. 2, 1983, pp. 106–117.
- Kim, T. H., *Age at First Marriage and Fertility in Korea*, Unpublished M. A.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81.
- \_\_\_\_\_, "Changing Determinants of Infant and Child Mortality: on the Basis of the Korean Experience, 1955–1973",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 20, No. 3, 1988, pp. 345–355.
- \_\_\_\_\_, "Urban–Rural Mortality Differential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1970–1986", Paper presented at IUSSP General Conference, New Delhi, 1989.
- \_\_\_\_\_,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 Kitagawa, E. M. and P. M. Hauser, *Differential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 study in Socioeconomic Epidemiology*, Havard University Press, 1973.
- Kobayashi, k.,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Population of Japan*, Country Monograph Series, No.11, ESCAP, Bangkok, 1984, pp.43–60.
- Korea, the Republic of,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2–1976*,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1971.
- \_\_\_\_\_, *The Four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7–1981*,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1976.
- Koskenvuo, M. et al., "Mortality by Marital Status and Social Class in Finland during 1969–1971",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Vol. 6, 1978, pp. 137–143.
- Martin, L. G., "A Modification for Use in Destabilized Populations of Brass's Technique for Estimating Completeness of Death

- Registration”,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2, 1980, pp. 381–395.
- Mathis, E. 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eceased Person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Series 22, No. 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69.
- Miro, C.A. and J. E. Potter, *Population Policy: Research Priorities in the Developing World*, Frances Pinter, London, 1980.
- Preston, S. H., *Mortality Patterns in National Populations : with Special Reference to Recorded Causes of Death*, Academic Press, New York, 1976.
- \_\_\_\_\_,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Decline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n R.A. Easterlin (ed.), *Population Economic Change in Less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0, pp. 289–360.
- \_\_\_\_\_, “Use of Direct and Indirect Techniques for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Systems”, *Data Bases for Mortality Measurem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New York, 1984, pp. 66–76.
- Preston, S. H. et al., “Estimation the Completeness of Reporting of Adult Death in Populations that are Approximately Stable”, *Population Index*, Vol. 46, No. 2, 1980, pp. 179–202.
- Ruzicka, L. T., “Mortality in Bangladesh: Levels, Trends and Differentials, 1950–1975”, in K. Srinivasan and S. Mukerji (eds.), *Dynamics of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1981*, Himalaya Publishing House, Bombay, 1981, pp. 152–176.
- \_\_\_\_\_, “Implications of Morta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in the ESCAP Region”,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8, ESCAP, Bangkok, 1982,

pp. 83–100.

\_\_\_\_\_, “Mortality Transition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Issues for Research”, *IUSSP Newsletter*, No. 17, 1983, pp. 60–82.

Schultz, T. P., “Interpretation of Relations among Mortality, Economics of Household and the Health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Meeting o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ortality*, UN/WHO Seminar, Mexico City, June, 1979, WHO, Geneva, 1980, pp. 382–422.

Tonnesen, B. L., “Mortality of Single and Married Persons in Norway, 1960–1962”,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in Finland, 1973–1974*, Vol. XIII, Helsinki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1974, pp. 71–82.

United Nations,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Summary of Findings on Interaction of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Factors*, Vol. 1, New York, 1973.

\_\_\_\_\_, *Levels and Trends of Mortality since 1950*,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1982.

\_\_\_\_\_,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No. 16, New York, 1984, pp. 37–79.

# 第7章 人口推計를 위한 將來 生命表의 作成에 관한 研究

崔 仁鉉\* · 曹 大熙\*\*

- I. 序論
- II. 方法과 資料
- III. Logit System을 利用한 固有 死亡係數  
의 計算과 將來 生命表의 作成

---

## I. 序 論

死亡力은 出産力에 비해 人口政策立案者나 人口分野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 人口增加抑制라는 焦眉의 당면과제 때문에 이들의 관심이 주로 出産力에 傾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死亡力은 戰爭, 天災地變이나 致死率이 높은 疫疾의 만연 등이 아니면 높아지는 일이 없는데다 그 저하속도 역시 出産力에 비해 매우 느리고 人口對策이나 保健水準의 향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死亡力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出産力이 점점 떨어져 이른바 代置水準에서 안정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閉鎖人口의 규모와 구성은 전적으로 死亡力의 水準과 類型(Pattern)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出産力이 점점 떨어지거나 일정한 水準을 維持하는 한편으로 死亡力이 개선된다면 老齡人口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厚生 및 福祉를 증시하는 社會開發計劃의 수립에서 장래의 死亡力 推定과 이를 바

---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副院長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人口研究室 責任研究員

당으로 작성되는 人口推計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성별, 연령별로 人口를 推計하자면 장래의 死亡水準과 여기에 수반되는 年齡別 死亡率이 필요한데, 死亡率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한 既存의 生命表(Observed Life Table)는 직접적으로는 將來人口의 推計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기타 人口分析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標準生命表(Model Life Table)이다. UN의 人口局에서 1950년대 최초로 標準 生命表를 만든 이래로 몇개의 標準生命表가 작성되었지만(UN, 1956)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1966년에 Coale과 Demeny가 작성한 地域別 標準生命表(Regional Model Life Table)일 것이다(Coale, Demeny, 1966).

Coale과 Demeny는 326개의 生命表를 수집하고 이 중 死亡申告資料를 토대로 작성된 192個 生命表를 선정하여 일차 분석을 통해 4개의 類型으로 분류하고 각각 동, 서, 남, 북부 型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단계로 같은 地域型에 속하는 生命表들을 가지고 각 年齡層의 死亡確率을 代數,  $\log({}_nq_x)$ 를 10세에서의 平均餘命,  $e_{10}$ 에 관하여 回歸分析을 가함으로써 回歸方程式을 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정식에 임의의  $e_{10}$ 를 주고 각 年齡層의  $\log({}_nq_x)$ 를 구한 다음  $\log$ 을 풀어  ${}_nq_x$ 를 얻어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人口推計는 Coale-Demeny의 地域別 標準生命表의 西部型(West Model)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Goldman(1980) 같은 이는 극동지역 남자의 사망 패턴은 이 地域別 標準 生命表의 어떤 유형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이 사실은 우리나라 남자에서 현저한 것이 여러 人口學者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崔仁鉉, 卞容榮). 최근 UN(1982)에서 開發途上國을 위한 標準生命表를 만들 때 극동의 몇개 국가의 사망패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極東型 標準生命表(Far Eastern Model Life Table)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남자의 사망패턴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韓國人에 적합한 固有의 모델生命表가 요청되는 바, 이 固有生命

표를 작성하려면 모델生命表에 의존하지 않고 작성된 實際生命表(Empirical Life Table)가 최소한 30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 實際 生命表를 가지고 Coale-Demeny와 같이 回歸分析方法을 쓰든가 아니면 유엔에서 개발도상국 標準生命表를 만들 때 사용하였던 要因分析方法을 사용하여 어렵지 않게 固有生命表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모델生命表에 의존하지 않고 작성된 生命表가 30개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Brass(1968, 1975)의 logit system은 이같은 限界性을 가지고도 標準生命表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본고는 우리나라에 비교적 적합한 固有生命表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의 將來死亡力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方法과 資料

### 1. 方法

Brass는 두 개의 生命表 間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데 착안하고 이 두 生命表間의 관계를 1차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數學的 變換(Mathematical Transformation)을 찾하고자 하였다. 그는 方程式(1)을 만족시켜주는 x세 까지의 生殘確率( $l_x$ )에 대한 변환을  $\lambda$ 변환이라고 하고 이  $\lambda$ 변환을 方程式(2)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lambda(l_x) = \alpha + \beta * \lambda^*(l_x) \dots\dots\dots (1)$$

$$\lambda(l_x) = \text{logit} (1.0 - l_x) \dots\dots\dots (2)$$

윗 식에서  $\lambda^*$ 와  $l_x$ 는 각각 표준이 되는 生命表와 분석하고자 하는 生命表의 生殘確率이고  $\alpha$ 와  $\beta$ 는 이 두 生殘率의  $\lambda$  변환 간 선형관계식의 常數項, 線型係數를 나타낸다. 또 식(2)에서  $\text{logit}(p) = \ln(p/(1-p))/2$ 로 정의되

므로 결국 方程式(3)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frac{1}{2} * \ln(l_x / (1.0 - l_x)) = \alpha + \beta * \frac{1}{2} (\ln(\dot{l}_x / (1.0 - \dot{l}_x))) \dots\dots\dots (3)$$

Brass는 그의 아프리카 인구의 死亡力에 관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때 아프리카의 한 生命表를 표준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에 一般型으로 대치하였다. 그가 나중에 사용한 일반 標準生命表의 生殘確率의  $\lambda$ 변환치는 <表 1>과 같다.

여하한 生命表 生殘確率의 logit도 <表 1>에 있는 값과 1:1로 대응시켜 최소자승법에 의해 두 개의 회귀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 回歸係數가  $\alpha = 0$ . 이고  $\beta = 1$ 이면 표준 logit와 일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두 生命表는 일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alpha$ 가 음수이면 標準 生命表보다 死亡率이 낮고 반대로 양수이면 死亡率이 높게 된다. 한편  $\beta$ 값이 1보다 작으면 標準이 되는 生命表에서보다 低年齡層의 死亡率이 낮고 반대로 1보다 크면 高年齡層의 死亡率이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圖 1>과 <圖 2>에 이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즉 두 回歸係數  $\alpha$ 와  $\beta$ 는 각각 死亡水準과 死亡類型을 나타내 준다.

우리는  $\alpha$ 와  $\beta$ 값을 계산해 봄으로써 한 死亡力의 수준과 유형을 표준이 되는 死亡力과 비교해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5세 간격 生命表로 부터 연령각세별 生命表를 만들 수 있다. 이때 式(3)으로부터 끌어낸 다음 式(4)를 사용하면 된다. 즉 式(4)를 이용하여 logit 값을 얻고 여기서  $l_x$ 값을 구하여 生命表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mbda(l_x) = [1.0 + \exp(2\alpha + 2\beta * (0.5 * \ln(\dot{l}_x / (1.0 - \dot{l}_x))))]^{-1} \dots\dots\dots (4)$$

Brass는 나아가서 과거의 生命表로 부터 얻어낸  $\alpha$ 와  $\beta$ 값들을 통해 장래의 死亡水準과 類型을 추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장래의 生命表를 어렵지 않게 계산하여 人口推計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Brass, 1976, p128). 본고는 과거 우리나라의 生命表를 Brass의 일본모형 logit에 적합시켜  $\alpha$ 와  $\beta$ 값을 구하고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추세를 살피고 이 추세의 연장으로서 장래를 추정하며 이를 기초로 장래의 生命表를 작성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表 1. Brass의 一般型 標準生命表의 生殘確率 logit 값

年齡	logit 값	年齡	logit 값	年齡	logit 값	年齡	logit 값
0	—	25	-0.3829	50	-0.0211	75	0.8593
1	-0.8670	26	-0.3686	51	-0.0021	76	0.9255
2	-0.7152	27	-0.3549	52	0.0177	77	0.9960
3	-0.6552	28	-0.3413	53	0.0383	78	1.0712
4	-0.6219	29	-0.3280	54	0.0598	79	1.1516
5	-0.6015	30	-0.3150	55	0.0821	80	1.2375
6	-0.5879	31	-0.3020	56	0.1055	81	1.3296
7	-0.5766	32	-0.2889	57	0.1299	82	1.4284
8	-0.5666	33	-0.2759	58	0.1554	83	1.5346
9	-0.5578	34	-0.2627	59	0.1821	84	1.6489
10	-0.5498	35	-0.2496	60	0.2100	85	1.7722
11	-0.5431	36	-0.2364	61	0.2394	86	1.9053
12	-0.5365	37	-0.2230	62	0.2701	87	2.0493
13	-0.5296	38	-0.2094	63	0.3204	88	2.2051
14	-0.5220	39	-0.1956	64	0.3364	89	2.3740
15	-0.5131	40	-0.1816	65	0.3721	90	2.5573
16	-0.5043	41	-0.1674	66	0.4097	91	2.7564
17	-0.4941	42	-0.1530	67	0.4494	92	2.9727
18	-0.4824	43	-0.1381	68	0.4912	93	3.2079
19	-0.4694	44	-0.1229	69	0.5353	94	3.4639
20	-0.4551	45	-0.1073	70	0.5818	95	3.7424
21	-0.4401	46	-0.0911	71	0.6311	96	4.0456
22	-0.4248	47	-0.0745	72	0.6832	97	4.3758
23	-0.4103	48	-0.0574	73	0.7385	98	4.4753
24	-0.3963	49	-0.0396	74	0.7971	99	4.5127

圖 1. logit system에 의한  $l_x$  곡선

( $\beta=1$  이고 Brass의 일반모형을 사용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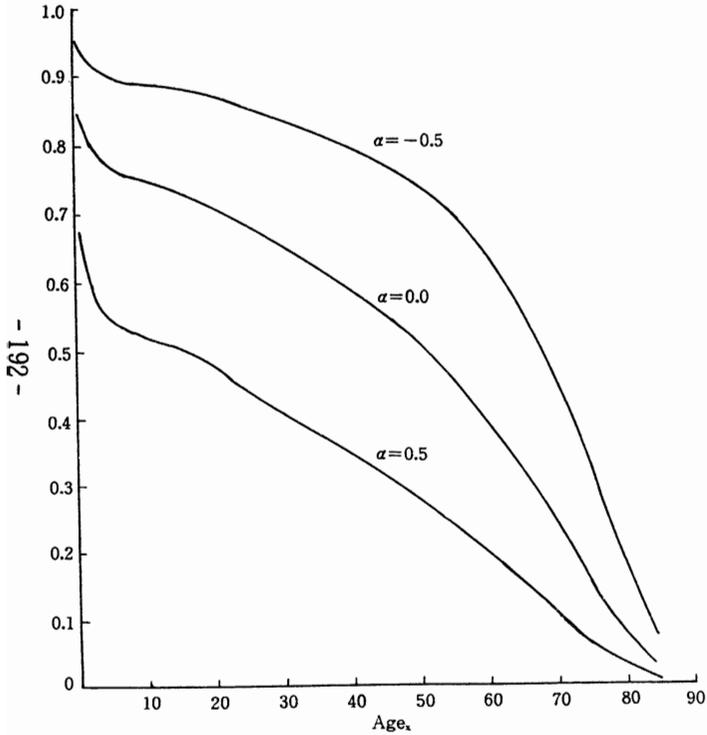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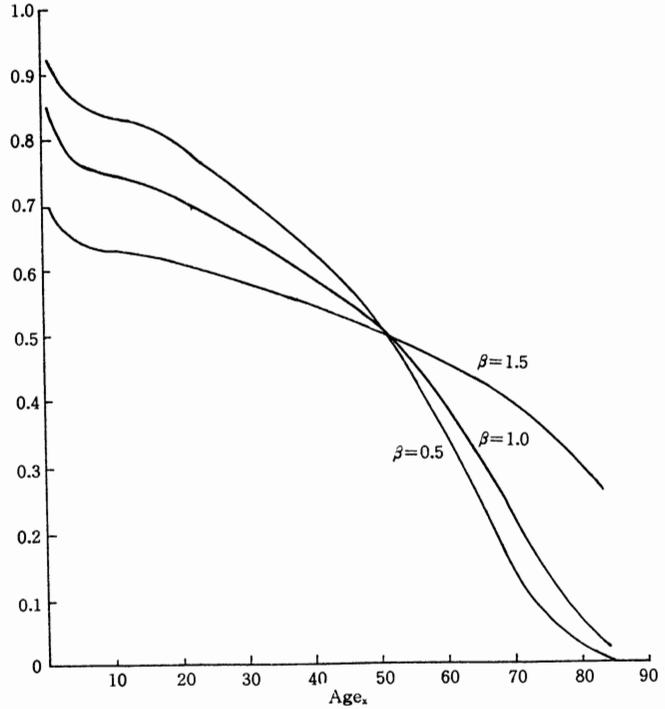


圖 2. logit system에 의한  $l_x$  곡선

( $\alpha=0$ 이고 Brass의 일반모형을 사용했을 때)



## 2. 資料

우리나라 人口에 대한 生命表는 많지 않다. 1943년 水島治夫에 의해 최초로 生命表가 작성된 이후 산발적으로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生命表는 몇개 되지 않으며 그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人口學者들에 의해 작성된 生命表들은 그 대부분이 센서스 결과나 드물게는 標準調查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들로서 한국인 고유의 死亡類型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료의 불완전성때문에 어쩔수 없이 Coale-Demeny 등의 標準生命表에 의존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生命表를 가지고 우리나라 死亡類型的 특성을 밝히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生命表는 실제 사망건수와 人口에서 직접적으로 계산된 사망율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작성할 때 최소한의 補正과 平滑를 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生命表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개 되지 않는다. <表 3>은 이 몇개 되지 않는 生命表들의 生殘確率( $l_x$ )만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生命表가 작성된 것은 1938년 일본인 교수 水島治夫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年齡階級の 구분이 상이하다. 崔羲楹은 水島治夫가 만든 두개의 生命表를 보정하여 새롭게 작성하였다. 1936-40년 生命表는 申告資料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1961년도의 生命表는 當該 年度의 人口동태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 해는 人口動態申告 강조기간을 정하여 비교적 유용한 자료를 생산한 덕택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 1966년의 生命表는 1966년 센서스 사후조사(Special Demographic Survey)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補正을 많이하였지만 標準 生命表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1978-79년의 生命表 역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작성된 것인데 1978년과

表 2. 우리나라의 主要 生命表의 生殘確率 ( $l_x$ )

年 齡	1926-30 <sup>1)</sup>	1931-35 <sup>1)</sup>	1936-40 <sup>2)</sup>	1961 <sup>3)</sup>	1966 <sup>4)</sup>	1978-79 <sup>5)</sup>	1983 <sup>6)</sup>	1985 <sup>6)</sup>	1987 <sup>6)</sup>	1988 <sup>7)</sup>	1989 <sup>6)</sup>
男子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74,783	79,344	90,223	92,405	94,743	96,860	98,421	98,534	98,763	98,744	98,904
5	60,730	65,073	78,086	90,157	92,585	95,978	97,626	97,890	98,212	98,495	98,446
10	57,213	61,935	75,358	88,467	90,832	95,453	97,058	97,436	97,800	98,254	98,098
15	55,305	60,527	73,947	87,870	90,131	95,073	96,659	97,110	97,497	98,024	97,833
20	53,312	58,854	75,511	86,642	89,167	94,323	95,951	96,486	96,977	97,701	97,389
25	50,732	56,621	69,733	84,886	87,984	93,304	95,001	95,602	96,190	97,204	96,671
30	48,074	54,019	67,168	83,012	86,691	92,174	93,892	94,547	95,166	96,414	95,690
35	45,134	51,131	64,268	80,686	85,284	90,940	92,517	93,219	93,900	96,254	94,478
40	42,191	48,442	61,227	77,845	83,590	89,477	90,540	91,354	92,307	93,653	93,048
45	39,569	45,989	57,776	74,139	81,483	86,683	87,229	88,230	89,507	91,563	90,478
50	36,772	42,839	53,523	68,992	79,151	92,913	82,696	83,980	85,453	88,140	86,652
55	33,343	38,985	48,642	61,966	73,084	77,424	76,618	78,308	79,901	83,391	81,360
60	29,063	34,300	42,288	53,799	62,341	69,442	68,328	70,577	72,571	74,959	74,491
65	23,321	28,064	35,013	42,563	52,242	57,415	57,402	60,116	62,586	63,938	64,989
70	17,124	20,565	25,731	31,310	40,543	41,641	44,019	46,906	49,262	49,372	51,772
75	10,789	12,588	16,302	18,640	28,857	26,068	29,247	31,880	34,228	33,367	36,714
80	5,018	5,706	7,687	9,143	15,808	12,267	15,738	17,395	18,900	20,120	20,527

〈表 2 繼續〉

年齡	1926-30 <sup>1)</sup>	1931-35 <sup>1)</sup>	1936-40 <sup>2)</sup>	1961 <sup>3)</sup>	1966 <sup>4)</sup>	1978-79 <sup>5)</sup>	1983 <sup>6)</sup>	1985 <sup>6)</sup>	1987 <sup>6)</sup>	1988 <sup>7)</sup>	1989 <sup>6)</sup>
女子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76,991	79,990	92,087	93,819	94,883	95,897	98,469	98,565	98,812	98,917	98,951
5	63,438	66,388	80,869	91,559	92,739	94,257	97,697	97,984	98,319	98,735	98,556
10	59,781	63,411	78,288	89,841	90,988	93,923	97,224	97,603	97,995	98,612	98,291
15	57,880	61,987	76,869	89,113	90,349	93,680	96,908	97,354	97,756	98,508	98,080
20	55,742	60,140	74,791	87,852	89,837	93,278	96,420	96,941	97,414	98,361	97,796
25	52,943	57,768	72,282	85,906	89,228	92,746	95,824	96,458	96,986	98,154	97,434
30	50,106	55,190	69,840	83,981	86,975	92,203	95,218	95,938	96,493	97,836	96,987
35	47,080	52,410	67,134	82,077	85,611	91,654	94,473	95,293	95,925	97,401	96,494
40	44,094	49,731	64,618	79,929	83,999	90,796	93,501	94,463	95,118	96,911	95,758
45	41,651	47,354	61,992	77,435	82,273	89,333	92,090	93,145	93,946	96,273	94,692
50	39,216	44,902	59,294	74,326	80,441	87,431	90,122	91,332	92,233	95,224	93,096
55	36,344	41,995	55,089	70,392	78,449	84,737	87,253	88,744	89,807	93,098	90,870
60	32,742	38,279	51,087	65,917	72,874	80,827	83,363	85,067	86,307	89,209	87,560
65	27,699	32,873	44,744	59,380	66,883	74,722	77,647	79,720	81,190	83,956	82,732
70	21,786	25,977	35,786	51,605	57,370	65,467	69,026	71,315	73,065	75,647	74,872
75	15,179	17,671	25,469	39,351	41,681	50,767	56,596	59,072	60,714	63,892	62,608
80	8,479	9,343	14,385	26,144	27,068	34,356	41,032	43,045	44,464	47,274	46,077

資料：1. 崔義楹，「朝鮮住民の生命表」，朝鮮醫學雜誌，29卷，17號

2. 原藤周衛，韓國の人口，1978

3. 金日炫，「韓國人の簡易生命表」，人口統計資料，第23號，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4.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1966年度 센서스 綜合分析，1970

5.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1978-79年 韓國人の生命表

6.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韓國人の標準生命表，1990

7. 韓國保健社會研究院，未發表資料。

1979년에 걸쳐 실시된 중복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이른바 C-D 방법을 적용하여 死亡件數를 推定, 死亡率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生命表를 작성하였다.

1983년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작성된 生命表는 앞서의 生命表와는 그 격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이 生命表들은 特別調査나 標本調査에서 얻은 사망 건수를 가지고 사망율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死亡申告資料만을 가지고 死亡率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生命表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生命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補正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嬰兒死亡率의 경우 신고의 遲延과 漏落率을 반영하여 크게 조정하였다.

최소의 補正을 가했다는 점에서 標準調査 結果를 사용하여 작성된 한국 인구보건연구원의 生命表는 특기할 만 하다. 嬰兒 死亡率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비교적 강도높은 平滑이 가해졌을 뿐이다. 이와같이 다른 標本調査에서보다 비교적 높은 사망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반의 標本調査가 소홀하기 쉬운 각종시설에서의 사망이 제대로 파악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위의 生命表  $l_x$ 값에 대한 logit값을 계산하면 <表 3>과 같다.

### Ⅲ. Logit System을 이용한 固有 死亡係數의 計算과 將來 生命表의 作成

<表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원래 Brass의 標準 logit는 1세부터 99세까지 각세별로 주어지지만 분석의 대상이 되는 生命表가 대부분 簡易生命表로서 5세 간격별로 작성되었고 마지막 연령계급이 80세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logit만이 필요하다. 이 logit으로 위의 <表 3>에 적힌 logit값을 回歸分析하여 얻은 결과가 <表 4>에 제시되었다. 이 表를 기초로 관심의 표적이 되는 두 계수  $\alpha$ 와  $\beta$ 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를 그린 것이 <圖 3>이다.

表 3. 우리나라 主要 生命表의 生殘確率 ( $l_x$ )의 logit

年齡	1926-30 <sup>1)</sup>	1931-35 <sup>1)</sup>	1936-40 <sup>2)</sup>	1961 <sup>3)</sup>	1966 <sup>4)</sup>	1978-79 <sup>5)</sup>	1983 <sup>6)</sup>	1985 <sup>6)</sup>	1987 <sup>6)</sup>	1988 <sup>7)</sup>	1989 <sup>6)</sup>
男子											
1	-0.54354	-0.67289	-1.11113	-1.24935	-1.44580	-1.71452	-2.06623	-2.10393	-2.19002	-2.18230	-2.25124
5	-0.21799	-0.31112	-0.63534	-1.10740	-1.26231	-1.58617	-1.85828	-1.91858	-2.00302	-2.09061	-2.07434
10	-0.14527	-0.24340	-0.55890	-1.01871	-1.14665	-1.52208	-1.74811	-1.81881	-1.89723	-2.01511	-1.97153
15	-0.10650	-0.21374	-0.52161	-0.99009	-1.10593	-1.47996	-1.68246	-1.75729	-1.83117	-1.95207	-1.90496
20	-0.06634	-0.17897	-0.56303	-0.93483	-1.05396	-1.40515	-1.58268	-1.65632	-1.73411	-1.87472	-1.80949
25	-0.01464	-0.13320	-0.41731	-0.86284	-0.99546	-1.31718	-1.47232	-1.53952	-1.61435	-1.77431	-1.68432
30	0.03854	-0.08055	-0.35790	-0.79324	-0.93695	-1.23311	-1.36627	-1.42647	-1.48997	-1.64581	-1.55009
35	0.09763	-0.02262	-0.29351	-0.71487	-0.87853	-1.15317	-1.25738	-1.31041	-1.36697	-1.49962	-1.41981
40	0.15747	0.03117	-0.22843	-0.62833	-0.81402	-1.07021	-1.12936	-1.17882	-1.24240	-1.34581	-1.29704
45	0.21173	0.08039	-0.15679	-0.52660	-0.74085	-0.93661	-0.96068	-1.00720	-1.07180	-1.19220	-1.12575
50	0.27101	0.14421	-0.07058	-0.39987	-0.66703	-1.28670	-0.78212	-0.82837	-0.88529	-1.00288	-0.93527
55	0.34636	0.22397	0.02717	-0.24405	-0.49944	-0.61620	-0.59343	-0.64185	-0.69006	-0.80680	-0.73679
60	0.44616	0.32498	0.15548	-0.07613	-0.25202	-0.41043	-0.38444	-0.43746	-0.48648	-0.54821	-0.53582
65	0.59514	0.47064	0.30923	0.14985	-0.04487	-0.14940	-0.14914	-0.20515	-0.25725	-0.28634	-0.30928
70	0.78843	0.67567	0.53000	0.39283	0.19145	0.16876	0.12020	0.06196	0.01476	0.01256	-0.03545
75	1.05624	0.96894	0.81796	0.73679	0.45117	0.52122	0.44171	0.37965	0.32658	0.34582	0.27225
80	1.47033	1.40245	1.24283	1.14815	0.83629	0.98369	0.83893	0.77894	0.72826	0.68941	0.67684

〈表 3〉 우리나라 主要 生命表의 生殘確率( $l_x$ )의 logit(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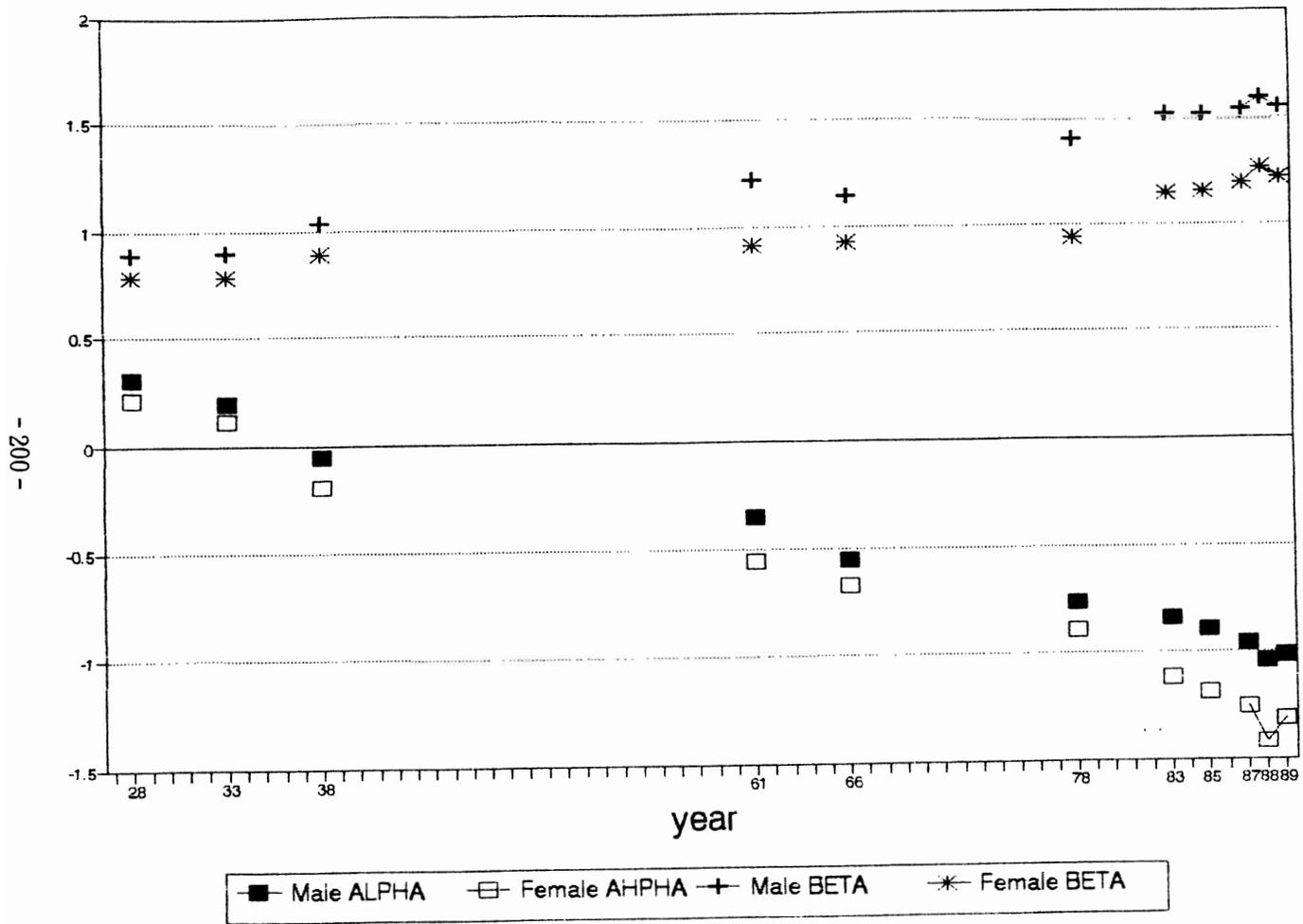
年 齡	1926-30 <sup>1)</sup>	1931-35 <sup>1)</sup>	1936-40 <sup>2)</sup>	1961 <sup>3)</sup>	1966 <sup>4)</sup>	1978-79 <sup>5)</sup>	1983 <sup>6)</sup>	1985 <sup>6)</sup>	1987 <sup>6)</sup>	1988 <sup>7)</sup>	1989 <sup>6)</sup>
女子											
1	-0.60390	-0.69283	-1.22711	-1.35994	-1.46004	-1.57578	-2.08191	-2.11478	-2.21047	-2.25727	-2.27339
5	-0.27553	-0.34032	-0.72076	-1.19194	-1.27364	-1.39902	-1.87383	-1.94184	-2.03441	-2.17868	-2.11160
10	-0.19817	-0.27494	-0.64126	-1.08984	-1.15609	-1.36898	-1.77800	-1.85335	-1.94464	-2.13166	-2.02601
15	-0.15892	-0.24450	-0.60046	-1.05117	-1.11831	-1.34808	-1.72247	-1.80265	-1.88711	-2.09501	-1.96673
20	-0.11535	-0.20565	-0.54375	-0.98924	-1.08962	-1.31510	-1.64668	-1.72801	-1.81443	-2.04759	-1.89630
25	-0.05893	-0.15663	-0.47925	-0.90375	-1.00710	-1.27416	-1.56658	-1.65221	-1.73565	-1.98676	-1.81841
30	-0.00212	-0.10418	-0.41985	-0.82841	-0.94938	-1.23513	-1.49566	-1.58101	-1.65735	-1.90567	-1.73582
35	0.05847	-0.04824	-0.35713	-0.76079	-0.89167	-1.19812	-1.41933	-1.50395	-1.57935	-1.81185	-1.65750
40	0.11867	0.00538	-0.30114	-0.69093	-0.82908	-1.14449	-1.33316	-1.41838	-1.48478	-1.72297	-1.55839
45	0.16856	0.05297	-0.24460	-0.61652	-0.76748	-1.06261	-1.22732	-1.30459	-1.37100	-1.62579	-1.44071
50	0.21912	0.10232	-0.18807	-0.53149	-0.70704	-0.96981	-1.10543	-1.17743	-1.23722	-1.49631	-1.30077
55	0.28023	0.16149	-0.11871	-0.43302	-0.64601	-0.85706	-0.96176	-1.03243	-1.08798	-1.30092	-1.14893
60	0.35994	0.23886	-0.02174	-0.32980	-0.49412	-0.71940	-0.80579	-0.86993	-0.92051	-1.05613	-0.97570
65	0.47972	0.35697	0.10551	-0.18985	-0.35145	-0.54192	-0.62261	-0.68444	-0.73120	-0.82748	-0.78338
70	0.63909	0.52358	0.29233	-0.03211	-0.14848	-0.31982	-0.40067	-0.45537	-0.49896	0.56671	-0.54590
75	0.86032	0.76940	0.53688	0.21629	0.16794	-0.01534	-0.13269	-0.18347	-0.21765	0.28534	-0.25772
80	1.18949	1.13623	0.89184	0.51925	0.49559	0.32373	0.18132	0.14001	0.11118	0.05457	0.07862

資料 : 表 2와 同一

表 4. 年度別 logit의 回歸係數 및 決定係數

年 度	男 子			女 子		
	$\alpha$	$\beta$	$R^2$	$\alpha$	$\beta$	$R^2$
1926-30	0.305	0.890	0.994	0.216	0.784	0.990
1931-35	0.193	0.905	0.991	0.117	0.783	0.989
1936-40	-0.053	1.039	0.993	-0.190	0.890	0.977
1961	-0.354	1.224	0.994	-0.555	0.917	0.995
1966	-0.549	1.143	0.992	-0.670	0.928	0.998
1978-79	-0.761	1.402	0.965	-0.892	0.942	0.987
1983	-0.839	1.515	0.988	-1.115	1.143	0.994
1985	-0.897	1.516	0.986	-1.184	1.156	0.994
1987	-0.959	1.536	0.985	-1.249	1.193	0.993
1988	-1.043	1.590	0.979	-1.418	1.262	0.981
1989	-1.017	1.547	0.983	-1.313	1.218	0.992

圖 3. 死亡係數 變動推移



이 表에서 우선 回歸方程式의 決定係數  $R^2$  값을 보면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0.98을 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각 生命表의 實際 logit와 標準 logit를 가지고 추정한 logit가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logit system을 사용하여 死亡水準이나 死亡類型을 判別하는 것이 나름대로 妥當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表 4>와 <圖 3>에서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alpha$  값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망수준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사망수준의 개선은 남자에서 보다는 여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즉 남자의 경우 1926-36년간 生命表에서 0.305에서 1989년의 -1.017로 1.322가 떨어졌는데 반해 여자는 같은 기간 중 0.216에서 -1.313으로 1.519가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동의 남녀간 차이는  $\beta$ 값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26-1989년 기간 중 남자는 0.890에서 1.547로 0.657 가량 커진 반면 여자는 0.784에서 1.218로 0.434가 커진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기간중에 사망유형의 변화라는 점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년기 사망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노년기 사망의 비중이 커지는 정도가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 남자의 40대 이후 성인 사망율이 비교적 높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alpha$ 와  $\beta$ 값의 변동추세가 거의 線型的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추세를 연장하여 장래의  $\alpha$ 와  $\beta$  값을 추정할 수 있다. <圖 3>에서 최초와 최종의 자료점을 잇는 직선을 긋고 이를 연장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1990-95년간의  $\alpha$ 와  $\beta$ 값을 남녀별로 추정하여 보면 <表 5>와 같다.

사망수준이 달라지면 물론 이에 따라 사망유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망수준을 예측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사망유형을 추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하자면 먼저 사망수준과 유형 계수인  $\alpha$ 와  $\beta$ 의 값의 관계식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수속을 거쳐야만 한다.

表 5. 將來의 死亡係數

年 度	男 子		女 子	
	$\alpha$	$\beta$	$\alpha$	$\beta$
1990	-1.039	1.558	-1.338	1.225
1991	-1.061	1.569	-1.363	1.232
1992	-1.083	1.580	-1.388	1.239
1993	-1.104	1.590	-1.413	1.246
1994	-1.126	1.601	-1.438	1.253
1995	-1.148	1.612	-1.463	1.260

여기서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두 계수  $\alpha$ 와  $\beta$ 가 독립적으로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alpha$ 와  $\beta$  값의 추정치를 먼 장래의 것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인 변동추세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짧은 기간의  $\alpha$ 와  $\beta$ 값만을 추정하였다.

위 <表 5>의 계수를 사용하여 우리는 將來 生命表  $l_x$ 의 logit를 구하고 이것을 풀어  $l_x$ 를 정하면 된다. 이  $l_x$ 에서 다른 生命表 항목을 구하고 生命表를 완성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위의 식 (4)를 적용하여 1990-95년간 生命表의  $l_x$  값을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였다. 그 결과가 <表 6>으로 정리되었다.

이상 logit system을 이용한 將來 生命表의 작성은 결코 번잡하지도 않고 여기서 얻어지는 生命表는 실제와 매우 가깝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 얻은  $l_x$ 값으로 만들어지는 生命表가 장래 우리나라 고유의 사망수준과 유형을 반영하는 가장 실제에 가까운 유일의 生命表가 될 수는 없다. 본고는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완전한 標準生命表를 작성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平均壽命을 假定으로 주고 그 수준에 맞는 특정

유형의 既存의 모델 生命表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이 logit system을 이용하여 固有한 死亡類型이 반영되는 生命表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可能性과 妥當性을 보여주고자 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의도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본다.

表 6. logit system으로 推定된 將來의 年齡別 生殘確率 ( $l_x$ )

年 齡	年 度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男子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99,168	99,217	99,264	99,308	99,349	99,388
5	98,116	98,217	98,313	98,404	98,490	98,572
10	97,794	97,910	98,020	98,124	98,223	98,317
15	97,533	97,661	97,782	97,897	98,006	98,110
20	97,059	97,207	97,348	97,482	97,069	97,730
25	96,344	96,522	96,691	96,852	97,006	97,152
30	95,521	95,731	95,931	96,123	96,305	96,480
35	94,564	94,809	95,044	95,268	95,483	95,689
40	93,366	93,653	93,928	94,192	94,445	94,688
45	91,779	92,117	92,443	92,756	93,057	93,346
50	89,515	89,919	90,309	90,686	91,050	91,400
55	86,087	86,577	87,054	87,515	87,963	88,396
60	80,595	81,196	81,781	82,353	82,910	83,454
65	71,479	72,194	72,898	73,591	74,272	74,942
70	56,593	57,349	58,101	58,850	59,594	60,334
75	35,446	36,017	36,591	37,169	37,752	38,337
80	14,454	14,662	14,872	15,084	15,300	15,517
女子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	99,184	99,233	99,279	99,322	99,363	99,401
5	98,447	98,535	98,617	98,695	98,768	98,837
10	98,241	98,339	98,431	98,518	98,600	98,678
15	98,079	98,184	98,284	98,378	98,467	98,552
20	97,792	97,911	98,024	98,131	98,232	98,327
25	97,377	97,515	97,646	97,770	97,888	98,000
30	96,916	97,075	97,227	97,370	97,506	97,636
35	96,400	96,582	96,754	96,919	97,075	97,224
40	95,775	95,983	96,182	96,370	96,550	96,722
45	94,974	95,215	95,445	95,664	95,873	96,073
50	93,866	94,150	94,422	94,682	94,930	95,167
55	92,237	92,581	92,910	93,226	93,529	93,819
60	89,676	90,104	90,517	90,914	91,296	91,663
65	85,379	85,930	86,464	86,980	87,479	87,962
70	77,747	78,463	79,162	79,844	80,509	81,158
75	63,905	64,775	65,635	66,485	67,325	68,153
80	41,213	42,003	42,978	43,597	44,399	45,204

##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66年度 센서스 綜合分析, 1970.

\_\_\_\_\_, 1978-79년 韓國人の 生命表, 1980.

\_\_\_\_\_, 韓國人の 標準生命表, 1990.

金日炫, “韓國人の 簡易生命表”, 人口統計資料, 第23號,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66.

崔仁鉉, 卞 容榮, “最近의 死亡패턴에 관한 考察”, 韓國學會誌 8卷 2號, 韓國人口學會, 1985.

崔義楹, “朝鮮住民의 生命表”, 朝鮮醫學雜誌, 29卷 17號

Brass, William et al., The Demography of Tropical Africa, Princeton Univ. Press, 1963.

\_\_\_\_\_, Methods for Estimating Fertility and Mortality from Limited and defective Data, Chapel Hill, International Program of Laboratories for Population Statistics. 1975.

Coale, A. J., Demeny, P., Regional Model Life Tables and Stable Popu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Goldman, N. “Far eastern pattern of mortality”, Population Studies 34:1, 1980.

United Nations, Manual III methods for Population Projection by Sex and Age, 1956.

\_\_\_\_\_, Model Life Tables for Developing Countries, 1982.



## 第 8 章 人口移動의 實態와 展望

정 기 원\*

- I. 서 론
- II. 인구이동의 흐름
- III. 거주지이동자의 개인적 특성
- IV. 인구이동의 전망-이주 의도에 대한 통합적 분석
- V. 요약 및 결론

---

### I.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에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이하로 떨어졌고(문헌상 외, 1989 : 122),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망력 수준은 1970-75년에 8.6명이던 조사망율이 1986-87년엔 5.5명으로 감소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64-72), 앞으로도 계속하여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출산력의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의 아래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감소하고, 또한 사망력의 수준이 매우 낮은 정도에서 안정되어 있을 경우엔, 인구이동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인구이동에 의해서 지역별 인구의 크기가 결정될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연구실 책임연구원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구조도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인구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적·구조적 현상들을 개관하고 앞으로의 인구현상을 전망하는 글에서 김일현(1989)은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 변천 단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기간의 주요한 특징적 양상은 출산 수준의 감소추세가 이 기간동안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88년의 조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15.3명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도 대체출산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1.7명으로 낮아지고 있다. 사망수준도 완만한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옴으로써 조사망율이 6명으로 낮아지고 있다. 출산수준의 가속적인 저하와 사망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1%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다. 원래 선진국들의 인구변천 경험에 의하면 후기변천단계에서는 사망율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며 더 이상의 감소를 하지 않게되고 출생율은 비교적 불안정한 감소추세를 계속하다가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 인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지속적인 저하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수준에서 안정되게 될 것인지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과 함께, 남아에 대한 선호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 향후의 출산수준의 변동에 대한 예측은 아직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김일현, 1989 : 22-25)

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하여 비롯되는 공간적·구조적 문제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지역으로의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의 편중된 인구이동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

게 된다. 특히 수도권인구집중은 가용토지면적에 대비한 인구수의 과다로 인한 물리적·계량적문제, 인구의 과밀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의 고조, 수도권의 비대로 인한 다른 지역의 상대적 빈곤화, 그리고 수도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한 국방상의 취약성 등(권태준, 1983)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촌향도로 특징지어지는 인구이동의 흐름과 이동인구의 선별성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만들게 되고, 이는 다시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그리고 도시지역에 대한 상대적 빈곤을 초래하였다.

인구이동에 따른 대도시 및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에 만들어지고 또한 시행되어온 인구분산정책들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였는데(김안제, 1989), 이는 이때까지의 인구분산책들이 개인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행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탓이 크다.

이때까지 이루어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 접근에 치중하여 인구이동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었다. 인구이동의 흐름을 지역별 또는 도농간으로 나누어서 흐름의 양으로 나타내는 게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한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인구이동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때까지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미시적 접근의 시도는 아주 드물었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이동 또는 거주지이동의 연구는 총체적인 인구의 흐름을 밝히는 거시적 접근에서 개별적인 거주지의 이동형태를 살피는 미시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으며(Fischer, 1985 ; Landale and Guest, 1985), 이러한 움직임은 거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거주지 이동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거주지 이동의 형태를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ell and DeJong, 1978 ; Fischer, 1985).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시도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Gardner, 1981 ; Findley, 1982, 1983), 두 접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져 왔다. 인구이동에 대한 거시적 접근에서 개인의 특성이 언급되기도 하고(Hawley, 1950 ; Shaw, 1975 ; Ritchey, 1976), 거주지 이동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서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Trandis, 1971 ; Miller and Godwin, 1977). 가드너(Gardner, 1981)와 핀들리(Findley, 1982, 1983)의 통합모형은 개인의 거주지 이동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는 이때까지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어느 만큼의 사람이 옮겨 갔는가’를 밝히거나(거시적 접근), 아니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겨 가는가’를 살피는(미시적 접근) 것이었는데, 통합적 모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어느만큼 옮겨가는가’를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모형의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통합모형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분석의 어려움 때문인데, 핀들리와 드용(Findley and DeJong, 1985), 리(Lee, 1985), 그리고 정(Cheong, 1987)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통합모형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실태를 밝히고, 그리고 정기원(1989)에 의하여 발전된 거주지 이동에 관한 통합모형을 실증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구이동의 흐름을 전망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의 실태는 거시적 접근의 연구결과와 미시적 접근의 연구결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거시적 접근에서의 인구이동 흐름은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도시화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미시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은 개인의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통합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1983년에 이루어진 인구

이동 표본조사의 자료와 1982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각 시·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주된 관심은 실질적인 거주지 이동의 경험이 아니라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에 주어졌다.

## II. 인구이동의 흐름

### 1.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우리나라 인구의 분포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농촌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역간 인구 분포의 불균형 심화’(최진호, 1986 : 32)로 특징지워진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분포상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어, 1985년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65.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1960년의 28.0퍼센트보다 37.4퍼센트 포인트가 늘어났다(〈표-1〉 참조). 도시를 행정구역상의 시와 인구 2만명이상의 읍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도시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5.59퍼센트,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4.63퍼센트, 그리고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3.66퍼센트로서, 증가의 속도는 늦추어지고 있으나 같은 기간동안의 농촌인구 증가율 0.16, -2.28, 그리고 -3.40퍼센트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문현상, 한영자, 1989).

도시인구의 성장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행정구역상 군부에서 시부로의 승격, 도시지역의 확대에 의한 주변지역 인구의 편입, 도시내 주민의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 그리고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순인구이동의 증가(이한순, 이우리, 1983 : 125)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순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인구의 성장은 매우 뚜렷하게

〈표-1〉 시부·군부별 인구분포의 실태 : 1969-1985

(단위:명)

년도	전국 <sup>1)</sup>	시 부			군 부		
		계	대도시	중소도시	계	읍	면
1960	24,989,241	6,996,746	3,609,073	3,387,673	17,992,495	2,258,713	15,733,782
	(100.0) <sup>2)</sup>	(28.0)	(14.4)	(13.6)	(72.0)	(9.0)	(63.0)
1970	31,435,252	12,928,822	7,401,653	5,527,169	18,504,313	2,850,355	15,653,957
	(100.0)	(41.1)	(23.5)	(17.6)	(58.9)	(9.1)	(49.8)
1975	34,678,972	16,769,946	9,329,589	7,440,357	17,905,538	3,720,417	14,185,121
	(100.0)	(48.4)	(26.9)	(21.5)	(51.6)	(10.7)	(40.9)
1980	37,436,315	21,434,116	11,524,145	9,909,971	16,002,199	4,539,666	11,462,533
	(100.0)	(57.3)	(30.8)	(26.5)	(42.7)	(12.1)	(30.6)
1985	40,448,486	26,442,980	13,153,908	13,289,072	14,005,506	4,817,236	9,188,270
	(100.0)	(65.4)	(32.5)	(32.9)	(34.6)	(11.9)	(22.7)

자료 출처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0, 1970, 1975, 1980,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인구 가족계획 지표. p. 5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주 : 1) 전국의 인구가 시부 및 군부 인구의 합계와 같지 않은 것은 미상의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괄호안의 숫자는 퍼센트를 나타낸다.

나타나고 있는데,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도시인구성장에서 순인구이동에 따른 증가가 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부터 1975년까지는 45.1퍼센트, 그리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39.7퍼센트를 차지한다(이한순, 이우리 : 1983). 순인구이동에 의한 도시인구의 증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1976년부터 1989년까지의 주민등록에 의한 집계를 바탕으로한 시부·군부별 인구이동의 추세를 <표-2>에 정리하였다.

<표-2> 시부·군부별 인구이동의 추세 : 1976-1989

연 도	시 부			군 부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1976	5,370,849	5,001,572	369,277	1,402,401	1,771,676	-369,277
1977	5,924,277	5,508,370	415,907	1,473,346	1,809,253	-415,907
1978	6,773,459	6,159,588	573,871	1,676,817	2,250,688	-573,871
1979	5,887,122	5,386,350	500,772	1,437,258	1,938,030	-500,772
1980	6,487,064	6,143,828	343,236	1,771,509	2,114,745	-343,236
1981	6,565,032	6,243,531	319,501	1,631,484	1,950,985	-319,501
1982	7,064,905	6,751,535	313,370	1,551,569	1,864,939	-313,370
1983	8,003,830	7,636,104	367,726	1,791,981	2,159,707	-367,726
1984	7,432,351	7,036,262	396,089	1,610,887	2,006,976	-396,089
1985	7,060,216	6,805,318	254,898	1,618,881	1,873,779	-254,898
1986	7,179,035	6,894,573	284,462	1,481,393	1,765,855	-284,462
1987	7,724,047	7,388,101	335,946	1,584,703	1,920,649	-335,946
1988	8,455,070	8,067,875	387,195	1,513,950	1,901,145	-387,195
1989	8,153,906	7,667,285	486,621	1,162,313	1,648,943	-486,621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인구이동 통계연보

지역간 인구이동 현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를 바탕으로하여 작성되는 인구이동 자료는 사실상의 이동과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는 이동사항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전출의 경우는 전입을 기준으로 환산되고, 전·출입 시차에서 오는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그리고 일선의 동·읍·면에서 일차적으로 집계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집계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iii). 하지만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의 통계는 ‘농촌과 도시간 및 지역간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노동시장, 도시교통, 교육 및 주택, 보건위생 정책 등의 정책입안 자료와 지역별 인구추계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통계적 기초자료를 제공’(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3)하는 것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의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와 함께 인구이동의 흐름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통계에서는 전입을 ‘특정한 행정구역(洞·邑·面)을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부터 거주지를 옮겨옴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로, 그리고 전출은 ‘특정한 행정구역(洞·邑·面)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감으로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5)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순인구이동에 의한 시부의 인구증가는 1970년대 후반까지는 그 절대수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1980년대 초반에 오면 늘어나는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서는 순인구이동에 의한 시부 인구의 증가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추세의 변화에 대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부로 전입인구가 곧 도시인구의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부로 전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부에서 옮겨온 사람들이고, 이들은 도시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3>에서 보면, 시부에서 시부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절대수는 1986년엔 5,987천명, 1987년에는 6,421천명, 1988년에 7,093천명, 그리고 1989년에는 6,922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전체 이동인구의 69.1, 68.9, 71.1, 그리고 74.3퍼센트를 차지한다. 도시인구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부에서 시부로 의 이동인구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해마다 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서,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는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표-3〉 시부 및 군부 사이의 인구이동의 흐름: 1986-1989

(단위:천명, 퍼센트)

구 분	1989		1988		1987		1896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계	9,316	100.0	9,969	100.0	9,309	100.0	8,660	100.0
시부→시부	6,922	74.3	7,093	71.1	6,412	68.9	5,987	69.1
시부→군부	745	8.0	974	9.8	976	10.5	907	10.5
군부→시부	1,232	13.2	1,362	13.7	1,312	14.1	1,192	13.8
군부→군부	417	4.5	540	5.4	609	6.5	574	6.6

자료 출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1989년 인구이동통계연보, p. 13에서 인용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얘기되어진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경제개발의 진전으로 도시에 있어서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다양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한 도시접근의 용이성, 도시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의 경제적 사회적 제요인에 의해 도시인구의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 되어'(이한순, 이우리, 1983: 124) 진정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구이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은 전입지의 특성과 전출지의 특성으로 나뉘어진다(Lee, 1966).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현상에서는 도시의 발전이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며, 도시의 발전에 따른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성이 배출요인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경제발전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1960년대 이후의 국가정책은 집적경제의 효율성에 치중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의 투자, 산업의 육성, 그리고 주거환경의 개선등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인구이동의 흐름에 있어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Bogue, 1959: 500-501), 이에 따라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흐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2.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의 흐름은 그 방향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으로 정의할 때, 수도권 지역의 인구성장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처럼 빠르게 이루어지는 수도권의 인구성장은 주로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표-4〉는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이루어진 수도권의 인구증가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년평균 인구증가율이 1960년부터 1966년까지는 4.8퍼센트, 1966년부터 1970년까지는 6.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는 197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그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낮아져, 1970년부터 1975년까지는 4.1퍼센트,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3.9퍼센트, 그리고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3.5퍼센트로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

〈표-4〉 수도권의 인구증가 실태: 1960-1985

		(단위:천명, 퍼센트)					
구	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인구수							
	수도권	5,194	6,913	8,894	10,924	13,302	15,807
	서울	2,455	3,805	5,536	6,889	8,367	9,629
	인천 및 경기	2,749	3,108	3,358	4,035	4,935	6,178
인구증가율							
	수도권	4.8	6.3	4.1	3.9	3.5	
	서울	7.4	9.4	4.4	3.9	2.8	
	인천 및 경기	2.0	1.9	3.7	4.0	4.5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문현상·한영자. 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이동 분석, p. 25에서 인용.

도권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1970년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서울의 인구성장이 둔화된 탓인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성장율은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9.4퍼센트를 고비로하여 1970-75년에는 4.4퍼센트, 1975-80년에 3.9퍼센트, 그리고 1980-85년 사이에는 2.8퍼센트로 낮아지고 있음에 반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율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1.9퍼센트이던 것이 1970-75년엔 3.7퍼센트, 1975-80년엔 4.0퍼센트, 그리고 1980-85년에는 4.5퍼센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성장은 주로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증가이거나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연증가인데, 두 요인의 구성비를 <표-5>에 정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성장에서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부터 1966년까지는 49.0퍼센트이던 것이 1966-70년 사이에는 73.2퍼센트나 되었다. 그리고 1970-75년에는 54.0퍼센트, 1975-80년의 64.2퍼센트, 그리고 1980-1985년에는 50.3퍼센트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는 인구흡인 요인과 다른 지역이 지니는 인구배출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

<표-5> 수도권 인구성장의 구성요소: 1960-1985

기간	인구증가수	(단위:천명, 퍼센트)			
		사회증가		자연증가	
		증가인구	구성비	증가인구	구성비
1960-1966	1,719	842	49.0	877	51.0
1966-1970	1,981	1,451	73.2	530	26.8
1970-1975	2,030	1,084	54.0	946	46.6
1975-1980	2,378	1,526	64.2	852	35.8
1980-1985	2,505	1,261	50.3	1,244	49.7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문현상·한영자, 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이동 분석, p. 28에서 인용.

어지는데(제1부임소장관실, 1978: 7-13), 산업사회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의 주요기능들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서울이고, 이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을 불러 들이는 인구흡인 요인이 된다. 정기원(1990)의 글에 의하면, 정부의 행정서비스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있고, 여러가지 외부경제에 의하여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산업은 기타의 관련산업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각 영역에 있어서 서울이 증추기능의 집합체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의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1985년말 현재 전체 사업체의 54.7퍼센트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1986년 현재 전국 제조업종 기업체의 56.3퍼센트, 고용원의 48.3퍼센트, 생산액의 42.2퍼센트, 그리고 공장부지의 32.2퍼센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안제, 1989: 57). 이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이 집적경제와 규모경제에 바탕을 둔 총량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까닭에, 배분지향적인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정부의 여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있어 뒤질 수 밖에 없었던(최병선, 1990: 1) 탓이다.

### Ⅲ. 거주지 이동자의 개인적 특성

#### 1. 인구학적 특성

거주지 이동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는 나이, 성별, 혼인상태, 가족관계, 현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그리고 거주지 이동의 경험 유무 등을 포함한다.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서

나이는 가장 많이 분석되어지는 변수인데, 이때까지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층의 집단이 가장 높은 거주지 이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은 1985년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전체인구에 대한 이동인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가 5년전의 거주지와 다른 사람들의 비율이 25-29세 집단에서 40.6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34세 집단은 34.1퍼센트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그리고 20-24세 집단에 있어서의 인구이동 비율은 29.8퍼센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거주지를 1년전의 거주지와 비교하여 거주지 이동자로 정의하였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20-24세 집단은 13.3, 25-29세 집단은 16.9, 그리고 30-34세 집단은 11.9퍼센트). 젊은 연령층의 거주지 이동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귀속감이 비교적 낮으며, 또한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Shaw, 1975: 18). 그리고 20대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는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마친 후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결혼을 통하여 생활주기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거주지 이동에 있어서의 나이에 따른 선별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83년에 실시된 전국 인구이동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분석한 연구의 결과에서 윤종주(1986)는 14세 이후에 거주지 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최초 이동의 경우는 15-19세집단이 49.1퍼센트, 20-24세 집단이 3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현거주지로 옮겨 온 최종이동의 경우에는 15-19세 집단이 20.5퍼센트, 20-24세 집단이 27.8퍼센트, 그리고 25-29세 집단은 23.2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표-6>에서 보여주는 거주지 이동에 있어서의 나이에 따른 선별성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20대 초반에 있는 집단에 대한 거주지 이동율에는 조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의 분석이 전체

〈표-6〉 연령 계층별 이동인구(5세 이상)

(단위:천명, %)

연령	계					남자					여자				
	전체인구	이동인구1	이동인구2			전체인구	이동인구1	이동인구2			전체인구	이동인구1	이동인구2		
	(A) <sup>b)</sup>	(B) <sup>b)</sup>	(C) <sup>b)</sup>	B/A <sup>d)</sup>	C/A <sup>d)</sup>	(A)	(B)	(C)	B/A	C/A	(A)	(B)	(C)	B/A	C/A
5 - 9	3,916.4	880.8	258.8	22.5	0.7	2,025.4	459.2	134.7	22.7	6.7	21,891.0	421.6	124.1	22.3	6.6
10-14	4,476.0	652.4	179.4	14.6	4.0	2,310.6	344.6	95.2	14.9	4.1	2,165.4	307.8	84.2	14.2	3.9
15-19	4,316.3	975.0	405.9	22.6	9.4	2,227.3	460.9	199.0	20.7	8.9	2,088.9	514.1	206.9	24.6	9.9
20-24	4,245.1	1,263.7	566.2	29.8	13.3	2,185.7	452.3	223.2	20.7	10.2	2,059.4	811.4	343.0	39.4	16.7
25-29	4,070.4	1,654.0	689.7	40.6	16.9	2,027.2	753.1	343.4	37.1	16.9	2,043.2	900.9	346.3	40.1	16.9
30-34	3,115.2	1,060.8	372.0	34.1	11.9	1,589.6	584.8	218.4	38.7	14.5	1,525.6	476.0	153.6	31.2	10.1
35-39	2,581.2	633.8	194.6	24.6	7.5	1,324.4	368.3	116.0	27.8	8.8	1,256.8	265.5	77.7	21.1	6.2
40-44	2,187.2	358.1	106.3	16.4	4.9	1,108.7	207.3	61.6	18.7	5.6	1,078.8	150.8	44.7	14	4.1
45-49	2,089.2	255.9	80.6	12.2	3.9	1,043.0	136.6	42.0	13.1	4.0	1,046.2	119.4	38.6	11.4	3.7
50-54	1,695.3	192.0	65.4	11.3	3.9	809.6	88.2	29.0	10.9	3.6	885.6	103.8	36.3	11.7	4.1
55-59	1,267.8	151.5	53.8	11.9	4.2	560.6	60.3	20.6	10.8	3.7	707.2	91.2	33.2	12.9	4.7
60-64	1,006.9	122.5	44.0	12.2	4.4	440.4	45.4	15.6	10.3	3.5	566.5	77.1	28.5	13.6	5.0
65-69	722.8	88.6	32.0	12.3	4.4	306.7	30.7	10.7	10.0	3.5	416.1	57.9	21.4	13.9	5.1
70+	1,026.7	112.9	40.3	11.0	3.9	345.4	33.0	11.4	9.6	3.3	681.4	79.7	28.9	11.7	4.2
계	36,716.8	8,402	3,089	22.9	8.4	18,224.6	4,024.7	1,520.8	22.1	8.3	18,412.1	4,377.4	1,567.4	23.8	8.5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4권, 인구이동

주 : 1) 특별조사구의 인구는 제외되었다.

2) 5년전의 거주지가 현거주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3) 1년전의 거주지가 현거주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4) 현거주지의 인구를 분모로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에서 이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탓일 수도 있지만,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있어서는 20-24세 집단에 몰려있는 군인들이 조사에 포함되면서도 그들의 거주지 이동상태는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연령계층별 이동인구의 비율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보면, 5년 기간의 이동율에서는 남자의 경우 25-34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25-29세는 37.1퍼센트, 그리고 30-34세는 38.7퍼센트), 여자는 20-29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4세는 39.4퍼센트, 그리고 25-29세 집단은 40.1퍼센트). 이러한 경향은 1년 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이동인구의 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성에 따른 차이는 남자의 이동율이 여자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시부로의 순이동자 수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여자의 이동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표-7〉 참조). 거주지 이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혼인상태, 가족관계, 거주기간, 그리고 거주지 이동의 경험 등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이 우리나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2.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서 분석되어지는 사회경제적 특성에는 주로 교육, 소득, 그리고 직업 등이 포함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은 정착 예정지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차이,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시장의 수준, 그리고 이주에 필요한 자원의 소유 여부 등으로 설명되어진다 (Shaw, 1975; Ritchey, 1976; Lee, 1985; Markham and Pleck, 1986). 거주지 이동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에서는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 이동율이 높게 나

〈표-7〉 거주지 이동자의 성별 비율: 1976-1989

년 도	이동자 총수		시부로의 순이동자수	
	총수(천명)	성비(여자=100)	총수(천명)	성비(여자=100)
1976	6,773	111.9	369.3	95.4
77	7,398	112.3	415.9	94.6
78	8,410	109.1	573.9	103.1
79	7,324	114.2	500.8	92.7
80	8,259	107.3	343.2	61.1
81	8,195	106.3	319.5	65.9
82	8,616	106.6	313.4	72.6
83	9,796	103.5	367.7	79.8
84	9,043	105.1	396.1	83.1
85	8,679	104.7	254.9	79.3
86	8,660	104.7	284.5	88.2
87	9,309	103.0	335.9	87.5
88	9,969	103.1	387.2	98.7
89	9,316	102.7	486.6	96.4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1989년 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p. 11과 p. 15

타나고 있다. 198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의 자료에서 1년전의 거주지가 조사 당시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의 비율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서 〈표-8〉에 정리하였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는 4.9퍼센트만이 1년전의 거주지가 현재와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자는 10.7퍼센트, 고등학교 졸업자는 13.3퍼센트,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4.4퍼센트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 이동의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거주지 이동의 있어서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거주지 이동율이 중산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높은 소득을 가진 집

〈표-8〉 사회경제적 특성별 거주지 이동 비율

(단위:천명, 퍼센트)

특 성	전체인구수	이동인구수	이동인구비율
혼인상태			
미혼	9,562	1,015.3	10.6
유배우	16,582	1,498.7	9.0
이혼	167	20.9	12.5
사별	2,009	115.8	5.8
미상	5	.3	6.0
계 <sup>1)</sup>	28,325	2,651	9.4
교육정도			
국민학교 재학	4,858	245.8	5.1
"    중퇴·졸업	5,950	294.0	4.9
중학교 재학	2,766	93.5	3.4
"    중퇴·졸업	5,175	552.8	10.7
고등학교 재학	2,376	150.9	6.4
"    중퇴·졸업	7,484	998.4	13.3
초대·전문 재학	208	24.4	11.7
"    중퇴·졸업	665	87.0	13.1
대학이상 재학	978	138.4	14.2
"    중퇴·졸업	2,045	295.2	14.4
불취학	3,370	137.6	4.1
미상	3.8	.3	7.9
계 <sup>2)</sup>	35,880	3,018	8.4
직업별			
전문·기술 행정관리 0/1/2	1,087	132.8	12.2
사무종사자 3	1,723	236.1	13.7
판매종사자 4	2,306	169.4	7.3
서비스종사자 5	1,621	164.8	10.2
농·축·수산·어업 6	3,675	53.1	1.4
생산 및 단순노동자 7/8/9	4,522	562.7	12.4
계 <sup>3)</sup>	14,935	1,319	8.8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노동부. 1985. 노동통계년감

- 주 : 1) 15세 이상인구  
 2) 6세 이상인구  
 3) 14세 이상인구

단, 그리고 저소득층의 이동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실증분석의 결과가 있기도 하고(Bogue, 1969), 다른 분석의 결과(Rogers, 1969; Morgan, 1978)는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이동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소득과 거주지 이동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과 직업의 관계는 노동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Shaw, 1975), 기술직이나 사무직의 경우 노동시장이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된 1차산업 종사자보다 거주지 이동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표-8〉 참조).

#### IV. 인구이동의 전망-이주 의도에 대한 통합적 분석

##### 1. 분석의 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시도는 가드너(Gardner, 1981)와 핀드리(Findley, 1982, 1983)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가드너(1981)는 거주지 이동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의 모형에서 개인의 가치체계가 거주지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가치체계는 지역사회 문화나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개인의 거주지 이동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거시적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통합하는 훌륭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의 모형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요인은 문화적인 측면에만 제한되어 있는 탓에 아직까지 두 접근의 통합이 만족스러울 정도가 못되고 있다.

핀드리(1982, 1983)는 가드너(1981)의 모형을 발전시키면서 개인의 거주지 이동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에 사회적,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구조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모형에서도 핀드리(1982, 1983)는 이주결정 단계와 이주형태의 선택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드너(1981)와 핀드리(1982, 1983)의 통합모형은 개인의 거주지 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몇몇의 경우는 Findley and DeJong, 1985; Cheong, 1987) 그러한 통합의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합하는 거주지 이동의 모형설정과 그러한 모형의 실증분석은 이론적인 의미와 사회 정책적 의미를 함께 지닌다. 이론적 의미라 함은 인구이동 또는 거주지 이동의 연구를 위한 이론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며, 정책적 의미는 개인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이 밝혀져서 인구분산 정책의 수립에 고려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또는 거주지 이동의 연구에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각 단계는 대개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브림 등(Brim et al., 1962)은 의사결정의 과정이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각 단계는 문제의 파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해결 방안들의 모색; 각 방안에 대한 평가; 방안의 선택; 그리고 선택된 해결 방안의 실천이다. 거주지 이동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지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거주지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 단계가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와 이동의 실행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예를 들면, Van Arsdol et al., 1968; Speare et al., 1975;

Brown and Sanders, 1981; DeJong and Fawcett, 1981; Gardner, 1981), 또는 이주의 결정과 이주대상지의 선정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의 단계까지 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인이 지니는 태도와 행태는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태의 결과(behavioral outcomes)는 행태의 의도(behavioral intentions)를 바탕으로 예측되어질 수가 있다(Fishbein, 1978; Hill, 1981). 이러한 까닭으로 거주지 이동의 행태를 전망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거주지 이동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eyfrit, 1986).

거주지 이동의 행위가 언제나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거치는 단계의 순서가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피터슨(Peterson, 1958)이 분류한 거주지 이동의 형태에서 강제된 이주나 추방 등은 개인의 의사결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록 자의적인 이주(free migration)라고 할지라도 대상지의 선정이 이주에 대한 의도의 결정보다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에 관한 모형의 발전에 있어서는 몇가지의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전제는

- ① 거주지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②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유스럽고 합리적이다(free and rational), 그리고
- ③ 거주지 이동은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하여 정기원(1989)은 거주지 이동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정을 단계별로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의 영향을 밝히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통합 모형에서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의 단계까지만을 실증적 분석을 위한 틀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료의 제한에 따른 어

려움 때문이다.

거주지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출발점은 개인이 이주할 것을 고려하는 단계인데, 이는 “현재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감의 상대적 수준”(Speare et al., 1975: 176)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반발이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불만이 거주지 이동의 의사결정과정의 첫번째 단계인 거주지 이동의 고려 및 의도를 유발시키는 것이다(Janis and Mann, 1977).

거주지 이동이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는 하나 뿐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다른 많은 방안들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방안일 따름이다.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의 요소들은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거나(Speare et al., 1975), 또는 개인이 지니는 가치체계나 규범을 바꿈으로써(Gardner, 1981) 해결되어질 수 있다. 개인의 가치체계의 변화나 주어진 환경에의 적응으로 현재의 거주지에 대한 불만은 없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종류의 불만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의사결정의 첫 단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의 기대나 목표에 비추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끊임없이 평가하게 되는데(Brown and Sanders, 1981: 151), 이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적 특성은 모든 환경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1983년에 전국을 대상으로하여 실시된 전국 인구이동 조사의 결과 분석에서 장래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희망의 이유 가운데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43.1%를 보이고 있는데(윤종주, 1986: 186), 이는 지역의 환경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의 부정적 측면이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은 개인의 기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의 여건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에서 비롯되어진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은 주로 개인의 기대 구조를 결정하는 가치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주민의 연령구조나 남녀의 구성 비율이 결

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되어온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 여건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다. 그리고 문화적 요인은 개인의 가치체계로 유입되어 현거주지에 대한 평가의 척도로 삼아지게 된다.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첫번째 단계는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된다. 스피어(Speare, 1974: 176)는 그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모형에서 “나이, 수입, 거주기간 등과 같은 요인은 이주를 고려하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특성들이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의 크기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러한 불만이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Speare, 1974; Marans and Rodgers, 1975; Rojek, et al., 1975; Campbell et al., 1976; Tinakul and Stinner, 1985), 이때의 미시적 요인에는 인구학적 변수들 중에서 성, 나이, 가족관계, 그리고 거주기간 등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직업, 수입, 그리고 교육정도가 주로 포함된다.

## 2. 자료

거주지 이동의 의도에 대한 통합 모형의 실증적 분석은 1983년에 실시된 전국 인구이동 조사(Korean National Migration Survey-1983)의 자료와 각 시도의 1983년도 통계연보에서 얻어진 시 및 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1983년의 전국 인구이동 조사는 인구이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인구활동기금(UNFPA)의 부분적인 재정 지원과 정부 사업비에 의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공동사업

으로 실시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540개의 표본조사구는 4개의 층(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시부, 부산 및 대구직할시, 기타 시부, 그리고 군부)으로 층화되어 461개의 조사구로 재추출되고, 재추출된 조사구에서 층별로 달리 적용된 추출율에 따라 9,229가구가 표본으로 뽑혔다. 뽑혀진 가구에 대해 상주 가구원의 인구경제학적 배경과, 비상주 가구원 및 전출 가구원의 인구경제학적 배경, 토지소유 및 활용 상태, 그리고 거주상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가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8,897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96.4퍼센트의 응답율을 기록하였다. 가구조사의 대상이 된 표본가구에서 무작위로 추출 선정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8,709명에 대한 개인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개인조사의 주된 내용은 이동 및 생활사, 지난 12개월간의 이주 및 활동 상태, 그리고 장래이동의 의향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표본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의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실증분석은 조사가 완료된 8,193명에 대한 개인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가구조사의 결과를 각 개인의 가족배경으로 첨가시켰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 살고 있던 지역의 특성들을 각 시도의 1983년도 통계연보에서 뽑아 개인자료에 융합시켰다. 지역적 특성은 1982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 및 군을 지역 단위로 하였다.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엔 행정구역상 시 및 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구를 지역단위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구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시와 직할시의 전체를 단위로 하여 지역 특성을 측정하였다.

### 3. 변수의 측정

거시적 요인은 조사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의 지역적 특성을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서 정황변수와 배경변수(contextual and setting variables)로 나뉘어진다(Freedman, 1979; Gardner, 1981). 배경변수는 지역주민의 의지와는 별로 관계없이 역사적, 구조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말한다(Freedman, 1979: 10-11). 그리고 정황변수는 지역주민의 인구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따라서 조금은 쉽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말한다(Gardner, 1981). 거시적 요인과 인구이동의 흐름과의 관계는 이때까지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는, 조정제, 1982; 이한순·이우리, 1983;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Todaro, 1969; Harris and Todaro, 1970; Sly, 1972; Frisbie and Poston, 1978; Greenwood, 1985), 여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① 환경적 요인, ②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③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지역이 지니는 물리적, 그리고 시설적 여건들을 말하는데, 기후 조건, 생활 중심권으로부터의 거리, 소음 및 공해 정도, 에너지 공급 정도, 상수도 보급율, 공원 면적 등(조정제, 1982; 이한순·이우리, 1983; Oosterbaan, 1980; Schachter and Althaus, 1982)이 포함된다. 실증분석에서는 도로의 포장율, 전화가입자 비율, 그리고 인구 10,000명당 병상수와 약국수를 환경적 요인의 변수로 삼았다.

인구이동에 관계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거주지역의 취업기회 또는 실업율, 고용 및 산업구조, 교육기회, 그리고 평균소득 수준 등을 포함한다(조정제, 1982; Todaro, 1969; Harris and Todaro, 1970; Wardwell and Gilchrist, 1980; Greenwood, 1985; Lee, 1985; Cheong, 1987). 실증분석에서는 산업구조, 교육시설, 그리고 빈곤의 실태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쓰여졌다. 산업구조는 전체인구에서 공장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었으며, 교육기회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빈곤의 실태는 주택보호가구와 영세민보호가구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요인으로서의 인구학적 변수는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 쓰여지는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연령 구조, 남녀 비율, 인구이동의 율, 그리고 인구밀도 등을 포함한다(조정제, 1982; Cheong, 1987). 실증분석에 쓰여지는 모든 변수들은 <표-9>에 정리되어 있다.

미시적 요인은 개인의 거주지 이동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말한다. 거주지 이동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대표적인 연구로는 Bogue, 1969; Shaw, 1975; Price and Sikes, 1975; Ritchey, 1976; 윤종주, 1986),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특성이 거주지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있다(Landale and Guest, 1985: 200-201). 거주지 이동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주로 미시경제이론(Da Vanzo, 1981),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Speare, 1974; Speare et al., 1975; Landale and Guest, 1985), 가치기대이론(Sell and DeJong, 1978; DeJong and Fawcett, 1981), 그리고 사회심리적 이론(Haberkorn, 1981)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주요한 관심은 거주지 이동의 선택성과 차별성(selectivity and differential)에 주어진다.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은 ① 인구학적 변수 ② 사회경제적 변수, 그리고 ③ 심리학적 변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성, 결혼상태, 가족관계, 현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그리고 거주지 이동의 경험 유무 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는 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 교육정도, 그리고 소득을 포함한다. 심리학적 변수란 모든 행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개인의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성취동기의 정도, 위험의 감수에 대한 태도, 개척정신, 그리고 애향심을 포함하게 된다.

거주지 이동에 관한 미시적 접근에서 나이는 가장 많이 분석되어지는 변수인데, 실증적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에 놓여있는 젊은층의 집단이 가장 높은 거주지 이동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종주, 1986).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집단은 현거주지에 있어서의 사회적, 그

〈표-9〉 통합모형의 실증분석에 쓰여진 변수의 내용 및 측정방법

구 분	내 용
<u>미시적 특성</u>	
인구학적 변수	
가구주와의 관계	응답자의 가구주에 대한 관계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또는 손자녀 4. 기타
성	응답자의 성 1. 남자 2. 여자
연령	응답자의 연령 ; 집단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1. 14-19세 2. 20-24세 3. 25-29세 4. 30-34세 5. 35-39세 6. 40-49세 7. 50세 이상
혼인상태	응답자의 혼인상태 1. 미혼 2. 결혼-유배우 3. 기타(이혼, 사별 포함)
이주경험	14세 이후부터의 장기(1년이상) 이주 경험의 유무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거주기간	현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년) ; 집단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1. 0-5년 2. 6-10년 3. 11-20년 4. 21년 이상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정도	응답자가 끝마친 정규교육의 년수 ; 집단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1. 무취학 2. 국졸 3. 중졸 4. 고졸 5. 대학이상
활동상태	응답자가 지난 1개월 동안 하고 있던 일 1. 피고용인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 2. 자영업주, 고용주 3. 실업 또는 가사 4. 학생 5. 기타
주택의 소유 상태	응답자의 가구주가 살고있는 집의 소유 상태 1. 소유 2. 비소유(전세 및 월세)
사용방수	응답자가 속해 있는 가구가 전용하는 방의 수

〈표 - 9 계속〉

월평균 생활비	응답자가 속해 있는 가구가 사용하는 한달 생활비의 평균액수
<u>거시적 특성</u>	
인구학적 변수	
인구밀도	1000m <sup>2</sup> 당 인구수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수
전입인구비	1982년말 현재의 인구에서 지난 1년동안에 전입해온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출인구비	전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순이동 인구비	순이동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환경적 변수	
거주지역의 성격	1. 농촌 2. 도시 3. 대도시
도로의 포장율	전체도로에서 포장도로의 비율(%)
전화가입자 비율	(주택용 전화기 가입자수/가구수)×100
병상수	인구 10,000명당 병상수
약국수	인구 10,000명당 약국수
사회경제적 변수	
공장종업원 비율	공장종업원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등학생 비율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거택보호가구율	거택보호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영세민보호가구율	영세민보호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리고 경제적 귀속감이 비교적 낮으며,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Shaw, 1975: 18)이라는 설명이 높은 설득력을 지닌다.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거주지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이때까지의 실증적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Myers et al., 1967; Morrison, 1967; Speare et al., 1982), 이는 “자연에서 한 상태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확율은 그 상태에서 이때까지 있어왔던 기간의 단순함수(strict monotone func-

tion)로 증가한다”(McGinnis, 1968: 716)는 누적관성의 원리(the axiom of cumulative inertia)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누적관성의 원리가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의 크기에 적용되는 것은 현거주지에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적 귀속감을 통해서이다.

가족관계와 성이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영향의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다.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가족적 귀속감 때문에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클 수도 있으나, 배우자의 가치관이 작용될 때에는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개인의 성이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의 다른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경제적 변수가 거주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거주지 이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haw, 1975; Ritchey, 1976; Lee, 1985; Markham and Pleck, 1986).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인 거주지 이동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현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의 크기는 수입이나 직업으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반비례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현거주지에서 높은 수입을 보장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하여 현거주지에 대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또다른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변수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성격에 관계되는 심리적 변수에는 보수적이거나 혁신적인 성향(conservative versus liberal attitudes), 도시지향성이거나 향토편애성(cosmopolitanism versus localism), 독단적이거나 유연한 인지구조(dogmatic versus flexible cognitive operations), 위험부담의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야망의 정도등이 포함된다(Haberkorn, 1981: 260-261). 이러한 심리적 변수를 바탕으로 할 때, 거

주지 이동의 방법으로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미래에 대해 개척적인, 그리고 성취동기가 강한 유형의 집단이다(Haberkorn, 1981: 261-263). 하지만 1983년의 인구이동조사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 심리적 변수는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

#### 4. 분석의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구조사가 이루어진 8,897가구에서 8,709명에 대한 개인조사가 완료되었다(경제기획원·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26). 완료된 조사중에서 무응답이나 아니면 믿기 어려운 응답으로 인하여 자료로 쓰이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516명을 제외하고, 8,193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표-10>에 정리하였는데, 응답자의 21.2퍼센트가 현재의 거주지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4퍼센트가 가구주이거나 아니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60퍼센트는 나이가 20대이거나 30대이며, 65.9퍼센트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서 14세 이후에 1년 이상의 장기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은 67.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가 48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기집인 경우가 47.3퍼센트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 2개 이하인 경우가 57.5퍼센트로, 그리고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78.3퍼센트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1,763명(응답자의 21.1%)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가구주이거나 아니

〈표-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퍼센트)		
특 성	구 성	구 성 비
전체	8,193	100.0
성별		
남	3,406	41.6
여	4,787	58.4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3,325	40.6
배우자	2,933	35.8
자녀, 손자녀	1,308	16.0
기타	627	7.7
연령		
14-19세	985	12.0
20-24세	1,204	14.7
25-29세	1,494	18.2
30-34세	1,201	14.7
35-39세	1,005	12.3
40-49세	1,292	15.8
50세 이상	1,012	12.4
혼인상태		
미혼	2,215	27.0
결혼-유배우	5,400	65.9
기타	578	7.1
14세 이후의 장기이주 경험		
있음	5,524	67.4
없음	2,669	32.6
현거주지에서의 거주 기간		
0-5년	2,601	31.7
6-10년	1,332	16.3
11-20년	2,077	25.4
21년 이상	2,183	26.6
교육정도		
무취학, 국교중퇴	775	9.5

〈표 - 10 계속〉

국졸	1,903	23.2
중졸	2,323	28.4
고졸	2,161	26.4
대학이상	1,031	12.6
활동상태		
피고용인	2,528	30.8
자영업주, 고용주	1,399	17.1
실업 또는 가사	3,063	37.4
학생	906	11.1
기타	297	3.6
주택의 소유여부		
소유	3,877	47.3
비소유	4,316	52.7
사용방수		
1개	2,675	32.6
2개	2,044	24.9
3개	1,567	19.1
4개	1,087	13.3
5개 이상	820	10.0
월평균 생활비		
10만원 이하	1,644	20.1
11-20만원	2,930	35.8
21-30만원	1,832	22.4
31-40만원	706	8.6
41-50만원	564	6.9
51만원 이상	517	6.3
거주지의 성격		
농촌	1,651	20.2
중소도시	2,341	28.6
대도시	4,201	51.3
거주지 이동 의도		
예	1,763	21.2
아니오	6,457	78.8

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이주 의도에 대한 대답은 가구의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가 있다.

###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주 희망의 차이

〈표-11〉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현재의 거주지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20대와 30대초반의 응답자에게서, 그리고 결혼한 사람보다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현재의 거주지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4세 이후에 장기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리고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때까지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미시적 접근에서의 결과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현거주지에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이 적을수록 현거주지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 이동에 대한 희망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에 따른 이주 희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집에서 사는 경우보다 전세나 월세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주 희망이 높으며, 자영업자보다는 피고용인의 이주 희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 (3) 지역특성과 이주희망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지역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변수의 평균값을 거주지 이동의 의도에 대한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표-12〉에 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 변수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역이 갖는 평균값보다도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살고

〈표-1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주 희망자와 비희망자의 구성비율

특성	전 체(명)	이주희망자(%)	비희망자(%)	X <sup>2</sup>
전체	8,193	21.2	78.8	
성별				28.2**
남	3,406	24.0	76.0	
여	4,787	19.2	80.8	
가구주와의 관계				26.7**
가구주 본인	3,325	23.5	76.5	
배우자	2,933	18.2	81.8	
자녀·손자녀	1,308	21.3	78.7	
기타	627	22.2	77.8	
연령				93.4**
14-19세	985	21.0	79.0	
20-24세	1,204	26.3	73.7	
25-29세	1,494	24.4	75.6	
30-34세	1,201	24.8	75.2	
35-39세	1,005	20.4	79.6	
40-49세	1,292	16.1	83.9	
50세 이상	1,012	13.5	86.5	
혼인상태				24.7**
미혼	2,215	23.9	76.1	
결혼-유배우	5,400	20.8	79.2	
기타	578	14.7	85.3	
14세 이후의 장기 이주 경험				24.7**
유	5,524	23.4	76.6	
무	2,669	16.7	83.3	
거주기간				205.9**
0-5년	2,601	29.8	70.2	
6-10년	1,332	22.6	77.4	
11-20년	2,077	17.1	82.9	
21년 이상	2,183	14.0	86.0	
교육정도				59.8**
무취학	775	12.4	87.6	

〈표 - 11 계속〉

국졸	1,903	19.3	80.7	
중졸	2,323	21.2	78.8	
고졸	2,161	24.6	75.4	
대학이상	1,031	24.0	76.0	
활동상태				18.6**
피고용인	2,528	23.9	76.1	
자영업자,고용주	1,399	20.5	79.5	
실업, 가사	3,063	19.5	80.5	
학생	906	21.5	78.5	
기타	297	18.2	81.8	
주택소유여부				27.0**
소유	3,877	18.7	81.3	
비소유	4,316	23.4	76.6	
사용방수				25.7**
1개	2,675	23.7	76.3	
2개	2,044	21.7	78.3	
3개	1,567	20.2	79.8	
4개	1,087	19.1	80.9	
5개이상	820	16.3	83.7	
월평균생활비				5.5
10만원 이하	1,644	22.9	77.1	
11-20만원	2,930	20.8	79.2	
21-30만원	1,832	20.6	79.4	
31-40만원	706	22.2	77.8	
41-50만원	564	21.1	78.9	
51만원 이상	517	19.0	81.0	
거주지의 성격				77.56**
농촌	1,651	27.5	72.5	
중소도시	2,341	23.2	76.8	
대도시	4,201	17.6	82.4	

\*\* :  $\alpha(0.01)$  수준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른 희망자와 비희망자의 구성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 :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표-12〉 지역특성의 평균값-이주의도 및 거주지역별<sup>1)</sup>

지역특성	전체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전체	의도	비의도	전체	의도	비의도	전체	의도	비의도	전체	의도	비의도
N	8193	1736	6457	1651	454	1197	2341	543	1789	4201	739	3462
인구밀도	7.54	6.54	7.81	.21	.21	.21	3.81	3.67	3.85	12.51	12.54	12.50
평균가구원수	4.59	4.61	4.58	4.86	4.86	4.86	4.62	4.60	4.63	4.46	4.46	4.46
성비	99.01	99.43	98.89	101.19	101.41	101.10	99.47	99.79	99.38	97.89	97.95	97.88
전입인구비	26.52	25.29	26.85	11.59	11.78	11.52	26.80	27.18	26.68	32.22	32.20	32.22
전출인구비	25.23	24.09	25.54	12.84	12.95	12.79	24.40	24.59	24.34	30.57	30.57	30.57
순이동인구비	1.29	1.20	1.31	-1.24	-1.17	-1.27	2.40	2.60	2.34	1.66	1.64	1.66
공장종업원비율	5.94	6.00	5.93	2.75	2.86	2.71	6.70	7.25	6.53	6.78	7.02	6.72
도로포장율	51.16	48.94	51.76	30.25	31.17	29.91	38.59	39.07	38.44	66.39	67.11	66.24
전화가입비율	41.45	38.44	42.26	17.14	17.36	17.06	38.30	36.67	38.79	52.77	52.69	52.78
병상수	25.25	22.56	24.70	6.45	6.86	6.30	24.15	23.76	24.27	31.30	31.32	31.29
약국수	4.67	4.39	4.74	2.07	2.35	1.96	4.10	3.93	4.16	6.00	5.99	6.00
거택보호가구비율	1.16	1.39	1.11	3.29	3.37	3.25	0.98	1.01	0.97	0.43	0.44	0.43
영세민보호가구비율	2.35	2.82	2.23	6.99	7.20	6.91	1.92	1.94	1.91	0.77	0.77	0.77
고등학생비율	5.23	5.22	5.23	4.08	4.19	4.04	7.09	6.89	7.16	4.64	4.61	4.65

주: 1) 각 변수의 단위는 〈표-9〉의 내용을 참조할 것

있는 지역의 인구밀도가 더 낮게, 성비는 더 높게, 전출 및 전입 인구의 비율은 더 낮게, 도로포장율과 전화가입비율은 더 낮게, 인구 10,000명당의 병상수와 약국수도 더 낮게, 그리고 거택보호 및 영세민보호가구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농촌과 도시에서 비롯되는 차이이고,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의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주 의도 여부에 따른 지역 특성의 차이를 농촌,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로 나누어서 비교하여 보았다. 거주지역의 종류를 농촌,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로 구분하여 통제하고 난 후에는 이주 의도 집단과 비의도 집단의 지역변수 평균값에 대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 (4) 통합모형의 분석

거주지 이동의 의도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의 틀에 미시적 변화와 거시적 변화를 함께 포함시킨 후 로지트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이때까지의 연구에서는 다변인분석(multivariate analysis)이 요구되어질 경우에는 주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쓰여졌고, 이러한 분석법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다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값이 이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혀 적합하지가 못하다(Fienberg, 1980). 이분된 값의 종속변수에 회귀분석이 쓰여지는 경우에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문제, 기대확률의 값이 0보다 적거나 1보다 커지는 문제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Kmenta, 1986: 549).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를 종속변수로 삼았을때, 그 종속변수는 2분된 값을 지니고(의도 또는 비의도), 또 이분된 값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분석의 틀에 들어가는 독립변수는 범주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이 섞여있다. 이럴 경우에는 로지트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바람직한데, 그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 + \sum_{j=1}^r B_j Z_{ij} \quad i=1, 2, \dots, N.$$

(Fienberg, 1980: 103)

이 모형에서  $j=1, 2, \dots, r$ 에 대한  $Z$ 의 값은  $i$ 번째의 개인이 지니는  $r$ 개의 독립변수의 값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i$ 번째의 개인이 1의 값을 갖게 되는 확률, 즉 거주지를 이동하기를 바라게 되는 확률은

$$\Pr(y_i=1) = p_i = \frac{\text{Exp}(B_0 + \sum_{j=1}^r B_j Z_{ij})}{1 + \text{Exp}(B_0 + \sum_{j=1}^r B_j Z_{ij})}$$

로 나타난다.

분석의 결과를 <표-13>에 정리하였는데, 모형 1에서는 미시적 변수만, 모형 2에서는 거시적 변수만, 그리고 모형 3에서는 미시적 변수와 거시적 변수를 함께 포함시켰다. SPSS-X에서의 로지트 모형에서 나타나는 계수는 확률 모형의 계수와 비슷한 값을 만들기 위하여 2의 값으로 가중되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0보다 큰 값을 만들기 위하여 5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SPSS Inc., 1986: 605-606), <표-13>의 회귀계수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지는 않다. 여기서 쓰여지는 회귀계수는 이주의도자의 비의도자에 대한 대수비율(Log-odds of the ratio)에 대응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부호는 확률에 미치는 방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절대값은 영향의 크기를 말한다.

미시적 변수만 포함된 모형 1에서는 개인의 성별, 나이, 이주 경험의 유무, 현거주지에서 살아온 기간,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가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때까지의 다른 연구에서 보여주는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에 대한 내용들과 비슷한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현재의 거주지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주하려는 의도가 줄어들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와 남자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에 대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3〉 이주의도자의 비의도자에 대한 대수비율에 놓이는 여러 변수들의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측정치(Estimated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dividual and Area Attributes on Log-odds of those with Migration Intention to those with Non-Intention)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	Z-값 <sup>1)</sup>	회귀계수	Z-값 <sup>1)</sup>	회귀계수	Z-값 <sup>1)</sup>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1)	.057	1.424			.066	1.630
성별(남자=1)	.092	2.604**			.066	1.854
나이	-.005	-2.417*			-.004	-1.980*
혼인상태(유배우=1)	.021	.638			-.023	-.686
이주경험유무(유경험=1)	.105	2.290*			.132	2.823**
거주기간	-.011	-5.884**			-.010	-5.231**
교육수준	.016	3.572**			.029	6.203**
경제활동상태(취업=1)	.047	1.427			.012	.355
주택소유여부(소유=1)	.052	1.462			-.055	-1.460
사용방수	-.027	-2.066*			-.022	-1.697
월평균생활비(19만원이상=1)	-.030	-.946			.035	1.060
거주지별(대도시=1)			-.024	-.177	-.013	-.092
거주지별(중소도시=1)			.087	.908	.032	.323
인구밀도			.004	.464	.006	.640
평균가구원수			-.065	-.769	-.053	-.608
성비			.017	3.206**	.015	2.831**
전입인구비율			.009	1.170	.003	.379
전출인구비율			-.010	-.859	-.009	-.722
순이동인구비율			.000	.000	.000	.000
공장종업원수			.005	1.176	.001	.379
도로포장율			.001	1.156	.001	.406
전화가입비율			-.009	-2.992**	-.008	-2.696**
병상수			.005	1.721	.005	1.577
약국수			.032	2.030*	.022	1.358
주택보호가구비율			.226	3.044**	.214	2.840
영세민보호가구비율			-.058	-1.918	-.046	-1.483
고등학생비율			.006	.766	.000	.045
절 편	4.381	63.133	2.813	4.217	3.041	4.366
X <sup>2</sup>	8262.6		8196.7		8231.4	
P	.261		.437		.303	

주 : 1) Z-값=계수/표준편차

\*\* :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모형 2에서는 거시적 변수만 포함되었는데, 지역적 특성 중에서 성비, 일반 가정전화의 가입율, 인구 10,000명당의 약국수, 그리고 주택보호가구의 비율만이 이주의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주에 대한 의도는 높게 나타나고, 전화가입율이 높을수록 이주에 대한 의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성비가 높고, 또한 농촌의 전화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게 된다.

여러가지 지역적 특성들 중에서 주택보호가구의 비율이 거주지 이동의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주택보호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을 말함인데,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다른 해석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주택보호가구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높고, 아직까지 이촌향도의 거주지 이동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 변수와 거시적 변수를 함께 포함시킨 모형 3에서의 분석 결과도 앞에서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과 사용방수의 영향이 통계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 중에서는 약국수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의미가 사라졌다. 통합모형에서는 개인 특성중의 나이, 이주경험유무, 거주기간, 그리고 교육수준이, 그리고 지역 특성중의 성비, 개인전화 가입율, 그리고 주택보호 가구수의 비율이 거주지 이동에 대한 개인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이때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실태를 밝히고, 그리고 거주지 이동에 대한 통합모형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인구이동의 흐름을 전망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인구이동의 실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는데, 거시적 접근에서는 이촌향도의 인구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미시적 접근에서는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통합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1983년의 인구이동 조사의 자료에서 거주지를 옮기려는 의도에 대한 대답의 내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리고 조사에서 얻어진 개인의 여러 특성과 1982년말을 기준으로한 각 시·군의 통계자료에서 얻어진 지역의 여러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트 모형을 분석의 기법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현상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 국가정책들이 집적경제의 효율성에 치중하고, 이에 따라 자본의 투자, 산업의 육성, 그리고 주거환경의 개선등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에 따라 도시인구의 증가율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흐름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은 우리나라 인구분포 실태의 특징이 된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할 때,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인구성장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의 주요기능들이 제일 먼저 서울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수도권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인구흡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미시적 입장에서 접근되는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나이, 성별, 혼인상태, 가족관계, 거주기간, 그리고 거주지 이동의 경험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실증분석에서는 20대와 30대에 있는 젊은 연령층의 집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거주지 이동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힐 뿐이다. 혼인상태, 가족관계, 거주기간 등의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거주지 이동의 선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는 교육, 소득, 그리고 직업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 이동율이 높아진다는 실증분석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소득 및 직업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분석에 쓰여질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분석의 틀을 만드는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방향이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합하는 모형의 실증분석에서는, 거주지 이동의 희망에 대한 내용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학적, 환경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의 틀에 넣어서 로지트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현재의 거주지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하여 머물려는 경향이 짙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과 남자들은 이주에 대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기능이 낙후된 지역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인구이동의 이론에서 주장되어온 내용들을 실증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된다.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실증연구는 거의 모두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도 몇가지 제한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 연구가 지닌 첫번째 제한점은 실증분석을 실제거주지의 이동이 아닌 앞으로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를 종속변수로 한정시켰다는 것이다.

거주지 이동의 의도에 관한 연구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거주지 이동에 대한 의도가 실제의 거주지 이동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인구이동에 대한 전망이 실제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잠정적인 정착지에 대한 내용을 실증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도 연구의 제한점이 되고 있다. 거주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시적 변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 뿐만 아니라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 지역의 특성도 포함하게 된다. 물론 거주지 이동의 의도단계에서는 현거주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잠정적 정착지의 유인 요인이 거주지 이동의 의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조사에서 앞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응답자 1,736명 중에서 67.7퍼센트(1,176명)는 이주하여 살고자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시·군의 이름까지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유형(예를들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해외등)까지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도 여전히 젊은층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이동이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이동방향은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게 되리라는 것을 전망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앞으로의 인구정책이 인구의 분산 또는 재배치를 생각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져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인구정책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효용과 함께 거주지 이동에 대한 통합분석의 시도라는 이론적 의미도 지닌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된 연구의 제한점과 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되는 연구의 한계는 거주지 이동의 의사결정에 관한 통합적 모형의 분석이 앞으로 더욱 고쳐지고 발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1989년 인구이동 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 한 집계. 서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983년 인구이동특별 조사 제1차보고서. 서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권태준. 1983. “수도권 인구집중:문제점과 대책.” 인구문제논집 24: 2-11
- 김안제. 1989. “대도시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최인현외(편), 한국의 인구전환-사회개발과 인구정책 세미나 보고. 49-67쪽.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일현. 1989. “인구전환과 인구정책 방향.” 최인현외(편), 한국의 인구전환-사회개발과 인구정책 세미나 보고. 17-37쪽.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문현상, 한영자. 1989. 수도권 인구집중과 생활권간 인구 이동 분석.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윤종주. 1986. “개인의 이동사에 관한 연구.” 최인현외(편), 인구이동과 사회경제발전-인구이동 특별조사심층분석. 91-196쪽.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이한순, 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 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1960-1980년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24: 123-143
- 조정제. 1982.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계량적 분석.” 국토연구 1: 22-53
- 정기원. 1989. “거주지 이동에 관한 모형의 설정-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통합.” 한국인구학회지 12(1): 30-42

- 제1무임소장관실. 1978. 수도권의 인구재배치계획: 1977-1986. 서울: 제1 무임소장관실
- 최병선. 1990. “수도권의 성장관리-현황과 대책방향.” 한국사회학회의 인구 및 도시연구회의 1990년 하계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글. 1990년 8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 최진호. 1986. “인구분산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9(1): 32-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전국사망력조사보고-1988년 인구보건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ogue, Donald J. 1959. “Internal Migration.” Pp. 486-509 in The Study of Popolation: An Inventory and Appraisal, edited by Philip M. Hauser and Otis Dudley Dunc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69. Principles of Demograph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rim, Orville G., Jr., David C. Glass, David E. Lavin and Norman Goodman. 1962. Personality and Decision Processe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Think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own, Lawrence A. and Rickie L. Sanders. 1981. “Toward a Development Paradigm of Migr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ird World Settings.” Pp. 149-185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Pergamon Press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heong, Keywon. 1987. "Poverty and Migration: Synthesis of Macrolevel and Microlevel Perspectives of Migration." Ph.D. Dissertation. Logan: Utah State University
- DeJong, Gordon F. and James T. Fawcett. 1981. "Motivations for Migration: an Assessment and a Value—expectancy Research Model." Pp. 13—58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Pergamon Press
- Fienberg, Stephan E. 1980. The Analysis of Cross—Classified Categorical Data. 2nd Ed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Findley, Salley E. 1982. "Methods of Liking Community—Level Variables with Migration Survey Data." Pp. 276—311 in National Migration Surveys—X: Guidelines for Analysis, edited by Economics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New York: The United Nations
- \_\_\_\_\_. 1983. "Community—Level Variables and Migration: a Proposed Theory and Strategy of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Pittsburgh, PA. on April 16, 1983
- Findley, Salley E. and Gordon F. DeJong. 1985. Community and Family Factors Influencing Family in Ilocos Notre. PSTC Reprint Series No. 86—03. Population Studies and Training Center, Brown University
- Fischer, Manfred M. 1985. "Changing Models of Reasoning in Spatial Choice Analysi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58: 1—5
- Fishbein, Martin. 1978. "Attitudes and Behavioral Prediction: an Overview." Pp. 377—389 in Major Social Issues: an Multidisciplinary View, edited by J. M. Yinger and S. J. Cutler. New York: Free Press

- Freedman, Ronald. 1979. "Issue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 Fertility Survey Data." Paper No. 62.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Frisbie, W. Parker and Dudley L. Poston, Jr. 1978. Sustenance Organization and Migration in Nonmetropolitan America. Iowa City: The University of Iowa Press
- Gardner, Robert W. 1981. "Macrolevel Influences on the Migration Decision Process." Pp. 59–89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Pergamon Press
- Greewood, Michael J. 1981.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Regional, and Metropolitan Perspectives. New York: Academic Press
- Haberkorn, Gerald. 1981. "The Migr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Some Social–Psychological Considerations." Pp. 252–278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Pergamon Press
- Harris, John R. and Micha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126–142
- Hawley, Amos H. 1950. Human Ecology: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New York: Ronald Press
- Hill, Richard J. 1981. "Attitudes and Behavior" Pp. 347–377 in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edited by Morris Rosenberg and Ralph H. Turner. New York: Basic Books

- Janis, Irving L. and Leon Mann. 1977.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 Kmenta, Jan. 1986. Elements of Econometrics. 2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 Landale, Nancy S. and Avery M. Guest. 1985. "Constraints,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Speare's Model Reconsidered." Demography 22(2): 199–222
- Lee, Evertt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 Lee, Sun–Hee. 1985. Why People Intend to Move: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Factors of Out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Boulder: Westview Press
- Marans, Robert W. and Willard Rodgers. 1975. "Toward and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Pp. 299–352 in Metropolitan America in Contemporary Perspective, edited by Amos H. Hawley and Vincent P. Rock.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Markham, William T. and Joseph H. Pleck. 1986. "Sex and Willingness to Move for Occupational Advancement: Some National Sample Results." Sociological Quarterly 27(1): 121–143
- McGinnis, Robert. 1968. "A Stochastic Model of Soci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5): 712–722
- Miller, Warren B. and R. Kenneth Godwin. 1977. Psyche and Demo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an, David J. 1978. Patterns of Population Distribution: A Residential Preference Model and Dynamic Change. Chicago: The Department of Ge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 Morrison, Peter A. 1967. "Duration of Residence and Prospective Migration: the Evaluation of a Stochastic Model." Demography 4(2): 552–561

- Myers, George C., Robert McGinnis and George Mansick. 1967. "The Duration of Residence to a Dynamic Stochastic Model of Internal Migration: a Test of the Axiom of Cumulative Inertia." Eugenics Quarterly 14(2): 121–126
- Peterson, William. 1958. "A General Typology of Mig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3): 256–266
- Price, Daniel O. and Melanie M. Sikes. 1975. Rural–Urban Migration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Annotated Bibliography and Synthesis. Washington D. C.: Center for Population Research
- Ritchey, P. Neal. 1975. "The Effect of Minority Group Status on Fertility: a Reexamination of Concepts." Population Studies 29(2): 249–257
- Rogers, Tommy W. 1969. "Migration Attractiveness of Southern Metropolitan Areas." Social Science Quarterly 50(2): 325–336
- Rojek, Dean G., Frank Clemente and Gene F. Summers. 1975. "Community Satisfaction: a Study of Contentment with Local Servicess." Rural Sociology 40(2): 177–192
- Sell, Ralph R. and Gordon F. DeJong. 1978. "Toward a Motivational Theory of Migrati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pulation 1(4): 313–335
- Seyfrit, Carole L. 1986. "Migration Intentions of Rural Youth: Testing an Assumed Benefit of Rapid Growth." Rural Sociology 51(2): 199–211
- Shaw, R. Paul. 1975. Migration Theory and Fact: A Review and Bibliography of Current Literature. Philadelphia: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 Sly, David F. 1972. "Migration and the Ecological Complex."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5): 615–628
- Speare, Alden, Jr. 1974.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11(2): 173–188

- Speare, Alden, Jr., Frances Kobrin and Word Kingkade. 198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Bonds and Satisfaction on Interstate Migration." Social Forces 61(2): 551–574
- Speare, Alden, Jr., Sidney Goldstein and William H. Frey. 1975. Residential Mobility, Migration and Metropolitan Change. Cambridge: Ballinger
- Tinakul, Nithet and William F. Stinner. 1985. Community Commitment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in the Context of Nonmetropolitan Turnaround. Research Report 98. Logan: Utah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Todaro, Michael P. 1969.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 Trandis, Harry C. 1971.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Van Arsdol, Maurice D., Jr., Georges Z. Sabagh and Edgar W. Butler. 1968. "Retrospective and Subsequent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5(1): 249–267
- Wardwell, John M. and C. Jack Gilchrist. 1980. "Employment Deconcentration in the Nonmetropolitan Turnaround." Demography 17(2): 145–158



# 第 9 章 우리나라의 家口 및 家族構造의 變動

崔 鳳 鎬\*

- I. 序 論
- II. 家口規模의 變動推移
- III. 家族構造의 變動
- IV. 家口主의 特徵
- V. 家口別 經濟活動人口, 老齡人口,  
15歲 未滿 人口 및 學生數 現況
- VI. 所有形態別 家口
- VII. 要約 및 結論

---

## I. 序 論

家口라는 概念은 “血族關係를 떠나 단순히 1人 또는 2人以上이 모여서 炊事나 居住 등 生計를 같이하는 單位”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家口 單位는 우리가 社會生活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經濟的·社會的 單位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게 認識되고 있다. 예를 들면 家口數의 增減은 住宅의 需要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만 아니라, 家口單位는 인구 센서스 등 각종 統計調查의 기본적인 調查單位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

\* 經濟企劃院 人口統計課 事務官

한다.<sup>1)</sup>

한편 家族이란 意味는 “生殖活動으로 인한 出生 또는 入養이나 結婚 등을 통해서 두사람 以上으로 血族關係가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家族은 家族間의 相互依存을 기반으로 서로 용납하고 衣食住의 모든 基本的 欲求를 함께 充足시키면서 같이 살아가는 生活共同體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家族이란 單位를 통해서 生活體系를 갖고, 結婚을 통한 性的 欲求의 充足이나 子女의 出產과 養育, 生活을 위한 經濟的 協力關係의 維持 뿐 만 아니라 子女에 대한 社會化的 機能과 家族內의 老人 및 病者들에 대한 社會福祉의 機能을 대신하기도 한다. 특히 家族間의 情緒的 紐帶는 어떤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sup>2)</sup>

이상에서 살펴 본 兩者間의 關係는 家口라는 개념이 家族개념보다는 다소 包括的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家族이라는 單位는 두 개 이상의 家口 單位로 나누어 질 수 없지만, 한 家口單位는 두 개 이상의 家族單位로 나누어 지기도 한다. 그리고 한 家口單位는 한 家族과 血緣關係가 없는 第3者와 함께 구성될 수 있고, 이외에도 전혀 血緣關係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家口の 家族개념과 관련하여 類似한 개념을 더 살펴보면 世帶와 戶라는 用語를 들 수 있다. 世帶라는 개념을 실제의 共同生活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지 住民登錄法上에서만 使用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戶란 개념도 실제의 共同生活 여부와 關係없이 戶籍法에 의한 戶主를 중심으로 一家를 이룬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世帶는 家口개념과 같은 개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相互一致하지 않고 있다. 또한 戶란 개념도 家族이라는 개념과 類似한 면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類似하게 使用되고 있는 家口, 家族, 世帶, 戶의 개념이 相互一致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本稿에서는 家族構造의 分析을 試圖함에 있어 戶籍簿나 住民登錄簿가 아닌 家口單位로 調査된 人口센서스와 人口動態標本調査<sup>4)</sup> 結果를 活用하

고자 한다.

## II. 家口規模의 變動推移

家族構造의 變動推移를 살펴보기 앞서 平均家口員數, 家口員數別 家口數의 變動推移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家口數 및 平均家口員數 推移

人口센서스 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一般家口數는 1960年の 4,363千 家口에서 1990년에는 11,203千 家口로 지난 30年間 약 2.6배가 增加하였다(〈表1〉 참조). 같은 期間 동안의 人口가 1960年の 24,989千名에서 1990년에는 42,793千名으로 약 1.7배 增加한 점에 비하면 家口數 增加가 더 빨리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年平均 增加率로 볼 때 지난 30年間 家口는 年平均 3.2%씩, 人口는 1.8%씩 增加한 結果인 것이다. 이를 期間別로 살펴보면 1960~66年間에는 家口增加率이 2.76%로 나타났는데, 같은 期間중 人口增加率은 2.71%로서 家口增加速度와 비슷하여 이 期間 동안의 家口增加는 주로 人口增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66~70年間은 家口增加率이 3.35%로서 같은 期間동안의 人口增加率 1.9%를 훨씬 앞지르게 되어 家口分化現象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도 家口增加速度가 人口增加速度를 앞지르게 되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家口增加率이 人口增加率보다 높은 理由로는 농업이나 소규모 상공업 등의 自營業보다 俸給生活者數가 늘어난 것과 個人主義的 價値觀의 澎湃, 家庭機能의 축소 약화등으로 인한 小家族化 및 核家族化 現象과

離婚, 獨身家口의 급증 추세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家口增加率이 人口增加率보다 높은 결과와 더불어 出産力의 저하로 우리 나라의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1960年の 5.6명에서 1990년에는 4명을 밑도는 3.7명 水準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Table 1. Number of Households, Average Size and Annual Increase Rate : 1960~1990

Year	No. of Ordinary Households	Average Size	Quasi or Collective Households	Total Households	Annual Household Growth Rate(%)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1960 <sup>a)</sup>	4,362,953	5.56	15,020	4,377,973	2.76	2.71
1966 <sup>b)</sup>	5,121,610	5.43	11,300	5,132,910	3.35	1.90
1970 <sup>c)</sup>	5,792,983	5.18	63,918	5,856,901	2.89	1.98
1975	6,647,778	5.13	106,479	6,754,257	3.37	1.50
1980	7,969,201	4.62	23,767	7,992,968	3.72	1.57
1985	9,571,361	4.16	22,431	9,593,792	3.37	1.00
1990 <sup>d)</sup>	11,202,640	3.70	-	-		

Notes : a) Unknown households(1,534)were added.

b) One person quasi households(64,580) were included in the number of ordinary households.

c) Estimated one person households(216,706)were added in the number of ordinary households.

d) Preliminary results from the mapping work for the 199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出産力을 <表 2>에서 살펴 보면 平均 家口員數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出産力도 相當히 低下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 2>에서 既婚婦人當 出生子女數를 보면 15~49세의 既婚婦人當 平均出生子女數는 1966年の 3.8명에서 1989년에는 2.2명으로 1.6명이나 적게 出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出生子女數의 감소는 全年齡層에서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4세 既婚婦人의 出生子女數는 變化가 적게 나타난 반면, 30세 以上에 있어 既婚婦人의 出生子女數는 급격한 低下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最近 들어 子女들이 結婚하여 願하는 子女數를 30세 以前에 낳고 그 以後에는 거의 出生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Mean Number of Children Ever-Born Per Ever Married Woman  
:1960~1989

Age	1966	1970	1975	1980	1985	1989
15~19	0.50	0.50	0.48	0.45	0.44	0.45
20~24	1.10	1.03	1.00	0.92	0.86	0.58
25~29	2.31	2.15	1.97	1.75	1.54	1.23
30~34	3.78	3.53	3.18	2.67	2.29	1.90
35~39	4.85	4.55	4.11	3.43	2.80	2.44
40~44	5.53	5.28	4.79	4.17	3.44	2.87
45~49	5.66	5.62	5.23	4.69	4.07	3.60
15~49	3.78	3.70	3.43	2.94	2.52	2.20

Note : The data for 1989 are from the results of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nd the other are from the population census.

## 2. 家口規模別 家口數

앞에서 살펴본 家口當 平均家口員數의 저하는 다른말로 家口員數別 家口數의 構成狀態가 變化되었음을 意味한다. <表 3>에서 우리나라의 家口員數別 家口의 構成狀態를 살펴보면, 小規模家口가 점차 增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體 一般家口중 1人家口 構成比는 1960年の 2.3%에서 1990년에는 11.7%로, 2人으로 形成된 家口는 7.1%에서 17.9%로, 3人으로 構成된 家口는 11.8%에서 19.0%로, 4人 家口는 14.7%에서 26.4%로 小規模家口의 比重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單獨家口의 경우 增加率이 다른 형태의 家口보다도 월등히 높아 小家口化現象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中規模家口로 볼 수 있는 5人으로 構成된 家口는 1980년까지만, 6人으로 構成된 家口는 1975년까지는 늘어났으나 以後에는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大規模家口로 볼 수 있는 7人 以上 家口는 1966年の 32.7%에서 以後 계속 減少하여 1990년에는 불과 3.5%를 나타내 小家口化現象이 계속됨을 알 수 있다.

Table 3. Percentage Distribution of Ordinary Household by Household Size: 1960~1990

Household Size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person	2.3	3.6	3.7	4.2	4.8	6.9	11.7
2 person	7.1	7.7	9.3	8.3	10.5	12.3	17.9
3 person	11.8	11.5	12.8	12.3	14.5	16.5	19.0
4 person	14.7	13.9	15.0	16.1	20.3	25.3	26.4
5 person	15.9	15.2	17.0	18.3	20.0	19.5	14.9
6 person	15.3	15.4	16.1	16.6	14.7	12.4	6.7
7 person	12.7	13.1	12.2	11.7	9.7	4.2	2.4
8 person	8.9	9.1	7.3	7.7	3.0	1.9	0.8
9 person	5.3	5.9	3.6	2.5	1.5	0.7	0.2
10 & over	4.5	4.6	2.6	2.3	1.0	0.4	0.1

Note : The data for 1990 are from the results of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nd the other are from the population census.

### Ⅲ. 家族構造의 變動

家族構造의 變化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社會構造가 전반적으로 變動됨에 따라 보편적인 核家族化 現象, 平均家口員數의 低下로 나타난 小家族化, 單獨家口の 增加등 脫家族化, 經濟社會的 單位로서의 役割變化, 國家構成員間의 關係變化 및 家口가 形成發展 및 解體되는 過程을 보여주는 家口の Life Cycle의 變化등 諸般特性도 함께 變化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 우리나라의 家族構造 및 變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家族類型的 分類

家族을 類型化 하는데는 이를 어떤 觀點에서 보고, 또 어떻게 接近하는냐에 따라서 범위나 특성을 달리하게 된다. 대체로 家族形態分類는 가) 家族構成의 範圍, 나) 家族의 對外的인 代表權과 對內的인 支配權과 같은 權威의 所在, 다) 夫婦의 結合形態등의 基準에 따라 核家族과 擴大家族, 라) 血緣關係에 따른 父系制나 母系制, 마) 그리고 單婚家族과 複婚家族등으로 分類하고 있다.<sup>5)</sup>

다음 <表 4>에는 다양한 基準에 따라 家族類형을 分類한 表가 제시되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는 인구센서스등에서 아직까지도 世代라는 觀點에서 分類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反面 日本이나 UN은 家族構成員의 범위에 따라 分類를 하고 있으며, 尹鍾周는 世代와 古典的 家族形의 概念 및 家族週期變化 概念등의 세가지 次元에서 家族을 9個 형태로 分類하고 있다. 한편 孔世權은 家族의 成長段階別로 7個 類型으로 分類하였으며, Laslett과 Hammel은 教區台帳 資料나 戶籍資料의 分析을 위하여 6가지로 구분된 家口分類法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分類를 參照하여 家口調査의 形態를 취한 結果에서 別途로 家族構

造를 만들어 살펴 보고자 한다.

## 2. 家族構造의 變動

### 가. 家口主와의 關係別 人口構造

家口를 기초로 한 家族類型을 分析하기 앞서 家口主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한 人口構成의 推移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家族構造의 變動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表 5〉에서 家口主와의 關係別 人口構成比를 살펴 보면 몇가지 特徵이 발견된다.

먼저 全國적으로 볼 때 總人口 중 家口主나 配偶者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크게 增加한 점을 볼 수 있다. 즉, 지난 5년동안 總人口中 家口主가 차지하는 比率이 1985년의 24.5%에서 1990년에는 28.5%로 上昇하여 家口의 分化가 상당히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未婚子女의 人口構成比率은 1985년의 43.3%에서 1990년에는 38.6%로 낮아져 出産率의 低下에 따른 小家族化가 계속 進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사항은 未婚子女의 構成比率이 1985년에는 市部·郡部別로 큰 差異가 없었으나 1990년에는 市部 39.7%, 郡部 35.2%로 差異가 벌어진 점이다. 바로 이는 郡部에서 많은 未婚子女들이 市部로 移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Classification Schemes of Household

	1) 韓國人口센서스, 1985	2) 日本國勢調査, 1985	U N	3) 尹 鍾 周	4) 孔 世 權
1 세대 家口		核家族 世帶	Nuclear HHs	1 세대 젊은 家口	1세대 형성 家口
· 부 부		· 부 부	· a family nucleus		· 형성기 가족
· 기 타		· 부부+자녀		2 세대 젊은 核家族	· 축소기 가족
		· 편부모+자녀	Extended HHs		
2 세대 家口		直系의 3세대 世帶	· a family nucleus with related individuals	2 세대 팽창 核家族	2세대 형성 家口
· 부부+자녀		· 부부+자녀+父·母	· two or more family nuclei related to each other	2 세대 복합 家族	· 팽창기 가족
· 편부모+자녀			· two or more family nuclei with any additional persons related to one of them	3 세대直系 家族	· 축소기 가족
· 부부+양친		傍系的 世帶	· two or more persons related to each other, but none of whom comprises a family nucleus	3 세대 복합 家族	3세대이상 형성 家口
·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 부부+친족		2 세대 늙은 核家族	미혼 家口
· 기 타		· 부부+자녀+친족	Composite HHs		解體形 家口
3 세대 家口		· 부부+父·母+친족	· extended HHs with at least one person not related to any of the other member of the HH	1 세대 늙은 核家族	
· 부부+자녀+양친		· 부부+자녀+父·母+친족		기 타	
· 부부+자녀+편부모		기타 世帶			
· 기 타		· 부부+父·母	One person HHs		
4 세대 이상 家口		· 兄弟·姉妹	Unknown type		
		· 기타 친족			
단독 家口		비친족 世帶			
비혈연 家口		單獨 世帶			

註 : 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書, 제1권 全國編, 1987

2) Yamamoto, Chizuko, "Statistics on Family Households in Japan", *The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No. 189, 1989, pp.47-50

3) 尹鍾周, "우리나라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研究", *人口問題論集*, 제24호, 1983, p.92

4) 孔世權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51

〈Table 4. Continued〉

5) Laslett-Hammel 分類法	本 研 究
단순가족가구(Simple Family)	단독가구
· 부 부	형제·자매가구
· 부부+자녀	부 부
· 편부모+자녀	부부+부·모
확대가족가구(Extended Family)	가구주+부·모
· 1계가족가구+가구주 부모대의 구성원이 동거	부부+자녀
· 1계가족가구+가구주 자식대의 구성원이 동거	가구주+자녀+부·모
· 1계가족가구+가구주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동거	가구주+기혼자녀(미혼자녀 포함)
복합가족가구(Multiple Family)	가구주+자녀+부·모
· 2개이상의 가구+가구주부모대의 구성원이 동거	가구주+기혼자녀(미혼자녀 포함)
· 2개이상의 가구+가구주자식대의 구성원이 동거	4세대 이상 가구
· 2개이상의 가구+가구주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동거	비혈연 가구
· 결혼한 兄弟·姉妹들이 그들의 配偶者와 같이 동거	기 타
· 기 타	
단독가구(Solitaires)	
비가족가구(No Family)	

5) 李興卓, “歷史人口學 方法論의 現況”, 韓國人口學會誌, 제12권, 제2호, 1989, pp.56~68에서 引用

Table 5. Percentage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 Head

Relationship	1 9 8 5 <sup>a)</sup>			1 9 9 0 <sup>b)</sup>		
	Whole	Urban	Rural	Whole	Urban	Rural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HH head	24.5	24.8	23.9	28.5	28.0	29.8
One person HH head	(1.7)	(1.7)	(1.7)	(3.3)	(3.1)	(4.0)
Spouse	18.8	18.7	18.8	20.6	20.1	22.1
Unmarried children	43.3	43.7	42.4	38.6	39.7	35.2
Brothers and sisters	2.5	3.0	1.5	2.7	3.3	0.8
Parents or a parent	3.4	2.6	4.8	5.1	4.6	6.4
Grandmother or grandfather	0.1	0.08	0.2	0.2	0.2	0.2
Married children	4.9	4.0	0.4	2.4	1.9	4.1
Married brothers and sisters	0.4	0.5	0.3	0.7	0.8	0.4
Other relatives	0.1	0.02	0.1	0.2	0.2	0.1
Inmates	2.4	2.4	3.0	1.2	1.2	1.0

註 : a) From the 1985 Population Census

b) From the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 나. 家族構造의 變動

1985年 人口센서스 結果 및 1990年 人口動態 標本調査에 의한 우리나라 家族構造를 <表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同表에 의하면 1985年 現在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家族形態는 「夫婦와 未婚子女」로써 구성된 家口로서 總家口中 54.6%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夫婦+未婚子女+父·母」形態家口로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家口主(편부모)+未婚子女」家口는 7.6%, 夫婦만의 家口는 7.4% 그리고 單獨家口는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要約하면, 1985年 현재 核家族比率은 69.5%이며, 3세대이상 家口比率은 15.1% 그리고 나머지 15.4%는 單獨家口나 兄弟姉妹家口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985年の 3세대이상 家口比率 15.1%는 1960年の 27.9%에 比해서 거의 반이나 줄어 子女가 結婚하면서 分家를 많이 하였음을 類推할 수 있게 한다.

1990年 人口動態 標本調査 結果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家口 形態는 역시 「夫婦+未婚子女」家口로서 47.6%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형태는 單獨家口로서 11.7%, 세번째는 「夫婦」만의 家口로서 11.2%, 네번째는 「夫婦+未婚子女+父·母」形態 家口로서 8.7%, 다섯번째는 「家口主(편부모)+未婚子女」家口로서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順位는 지난 1985년에 比해서 상당히 差異가 있어 지난 5年間 家族構造에 많은 變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지난 5年間 單獨家口나 夫婦만의 家口가 다른 形態의 家口보다도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家族形態를 都市·農村으로 區分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이 나타난다. 1985年이나 1990年 모두 대체적으로 都市에 비해 農村에서는 單獨家口, 夫婦만의 家口, 「夫婦+父·母」家口, 「夫婦+未婚子女+父·母」家口등이 相對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家族形態로 볼 수 있다. 反面, 農村에 비해 都市에서 相對的으로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는 家族形態는 「夫婦+未婚子女」家口와 兄弟·姉妹 家口가 가장 두드러진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單位：%

家口形態	1985 <sup>a)</sup>			1990 <sup>b)</sup>		
	全國	市部	郡部	全國	市部	郡部
계	100.0	100.0	100.0	100.0 (32,551)	100.0 (23,869)	100.0 (8,682)
단독 가구	6.9	6.8	7.2	11.7	11.1	13.4
부부	7.4	6.4	9.3	11.2	8.8	17.9
부부+부·모	0.6	0.3	1.1	1.2	0.6	2.7
가구주+부·모	1.3	1.0	1.9	2.5	2.9	1.6
부부+미혼자녀	54.6	57.5	48.8	47.6	51.4	37.1
가구주+미혼자녀	7.6	8.1	6.7	6.2	6.2	6.0
부부+미혼자녀+부·모	8.6	6.9	12.0	8.7	7.7	11.4
부부+기혼자녀	1.6	1.0	2.8	1.2	0.7	2.4
부부+기혼자녀+미혼자녀	2.0	1.7	2.5	0.9	0.8	1.0
가구주+미혼자녀+부·모	0.8	0.7	1.0	1.1	1.0	1.1
가구주+기혼자녀	1.4	1.2	1.6	0.9	0.8	1.3
가구주+기혼자녀+미혼자녀	0.7	0.8	0.6	0.3	0.3	0.3
형제·자매가구	2.1	2.9	0.5	2.3	3.0	0.4
4세대 이상 가구	0.3	0.2	0.5	—	—	—
비혈연 가구	1.7	2.0	1.2	1.7	1.8	1.3
기 타	2.5	2.5	2.4	2.7	2.8	2.2

註：a) 1985年 人口센서스 20% 標本 集計 結果

b) 1990年 人口動態 標本調査 結果

## IV. 家口主의 特徵

### 1. 性·年齡別 家口主 分布

家口規模 및 家口構成形態 分析 以外에 各 家口마다 그 家口를 代表하는 家口主에 對한 여러가지 特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一般的으로 家口主란 “經濟的으로 家口員을 扶養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經濟的 扶養 能力과는 關係없이 어떤 家口에서 다른 家口員들로부터 家口主로 인정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의 경우는 “家口主란 戶籍法上 戶主 또는 住民登錄法上の 世帶主와는 關係없이 實質的으로 家口를 代表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즉 所得을 반영하여 家口主를 정하든지, 家父長制度下의 家長을 중심으로 家口主를 정하든지 간에 어떤 基準이 있어야 하는데 人口센서스에서는 基準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家口主에 대한 特性을 분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表 7>에서 家口主의 性·年齡別 構成 狀態를 살펴보면 1990年 현재 우리나라 家口主의 79.9%가 男子이고 20.1%가 여자 家口主로서 여자가 全體家口主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에는 全體 家口主중 女子 家口主가 차지하는 比率이 12.8%로서 지난 5년 동안 여자가 家口를 代表하는 比率이 7.3% 「포인트」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年齡別로 살펴보면 1990年 現在 우리나라 全體 家口主의 28.5%가 30代 연령층이고, 23.1%가 40代, 19.7%가 50代로 나타났다. 그리고 30세 미만 家口主는 15.4%, 노령층으로 볼 수 있는 60세 以上 家口主도 1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5年の 경우 30세 미만 家口主는 14.1%, 30代 家口主는 31.3%, 40代 家口主는 25.5%, 50代 家口主는 17.8%, 30세 미만 家口主는 14.2% 그리고 60세 以上 家口主는 11.1%로 나타나,

지난 15年 동안 30세 미만 家口主 및 50代 家口主와 60세 以上の 家口主가 차지하는 비중이 增加하였고 안정적인 연령층인 30代 및 40代 家口主가 차지하는 比重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 Heads by Age and Sex : 1975~90  
Unit : %

Age	1975		1980		1985		1990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87.2	12.8	85.3	14.7	84.3	15.7	79.9	20.1
0~14	0.08	0.02	0.05	0.03	0.03	0.02	0.01	0.02
15~24	3.1	1.3	3.2	1.8	2.9	2.3	2.4	3.4
25~29	9.0	0.7	9.7	0.8	10.5	1.1	7.9	1.7
30~34	14.0	0.8	13.4	0.9	13.8	1.0	13.5	1.2
35~39	15.3	1.2	12.9	1.2	12.6	1.1	12.4	1.4
40~44	12.5	1.7	12.7	1.6	11.0	1.4	10.3	1.7
45~49	9.4	1.9	10.4	1.9	10.5	1.7	9.3	1.8
50~54	8.4	1.7	7.4	1.9	8.2	1.8	8.7	2.2
55~59	6.4	1.3	6.3	1.7	5.6	1.7	6.8	2.0
60+	9.0	2.1	9.3	2.9	9.2	3.5	11.7	4.8

Note : The percentage is the proportion of each age group to the total of both sexes.

## 2. 婚姻狀態別 家口主 分布

家口主를 다시 <表 8>에서 婚姻狀態別로 살펴보면 男子의 경우는 家口主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89.2%가 婦人이 있는 有配偶狀態이고 未婚, 死別 및 離婚인 상태는 적게 나타났다. 反面, 女子의 경우는 1990년 現在 男便의 死別로 인한 경우가 42.7%로 가장 높고, 男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女

자가 家口主로 되어있는 경우가 24.6%, 未婚인 경우는 27.2% 그리고 離婚으로 인한 경우는 불과 5.5%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男子의 경우도 未婚의 男子家口主가 增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女子의 경우 未婚女子 家口主가 1960년의 2.5% 水準에서 1990년에는 27.2%로 급격히 增加한 점과 男便의 死別로 인하여 家口主가 된 경우는 再婚의 增加나 또는 死亡率의 감소로 인하여 저하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Table 8.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 Heads by Sex and Marital Status : 1960~1990

Unit : %							
Marital Status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Mal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ingle	4.0	3.6	3.9	4.7	4.7	5.6	8.7
Married	92.5	93.8	94.0	93.1	92.9	92.3	89.2
Widowed	3.0	2.4	1.8	1.9	2.0	1.6	0.9
Divorced	0.4	0.3	0.3	0.3	0.4	0.5	1.2
Femal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ingle	2.5	2.6	5.5	11.8	15.7	20.7	27.2
Married	27.9	33.6	27.3	24.5	22.3	22.7	24.6
Widowed	64.8	59.9	61.6	59.4	58.1	52.2	42.7
Divorced	4.8	3.9	5.6	4.3	3.9	4.3	5.5

### 3. 家口員數別 家口主의 性・年齡別 分布

앞에서 1985年 現在 우리나라 全體 家口主중 家口主의 연령 비중이 30代, 40代, 50代, 30세 미만 및 60세 以上 順으로 分布되어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를 다시 家口를 構成하고 있는 人員數別로 家口主의 年齡構成을 <表 9>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Table 9.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 Heads by Age, Sex and Size : 1985  
Unit : %

Age	One Person HHs		Two Persons HHs		3~5 Persons HHs		6 Persons or More HHs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	0.3	0.2	0.1	0.2	0.02	0.08	—	—
15~19	8.1	4.1	2.1	6.2	0.3	2.0	0.1	1.2
20~24	18.9	15.8	9.1	17.2	1.6	5.5	0.5	3.3
25~29	29.8	10.1	27.1	8.2	12.6	5.3	2.8	2.3
30~34	10.1	5.7	10.1	5.2	20.4	7.7	8.1	3.2
35~39	5.3	4.4	3.1	4.2	17.3	10.9	14.3	7.2
40~44	3.7	3.7	2.1	5.2	13.1	14.1	18.6	11.9
45~49	5.5	4.1	3.1	11.2	11.4	16.0	21.2	18.2
50~54	4.3	6.1	5.1	11.2	9.0	13.9	14.3	15.2
55~59	3.7	9.6	7.1	11.2	6.2	10.4	8.3	15.3
60~64	3.4	12.0	9.1	10.2	4.3	6.9	5.5	9.5
65~69	2.6	10.7	8.1	5.2	2.2	3.9	3.3	6.8
70+	3.2	13.5	9.1	5.2	1.5	3.5	2.9	5.7

Note : HHs is abbreviation of households

우선 單獨家口의 경우를 살펴보면 男子는 20代가 48.7%, 30代가 15.4% 順으로 되어있는 반면 女子는 60세 以上이 36.2%, 20代가 26.9% 順으로 나타나 男子의 경우는 혼자 사는 20代가 압도적으로 많고 女子의 경우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명으로 구성된 家口의 家口主 年齡分布는 男子의 경우 20代가 37.0%, 60세 以上이 27.1% 順으

로 되어 있고 女子의 경우는 20代가 25.8% 50代가 23.8% 順으로 나타났다. 3~5명으로 構成된 家口의 家口主 年齡分布는 男子의 경우 30代가 37.7%, 40代가 24.5% 順으로 女子의 경우는 40代가 30.1%, 50代가 24.3% 順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명 以上으로 構成된 家口의 家口主 年齡 分布는 男子의 경우 40代가 39.8%, 50代가 22.6% 順으로 女子의 경우는 50代가 30.5%, 40代가 30.1% 順으로 나타났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單獨家口主와 2명으로 構成된 家口의 家口主 경우를 除外하고는 家口員數가 많아질수록 家口主의 연령도 增加하는 一般的인 傾向을 보인다.

#### 4. 家族類型別 家口主의 年齡別 分布

앞에서 우리나라 전체 家口主의 年齡別 分布는 85年 現在 30代가 28.6%로 가장 많고, 40代는 24.6%, 50代는 17.3%, 20代는 15.6% 順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家口形態別로 살펴보면 그 年齡別 分布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單獨家口의 年齡別 패턴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代 家口主가 34.7%로서 가장 많다가 점차 줄어들어 40~45세에서는 4%로서 最低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以後年齡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혼자 사는 家口主도 많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都市의 경우는 20代에 46%가 몰려있고, 반면 農村에서는 55세 以上이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夫婦家口의 경우도 年齡別 패턴이 單獨家口와 類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都市에서는 子女를 갖지 않은 젊은 연령층 夫婦家口가 많고, 반면 農村에서는 子女들이 都市로 轉出하여 老齡層 夫婦만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核家族 形態인 「夫婦+未婚子女」 家口의 경우는 家口主의 年齡別 分布가 全體 家口主의 年齡別 分布와 類似하게 나타난다. 다만 都市

에서는 30代의 家口主가 많은 반면, 農村에서는 45세 以上の 家口主가 相對的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未婚子女를 데리고 혼자 사는 경우는 40代의 家口主가 35.3%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 50代가 3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夫婦가 未婚子女와 父 또는 母」와 함께 사는 경우는 40代의 家口主가 40%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 30代가 33.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兄弟·姉妹 家口の 경우는 都市·農村間 큰 差異없이 20代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세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表 10〉 參照).

## 5. 性・年齡別 家口主率

家口主率이란 該當年齡 人口중 家口主가 차지하고 있는 比率을 의미하는 概念으로 家口推計 作業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表 11〉에서 1990年 현재 家口主率을 살펴보면 男子의 경우 15세 以上 男子人口 中 47.1%가, 女子의 경우는 15세 以上 女子人口中 11.1%만이 家口主의 地位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에는 同比率이 男子의 경우 54.6%, 女子의 경우 7.8%로서 지난 15年 동안 男子는 85年까지 늘어나다가 90년에는 적게, 女子는 家口主의 地位를 누리는 比率이 계속하여 增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 1990年 現在 男子의 경우 15~24세 연령층에서는 同年齡人口의 7.6%만이, 25~29세는 절반정도인 52.6%, 30~34세는 84.9% 그리고 35세 이상 60세 미만에 있어서는 90% 以上이 家口主의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女子의 경우 15~29세는 同年齡人口의 10% 정도가, 30代는 7.3%에서 10.6%, 40代는 약 17% 그리고 50代 以上은 20% 以上이 家口主의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stribution of Age of Household Heads by Household Type : Whole Country, 1985

연령	계	단독가구	부부	부부+미혼자녀	가구주+미혼 자녀	부부+미혼자녀 +부모	부부+기혼자녀 (미혼자녀포함)	형제·자매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0.05	0.2	—	—	—	—	—	0.8
15~19	1.2	5.7	0.09	—	0.03	—	—	14.9
20~24	4.0	17.1	5.6	0.6	0.5	0.3	—	46.5
25~29	11.6	17.6	27.1	9.9	3.3	5.1	—	29.8
30~34	14.8	6.9	10.7	18.7	6.9	14.2	—	5.2
35~39	13.8	4.7	3.9	17.7	11.4	19.6	0.1	1.4
40~44	12.4	4.0	2.3	15.6	16.0	20.0	0.3	0.5
45~49	12.2	4.5	3.5	14.8	19.3	20.0	3.2	0.3
50~54	10.0	5.5	6.2	10.5	17.7	13.2	12.7	0.2
55~59	7.3	7.5	8.5	6.1	13.1	5.3	21.0	0.1
60~64	5.6	8.8	10.9	3.6	7.6	1.7	25.1	0.2
65~69	3.7	7.5	9.9	1.7	3.0	0.4	19.5	0.09
70+	3.4	10.0	11.5	0.8	1.3	0.07	17.9	0.09

1975年과 比較하여 보면 男子의 경우 44세 연령층 이하에서는 家口主率 이 增加하였고 4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家口主率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 家口主 概念이 보다 經濟的인 측면이 강조되어 統計調査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女子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家口主率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獨身女性의 增加로 인한 30세 미만과 平均壽命上昇으로 인한 60세 이상에서 女子 家口主率의 增加가 두드러진다.

Table 11. Headship Rate by Age and Sex : 1975~1990

Unit : %

Age	1975		1980		1985		1990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54.6	7.8	55.7	9.3	57.7	10.4	47.1	11.1
15~24	5.5	2.4	6.0	3.6	6.2	5.2	7.6	9.9
25~29	47.2	3.7	50.4	4.3	49.7	5.2	52.6	10.6
30~34	82.4	5.0	82.4	5.8	83.4	6.0	84.9	7.3
35~39	91.3	7.7	91.1	8.4	91.3	8.7	94.7	10.6
40~44	94.2	12.2	94.0	11.8	94.7	12.4	96.2	15.1
45~49	95.9	16.5	95.5	16.2	96.1	15.6	95.8	18.6
50~54	96.5	18.6	96.3	21.1	96.6	19.7	94.6	22.0
55~59	94.7	17.9	95.5	22.8	95.4	23.4	89.6	23.1
60+	75.5	12.2	81.4	17.1	80.5	20.3	66.3	23.0

## V. 家口別 經濟活動人口, 老齡人口, 15歲 未滿 人口 및 學生數 現況

다음은 家口別로 家口構成員중 經濟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人口는 얼마

나 되는 것과 이들이 扶養하여야 하는 15세 미만 人口 및 學生數와 老齡 人口는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外國 資料와 比較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家口가 갖고 있는 經濟的 能力과 負擔이 어느정도 인지 가늠하여 볼 수 있다.

## 1. 家口別 經濟活動 家口員數

家口別로 經濟活動 家口員數의 分布를 살펴보면, 1985年 현재 우리나라 總人口중 돈벌이를 하고 있는 家口員이 1명인 경우가 59.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명인 경우는 21.3%,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는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經濟活動參加 家口員이 없는 경우도 12.6%나 되고 있다(〈表12〉 參照).

그러나 이를 다시 家口規模別로 보면 分布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單獨家口인 경우는 經濟活動 參與比率이 55.1%이고 나머지 44.9%는 學生이나 老人등 非經濟活動人口로 나타난다. 2인으로 構成된 家口인 경우는 1명만이 經濟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比率은 53.7%이며 2명 모두 돈벌이를 하는 비율이 21.3%로 나타난다. 3인으로 構成된 家口인 경우는 돈벌이를 1명만이 하고 比率은 64.5%, 2명은 17.0%, 3명 모두는 4.0%로 나타난다.

그리고 1985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比重(25.3%)을 차지하고 있는 4인으로 構成된 家口의 경우 돈벌이를 1명만이 하고 있는 比率은 70.8%, 2명은 17.4%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5인으로 構成된 家口의 경우도 1명만이 돈벌이를 하는 比率이 6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C 10個國의 現況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점이 發見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家口員중 한명만이 돈벌이를 하는 比率이 높으나, 유럽에서는 家口員중 2명이 함께 돈벌이를 하는 比率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Table 12.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ousehold Size	Korea, 1985 <sup>a)</sup>					E C Countries <sup>b)</sup>				
	Total	0	1	2	3+	Total	0	1	2	3+
Total	100.0	12.6	59.4	21.2	6.8	100.0	27.4	37.0	28.4	7.2
1 person HH	100.0	44.9	55.1	—	—	100.0	64.4	35.6	—	—
2 person HH	100.0	25.0	53.7	21.3	—	100.0	39.5	30.3	30.1	—
3 person HH	100.0	14.4	64.5	17.1	4.0	100.0	7.9	40.7	42.6	8.7
4 person HH	100.0	8.1	70.8	17.4	3.8	100.0	2.8	42.6	41.8	12.7
5 person HH	100.0	6.3	60.9	25.7	7.1	100.0	2.5	42.9	34.3	20.4
6 person HH	100.0	4.8	49.4	31.9	13.8	100.0	2.5	38.3	29.8	29.3
7+	100.0	3.0	33.9	34.1	29.0	100.0	2.8	31.6	24.4	41.1

Notes : a) From 20% sample tabulation of the 1985 population census

b) EUROSTAT, censuses of population in the community countries, 1981~1982, 1988

Table 13.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he Number of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ousehold Size	Korea, 1985					E C Countries				
	Total	0	1	2	3+	Total	0	1	2	3+
Total	100.0	84.2	13.1	2.5	0.02	100.0	70.3	20.6	8.9	0.3
1 person HH	100.0	82.5	17.5	—	—	100.0	47.3	52.7	—	—
2 person HH	100.0	81.5	12.5	6.1	—	100.0	57.4	17.4	25.2	—
3 person HH	100.0	89.2	9.0	1.7	0.09	100.0	83.8	9.6	5.7	0.9
4 person HH	100.0	92.8	6.4	0.8	0.03	100.0	92.6	5.6	1.6	0.2
5 person HH	100.0	86.7	12.1	1.2	0.02	100.0	87.2	10.6	2.0	0.1
6 person HH	100.0	75.3	21.4	3.2	0.04	100.0	81.5	13.1	5.2	0.2
7+	100.0	59.8	31.5	8.6	0.2	100.0	81.3	12.8	5.3	0.6

## 2. 家口別 65歲 以上 人口數

各 家口에서 扶養해야 할 65세 以上 老齡家口員數(在家老齡人口數)를 (表 13)에서 살펴볼 수 있다. 同表에서 1985年 현재 우리나라의 總家口중 65세 以上 老齡家口員이 1명 以上 있는 家口比率은 15.8%로 나타난다. 그러나 家口規模別로 보면 이 比率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65세 以上 老齡家口員을 갖고 있는 比率이 單獨家口에서는 17.5%로 比較的 높다가 점차 감소하여 4인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불과 7.2%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家口員數가 많아질 수록, 이와 比例하여 65세 以上 老齡家口員이 있는 比率도 점차 많아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6인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24.7%, 7人이상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40.2%가 65세 以上 老齡人口를 한명 以上 갖고 있다.

都市·農村別로 65세 以上 老齡家口員을 갖고 있는 比率을 살펴 보면, 都市에서는 都市 全體家口중 11.0%, 農村에서는 農村 全體家口중 24.6%를 나타내고 있다. 즉 農村地域에서 在家老人 人口比率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家口중 65세 以上 老齡人口를 갖고 있는 비율 15.8%는 EC 10個國의 29.7% 보다는 아직 낮은 편이다.

## 3. 家口別 15歲 未滿 人口數

65세 以上 老齡 家口員 이외에 各 家口에서 扶養해야 할 또 하나의 계층은 15세 미만의 幼年 家口員이 될 것이다. 1985年 현재 우리나라의 總家口중 15세 미만의 幼年 家口員을 1명 以上 갖고 있는 家口 比率은 64.7%로 나타난다(表14參照). 이 중 한명만이 15세 미만 家口員이 있는 家口 比率은 22.4%이고, 두명의 15세 미만 家口員이 있는 家口 比率은 27.5%로, 그리고 세명 以上은 14.8%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總 家口중

2명 以下(0명 포함)의 15세 미만 家口員을 갖고 있는 家口 比率은 85.2%나 되어 小家族化 現象을 살펴볼 수 있다.

家口規模別로 살펴 보면, 家口 規模가 커질 수록 比例하여 15세 미만의 家口員을 갖고 있는 比率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單獨家口에서는 불과 0.2%만이, 2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7.4%만이, 3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60.7%가, 4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80%가, 그리고 5인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82.8%가 1명 이상의 15세 미만 家口員을 갖고 있다.

특히, 3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1명의 15세 미만 家口員이 있는 比率이 55.5%이고, 4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2명의 15세 미만 家口員이 있는 比率이 61.1%로 나타나 이들 家口가 젊은 核家族 家口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EC 10個國의 現況을 비교하여 보면, 15세 미만의 家口員이 한명도 없는 家口 比率이 64.5%나 되어 出產率이 우리나라보다 낮았음과 또한 無子女主義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4. 家口別 學生數

65세 이상 家口員 이외에도 各 家口에서 扶養해야 할 또하나의 계층은 學生으로 볼 수 있다. 1985年 현재 우리나라의 總 家口중 1명 이상의 學生을 갖고 있는 比率은 29.0%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한명의 學生만이 있는 家口 比率은 19.0%이고, 2명의 學生이 있는 家口 比率도 7.9%나 되고 있다(〈表15〉 參照).

그리고 家口規模別로 學生이 있는 比率을 살펴보면, 家口員數가 많아질 수록 比例하여 比率이 높아지는 一般的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單獨家口에서는 7.7%가, 2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12.4%가, 3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18.1%가, 4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22.6%가, 그리고 5人으로 構成된 家口에서는 40.5%가 1명 이상의 學生을 갖고 있다.

Table 14.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Number of Persons Aged Under 15 Years

Household Size	Korea, 1985					E C Countries				
	Total	0	1	2	3+	Total	0	1	2	3+
Total	100.0	35.3	22.4	27.5	14.8	100.0	64.5	16.3	13.5	2.7
1 person HH	100.0	99.8	0.2	—	—	100.0	100.0	—	—	—
2 person HH	100.0	92.6	7.3	0.1	—	100.0	96.7	3.3	—	—
3 person HH	100.0	39.3	55.5	5.2	0.03	100.0	49.3	47.9	2.8	—
4 person HH	100.0	20.0	17.5	61.1	1.5	100.0	24.6	19.4	55.1	0.8
5 person HH	100.0	17.2	21.2	28.6	32.9	100.0	17.2	22.8	20.6	39.4
6 person HH	100.0	13.6	21.5	29.2	35.7	100.0	12.1	20.6	25.1	42.2
7+	100.0	6.0	16.1	27.9	50.0	100.0	6.6	13.4	20.2	59.8

Table 15. Percentage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he Number of Students, 1985

Household Size	Whole					Urban					Rural				
	Total	0	1	2	3+	Total	0	1	2	3+	Total	0	1	2	3+
Total	100.0	71.0	19.0	7.9	2.1	100.0	69.9	18.5	8.9	2.7	100.0	73.1	19.9	6.0	0.9
1 person HH	100.0	92.3	7.7	—	—	100.0	89.8	10.2	—	—	100.0	96.9	3.1	—	—
2 person HH	100.0	87.6	9.1	3.3	—	100.0	84.5	11.2	4.3	—	100.0	92.9	5.6	1.5	—
3 person HH	100.0	81.9	15.1	2.4	0.6	100.0	82.0	14.1	3.1	0.7	100.0	81.5	17.0	1.1	0.4
4 person HH	100.0	77.4	16.8	5.2	0.5	100.0	78.2	15.3	5.8	0.6	100.0	75.4	20.5	3.9	0.2
5 person HH	100.0	59.5	25.3	12.4	2.8	100.0	57.4	24.7	14.2	3.8	100.0	63.9	26.5	8.6	1.0
6 person HH	100.0	48.6	28.5	16.9	6.0	100.0	44.2	28.0	19.5	8.2	100.0	55.8	29.2	12.7	2.3
7+	100.0	43.9	30.0	18.1	8.0	100.0	37.5	30.0	20.8	11.7	100.0	51.3	30.0	14.9	3.8

이를 都市・農村別로 살펴보면 都市에서는 都市 全體家口중 30.1%, 農村에서는 農村 全體家口중 26.9%가 學生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都市 地域에서의 學生集中現象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家口規模別로 볼 때, 3人이나 4人으로 構成된 家口를 除外하고는 都市・農村間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 VI. 所有形態別 家口

1990年 현재 우리나라 전체 一般家口중 자기집에서 居住하고 있는 家口比率은 50.4%에 불과하고, 전세(22.8%)나 월세(23.1%)등 남의 집에서 居住하고 있는 경우는 4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16〉 參照).

Table 16. Proportion of Ordinary Households Living in Their Own Housing Unit :  
1960~1990

Unit : %				
Year	Whole	Urban	Rural	Seoul
1 9 6 0	79.1	62.0	86.0	56.5
1 9 7 5	63.6	44.9	82.5	46.1
1 9 8 0	58.6	43.0	80.8	44.5
1 9 8 5	53.6	41.3	77.5	40.8
1 9 9 0 <sup>a)</sup>	50.4	40.6	77.5	—

Note : a) As of 1 July 1990.

이는 1960年の 자기집 居住比率인 79.1% 보다도 무려 28.7% 「포인트」나 감소하여 우리나라에서의 居住環境은 住宅建設에 比하여 人口增加 및

小家族化 경향으로 인한 家口增加가 더 많아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都市地域의 경우 自己집을 所有한 家口比率은 全體 平均値보다 낮은 40.6%에 불과하여 大都市 地域에서의 住居環境이 얼마나 심각한 狀態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VII. 要約 및 結論

지난 30年間 우리나라의 家口는 年平均 3.2%씩 增加하여 같은 期間동안의 人口增加率 1.8%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家口增加率이 높은 理由는 家口分化(核家族化 및 脫家族化) 現象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家口分化 現象과 더불어 出産力의 低下로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1960年の 5.6명에서 1985년에는 4.2명으로 그리고 1990年 3.7명 水準으로 小家族化가 進行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核家族化 現象은 3世代 以上으로 構成된 家口가 1960年の 27.9%에서 1985년에는 15.1%로 저하된 것으로 說明될 수 있고, 小家族化 現象은 4명 以下로 構成된 家口가 1960年の 35.9%에서 1985년에는 61.0%, 1990년에는 75.0%로 增加된 것과 既婚婦人當 出生子女數가 저하된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脫家族化 現象은 單獨家口의 比率이 1960年の 2.3%에서 1990년에는 11.7%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各 家口를 代表하는 家口主에 대한 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女子 家口主가 20.1%를 차지, 15년전인 1975년에 비해 차지하는 比重이 크게 증가한 것과 둘째, 全體 家口主중 60세 以上の 家口主는 16.5%를 나타내 15년전에 비해 同 年齡層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져 家口主 年齡이 老齡化되는 경향을 보였고 셋째, 婚姻狀態別로 볼 때 男子 家口主의 경우 대부

분이 婦人이 있는 有配偶 狀態이고 女子家口主의 경우는 死別로 인한 경우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로는, 家口形態別로 家口主의 年齡 分布를 볼 때 單獨家口 및 夫婦만의 家口는 20代에 가장 높다가 점차 줄어 40~45세에서 最低를 기록한 후 다시 年齡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家口別로 構成員중 돈벌이하는 人口와 各 家口에서 扶養하여야 하는 老齡人口 및 學生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985年 현재 우리나라 全體家口 중 돈벌이를 하고 있는 家口員이 0명인 경우는 12.6%, 한명인 경우는 59.4%, 2명인 경우는 21.2%로 나타난다. 그러나 EC 10개국에서는 平均 0명인 경우는 27.4%, 1명인 경우는 37.0%, 2명인 경우는 28.4%를 나타내 우리와 크게 構造가 틀림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全體 家口중 65세 이상 老齡 人口를 1명 이상 갖고 있는 家口 比率은 15.8%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比率은 EC 10個國의 29.7%보다는 낮은 水準이지만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로, 15세 미만의 幼年 家口員을 1명 이상 갖고 있는 家口 比率은 64.7%로서 EC 10個國의 35.5%와 比較하여 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우리나라 全體 家口중 1명 이상의 學生을 갖고 있는 家口 比率도 29.0%로서 상당히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家口는 現代 家庭의 特徵인 家口員數面에서 小家族化, 家口構造面에서 보편적인 核家族化 現象 및 脫家族化 등 變化를 보였다. 특히 農村地域에서 젊은 年齡層 人口의 都市 轉出로 인해 農村地域에서의 小家族化 및 都市地域에서의 脫家族化 現象이 加速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離婚率의 上昇으로 이미 結婚하였던 사람들이 各各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시 結合하는 相互再結合家族(Inter-Penetrating Family)도 점차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家族形態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家口는 家口員중 한명만이 돈벌이를 하는 比重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扶養해야 할 65세 以上 人口와 15세 미만 人口 및 學生數도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家族構造의 變化 및 家口狀態와 連繫하여 靑少年 問題, 老人 問題 및 住宅問題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변모해가는 家族의 役割<sup>6)</sup>등에 대한 深層的 研究 및 對策이 필요로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方向은 本稿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巨視的인 측면만이 아닌 微視的인 接近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註

- 1) 金日炫·崔鳳鎬, “우리나라의 家族 및 家口變化 推移 : 1960~85”,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p.40~68
- 2) 李興卓, 社會學原論, 法文社, 1988
- 3) 崔鳳鎬, “人口統計 作成制度의 考察”, 統計, 제16권, 제1호, 大韓統計協會, 1990, pp.12~20
- 4) 人口動態 標本調査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이 每月 약 32,000家口를 對象으로 實施하고 있는 家口標本調査이다. 同 調査에서는 特別調査區 人口가 除外되기 때문에 家口當 平均 家口員이 약 0.06명정도 적게 나타날 것으로 推定된다.
- 5) 姜熙涇外,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p.8
- 6) 예를 들면, 家族이 共同體의 삶의 基반으로서의 役割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 즉 現代 產業社會는 家族의 共同體의 삶의 기능을 社會적으로 분산시켜, 社會 各 부문에서 생산노동, 자녀교육, 보건 및 문화생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들은 매일 매일의 삶을 대부분 가정 밖에서 영위하게 되었고, 家族은 단지 消費生活의 단위로 축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姜熙涇, 崔仁鉉, 尹鍾周,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人口 및 住宅 센서스 報告書」,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 孔世權, 朴仁和, 曹愛姐, 金珍淑, 張玄變,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金日炫,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集計結果 分析”, 「統計」, 제13권 제2호, 大韓統計協會, 1988, pp. 13~19.
- 金日炫, 崔鳳鎬, “우리나라의 家族 및 家口變化 推移 : 1960-85”,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p. 40~68.
- 金惠善, 朴惠仁, 玉先花, 「家族關係學」, 韓國放送通信大學, 1985.
- 朴仁和, 「家族保健研究를 위한 家族週期の 變動推移分析」, 博士學位論文, 서울大 保健大學院, 1990.
- 劉在賢, 「家族關係學」, 教文社, 1982
- 尹鍾周, “우리나라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研究”, 「人口問題論集」, 제24호, 1983.
- 尹鍾周, “家族形態別 人口構造와 이의 生態學的 過程에 관한 小考”, 「人口問題論集」, 제19호, 1975.
-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86.
- 李效再, 「家族과 社會」, 進明出版社, 1979.
- 李興卓, “歷史人口學 方法論의 現況”, 「韓國人口學會誌」, 제12권 제2호, 1989, pp.56~68.
- 崔鳳鎬, “人口統計 作成 制度의 考察”, 「統計」, 제16권 제1호, 大韓統計協會, 1990, pp.12~20.

崔鳳鎬, “우리나라의 人口動態展望과 美國 및 유럽에서의 家族 붕괴”, 「統計消息」, 第5號,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90, pp.30~40.



# 第10章 結婚率 및 初婚年齡의 變動과 展望

金 柔 敬\*

- I. 序論
  - II. 資料 및 分析方法
  - III. 分析結果
  - IV. 要約 및 結論
- 

## I. 序 論

最近 30年間 韓國社會는 社會·經濟의 急速한 發展과 더불어 出産力의 빠른 減少, 死亡力의 점진적인 改善, 그리고 지속적인 人口移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한 人口變動을 가져왔다. 이러한 變動속에서 韓國人의 結婚行動(Marriage Behavior)도 크게 변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結婚이란 家族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法的·制度的 또는 慣習的인 體系로 정의할 수 있는데, 社會가 人間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본다면, 結婚을 통한 家族은 가장 원초적이며, 결속된 組織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基盤으로 社會는 形成되고, 集團과 集團과의 關係는 結束되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人間들은 일정한 年齡에 달하면 配偶者의 선택과 結婚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이 태어

---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人口研究室 研究員

나고 成長한 家族(Family of Orientation)을 벗어나서 父母로서 役割을 수행하는 出產家族(Family of Procreation)을 形成하게 된다. 따라서, 結婚은 社會構造의 變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우리사회에서 結婚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社會問題도 부분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人口變動과 社會構造의 變動에 따른 結果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즉 結婚行動의 變動은 人口變動의 結果를 반영할 뿐 만 아니라, 그 社會의 出產水準을 결정해 주는 직접적인 媒介變因의 하나로써 人口變動을 초래하는 요인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社會 및 經濟現象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因果의인 관련을 갖는다(崔焯外, 1983). 最近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出產率이 급격히 떨어짐과 동시에 소위 베이비붐 Cohort(時期)의 女性人口가 出產期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出產兒數 자체도 減少하기에 이르렀으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男子의 初婚年齡이 女子보다 3-4세 높기 때문에 出產力 減少의 여파로 Marriage Squeeze 現象이 예상되며, 이러한 Marriage Squeeze 現象은 일시적일런지 모르나 새로 조정된 夫婦間 年齡差는 家族制度에 중대한 變化를 야기할 可能性이 매우 높으며, 특히 初婚類型이 종전과는 다른 變動樣相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1950年代의 『베이비붐』의 여파로 인한 兩性間 人口 크기의 不均衡이 초래할 人口學的 반응은 첫째,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變動을 초래하거나, 둘째로 과잉된 女子 側에서 結婚하지 않고 未婚으로 살게될 比率이 增加할 可能性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崔焯外, 1983). 이런 맥락에서 初婚年齡이 가지는 社會學的 意味를 살펴보면, 初婚年齡은 家族의 生活週期(Family Life Cycle) 上的 家族形成(Family Formation)의 시기와 일치하며, 어느 社會나 夫婦間의 初婚年齡은 다소간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그 差異는 비교적 同質(Homogeneous)한 特性을 보여주는데(Eshiemann, 1978) 이는 夫婦間의 初婚年齡은 個人에 따라 다소의 變異性(Variation)을 보이기는 하나, 各時期別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特定社會나 時代에 따라 普遍化되고 있는 男女間 婚姻年齡의 패턴은 配偶者 선택의

범위를 제약하는 市場構造(Market Structure)를 형성하는 중요한 要素가 되므로(Good, 1964), 男女間 婚姻年齡 패턴의 變動은 혼인당사자가 되는 개개인의 수준에서 家族形成의 시기에 영향을 주게된다. 한편 初婚의 年齡패턴은 특히 그 變動이 미치는 人口學的 效果의 側面에서 重要性이 더욱 부각된다. 이 경우는 특히 女子의 初婚年齡이 문제시되는데, 女子의 初婚年齡은 가임상태에 있는 婦人의 再生産期間 및 出産水準의 年齡패턴에 變動을 미치는 중요한 變數의 하나이며(R. Freedman, 1905), 그밖에 女子의 初婚年齡의 變動은 婦人의 再生産期間에 變動을 초래케하여, 한 社會나 국가의 出産力水準에 影響을 미칠 뿐 만 아니라 世代交替期間(Length of Generation)에 影響을 미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社會나 國家의 人口成長에 影響을 주기도 한다(Coale A, and Tye, 1961). 初婚의 年齡패턴이 한 社會나 特定地域의 出産水準에 미친 人口學的效果는 이미 19세기 西歐 社會의 人口變遷(Population Transition)經驗에서 실증된 바 있으며(A. Coale, 1971), 그밖에 初婚年齡의 變動과 出産水準의 變動間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Van de Walle, 1972 ; Palmore & Marzuk, 1969). 初婚의 年齡패턴에 관한 情報(Information)는 社會政策의 수립과 같은 실용적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그 重要性이 높이 평가되는데, 예를들면, 初婚의 年齡패턴은 특정한 기간의 婚姻數를 추정하며, 婚姻數의 추정은 住宅의 需要的 側面을 반영하며 이런 의미에서 初婚의 年齡패턴은 住宅政策의 樹立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私企業의 경우 初婚年齡패턴은 勞動力 供給과 市場分析의 한 要素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와같은 初婚年齡패턴이 가지는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이 分野에 관한 研究는 出産力이나 死亡力, 그리고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人口學的 分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은 주로 出産力の 變動과 관련하여 그 重要性이 認識되고 부터이다(Bogue, D. J., 1969). 따라서, 1960年以後 급속한 社會·經濟의 發展과 出産力の 급격한 減少, 死亡力の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人口構造의 變動과 1950年代 後半의 「베이비

름]세대가 1970年代 後半부터 結婚適齡期로 진입함에 따른, 1980年代의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變動 및 未婚率의 變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센서스資料 및 1974年 WFS, 1976年 KIFP 그리고 1986年 · 1988年 KIPH Survey資料를 利用하여 1960年代 以後 最近 30年間의 結婚率과 未婚率 및 初婚年齡의 變動推移를 파악하고 아울러 初婚年齡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分析하고자 한다.

## II. 資料 및 分析方法

### 1. 資料

本 研究에 사용된 資料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每 5年마다 실시하고 있는 「人口 및 住宅센서스」 1960年, 1966年, 1970年, 1975年, 1980年, 1985年度の 年齡 및 婚姻狀態別 人口分布에 관한 資料 및 前 家族計劃研究院 및 當院에서 實施한 바 있는 標本調查資料인 1974年 WFS, 1976年 KIFP, 1986年 · 1988年 KIPH에서 調查된 내용 중에 家口員調查事項(조사구, 性別, 만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과 婦人 一般事項中에서 一部 變數(조사구, 부인 만연령, 남편 만연령, 부인 초혼연령, 남편 초혼연령, 출생년도, 남편 출생년도, 결혼년도, 출생지, 남편의 출생지, 혼전취업기간, 부인직업, 남편직업, 부인 교육정도, 부인종교, 남편종교)만을 사용하였다.

資料의 제약점으로는 첫째, 4個年度 標本調查의 調查內容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4個年度 標本調查別로 調查되지않은 변수는 1974年 WFS 와 1988年 KIPH에서는 남편의 만연령, 1976年 KIFP에서는 남편의 초혼연령 등이다. 둘째로, 標本調查資料를 센서스 資料와 同一水準에서 比較한

다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標本調査自體가 갖고있는 資料의 代表性 側面에서 一般的인 限界性を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2. 分析方法

結婚率과 初婚年齡의 變動에 관한 研究는 대체로 두가지 側面에서 접근되는데, 하나는 센서스資料의 年齡別, 婚姻狀態別 人口資料를 활용하여 年齡別, 性別 結婚率 및 未婚率의 變動狀態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標本調査資料를 이용하여 既婚婦人들이 실제로 婚姻했을 당시의 年齡을 기초로 平均初婚年齡을 계산하여 그 變動狀態를 파악하는 방법이다(Bogue, 1969). 센서스資料의 男女間 年齡別 結婚率과 未婚率의 비교를 통하여 初婚年齡의 變動패턴 및 일생동안 한번도 혼인하지 않고 未婚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比率를 관찰할 수 있으며, 後者의 경우 標本調査資料를 토대로 계산되는 平均初婚年齡(Crude Mean Age at First Marriage)을 각 出生 및 結婚 Cohort別로 비교해보면 비교적 쉽게 初婚年齡의 變動狀態를 관찰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崔焯外, 1983).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첫째로, 센서스資料의 年齡 및 婚姻狀態別 人口 分布 資料 및 標本調査資料를 基礎로 年齡別, 性別 結婚率과 未婚率의 變動狀態를 比較·分析하고, 둘째로, 센서스資料의 性別, 年齡別 未婚比率를 기초로 初婚年齡을 간접적으로 推定하여, 標本調査資料에 의해 계산되는 平均初婚年齡에 비해 死亡影響(Mortality Effect)을 비교적 제거할 수 있는 Hajnal Method<sup>2)</sup>를 이용하여 구한 平均初婚年齡을 제시하였고, 이는 標本調査資料를 통하여 얻은 現存하는 男便·婦人의 年度別 平均初婚年齡과 비교하였으며, 셋째로 센서스 資料와 標本調査資料를 이용, 中位初婚年齡을 추정하여 平均初婚年齡과의 差異를 比較·分析하였고, 넷째로, 標本調査資料를 이용하여 初婚年齡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 諸

要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I. 分析結果

#### 1. 結婚率의 變動趨勢

##### 가. 男·女別 結婚率의 變動

本 研究에서 말하는 結婚率의 概念은 有配偶比率을 의미하는 것이나, 편의상 結婚率이라 하고자한다. 結婚率은 結婚樣相을 研究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중의 하나로(曹大熙 外, 1983), 이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資料原인 戶籍申告가 일반적으로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本 分析에는 戶籍과 같은 人口動態資料대신 「센서스 및 標本調査」 資料를 중심으로만 分析하였음을 다시 밝혀둔다. 初婚年齡의 變化를 고찰하기에 앞서 1960年 以後의 年度別 男女 結婚率의 變動推移를 <表 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女子의 結婚率(Proportion Currently Married)變化를 보면, 1960年 즉 우리나라의 開發途上期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結婚比率은 15-19歲 年齡群이 2.4퍼센트에서, 1960年代 中半인 1966년에는 3.8퍼센트로 1.4%「포인트」增加하였으며,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女子가 結婚하는 比率이 下降하기 시작하여, 1970年代 中半인 1974년에 약간 上昇하였다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0.8퍼센트, 1988년에는 0.7퍼센트로, 이는 女子가 結婚하는 比率이 높았던 1966년에 비해 약 3.0%「포인트」가 떨어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같은 結婚率의 變化는 우리나라의 社會·文化的인 變革과 近代化過程에 따른 女性의 就業과 教育機會의 增大등 社會的인 地位向上에 基因되어 나타나는 現象으로 보여지며, 20-24歲 年齡

에서는 女子의 경우 1960年-1988年 사이에 結婚하는 比率이 下降趨勢를 보임으로써 晩婚의 傾向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同年齡群의 結婚率은 1960年에 약 50퍼센트에서 1970년에는 42퍼센트로 下降하다가 1974年에 약 44퍼센트로 약간의 上昇을 보였으나 10年後인 1985년에는 다시 28퍼센트로 下降을 보여, 이 年齡群에 있어서도 結婚比率에 많은 變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29歲群에서 女子가 結婚하는 比率은 1960年에 약 92퍼센트에서 1970년에는 88퍼센트로 나타났고, 다시 10年後인 1980년에는 85퍼센트를, 가장 最近인 1988년에는 83퍼센트를 보이므로써 1960年 以後 계속 비슷한 水準을 나타내 큰 變化가 없는 것으로 볼 때, 1960年代에서 1980年代末인 최근에 이르기까지 大部分의 女子들이 29歲까지는 結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斷産期의 年齡層인 35歲 以上 女子의 結婚率은 1960年에서 1988年인 最近에 이르기까지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現象의 주된 理由는, 死亡力의 低下로 인한 死別婦人의 減少로 結婚期間이 연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男子가 結婚하는 比率을 보면 15-24歲群은 女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60年代부터 1980年代末인 最近에 이르기까지 結婚率이 점차 下降趨勢를 보임으로써, 結婚率에 變化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25-29歲群에서도 약간의 結婚比率의 下降과 더불어 女子의 20-24歲群의 結婚率의 變化趨勢와 비교하여 볼 때, 男子의 경우 女子보다 늦게 결혼하는 傾向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女子의 20-24歲群과 男子의 25-29歲群이, 女子의 25-29歲群과 男子의 30-34歲群의 結婚比率이 비슷하게 分布된 것으로 볼 때 男女 모두 20代 後半에서 結婚의 集中現象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男子들은 34歲까지는 結婚을 하고 있고, 男子는 女子에 비해 약 5歲 程度 늦게 結婚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가 있다(<表 1-1>, <圖 1, 1-2> 參照). 男子의 晩婚 傾向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都市化와 教育期間의 延長, 流動的인 就業構造, 軍服務의 義務化등의 要因에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表 1. 性別 年齡別 結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Sex and Age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女子(Female)										
15-19	2.4	3.8	2.8	3.2	2.6	1.7	1.7	0.8	0.7	0.7
20-24	49.9	47.7	42.3	43.7	37.2	39.0	33.7	27.8	30.3	27.1
25-29	91.8	89.8	88.4	87.5	86.8	89.8	84.9	80.9	84.6	82.7
30-34	92.4	93.9	94.6	94.1	94.4	95.1	94.3	93.3	93.7	94.2
35-39	89.1	89.2	92.0	91.5	93.2	93.2	93.4	93.3	93.3	94.1
40-44	83.7	82.7	84.8	86.6	88.2	88.9	90.1	90.4	91.1	89.6
45-49	76.6	75.2	76.8	76.6	79.1	78.6	83.1	85.9	86.6	82.8
男子(Male)										
15-19	0.7	0.5	0.3	0.3	0.3	0.5	0.2	0.1	0.3	0.1
20-24	12.7	9.8	7.2	8.8	7.0	8.0	6.8	5.5	5.8	5.7
25-29	61.4	60.9	56.0	55.9	52.6	55.7	54.5	48.9	57.4	52.9
30-34	93.6	93.4	92.5	92.7	94.1	92.2	91.8	89.6	92.0	89.9
35-39	97.3	97.4	97.3	97.3	96.7	95.7	96.7	95.7	95.0	95.3
40-44	97.5	97.5	97.5	96.9	97.7	97.4	97.3	96.7	97.2	96.2
45-49	96.6	96.8	97.0	97.1	97.1	-	96.9	96.9	98.1	95.8

資料 : 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p.62.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98.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2>는 男女가 結婚하는 比率을 主要年齡群別로 제시한 것으로, 1960年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약 30餘年동안 結婚하는 比率을 보면 20-24歲 年齡에서 男女 모두 結婚率(Proportion Currently Married)이 점차 減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30-34歲 年齡에서 女子의 경우 1960년에는 약 92퍼센트가 結婚하였고, 1970년에는 1960년에 비해 3%「포인트」가 增加한

圖 1-1. 年齡別 女子的 結婚率의 變動推移：全國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for Female : Whole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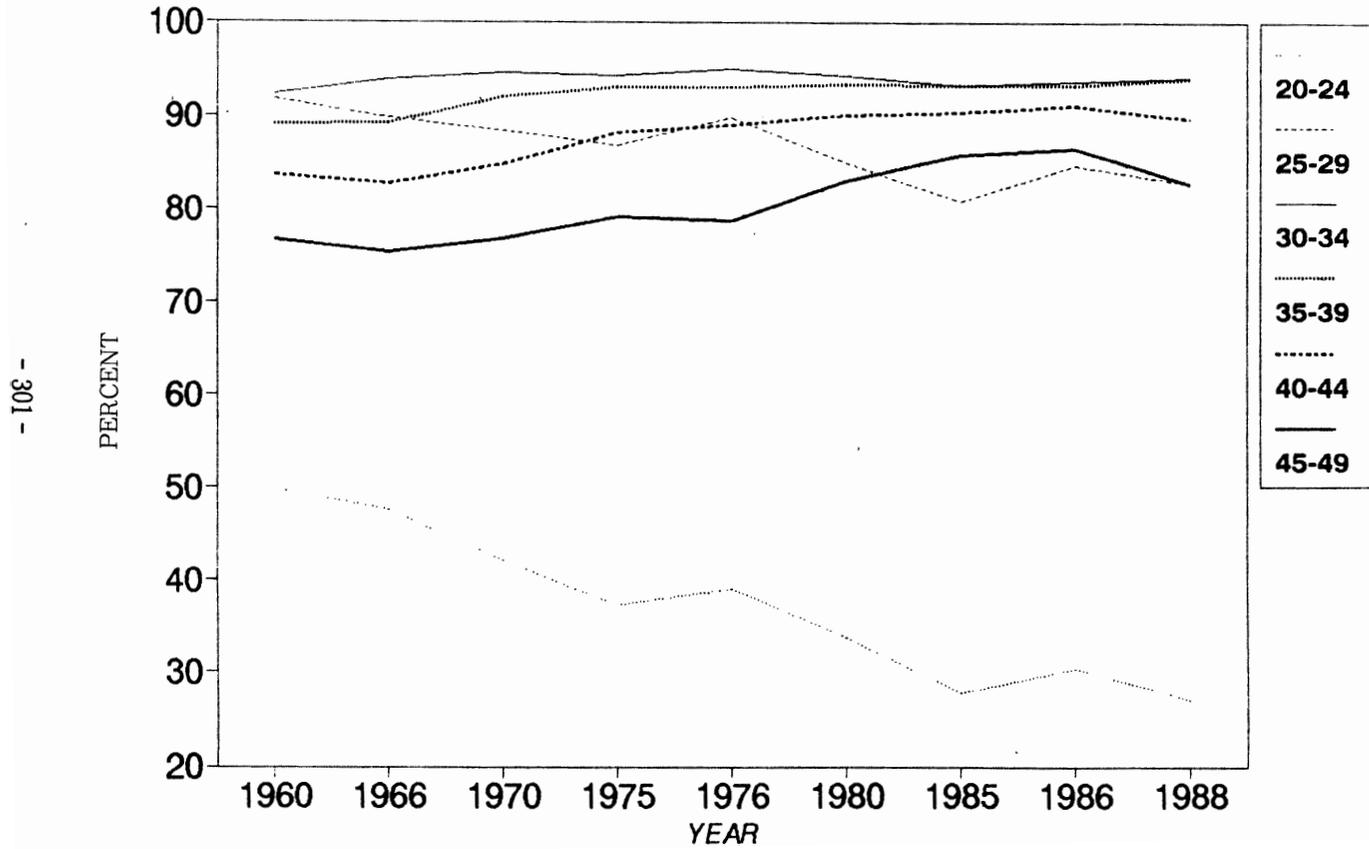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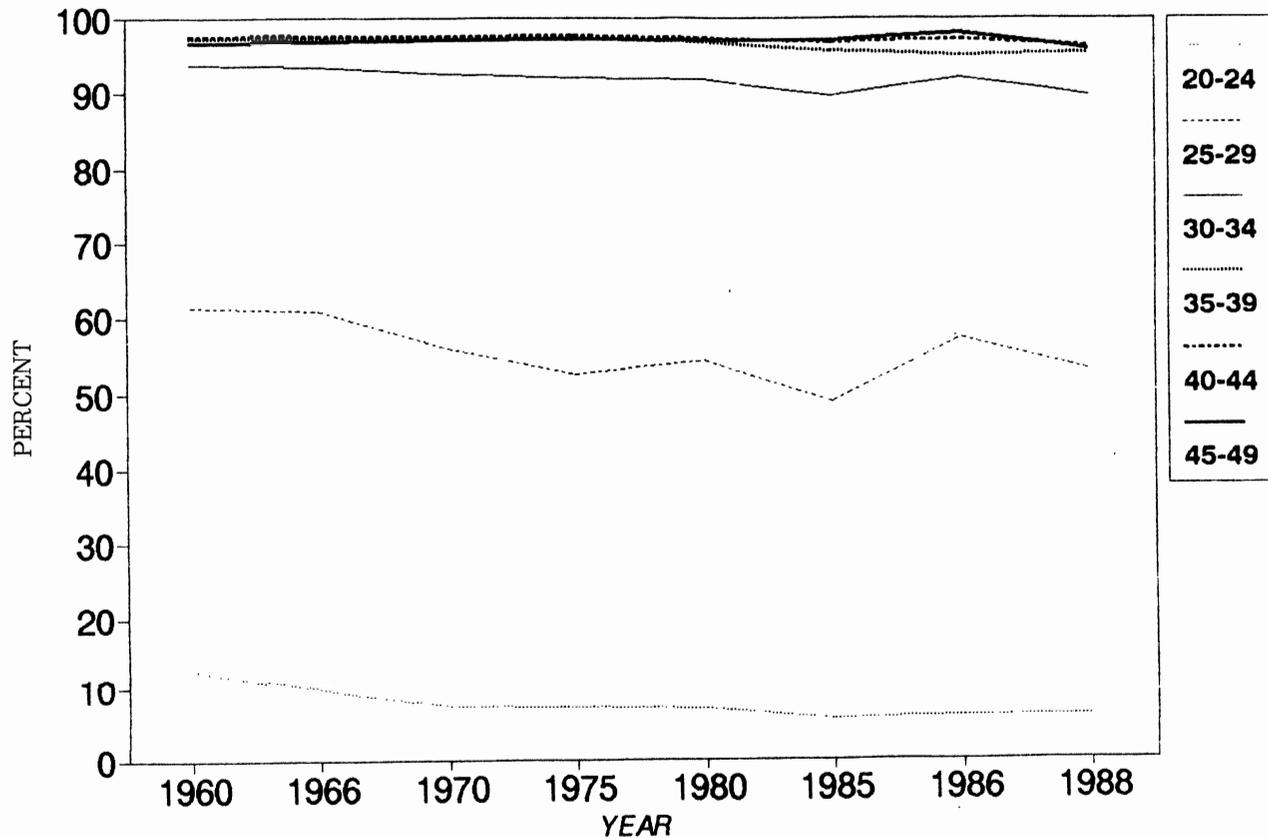


圖 1-2. 年齡別 男子的 結婚率의 變動推移：全國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for Male : Whole Country



약 95퍼센트가 結婚하는 比率을 보여 1988年인 최근에 이르기까지 94-95 퍼센트의 높은 수준에서 一定함을 보이고 있으며, 男子의 경우 1960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93-94퍼센트 수준에서 일정한 結婚比率을 나타냈으며, 1976년에 보인 약 92퍼센트의 結婚比率이 1980년까지 일정하다가 1985년에는 1980年の 結婚率에 비해 2%「포인트」가 減少한 약 90퍼센트의 結婚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988년까지 같은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 參照).

表 2. 性別 主要年齡群別 結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Sex and Prime Age Group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女子(Female)										
20-24	49.9	47.7	42.3	43.7	37.2	39.0	33.7	27.8	30.3	27.1
25-29	91.8	89.8	88.4	87.5	86.8	89.8	84.9	80.9	84.6	82.7
30-34	92.4	93.9	94.6	94.1	94.4	95.1	94.3	93.3	93.7	94.2
男子(Male)										
20-24	12.7	9.8	7.2	8.8	7.0	8.0	6.8	5.5	5.8	5.7
25-29	61.4	60.9	56.0	55.9	52.6	55.7	54.5	48.9	57.4	52.9
30-34	93.6	93.4	92.5	92.7	94.1	92.2	91.8	89.6	92.0	89.9

資料 : 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査, 1977.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1978, p.62.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98.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나. 地域別 結婚率의 變動

結婚率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은 女子가 結婚하는 比率을 年齡 및 地域別로 본 것으로, 市部와 郡部間的 結婚하는 比率에 젊은 年

齡層의 경우 多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5-19세의 경우, 市部에서는 1960년에 약 1퍼센트의 結婚比率을 보이며, 郡部에서는 약 3퍼센트의 結婚比率을 나타내 市部和 郡部間의 結婚比率의 差가 약 2퍼센트로써, 1970年代에도 市部和 郡部間에 같은 水準의 差異를 보이다가,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市部和 郡部間의 結婚率의 차이는 약 1퍼센트로써 結婚率의 差異가 減少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1퍼센트미만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어, 同年齡에서 대체로 郡部地域에 사는 女子들이 市部地域에 사는 女子들보다 1960年 以後 1988年에 이르기까지, 최근 30年동안 약 1-2퍼센트정도가 이미 結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歲의 경우는, 市部和 郡部間의 結婚比率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年齡群으로서, 1960년에 市部에서는 약 33퍼센트의 結婚比率, 郡部에서는 약 57퍼센트의 比率을 나타내 市部和 郡部間의 結婚比率의 差가 약 24퍼센트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에는 市部가 37퍼센트, 郡部가 49퍼센트로 약 12퍼센트의 差異를 보이고 있고, 1975년에는 市部가 약 32퍼센트, 郡部가 약 46퍼센트로 그 差異가 14퍼센트로 나타나, 市部和 郡部間의 結婚比率의 差異가 1960年代에 비해, 1970年代에 오면서 10퍼센트나 減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同年齡에서 1980년에 약 8퍼센트, 1985년에는 14퍼센트의 差異를 보이므로써 1970年代와 비슷한 水準의 差異를 나타내다가, 1988년에 오면서 약 18퍼센트라는 높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4歲 연령층에서 郡部地域에 사는 女子들이 市部地域의 女子들에 비해 12-25퍼센트가 이미 結婚한 것으로 나타났다. 25-29歲의 경우 1960년에 市部에서는 약 85퍼센트의 結婚比率을, 郡部에서는 약 95퍼센트의 比率을 나타내 市部和 郡部間의 結婚比率의 差가 약 10퍼센트를 보이며, 1970年代에는 약 5-7퍼센트, 1980年, 1985년에는 6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내다가, 1988년에 이르러 약 9퍼센트의 差異를 보이고 있어 同年齡에서 郡部地域의 女子들이 市部地域의 女子들보다 약 5-11퍼센트나 이미 結婚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市部·郡部間의 結婚比率의 差異의 幅이 20-24세의 女子들보다 7-14퍼센트나 낮게 나타나고 있는

表 3. 地域別 年齢別 女子の 結婚率の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for Female by Residence and Age

年齢(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全國(W.C.)										
15-19	2.4	3.8	2.8	3.2	2.6	1.7	1.7	0.8	0.7	0.7
20-24	49.9	47.7	42.3	43.7	37.2	39.0	33.7	27.8	30.3	27.1
25-29	91.8	89.8	88.4	87.5	86.8	89.8	84.9	80.9	84.6	82.7
30-34	92.4	93.9	94.6	94.1	94.4	95.1	94.3	93.3	93.7	94.2
35-39	89.1	89.2	92.0	91.5	93.2	93.2	93.4	93.3	93.3	94.1
40-44	83.7	82.7	84.8	86.6	88.2	88.9	90.1	90.4	91.1	89.6
45-49	76.6	75.2	76.8	76.6	79.1	78.6	83.1	85.9	86.6	82.8
市部(Urban)										
15-19	0.8	1.8	1.9	-	1.7	1.1	1.4	0.7	0.5	0.8
20-24	33.3	33.1	37.0	-	31.7	34.4	31.3	25.4	27.2	23.6
25-29	84.9	83.8	84.1	-	84.0	88.8	83.3	79.3	83.2	80.5
30-34	90.0	91.4	92.5	-	93.0	94.2	93.5	92.6	93.0	93.6
35-39	86.9	87.0	89.9	-	91.8	91.0	92.7	92.8	92.8	93.5
40-44	80.8	80.1	81.9	-	86.2	85.4	88.7	89.7	91.7	89.0
45-49	73.0	71.4	72.8	-	76.0	74.5	80.6	84.5	87.6	80.7
郡部(Rural)										
15-19	3.2	5.3	3.8	-	3.8	2.5	2.3	1.2	1.1	0.4
20-24	57.3	57.9	48.7	-	45.7	49.1	39.3	39.4	44.2	42.0
25-29	94.9	94.4	93.0	-	91.3	92.2	88.5	85.5	89.6	89.9
30-34	93.5	95.4	96.3	-	96.2	97.2	95.8	95.1	95.7	96.0
35-39	90.0	90.5	93.4	-	94.6	96.0	94.6	94.4	94.8	96.0
40-44	84.8	84.1	86.7	-	89.9	91.7	91.7	91.7	90.0	91.1
45-49	77.9	76.9	79.2	-	81.5	81.4	85.6	87.8	84.7	85.9

資料：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産力調査,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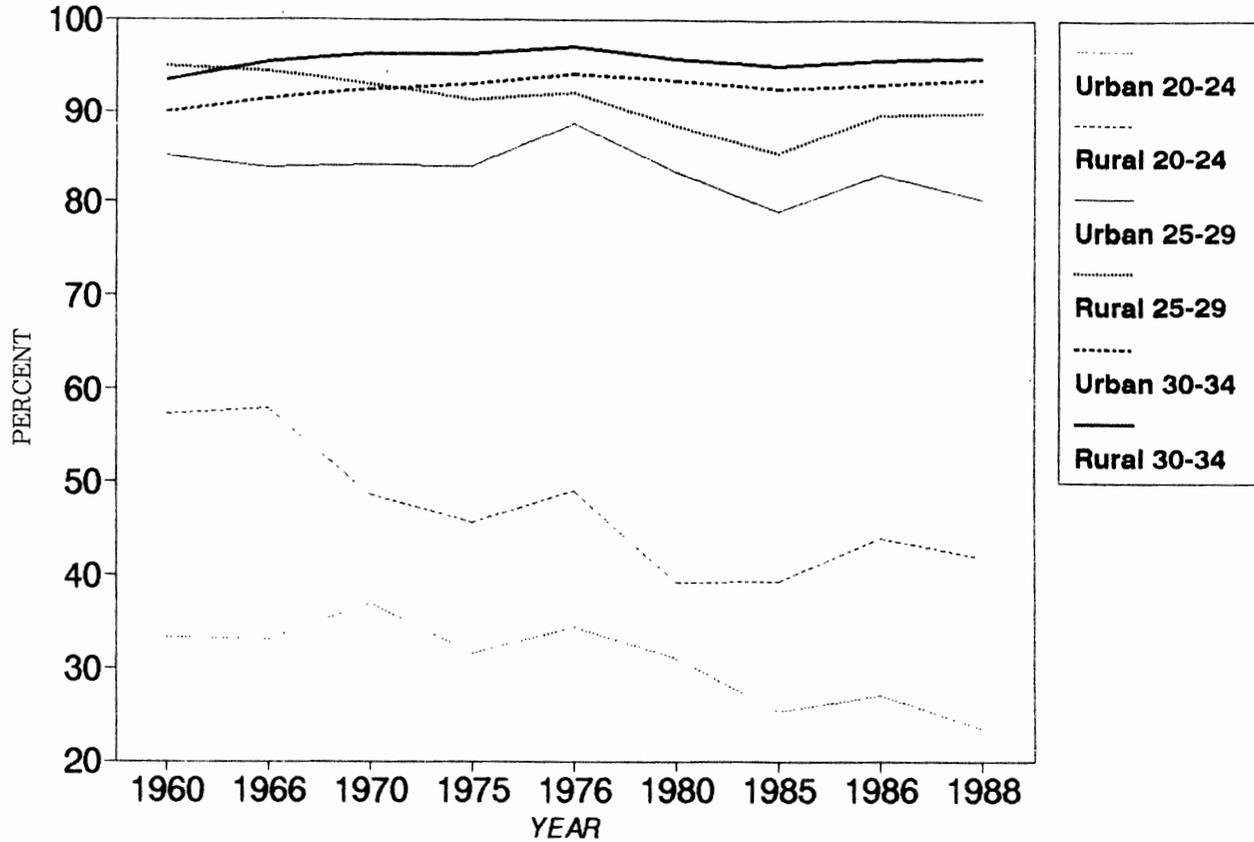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1978, p.63.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圖 2. 年齡別 女子의 結婚率의 變動推移 : 市部, 郡部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for Female : Urban, Rural



것을 알 수 있다. 30세이상의 女子들의 市部·郡部間の 結婚比率의 差異는 약 2-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女子의 市部和 郡部間に 結婚比率의 差異가 20-24세에서 12-25퍼센트를 보이고, 25-29歲에서 5-11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郡部に 사는 女子들은 20-29歲 사이에 대부분이 이미 結婚을 한 것에 반해, 市部に 사는 女子들은 30-34歲까지도 계속 結婚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表 3〉, 〈圖 2〉 參照).

〈表 4〉는 男子가 結婚하는 比率을 年齡 및 地域別로 본 것으로 15-19歲의 경우, 市部和 郡部間に 男子가 結婚하는 比率의 差는 1960年以後 1985年에 이르기까지 약 1퍼센트 미만의 수준을 보이며, 20-24세의 경우 두 地域間の 結婚比率의 差는 1960년에는 10퍼센트, 1965년에는 7퍼센트 수준을 보이다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2퍼센트, 1980년에는 1퍼센트 미만으로, 市部和 郡部間の 結婚比率의 差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85年과 1988년에는 市部地域의 結婚率이 郡部보다 약 1퍼센트나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25-29歲의 경우는 市部和 郡部間の 結婚比率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年齡層으로 1960年代에는 18-20퍼센트 정도의 差를 보이다가 1970年代에 오면서 5-6퍼센트 정도의 差를 보여서 1960年代에 비해 12-15퍼센트나 結婚比率의 差가 減少하는 趨勢를 보였고, 1980年代 中半에 접어들면서 市部地域의 結婚比率이 郡部地域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1985년에 0.3퍼센트, 1988년에는 2퍼센트나 市部地域에 사는 사람들이 郡部地域보다 일찍 結婚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의 경우, 地域間の 結婚率의 差異 幅이 약 1-5퍼센트로 나타났다. 따라서 男子의 市部和 郡部間に 結婚比率의 差異가 20-24세에서 1-10퍼센트 사이의 比率을 보이고 있고, 25-29세에서는 0.3-20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市部 및 郡部地域에 사는 男子들 대부분이 25-34歲 사이에 結婚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0年代와 1970年代 사이에서는 25-29歲 年齡層에서 市部和 郡部間の 結婚率의 差異의 幅이 5-20퍼센트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1980年代 中半에 접어들면서 20-24歲와 25-29歲 年齡에서

表 4. 地域別 年齡別 男子의 結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for Female by Residence and Age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全國(W.C.)										
15-19	0.7	0.5	0.3	0.3	0.3	0.5	0.2	0.1	0.3	0.1
20-24	12.7	9.8	7.2	8.8	7.0	8.0	6.8	5.5	5.8	5.7
25-29	61.4	60.9	56.0	55.9	52.6	55.7	54.5	48.9	57.4	52.9
30-34	93.6	93.4	92.5	92.7	94.1	92.2	91.8	89.6	92.0	89.9
35-39	97.3	97.4	97.3	97.3	96.7	95.7	96.7	95.7	95.0	95.3
40-44	97.5	97.5	97.5	96.9	97.7	97.4	97.3	96.7	97.2	96.2
45-49	96.6	96.8	97.0	97.1	97.1	-	96.9	96.9	98.1	95.8
市部(Urban)										
15-19	0.3	0.2	0.2	-	0.2	-	0.2	0.1	0.2	0.1
20-24	5.6	5.4	6.3	-	6.2	-	6.7	5.8	5.6	5.9
25-29	47.4	49.4	52.9	-	50.4	-	54.5	49.0	58.8	53.5
30-34	90.5	90.0	90.8	-	91.3	-	92.0	90.0	91.4	90.1
35-39	97.1	97.0	97.0	-	97.3	-	97.0	96.1	96.0	96.1
40-44	97.7	97.5	97.3	-	97.7	-	97.6	97.1	97.2	96.4
45-49	96.9	96.9	96.8	-	97.0	-	97.0	97.1	98.8	95.5
郡部(Rural)										
15-19	0.9	0.7	0.4	-	0.4	-	0.2	0.2	0.5	-
20-24	15.6	12.4	8.1	-	7.9	-	7.1	5.0	6.3	5.3
25-29	66.9	67.8	59.3	-	55.6	-	54.1	48.7	53.5	51.3
30-34	95.1	95.4	94.1	-	93.2	-	91.5	93.3	93.7	89.3
35-39	97.4	97.6	97.6	-	97.3	-	96.2	94.8	92.0	92.8
40-44	97.4	97.5	97.6	-	97.7	-	97.0	96.0	97.3	95.7
45-49	96.5	96.8	97.1	-	97.2	-	96.8	96.5	96.9	96.4

資料：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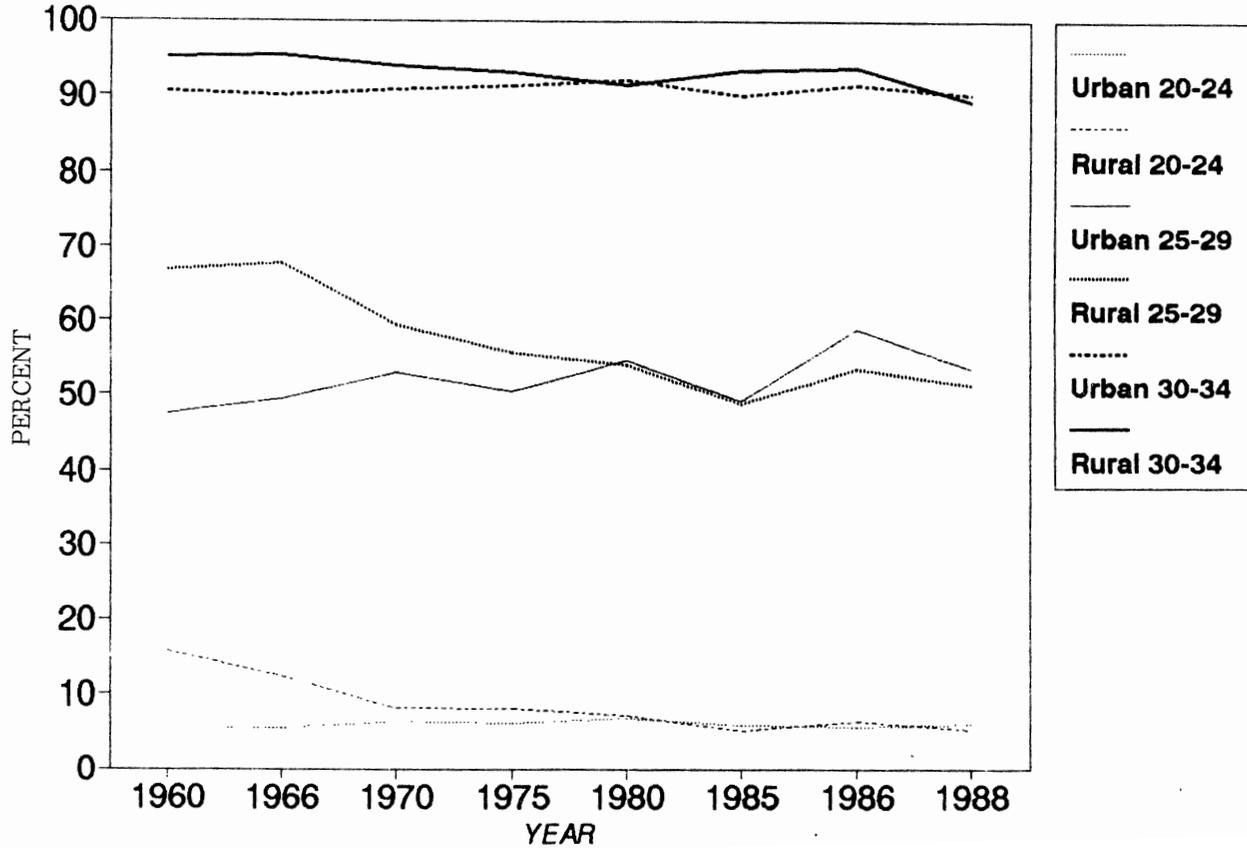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圖 3. 年齡別 男子的 結婚率의 變動推移 : 市部, 郡部

Chang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for Male : Urban, Rural



市部地域에 사는 男子들이 郡部地域의 男子들보다 높은 結婚比率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傾向은 1980年 以後 工業化 및 都市化가 深化됨에 따라 郡部地域 女子들의 대다수가 都市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結婚市場(Marriage Market)에서 婚姻適齡期의 男女性比의 不均衡을 초래하여 郡部に 사는 男子들은 35세 이후에도 未婚으로 남아 있게 되는 現象을 반영한 것으로 思料된다(〈表 4〉, 〈圖 4, 5〉 參照). 〈表 3, 4〉에서 보여준 市部·郡部別 結婚比率의 差異는 市部和 郡部地域間의 社會, 文化 및 經濟的인 발달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初婚年齡의 變動樣相

일반적으로 結婚은 일정한 年齡範疇內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結婚年齡은 男子가 女子보다 3-4세 연장인 경우가 보편적인 樣相이었고 또 再婚이나 特殊婚을 제외하고는 結婚은 20대를 전후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最近에 올수록 男女 모두가 初婚年齡에서 上昇趨勢가 나타나고 있고, 男女間 初婚年齡 差異도 좁혀지고 있음이 각종 調查結果에서 밝혀지고 있다(李興卓外, 1978). 初婚年齡의 결정요인은 社會·文化·生物學的 要因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이러한 範疇는 대개의 경우 特定 年齡에서 보편적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國家들이 20대에서 平均初婚年齡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年齡層에서 다소간의 上昇이 있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初婚年齡에 대한 관심은 社會·文化的인 측면 뿐 만 아니라 人口學的인 측면에서도 이를 중요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保健·醫療의 발달이 死亡力을 低下시키면서 人口增加現象을 가져왔고, 이러한 人口增加를 억제하는데는 出產調節과 함께 初婚年齡의 變化가 크게 作用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J. D. Buissink는 初婚年齡

이나 結婚率은 그 자체가 出産力과 無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J. Matras는 그 有關性을 주장하고도 있다. 따라서 初婚年齡의 變化는 人口學的으로 婚姻適齡人口의 性比에 影響을 받고, 出産力 나아가서 人口의 增減에 影響을 미치는 한편 다른 어떤 人口要素보다 그 社會의 文化 및 價値에 따라 크게 좌우될 뿐 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變動에 의해 影響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初婚年齡의 變化는 필연적으로 結婚樣相(Marriage Pattern)全體에 變化를 일으키며, 그 影響이 生活樣式(Way of Life)이나 社會制度에 과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初婚年齡을 間接推定하는 계산방법에는 두가지 方法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Hajnal이 개발한 方法으로, 센서스報告書에 있는 年齡別 未婚比를 사용하여 初婚年齡을 推定하는 方法으로 그 計算방법의 簡便性 때문에 자주 使用되고 있으며, 이 方法에서는 한 Cohort의 未婚比가 일정 시점에 나타난 각 年齡層의 未婚比와 같이 減少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假定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한 시점에서 特定年齡의 未婚比는 그 시점의 年齡構造에 크게 좌우되고 平均初婚年齡의 計算에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方法은 Agarwala方法으로 Hajnal方法에서 發生되는 弱점을 어느 정도 제거한 方法으로, 이 方法에서는 두 時點間 同一出生 Cohort의 未婚比上 差異를 반영하여 하나의 未婚比 減少表(Single Decrement Schedule)를 조성한 후 Hajnal의 공식에 따라 初婚年齡을 計算한다(曹大熙外, 1983).

本 研究에서는 分析方法에서도 밝혔듯이 Hajnal이 개발한 方法을 사용하여 初婚年齡을 구하였으며, 아울러 全數調查인 센서스資料와는 資料의 代表性이라는 점에서 數値가 同質하지는 않으나, 가장 最近까지의 初婚年齡의 變化趨勢를 살펴보기 위하여 4個年度의 標本調查資料를 함께 제시하였다.

#### 가. 未婚率의 變動

우선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分析하기 전에 年度 및 地域別로 男·女の

未婚比率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性 및 地域別 未婚率을 보면 女子의 경우 15-19歲 年齡層에서 1960년에는 98퍼센트에서, 1970년에는 97퍼센트로 1%「포인트」 감소하다가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98퍼센트, 1985년과 1988년에 99퍼센트를 보여 1960年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上昇趨勢로 거의 비슷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세 이하 女子들의 未婚하는 慣習이 크게 줄어든데 기인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20-24歲 年齡層에서는 1960년에 49퍼센트에서 1970년에 57퍼센트로 약 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1980年代에도 계속 上昇하여 1980년에 66퍼센트 1985년에 72퍼센트, 最近인 1988년에는 73퍼센트로써 계속 큰 폭으로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女子의 初婚年齡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5-29歲 女子의 未婚率을 보면 1960年以後 계속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1960년에 5퍼센트에서 1970년에 10퍼센트로 다시 1980년에는 14퍼센트, 1985년에는 18퍼센트를 보이다가 1988년에는 17퍼센트를 보이므로써 최근에 들어와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는 晩婚의 傾向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男子의 未婚率을 보면 15-34歲層은 女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60年代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 점차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女子의 未婚率과 비교하여 보면, 女子의 20-24歲層과 男子의 25-29歲層이 女子의 25-29歲層과 男子의 30-34歲層의 未婚率이 비슷하게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男子들이 34歲까지는 結婚을 하고 있으며 女子에 비해 약 5歲 程度 늦게 結婚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最近 未婚率은 男·女 모두 24歲 以前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30歲 以後에도 未婚率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未婚者의 數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初婚年齡이 높아지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分析되며, 40歲 以上の 年齡層을 볼 때 男女 모두 未婚率이 0.5퍼센트 이하라는 점은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結婚을 하되, 다만 그 時期를 점차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表 5〉, 〈圖 4〉 參照).

表 5. 性別 年齡別 未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Single by Sex and Age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女子(Female)										
15-19	97.5	96.1	97.1	96.7	97.6	98.3	98.2	99.1	99.3	99.3
20-24	49.0	51.6	57.2	55.3	62.6	60.8	66.1	72.1	69.4	72.9
25-29	4.9	7.7	9.7	10.0	11.1	8.7	14.1	18.4	14.4	16.5
30-34	0.6	1.0	1.4	1.4	1.8	1.8	2.7	4.3	4.0	4.4
35-39	0.2	0.3	0.5	0.5	0.6	0.7	1.0	1.6	1.0	1.2
40-44	0.1	0.1	0.2	-	0.2	0.3	0.5	0.7	-	0.8
45-49	0.1	0.1	0.1	-	0.2	0.1	0.3	0.4	0.6	0.3
50+	0.2	0.1	0.1	-	0.1	0.1	0.1	0.2	0.3	0.1
男子(Male)										
15-19	99.3	99.5	99.7	99.6	99.8	98.0	99.8	99.9	99.7	99.9
20-24	87.0	90.0	92.6	90.9	93.3	91.3	93.1	94.4	94.2	94.2
25-29	37.3	38.4	43.4	43.4	47.3	43.8	45.2	50.7	41.7	46.5
30-34	4.7	5.3	6.4	5.5	7.1	6.4	7.3	9.4	7.5	8.8
35-39	0.9	1.0	1.2	1.0	1.4	1.0	1.7	2.7	2.4	2.2
40-44	0.3	0.3	0.4	1.0	0.4	0.3	0.7	1.1	0.3	0.6
45-49	0.2	0.2	0.2	-	0.3	0.2	0.4	0.6	-	0.5
50+	0.2	0.1	0.1	-	0.2	0.1	0.2	0.3	0.1	0.2

資料 : 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査, 1977, p.66.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査, 1978, p.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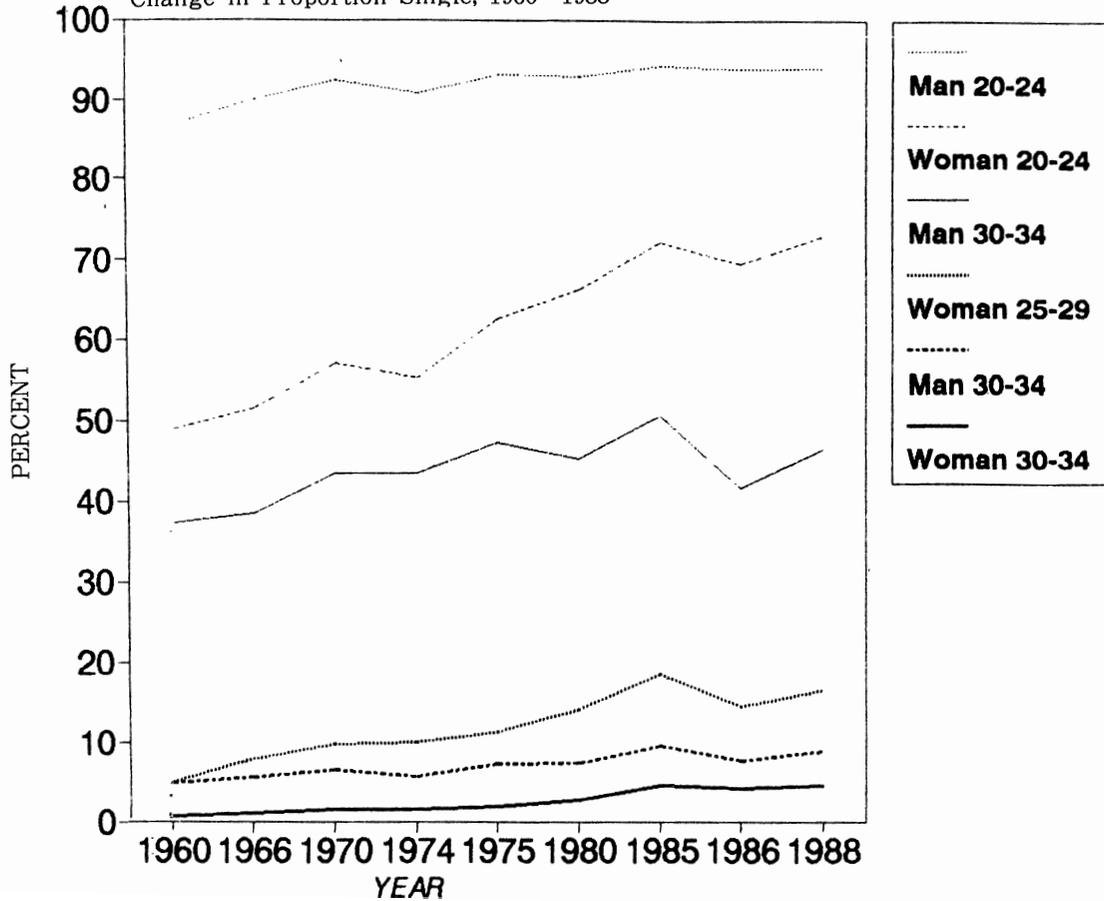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6, 7>은 각각 女子·男子의 未婚比率을 年齡 및 地域別로 본 것으로 結婚適齡期인 20-24세의 女子의 未婚率은 郡部보다 市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5-34歲의 年齡群에서도 같은 傾向을 보이고 있는 반면 男子에서는 1960年代 以後 1970年代까지는 女子와 같은 傾向을 보이고

圖 4. 性別 年齡別 未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Single, 1960—1988



있으나 1980년부터 20-34歲層에 걸쳐 郡部地域이 市部地域보다 未婚率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市部和 郡部間의 未婚率의 差異의 幅이 1960年代 이후 最近에 이르기까지 점차 줄어드는 現象이 男女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市部の 未婚率은 비교적 비슷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郡部の 未婚率이 큰 폭으로 上昇한 結果로 思料된다.

表 6. 地域別 年齡別 女子의 未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Female Proportion Single for Female by Residence and Age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全國(W.C.)										
15-19	97.5	96.1	97.1	96.7	97.6	98.3	98.2	99.1	99.3	99.3
20-24	49.0	51.6	57.2	55.3	62.6	60.8	66.1	72.1	69.4	72.9
25-29	4.9	7.7	9.7	10.0	11.1	8.7	14.1	18.4	14.4	16.5
30-34	0.6	1.0	1.4	1.4	1.8	1.8	2.7	4.3	4.0	4.4
35-39	0.2	0.3	0.5	0.5	0.6	0.7	1.0	1.6	1.0	1.2
市部(Urban)										
15-19	99.1	98.2	98.0	-	98.2	97.7	98.6	99.3	99.5	99.2
20-24	65.4	66.1	62.6	-	68.0	66.5	68.6	74.5	72.5	76.3
25-29	10.4	14.2	13.7	-	14.5	10.2	15.8	20.0	16.0	18.6
30-34	1.2	2.0	2.3	-	2.9	2.3	3.3	4.8	4.4	5.1
35-39	0.3	0.6	0.8	-	1.0	0.8	1.2	1.8	1.4	1.4
郡部(Rural)										
15-19	96.6	94.7	96.1	-	96.2	96.9	97.6	98.8	98.9	99.6
20-24	41.5	41.4	50.8	-	54.0	50.6	60.4	71.6	55.8	58.0
25-29	2.3	3.6	5.4	-	7.4	6.9	10.4	13.6	9.2	9.4
30-34	0.3	0.4	0.7	-	1.0	1.1	1.6	2.6	2.9	1.8
35-39	0.1	0.2	0.2	-	0.3	0.7	0.6	1.0	-	0.4

資料 : 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p.63.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7. 地域別 年齡別 男子의 未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Proportion Single for Male by Residence and Age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c)</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d)</sup>	1988 <sup>e)</sup>
全國(W.C.)										
15-19	99.3	99.5	99.7	99.6	99.8	98.0	99.8	99.9	99.7	99.9
20-24	87.0	90.0	92.6	90.9	93.3	91.3	93.1	94.4	94.2	94.2
25-29	37.3	38.4	43.4	43.4	47.3	43.8	45.2	50.7	41.7	46.5
30-34	4.7	5.3	6.4	5.5	7.1	6.4	7.3	9.4	7.5	8.8
35-39	0.9	1.0	1.2	1.0	1.4	1.0	1.7	2.7	2.4	2.2
市部(Urban)										
15-19	99.5	99.8	99.8	-	99.7	98.1	99.8	99.9	99.8	99.9
20-24	93.5	94.5	93.5	-	93.7	92.1	93.2	94.2	94.4	94.0
25-29	51.4	50.0	46.6	-	49.2	46.0	45.2	50.7	40.0	46.0
30-34	7.8	8.8	8.3	-	7.9	7.4	7.3	9.2	8.4	8.6
35-39	1.2	1.3	1.5	-	1.5	1.3	1.7	2.5	2.0	1.8
郡部(Rural)										
15-19	98.8	99.2	99.6	-	99.6	97.8	99.7	99.8	99.5	99.9
20-24	83.5	87.4	91.7	-	92.0	90.3	92.8	94.9	93.7	94.7
25-29	31.6	31.3	40.0	-	43.9	40.9	45.3	50.9	46.5	47.9
30-34	3.2	3.2	4.7	-	5.7	5.1	7.2	10.0	5.0	9.7
35-39	0.8	0.7	0.9	-	1.2	0.7	1.9	3.1	3.5	3.5

資料：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b)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c)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d)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e)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圖 5. 年齡別 女子的 未婚率의 變動推移, 1969-1988 : 市部, 郡部

Change in Proportion Single for Female, 1960-1988 : Urban, R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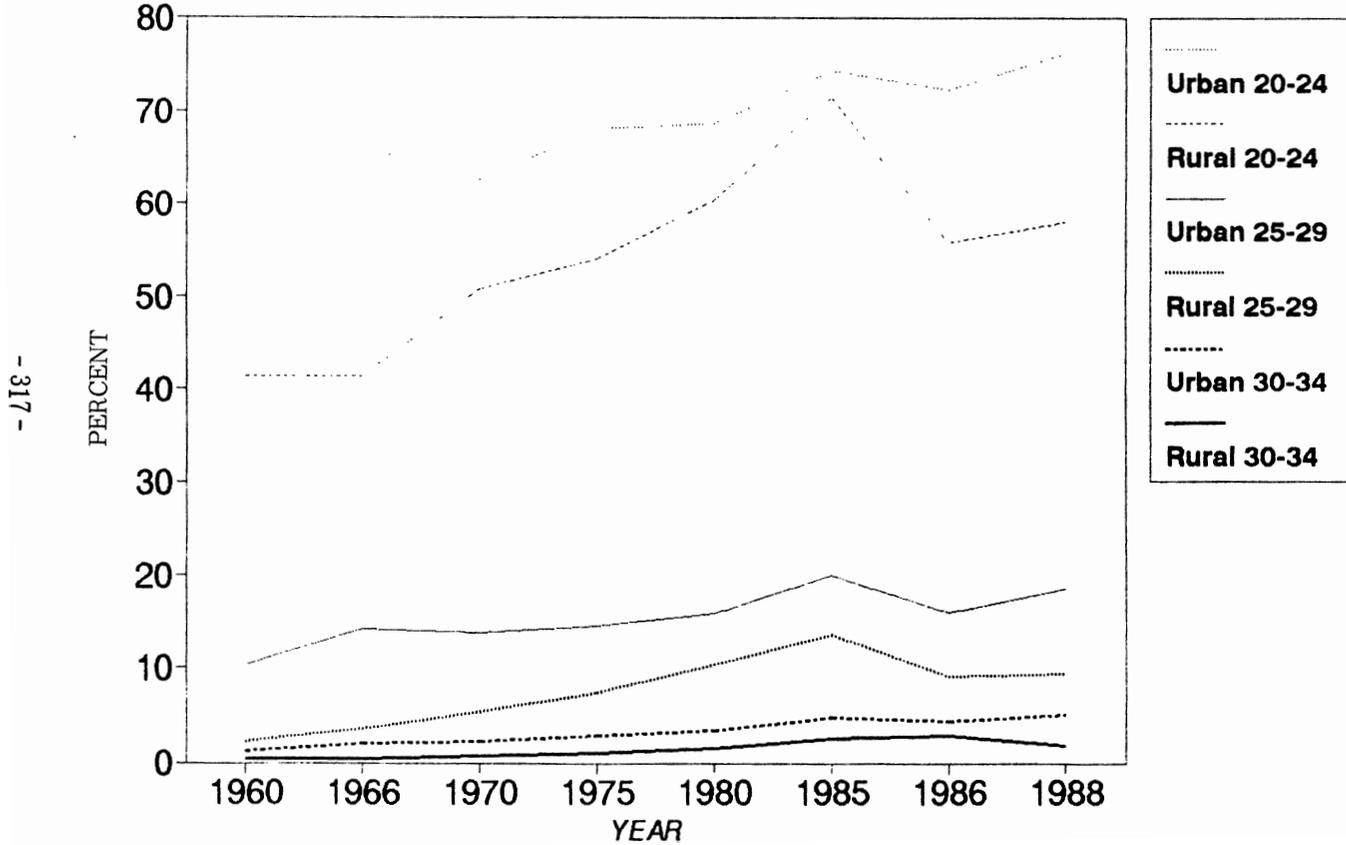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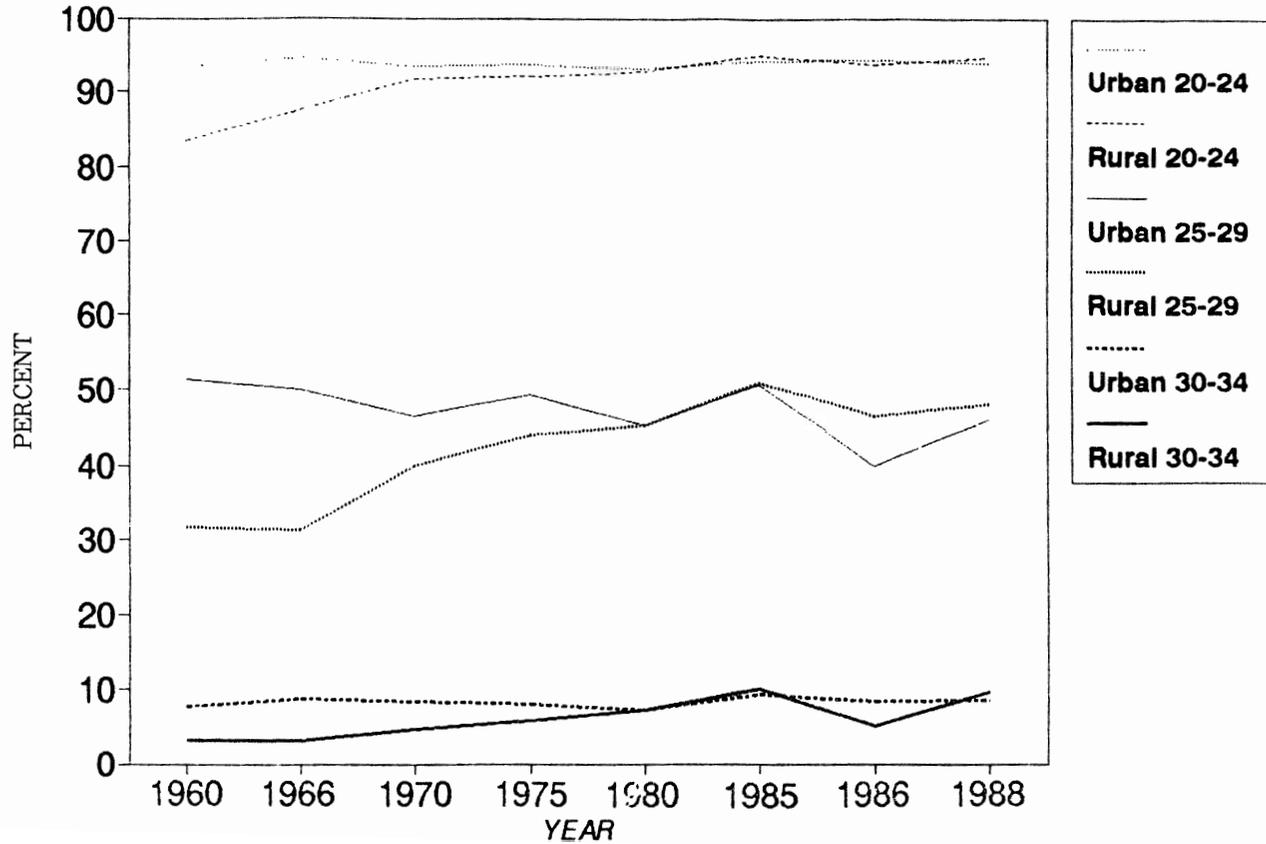


圖 6. 年齡別 男子의 未婚率의 變動推移, 1960—1988 : 市部, 郡部  
 Change in Proportion Single for Male, 1960—1988 : Urban, Rural



#### 나. 男·女別 平均初婚年齡의 變動

먼저 1960年以後 最近 30年間 未婚率에 의한 우리나라의 平均初婚年齡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의 變化推移를 보면, 1960年에서 1975年 사이에 계속 上昇趨勢를 보이다가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停滯現象을 보이고 있다. 男子의 경우 1960년에는 25.4歲에서 1970년에는 27.1歲, 1975년에는 27.4歲로 女子는 1960년에는 21.6歲에서 1970년에는 23.3歲, 1975년에는 23.6歲로 점차 上昇勢를 보이다가, 男女 各各 1980년에는 27.3歲, 24.1歲에서 1985년에는 27.8歲, 24.8歲로 다시 1988년에는 27.6歲, 24.7歲로 1980年代에 오면서 停滯現象을 보이고 있다. 또한 男女間 平均初婚年齡의 差異가 1960年代以後, 1970年代까지 거의 20年동안 4歲 程度로 일정한 水準을 보이다가 1980年代에는 그 差異가 약 3歲 程度로 감소한 水準에서 역시 일정한 差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4年, 1976年과 1986年, 1988年 調査資料에서 구한 平均初婚年齡은 1970年, 1975年과 1985年 센서스資料에서 얻어진 初婚年齡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初婚年齡이 下降해서가 아니라 調査資料와 센서스資料의 不一致에서 기인된 것으로 思料된다(〈表 8〉, 〈圖 7〉 參照).

이같은 現象들로 볼 때, 첫째 男女의 경우에서 平均初婚年齡이 계속 上昇하여 왔는데 이것은 20代와 30代 初半의 未婚率이 계속 上昇하므로써 오는 現象으로 보이며 이유는 지속적인 經濟·社會發展에 따라 젊은 年齡層의 教育 및 社會參與 機會擴大에 따른 晚婚傾向으로 解釋할 수 있다. 둘째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差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男子의 初婚年齡이 減少해서가 아니고 女子의 初婚年齡이 다소 上昇한데서 기인된다(〈圖 7〉 參照).

〈表 9〉는 結婚確率(Marriage Probabilities)을 年齡 및 性別로 본 것으로 男子의 경우 센서스資料를 토대로 하여 산출된 1960年에서 1985년까지의 結婚確率은, 1966年の 20-24歲群의 結婚確率만 제외하고 20-29歲 사이에서 계속 下降하고 있으나, Survey資料를 토대로 산출된 1974年, 1976

表 8. 性別 未婚比率에 의한 平均初婚年齡 및 男女의 年齡差異 變動推移, 1960—1988  
Trends in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and Difference for Male and Female

년 도 Year	남 자 Male	여 자 Female	차 Difference
1960 <sup>a)</sup>	25.4	21.6	3.8
1966 <sup>b)</sup>	26.7	22.8	3.9
1970 <sup>b)</sup>	27.1	23.3	3.8
1974 <sup>c)</sup>	27.2	23.2	4.0
1975 <sup>b)</sup>	27.4	23.6	3.8
1976 <sup>d)</sup>	27.2	23.5	3.7
1980 <sup>b)</sup>	27.3	24.1	3.2
1985 <sup>b)</sup>	27.8	24.8	3.0
1986 <sup>e)</sup>	27.3	24.3	3.0
1988 <sup>f)</sup>	27.6	24.7	2.9

資料 : a) Y, Kim, *Age at Marriage and Trend of Fertility in Korea*, World Population Conference, 1965, Vol. II, Belgrade, Published in New York, 1967, p.147, Table 1.

b)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c) E. H. Choe and S. K. Kong, *Changing Fertility and Pattern of Contraceptive Use*, Seoul, KIFP, 1977, p.16(Text in English).

d)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1978,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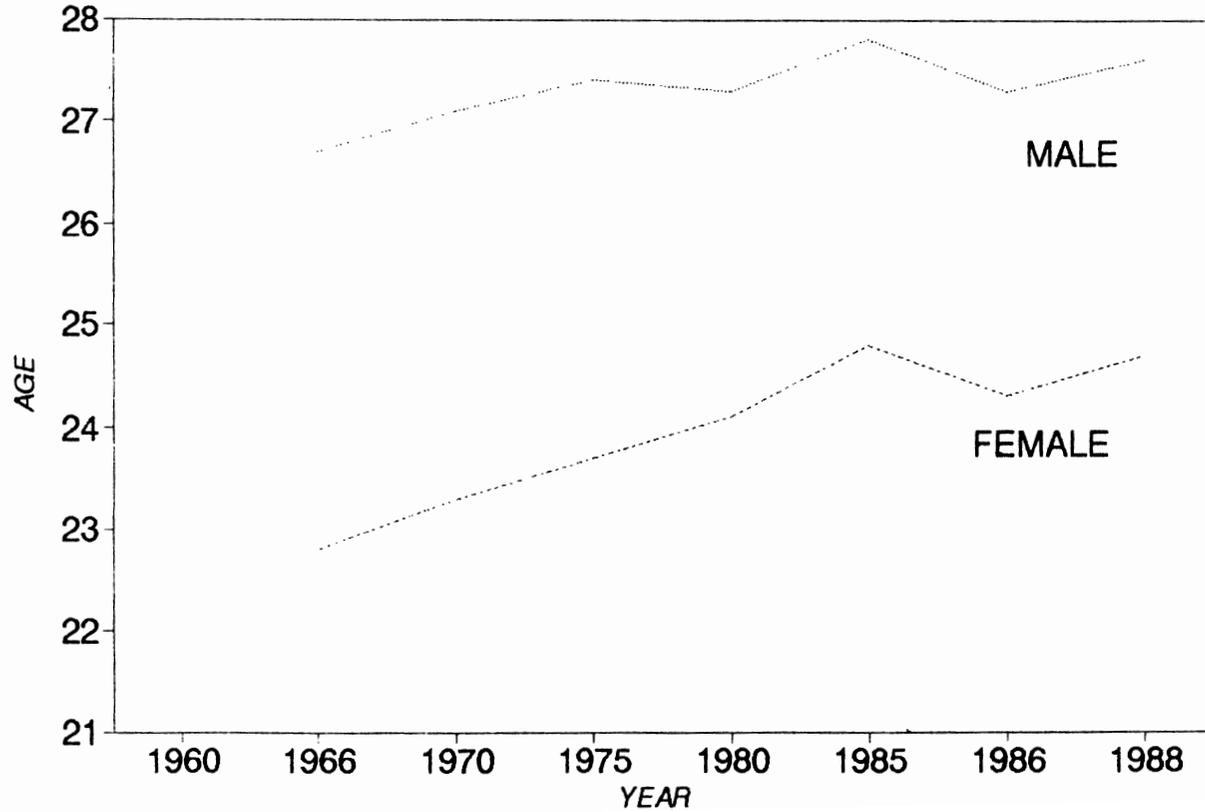
e) 孔世權 外, 韓國 家族 構造의 變化—家族生活週期 調査를 中心으로 韓國 人口保健研究院, 1987, p.94.

f) 文顯相 外, 1988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年과 1986年の 結婚確率은 1970年, 1975年과 1985年の 結婚確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女子의 경우도 1974年の 15—24歲群의 結婚確率만 제외하고 15—24세 사이에서 同一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表 8>에서

圖 7. 性別 未婚比率에 의한 平均 初婚年齡 .

Trends in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도 밝혔듯이 1970年에서 1985年 사이에 初婚年齡은 계속 上昇하고 있고, 1974年, 1976年 및 1986年 사이에서도 上昇速度는 微微하지만 上昇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 性別 年齡別 結婚確率의 變動推移, 1960—1988

Change in Marriage Probabilities in 5-Year Interval by Sex and Age

年齡(Age)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a)</sup>	1975 <sup>a)</sup>	1976 <sup>a)</sup>	1980 <sup>b)</sup>	1985 <sup>b)</sup>	1986 <sup>c)</sup>	1988 <sup>d)</sup>
女子(Female)										
10-14	.0252	-	-	-	-	-	-	-	-	-
15-19	.4986	.4628	.4106	.4278	.3580	.3810	.3274	.2728	.2570	.3086
20-24	.9009	.8502	.8308	.8623	.8114	.8571	.7868	.7452	.7561	.7266
25-29	.8799	.8706	.8523	.8202	.8237	.7917	.8081	.7687	.8091	.7697
30-34	.6730	.6910	.6874	.5547	.6802	.6164	.6407	.6242	.8095	.8049
35-39	.2896	.5969	.5932	.5246	.5594	.4967	.5165	.5550	-	.4375
40-44	.1793	.2096	.2443	.2034	.3401	.1914	.3760	.4110	-	-
45-49	.0909	.1111	.1333	.1123	.1053	.1008	-	-	-	-
男子(Male)										
10-14	.0079	-	-	-	-	-	-	-	-	-
15-19	.1265	.0949	.0710	.0882	.0683	.0746	.0671	.0543	-	-
20-24	.5701	.5736	.5309	.5236	.4938	.5224	.5141	.4626	.4244	-
25-29	.8736	.8621	.8522	.8725	.8515	.8542	.8396	.8144	.8417	.8141
30-34	.8089	.8186	.8159	.7500	.8018	.8439	.7598	.7145	.7500	.8070
35-39	.6636	.7092	.6836	.5580	.6446	.6300	.5946	.6054	-	.7879
40-44	.2814	.4281	.3956	.4262	.3870	.3243	.3728	.4117	-	-
45-49	.1576	.3125	.2727	.2857	.2414	.2174	.3245	.3456	-	-

資料：a) 李興卓, 韓大愚, 初婚年齡과 出產力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8, p.16.

b) 經濟企劃院, 1980年,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c)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d) 文顯相 外, 1988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다. 地域別 平均初婚年齡의 變動

〈表 10〉은 未婚比率에 의한 平均初婚年齡을 地域別·性別로 제시한 것으로, 우선 市部地域에서의 男女平均初婚年齡은 미세한 정도이지만 계속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고 男女間의 差는 1960年代와 1970년까지 약 4歲 程度의 差異를 보이다가 1975年 以後 最近인 1988年에 이르기까지 약 3歲 程度의 差異를 보임으로써, 市部地域의 男女間 平均初婚年齡의 差異의 幅은 1960年 以後 減少 趨勢에 있으며 특히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微細하나마 더욱 좁혀지고 있다.

한편, 郡部地域에서의 男女 平均初婚年齡 역시 小幅이나마 上昇現象을 나타내고 있고, 男女間의 差는 1960年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약 4歲 程度의 差異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郡部地域의 男女 平均初婚年齡이 같이 上昇한 결과로 보인다.

市部·郡部地域間의 平均初婚年齡差를 男女別로 보면, 男子의 경우 1960年代에 약 2歲 程度를 보이다 1970年代에는 약 1歲로, 1980年代에는 1歲 未滿으로 거의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기할만한 사실은 1985年 이후부터 郡部地域에 비해 市部地域 男子의 初婚年齡이 오히려 減少 趨勢에 있다는 점인데, 이는 市部地域에서 初婚年齡 自體가 높아지지 않은데다가, 初婚年齡이 비교적 낮은 郡部地域의 男子들이 市部로 吸收·編入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女子의 경우에도 1960年代에 약 2歲 程度의 差異를 보이고, 1970年代와 1980年代 中半까지 1歲 程度의 差를 보이다가, 1988年에 와서는 2歲 程度의 差異를 나타내므로써 市部地域에 거주하는 女子의 경우 상당수가 晩婚을 하는 傾向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表 10〉, 〈圖 8〉 參照).

#### 라. 平均初婚年齡과 中位初婚年齡 比較

結婚時期的 變動은 대체로 初婚年齡을 基礎로 觀察되며, 初婚年齡의 變動은 平均初婚年齡(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과 中位初

表10. 地域 및 性別 未婚比率에 의한 平均 初婚年齡의 變動推移, 1960-1988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Residence and Sex

年度 Year	全 國 whole country			市 部 Urban			郡 部 Rural		
	男	女	差	男	女	差	男	女	差
	Male	Female	Diff	Male	Female	Diff	Male	Female	Diff
1960 <sup>a)</sup>	25.4	21.6	3.8	26.8	22.8	4.0	24.9	21.0	3.9
1966 <sup>a)</sup>	26.7	22.8	3.9	27.7	24.0	3.7	26.1	22.0	4.1
1970 <sup>a)</sup>	27.1	23.3	3.8	27.5	23.8	3.7	26.8	22.6	4.2
1975 <sup>a)</sup>	27.4	23.6	3.8	27.6	24.2	3.4	27.1	22.9	4.2
1976 <sup>b)</sup>	27.2	23.5	3.7	27.5	23.9	3.6	26.8	22.8	4.0
1980 <sup>a)</sup>	27.3	24.1	3.2	27.4	24.3	3.1	27.3	23.5	3.8
1985 <sup>a)</sup>	27.8	24.8	3.0	27.8	25.0	2.8	27.9	24.0	3.9
1986 <sup>c)</sup>	27.3	24.3	3.0	27.3	24.6	2.7	27.4	23.3	4.1
1988 <sup>d)</sup>	27.6	24.7	2.9	27.5	25.0	2.5	27.8	23.5	4.3

資料 : a) 經濟企劃院, 196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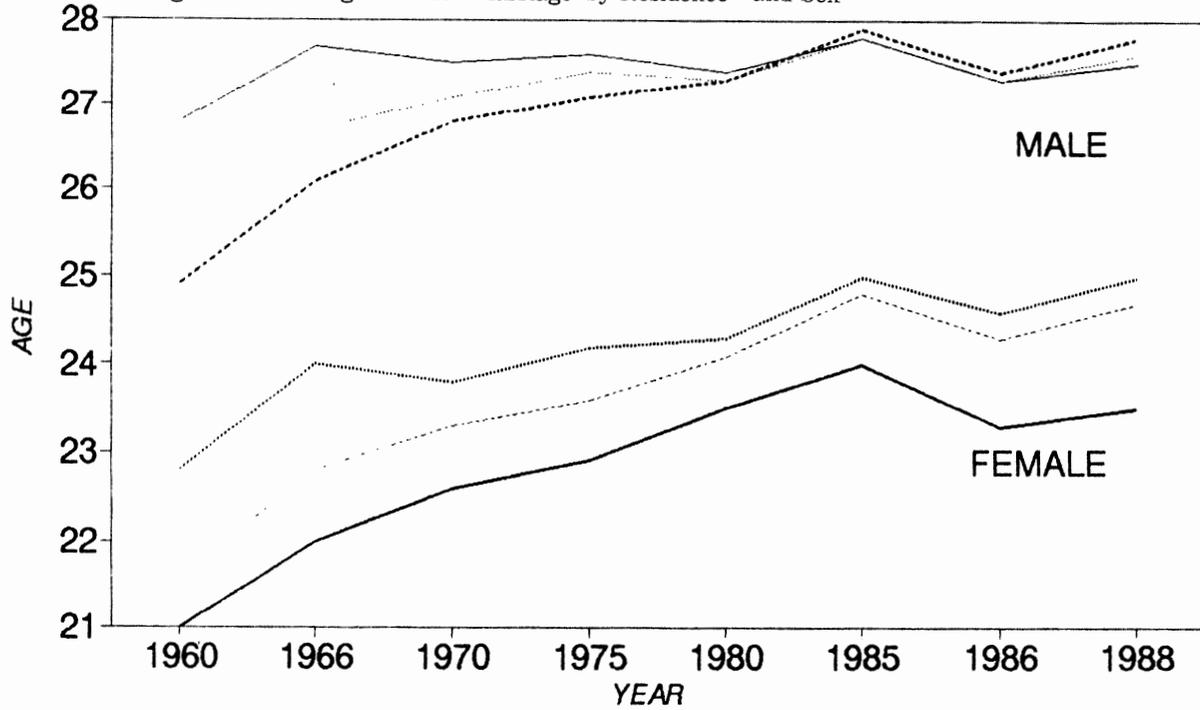
b)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1978, p.67.

c)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d)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婚年齡을 측정하여 比較觀察된다(崔淳, 1990). <表 11>은 初婚年齡을 未婚比率에 의한 平均初婚年齡(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과 中位初婚年齡을 1960년부터 1988년까지 살펴본 것으로, 平均初婚年齡은 앞의 <表 8>에서 분석한 바와 같고, 中位初婚年齡(Median Age at First Marriage)의 變動趨勢를 보면 男子의 경우, 1975년까지는 미세한 上昇趨勢를 보였으나 1980년에는 다소 下降勢를 나타내다가, 1985년에는 다시 1975年 水準으로 上昇하였고 1988년에는 1985년에 비해 약 1歲 程度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女子의 경우는 平均初婚年齡과 마찬가지로 1966年 以後 지속적인 上昇趨勢를 나타내다가 1988년에는 1985년에 비해 약 2歲 程度 下降한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 男子의 平均初婚年齡과 中位初婚年齡間

圖 8. 地域 및 性別 未婚比率에 의한 平均 初婚年齡의 變動推移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Residence and Sex



.....	.....	——
.....	.....	——
.....	.....	——
.....	.....	——
.....	.....	——
.....	.....	——

에 관찰되는 初婚年齡의 差異를 보면 1975年 以後부터 두 지표상의 差異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980年과 1985년에는 더 큰 差異를 나타내, 1980년에 中位初婚年齡이 26.9歲이었던 것이 1985년에 27.2歲로 높아졌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男子들의 結婚年齡이 높아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中位初婚年齡과 平均初婚年齡의 差異가 1980年の 0.4歲로부터 1985년에 0.6歲로 벌어졌다는 사실은 最近에 이르면서 비교적 늦게 결혼하는 男子가 1980년에 비해 1985년에 더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現象은 女子의 경우 1970年 以後부터 두 지표상의 差異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전체적인 變動은 男子의 경우와 同一한 趨勢를 보여준다(〈表 11〉 參照).

表11. 性別 平均 및 中位初婚年齡의 變動推移, 1960-1988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and Medi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初婚年齡 SMAM	1960 <sup>a)</sup>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4 <sup>b)</sup>	1975 <sup>a)</sup>	1976 <sup>b)</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c)</sup>	1988 <sup>d)</sup>
平均初婚年齡(SMAM)										
男子(Male)	25.4	26.7	27.1	27.2	27.4	27.2	27.3	27.8	27.3	27.6
女子(Female)	21.6	22.8	23.3	23.2	23.6	23.5	24.1	24.8	24.3	24.7
中位初婚年齡(MAFM)										
男子(Male)	-	26.8	27.0	26.3	27.2	26.3	26.9	27.2	27.0	26.0
女子(Female)	-	22.7	23.0	22.5	23.3	22.6	23.7	24.2	21.0	22.0
差異(SMAM-MAFM)										
男子(Male)	NA	-0.1	0.1	0.9	0.2	0.9	0.4	0.6	0.3	1.6
女子(Female)	NA	0.1	0.3	0.7	0.4	0.9	0.4	0.6	3.3	2.7

資料 : a) 崔焯, 結婚類型의 最近動向, 1990年 韓國社會學會 發表資料, 未發刊, p.6.

b) 李興卓, 韓大愚, 初婚年齡과 出生力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8.

c)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家族生活 週期調査를 中心으로,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d)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生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12〉는 地域別 男女間의 平均初婚年齡(SMAM)과 中位初婚年齡(MA-FM)의 變動趨勢를 보여주는 데 平均初婚年齡은 앞의 〈表 10〉에서 分析한 바와 같다. 中位初婚年齡은 男子의 경우 市部地域에서는 1980年, 1986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年 以後 期間別로 微細한 幅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面部의 경우 中位初婚年齡은 1966年 以後 지속적인 上昇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80年과 1985년에 두드러진 上昇現象을 보여준다. 面部에 거주하는 男子의 경우 1980년에 中位初婚年齡이 급격하게 떨어진 市部나 邑部の 경우와는 달리 1980년에 中位初婚年齡은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1980年 以後 이들의 初婚年齡은 市部에 거주하는 男子와 거의같은 水準에 있거나 더 높은 水準에 있음을 볼 수 있다. 面部 男子의 최근 平均初婚年齡이 급격하게 上昇하는 現象은 1980년까지 이들의 中位初婚年齡이 거의 變動이 없었으나 1985年의 경우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面部의 男子들 대부분의 結婚年齡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1975년까지는 平均初婚年齡과 中位初婚年齡이 큰 差異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반해 1980年 以後 두 지표상의 差異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980年 以後 面部에 거주하는 男子들의 晩婚 傾向이 최근 급격하게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女子의 경우는 初婚年齡의 水準만 差異가 있을 뿐 세 지역 모두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中位初婚年齡과 平均初婚年齡을 비교해 보면, 面部 女子의 경우 晩婚 比率이 극히 드문데 반해 邑部나 市部에 거주하는 女子의 경우는 상당수가 晩婚을 하는 傾向이 있음을 〈表 10〉에서도 밝힌 바와 같다(〈表 12〉 參照).

#### 마. 出生 및 結婚 Cohort別 平均初婚年齡의 變動

실제로 初婚年齡의 變動이 각 年度別로 어떠한 變化를 거쳐 왔는가를 센서스 資料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 調査資料를 통하여 구한 男女別 平均

表12. 性別 地域別 平均 및 中位 初婚年齡, 1966—1988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 and Median Age at First Marriage by Sex and Residence

初婚年齡 SMAM	1966 <sup>a)</sup>	1970 <sup>a)</sup>	1975 <sup>a)</sup>	1976 <sup>b)</sup>	1980 <sup>a)</sup>	1985 <sup>a)</sup>	1986 <sup>c)</sup>	1988 <sup>d)</sup>
男子(Male)								
市：初婚年齡(SMAM)	27.7	27.5	27.6	27.5	27.4	27.8	27.3	27.5
中位年齡(MAFM)	27.4	27.2	27.4	—	26.9	27.4	—	—
差異(Difference)	0.3	0.3	0.2	—	0.5	0.4	—	—
邑：初婚年齡(SMAM)	—	26.9	27.3	26.8**	27.1	27.5	27.4**	27.8**
中位年齡(MAFM)	—	26.8	26.7	—	26.7	27.1	—	—
差異(Difference)	NA	0.1	0.6	—	0.4	0.4	—	—
面：初婚年齡(SMAM)	26.1*	26.8	27.1	—	27.4	28.1	—	—
中位年齡(MAFM)	26.0*	26.8	26.9	—	26.9	27.5	—	—
差異(Difference)	0.1	—	0.2	—	0.5	0.6	—	—
女子(Female)								
市：初婚年齡(SMAM)	24.0	23.8	24.2	23.9	24.3	25.0	24.6	25.0
中位年齡(MAFM)	23.8	23.4	23.7	—	23.9	24.4	—	—
差異(Difference)	0.2	0.4	0.5	—	0.4	0.6	—	—
邑：初婚年齡(SMAM)	—	23.0	23.3	22.8**	23.7	24.2	23.3**	23.5**
中位年齡(MAFM)	—	22.8	22.9	—	23.4	23.9	—	—
差異(Difference)	NA	0.2	0.4	—	0.3	0.3	—	—
面：初婚年齡(SMAM)	22.0*	22.6	22.8	—	23.4	23.9	—	—
中位年齡(MAFM)	22.0*	22.5	22.6	—	23.3	23.7	—	—
差異(Difference)	—	0.1	0.2	—	0.1	0.2	—	—

註：\* 邑部를 包含하여 計算한 初婚年齡임.

\*\* 邑部와 面部를 合하여 計算한 初婚年齡임.

差異(Difference) = 초혼연령(SMAM) - 중위연령(MAFM)

資料：a) 崔焯, 結婚類型的 最近動向, 1990年 韓國社會學會 發表資料, 未發刊, p.8.

b)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c)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d)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初婚年齡을 出生年度別로 분석하고자 했으나, 男子의 出生年度別 平均初婚年齡은 調査資料를 통하여 구할 수 없었으므로 女子의 出生年度別 初婚年齡만 제시한 것을 밝혀둔다.

〈表 13〉은 1974年, 1976年, 1988年の 실제 調査資料를 통하여 구한 平均初婚年齡을 女子의 出生年度別로 분석한 것으로 各年度別로 조금씩 初婚年齡의 差異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920年代에 出生한 婦人의 初婚年齡이 대체로 16.9歲로 그후에 태어난 女子의 初婚年齡보다 낮게 나타나고, 최소한 1962年度에 태어난 女子까지는 계속하여 上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유의할 점은 1920年에 태어난 女子가 1921年에 태어난 女子보다 항상 1年 더 일찍 結婚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年 일찍 出生한 女子層이라도 늦게 결혼할 可能性은 항상 존재하므로 初婚年齡의 變動을 단순히 出生年度別(Birth Cohort)로 분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李興卓外, 1978). 그러나 전반적인 長期間의 初婚年齡 變動趨勢를 살펴보는 데는 出生코호트(Birth Cohort)方法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表 13〉에서 유의할 점은 1974年の 경우 初婚年齡이 1948年度 出生女子層에서 下降現象을 보이고 1976年の 경우 1951年度에서 1988年の 경우 1954年 出生女子層에서 下降現象을 나타내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같은 現象은 調査當時 對象女子들의 年齡構造의 影響때문일 뿐 실제로 女子들의 初婚年齡 下降現象과는 무관하다(李興卓外, 1978). 女子들의 出生年度別 初婚年齡을 보면 대체로 各 出生年度別로 上昇하는 正比例 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1926年에 出生한 女子의 初婚年齡이 16.9歲에서 1962년에는 22.7歲로 37年間에 약 6歲 程度 上昇하였음을 알 수 있다. 女子의 出生年度別 平均初婚年齡이 調査當時 對象女子의 年齡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影響力을 除去하기 위한 한가지 方法으로, 初婚年齡의 變動을 對象女子들의 結婚年度別로 구분하여 分析하여 보았다.

表13. 出生年度別 平均初婚年齡(女子)：全國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Birth Cohort(Female)：Whole Country

出生年度 Birth Cohort	平均初婚年齡(Mean Age at First Marriage)		
	1974WFS <sup>a)</sup>	1976KIFP <sup>a)</sup>	1988KIPH <sup>b)</sup>
1926	16.9		
1927	17.0		
1928	16.9	17.5	
1029	17.4	17.1	
1930	17.6	17.1	
1931	17.9	17.9	
1932	18.6	18.0	
1933	18.5	18.6	
1934	19.4	19.0	
1935	19.9	19.0	
1936	19.6	19.2	
1937	20.0	19.9	
1938	20.3	19.9	20.7
1939	20.4	20.3	20.7
1940	20.9	20.6	20.6
1941	21.7	20.8	21.3
1942	21.5	21.5	21.4
1943	20.9	21.6	22.0
1944	21.6	21.5	22.4
1945	21.8	21.6	22.1
1946	21.9	21.8	22.0
1947	22.1	22.0	21.9
1948	21.5	22.2	22.6
1949	21.3	21.9	22.5
1950		22.0	22.4
1951		21.7	22.4
1952		21.5	22.7
1953		21.1	22.8
1954			22.4
1955			22.7
1956			22.9
1957			22.9
1958			22.9
1959			22.9
1960			22.8
1961			22.8
1962			22.7

資料：a) 李興卓 外, 初婚年齡과 出産力の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8, p.19.

b)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 14〉에서 보면 1950年度에 結婚한 女子의 初婚年齡은 1974年과 1976年 調査資料에서 다같이 18歲로, 1963年度에 結婚한 女子의 初婚年齡은 1986年, 1988年 調査資料에서는 다같이 21歲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50年度에 18歲의 年齡에 結婚한 女子의 出生年度는 1932年度 前後이며 1963年度에 21歲의 年齡에 結婚한 女子의 出生年度는 1942年度 前後일 것이므로, 〈表 13〉에서 1932年度와 1942年度에 出生한 女子의 平均初婚年齡과 一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女子의 結婚年度別 初婚年齡을 보면 대체로 각 結婚年度別로 上昇하는 正比例 現象을 역시 보이고 있으며 1937年度에 結婚한 女子의 平均初婚年齡이 12歲에서 1969年度에는 약 22歲로, 33年間に 걸쳐 10歲 程度 上昇하였고 1988年度에 結婚한 女子는 약 24歲로 1937年度에 비해 12歲 程度 上昇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初婚年齡의 上昇現象은 女子의 出生年度와 結婚年度別로 分類해 보아도 각 調査資料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表14. 結婚年度別 平均初婚年齡(女子) : 全國

Mean Age at First Marriage by Marriage Cohort(Female) : Whole Country

結婚年度 Marriage Cohort	平均初婚年齡(Mean Age at First Marriage)			
	1974WFS <sup>a)</sup>	1976KIFP <sup>b)</sup>	1986KIPH <sup>c)</sup>	1988KIPH <sup>d)</sup>
1937	12.0			
1938	13.5			
1939	13.8			
1940	14.0			
1941	15.0			
1942	15.7			
1943	16.0			
1944	16.2			
1945	16.2			
1946	16.8			
1947	16.9			
1948	17.0			
1949	17.3			

〈表14 繼續〉

結婚年度 Marriage Cohort	平均初婚年齡(Mean Age at First Marriage)			
	1974WFS <sup>a)</sup>	1976KIFP <sup>b)</sup>	1986KIPH <sup>c)</sup>	1988KIPH <sup>d)</sup>
1950	17.7	17.7		
1951	18.1	18.3		
1952	18.3	18.6		
1953	19.0	19.0	—	14.0
1954	18.8	19.2	19.0	14.8
1955	19.2	19.7	20.2	15.8
1956	19.7	18.9	20.0	17.2
1957	19.6	18.6	20.0	17.5
1958	19.7	18.8	20.0	18.2
1959	20.2	20.0	23.7	18.7
1960	20.2	22.0	21.0	19.1
1961	20.6	18.8	21.0	19.8
1962	21.0	20.2	20.6	20.3
1963	20.8	21.3	20.6	20.6
1964	21.5	21.8	20.5	21.1
1965	21.4	21.3	20.5	21.1
1966	21.2	20.3	—	21.3
1967	21.9	18.5	20.8	21.6
1968	21.5	19.3	22.0	21.8
1969	21.8	21.8	19.8	22.1
1970	22.0	23.0	19.8	21.7
1971	22.6	20.0	20.6	21.9
1972	22.1	23.0	23.0	22.0
1973	21.9	22.5	22.6	22.2
1974	22.3	18.0	24.2	22.1
1975		22.0	21.3	22.4
1976		—	23.1	22.0
1977			23.1	22.4
1978			21.3	22.7
1979			20.3	22.7
1980			19.3	22.9
1981			23.4	22.7
1982			23.0	22.7
1983			22.9	23.4
1984			23.1	23.5
1985			25.5	23.6
1986			24.4	23.7
1987				24.0
1988				24.4

資料：a)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b)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吳 家族計劃 評價調查, 1978.

c)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d) 文顯相 外, 1988年 全國 出產力 吳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그리고 最近에 이르러서의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表 15>에서 살펴보면 1959年 以後로 1975年까지 平均初婚年齡(Mean Age at First Marriage)이 점차적으로 上昇趨勢를 보였으나 1976년에 약간 下降하다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다시 上昇하고, 1981年, 1982년에 다시 약간 下降하다가 1983년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점진적으로 上昇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와같은 平均初婚年齡의 上昇과 下降은 短期的인 起伏(Short-Term Fluctuation)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初婚年齡의 變動(Long-Term Change)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表15. 結婚코호트別 初婚年齡別 結婚率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Marriage Chort and Age at First Marriage

結婚年度 Marriage Cohort	初婚年齡(Age at First Marriage)		初婚年齡(Age at First Marriage)						
	Mean	N	-14	15-17	18-19	20-21	22-24	25-29	30+
those married									
before 1959	18.0	246	0.9	31.7	54.6	12.8	-	-	-
1960-64	20.3	693	-	9.7	25.6	36.2	27.0	1.5	-
1965-69	21.6	915	-	4.0	18.1	26.0	38.2	13.5	-
1970-74	22.0	1,232	-	3.6	13.0	26.2	42.3	14.6	0.4
1975	22.4	301	-	3.0	9.7	23.2	42.0	21.3	0.8
1976	22.0	322	-	2.5	12.1	30.7	40.0	14.1	0.6
1977	22.4	302	-	3.2	9.8	19.2	46.4	20.0	1.3
1978	22.7	336	0.5	1.5	7.2	19.1	50.9	20.2	0.6
1979	22.7	372	-	1.3	9.5	21.8	46.2	19.6	1.7
1980	22.9	383	-	0.9	5.2	22.4	50.7	19.6	1.2
1981	22.7	370	-	2.2	5.6	21.6	52.1	17.5	0.8
1982	22.7	370	-	1.7	6.3	20.9	50.1	20.6	0.4
1983	23.4	355	-	0.8	5.5	13.5	51.7	27.5	1.0
1984	23.5	365	-	1.2	2.9	16.5	48.3	29.0	2.0
1985	23.6	362	-	0.3	4.2	12.2	50.0	31.9	1.4
1986	23.7	360	-	0.7	2.1	15.7	47.7	32.8	1.1
1987	24.0	354	-	0.6	4.0	12.9	42.8	36.9	2.8
1988	24.4	148	-	-	2.2	8.1	42.3	45.0	2.4

資料：文顯相 外, 1988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그리고 <表 15>에서 나타난 各 初婚年齡別 構成比를 圖表로 나타내어 보면 <圖 9>, <圖 10>, <圖 11> 및 <圖 12>와 같다.

<圖表 9>에서 1959年 以前에 結婚한 女子層의 平均初婚年齡(Mean Age at First Marriage)은 18-19歲間에 集中되어 있는 반면 1965年 이후 1974年 사이에 결혼한 여자의 初婚年齡은 22-24세에 集中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初婚年齡의 上昇過程을 말해주고 있다. <圖表10>에서는 1975年 以後부터 1979年 사이에 結婚한 女子의 初婚年齡이 22-24歲에 상당히 集中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1975年 以後 5年사이에 結婚한 女子의 平均初婚年齡이 비슷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圖表 11>에서도 1980年 以後부터 1984年 사이에 結婚한 女子의 初婚年齡이 22-24歲에 집중되어 있는 現象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1980年 以後 5年사이에 平均初婚年齡이 一定한 水準에서 上昇勢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表 12>에서 1985年 以後부터 1988年 사이에 結婚한 女子層의 平均初婚年齡을 보면, 1965年 以後부터 22-24歲에만 集中되어 있던 平均初婚年齡이 1985年 以後부터는 25-29歲로 서서히 分散되어가는 傾向을 나타냄으로써 1985年 以後부터 近來에 접어들면서 女子의 平均初婚年齡이 큰 幅으로 上昇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3. 初婚年齡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 諸要因

이제까지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인 要因들에 따른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인 要因別 平均初婚年齡은 男女別로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調查資料를 통하여 男子에 대한 年齡이나 初婚年齡 등을 얻을 수 없으므로 男子에 대한 初婚年齡은 資料關係相 생략하고 女子에 대한 諸要因別 初婚年齡만을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圖 9. 結婚코호트別 初婚年齡別 結婚率 : 1959-1974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Age at First Marriage and Marriage Cohort : 1959-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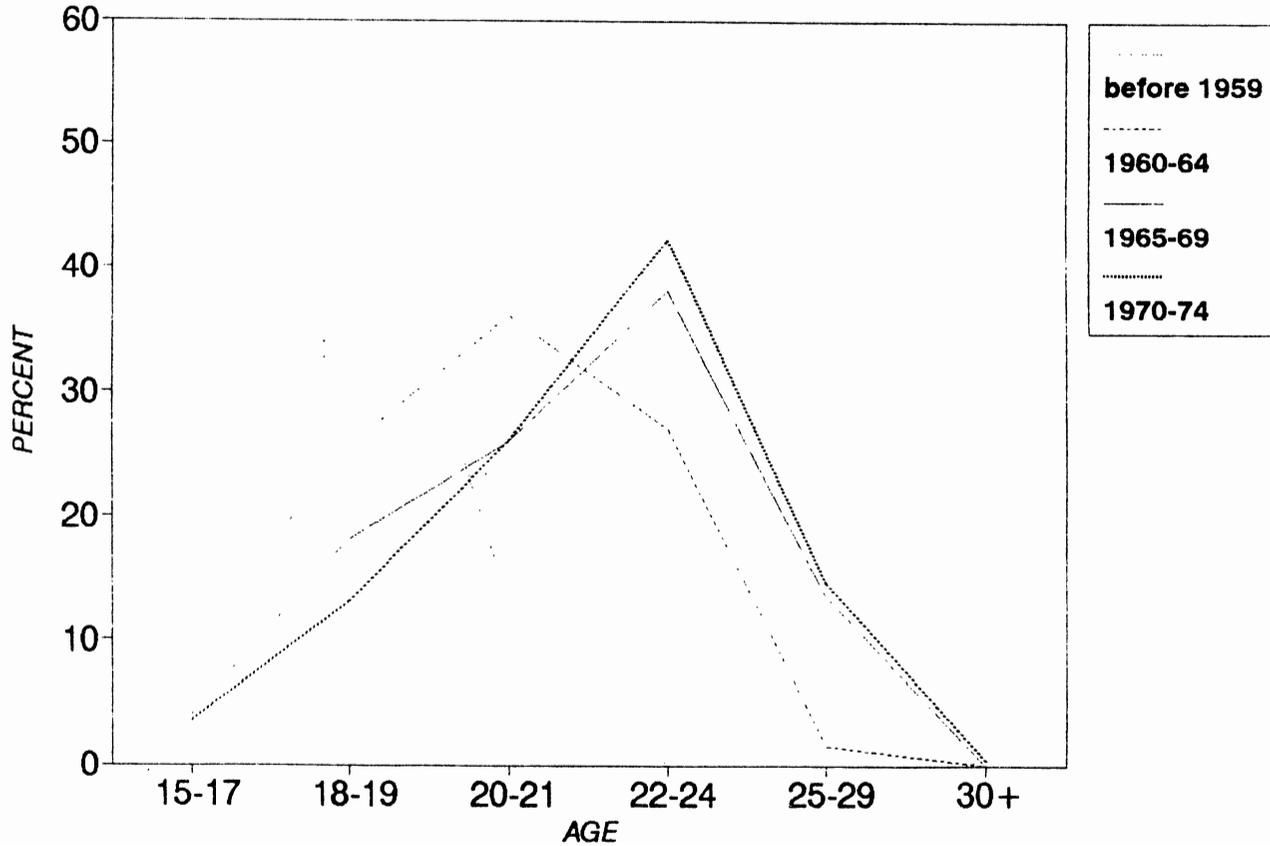


圖 10. 結婚코호트別 初婚年齡別 結婚率：1975-1979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Age at First Marriage and Marriage Cohort : 1975-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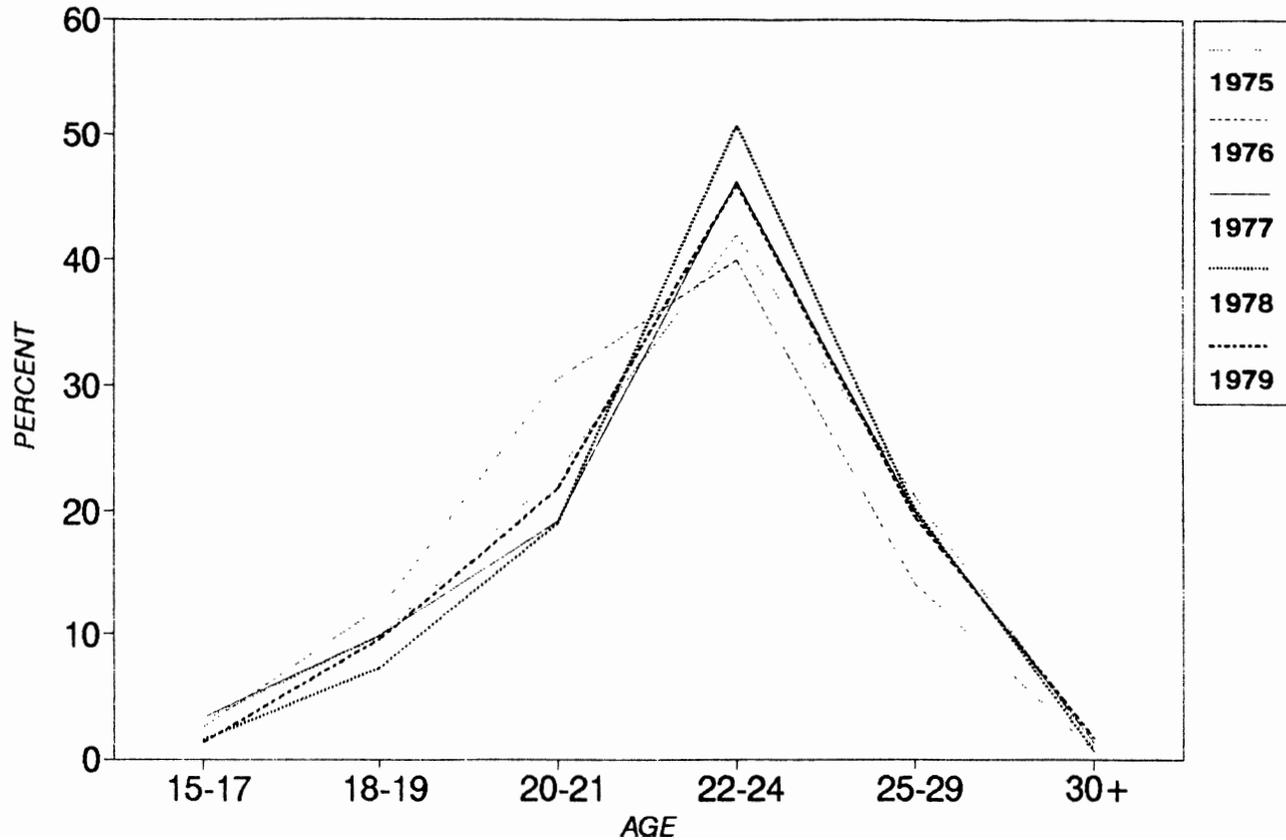


圖 11. 結婚코호트別 初婚年齡別 結婚率：1980-1984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Age at First Marriage and Marriage Cohort : 1980-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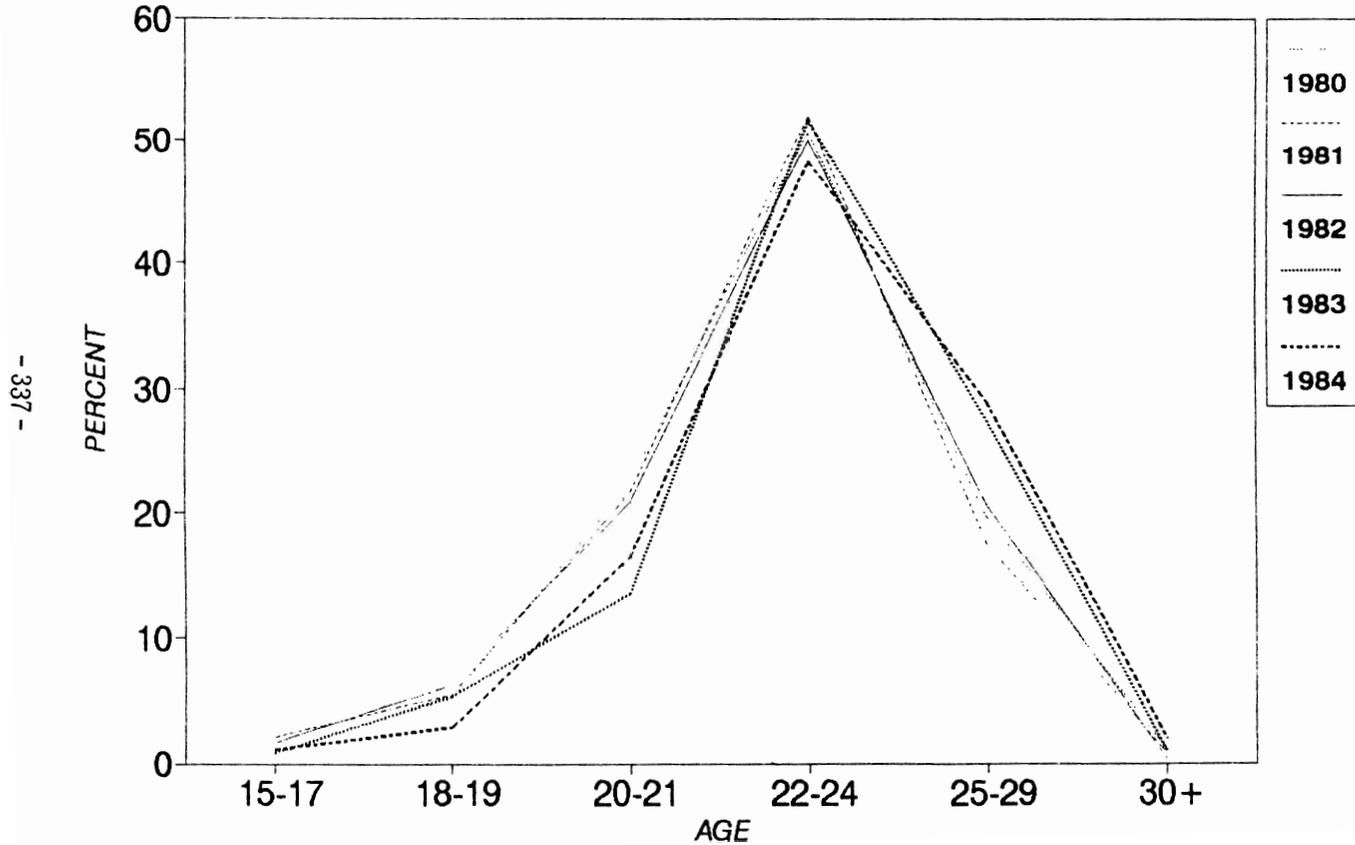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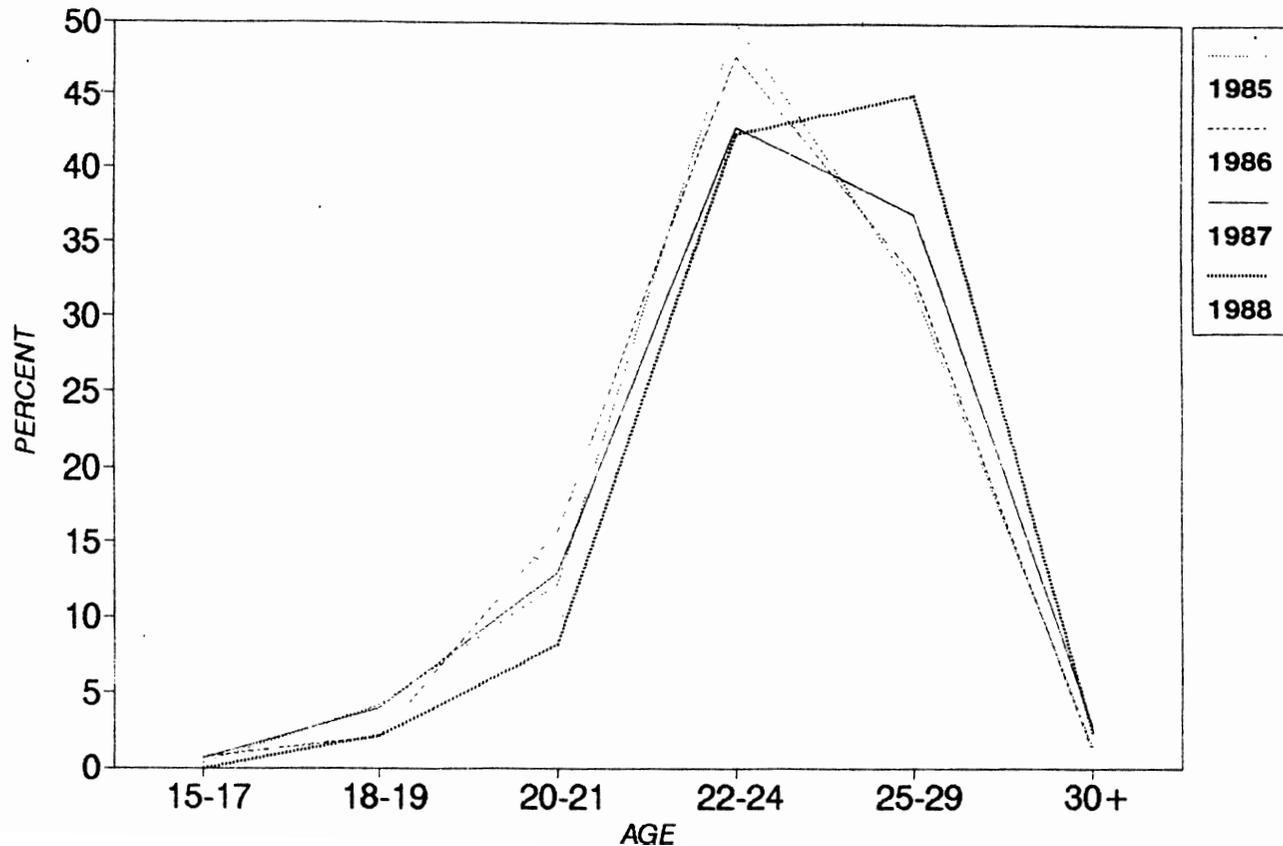


圖 12. 結婚人口別 初婚年齡別 結婚率：1985—1988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by Age at First Marriage and Marriage Cohort : 1985—1988



우선 <表 16>에서 女子의 年齡別 初婚年齡의 分布를 살펴보면 初婚年齡이 14歲 以下인 女子의 構成比率이 1974년에는 약 2퍼센트, 1976년에는 약 1퍼센트, 1988년에는 1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나, 이 資料에서도 역시 우리 나라에서 未婚現象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74년의 경우 調査當時 年齡이 45-49歲와 40-44歲인 女子들은 15-17歲에 가장 많이 結婚하였으나, 35-39歲의 女子들의 30퍼센트가 18-19歲에서 結婚하였으며, 25-29歲 女子들의 初婚年齡은 43퍼센트가 22-24歲에, 또한 20-24歲 경우 初婚年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歲에서 가장 많은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初婚年齡이 下降해서가 아니고 자료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現象으로 감안하면, 最近에 이를수록 初婚年齡이 차지하는 比率이 20歲 以上으로 上昇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같은 傾向은 1976年, 1988年 調査資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76년의 경우 역시 45-49歲 女子들이 15-17歲에 가장 많이 結婚하였으며, 40-44歲 女子들의 初婚年齡은 18-19歲, 25-29歲 女子들의 初婚年齡은 45퍼센트가 22-24歲에서, 또한 20-24歲 女子들의 初婚年齡은 43퍼센트가 20-21歲에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의 경우는 1974年, 1976年과는 달라진 樣相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調査當時 年齡 45-49歲 경우 1974年과 1976년에는 15-17歲에서 가장 많이 結婚하였으나, 1988년에는 現年齡 45-49歲부터 20-24歲 年齡層 女子들 대부분의 初婚年齡이 22-24歲에 集中되어 있는 現象을 보이고 있어서 初婚年齡이 上昇趨勢로 停滯現象을 나타내고 있다(<表 16> 參照).

<表 17>, <表 18>, <表 19>는 各各 1974年, 1976年, 그리고 1988年度別로 女子의 現年齡과 社會·經濟的 및 文化的 諸要因別로 平均初婚年齡을 살펴본 것으로 원래는 1986年 調査資料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資料 關係上 제시하지 못함을 밝혀둔다.

1974년의 경우 社會·經濟 및 文化的인 背景要因들 전반에 걸쳐서 젊은 年齡層일수록 平均初婚年齡이 一律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74年

表16. 年齡別 婦人の 初婚年齡 分布

Percent Distribution of Married Women by Age and Age at First Marriage

現 年 齡 Current Age	初婚年齡(Age at First Marriage)							計(Total) %
	-14	15-17	18-19	20-21	22-24	25-29	30+	
1974 <sup>a)</sup>								
15-19	-	56.4	43.6	-	-	-	-	100.0
20-24	0.2	8.6	29.6	39.0	22.6	-	-	100.0
25-29	0.1	4.4	15.3	24.1	43.3	12.9	-	100.0
30-34	0.6	7.6	18.2	26.6	30.6	15.7	0.6	100.0
35-39	0.7	15.5	30.1	26.8	19.8	6.8	0.3	100.0
40-44	5.6	38.3	26.2	16.1	10.2	2.9	0.6	100.0
45-49	9.2	57.2	21.8	7.3	3.0	1.3	0.3	100.0
計(Total)	2.3	20.1	23.0	23.0	23.5	7.8	0.3	100.0
1976 <sup>b)</sup>								
15-19	3.3	36.7	60.0	-	-	-	-	100.0
20-24	0.2	6.6	26.7	42.6	24.0	-	-	100.0
25-29	-	2.4	14.6	25.8	45.2	11.3	0.6	100.0
30-34	0.1	5.3	17.0	27.1	34.9	12.9	2.6	100.0
35-39	0.4	11.0	28.6	26.0	23.4	8.4	2.1	100.0
40-44	1.7	25.8	33.1	22.5	12.1	4.1	0.9	100.0
45-49	5.0	53.4	23.5	10.1	5.7	1.9	0.4	100.0
計(Total)	1.1	15.9	23.6	25.0	25.8	7.3	1.2	100.0
1988 <sup>c)</sup>								
15-19	-	48.0	52.0	-	-	-	-	100.0
20-24	0.3	4.2	14.7	36.3	44.5	-	-	100.0
25-29	-	1.8	6.7	18.8	49.3	23.3	0.1	100.0
30-34	-	2.2	8.5	19.9	45.4	23.0	1.1	100.0
35-39	-	2.9	11.1	22.5	40.4	21.8	1.3	100.0
40-44	-	6.0	14.6	22.4	38.3	16.9	1.8	100.0
45-49	0.2	8.4	24.5	24.8	29.9	11.3	0.8	100.0
計(Total)	0.1	3.8	11.9	22.1	42.3	18.9	0.9	100.0

資料：a)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b) 朴丙台 外, 1976年 全國出產力 吳 家族計劃評價調查, 1978.

c) 文顯相 外, 1988年 全國出產力 吳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表17. 婦人の 諸特性別 年齢別 平均初婚年齢(1974)  
 Mean Age at First Marriage of Married Women by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ge

背景の 特性 Background Characteristics	現 年齢(Current 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計(Total)	17.2	20.1	21.7	21.5	20.0	18.4	17.1
出生地(Birth Place)							
市部(Urban)	17.0	20.0	22.1	22.5	21.1	19.5	18.1
郡部(Rural)	17.3	20.1	21.5	21.0	19.7	18.0	16.7
現居住地(Current Residence)							
市部(Urban)	17.2	20.3	21.9	22.0	20.6	19.1	17.5
郡部(Rural)	17.1	19.6	21.2	20.6	19.3	17.7	16.6
教育水準(Education)							
無學(No schooling)	16.3	18.4	19.5	19.6	18.7	17.3	16.3
國民學校(Primary)	17.1	19.8	21.1	20.9	19.9	18.4	17.4
中學校(Middle)	17.3	20.4	22.3	22.4	21.2	19.7	19.0
高等學校(High)	18.0	20.8	22.7	23.6	22.5	22.2	21.4
大學(College)	-	20.7	24.2	25.2	23.9	24.2	22.4
宗教(Religion)							
無(None)	17.2	20.0	21.6	21.2	19.8	18.2	16.8
佛教(Buddhist)	17.2	20.0	21.6	21.5	20.1	18.4	17.1
基督教(Protestant)	17.3	20.2	22.2	22.5	20.9	19.8	18.1
天主教(Catholic)	16.0	21.3	23.2	23.3	21.4	18.7	17.8
結婚前 就業期間(Pre-Marital Work Duration)							
1-12個月	16.9	19.8	21.5	21.6	20.0	17.1	18.6
13-24個月	17.7	19.5	21.4	21.0	20.0	17.8	16.7
25-60個月	17.2	20.3	22.0	21.6	20.0	18.6	17.2
61+個月	17.0	20.6	22.8	23.2	21.5	20.5	17.7
無職(Unemployed)	19.0	19.4	20.3	21.7	19.6	18.0	17.8
結婚前 職業(Occupation before Marriage)							
無職(Never)	17.1	20.0	21.3	21.0	19.7	18.2	16.9
專門職(Professional)	19.0	20.5	24.4	25.4	23.6	23.4	21.8
事務職(Clerical)	17.0	20.4	22.9	23.7	22.9	20.8	21.7
販賣職·서비스職(Sales·Services)	18.4	20.3	22.2	24.0	21.4	20.2	18.8
農業(Agricultural)	16.6	19.9	20.7	20.5	19.3	17.8	16.4
技術職(Skilled)	17.4	20.2	22.5	22.6	21.7	19.2	17.5
單純勞動職(Unskilled)	17.0	19.8	22.2	23.0	20.5	15.0	18.0

資料：經濟企劃院, 家族統計研究院, 1974年 韓國出生力調査, 1977.

表18. 婦人の 諸特性別 年齢別 平均初婚年齢(1976)

Mean Age at First Marriage of Married Women by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ge

背景의 特性 Background Characteristics	現 年齢(Current 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計(Total)	-	-	20.7	21.1	19.5	18.5	17.5
出生地(Birth Place)							
市部(Urban)	-	-	20.3	19.0	21.1	19.0	18.9
郡部(Rural)	-	-	21.0	21.3	19.2	18.4	17.1
現居住地(Current Residence)							
市部(Urban)	-	-	21.3	21.5	19.2	18.7	17.6
郡部(Rural)	-	-	20.3	20.9	19.8	18.5	17.5
教育水準(Education)							
無學(No schooling)	-	-	-	21.5	18.4	17.3	16.9
國民學校(Primary)	-	-	19.8	21.0	19.8	18.2	17.9
中學校(Middle)	-	-	23.0	23.0	18.0	19.3	15.0
高等學校(High)	-	-	23.0	22.0	20.0	23.8	19.5
大學(College)	-	-	-	-	-	-	23.0
宗教(Religion)							
無(None)	-	-	20.8	20.4	19.4	18.8	17.5
佛教(Buddhist)	-	-	-	21.7	19.9	17.9	17.5
基督教(Protestant)	-	-	-	23.0	19.6	19.0	18.2
天主教(Catholic)	-	-	20.5	-	18.0	19.0	17.3
結婚前 就業期間(Pre-Marital Work Duration)							
1-12個月	-	-	-	-	16.0	18.8	22.0
13-24個月	-	-	21.0	-	18.0	20.0	16.0
25-60個月	-	-	18.0	20.8	17.0	21.0	18.2
61+ 個月	-	-	-	23.0	23.3	28.0	23.0
無職(Unemployed)	-	-	-	-	-	-	-
結婚前 職業(Occupation before Marriage)							
無職(Never)	-	-	-	-	-	-	-
專門職(Professional)	-	-	-	22.0	-	23.0	22.5
事務職(Clerical)	-	-	-	-	17.0	22.0	20.0
販賣職·서비스職(Sales·Services)	-	-	-	21.0	20.0	19.0	-
技術職·單純勞動職(Skilled·Unskilled)	-	-	19.5	21.5	19.7	19.3	17.4

資料：朴丙台 外，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家族統計研究院，1978.

調査當時 年齡 45-49歲인 女子의 初婚年齡이 40-44歲된 女子보다, 35-39歲된 女子의 初婚年齡이 30-34歲된 女子보다, 25-29歲된 女子의 初婚年齡이 20-24歲된 女子보다 점차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表 17〉參照).

반면 1976年 資料를 보면 現年齡이 25-29歲層의 女子가 30-34歲層의 女子보다 出生地와 現居住地가 郡部인 경우와 女子가 國民學校教育을 받은 경우 또한 結婚前 就業期間이 3-5年 사이인 경우 그리고 婚前職業이 기술·단순노동직인 경우에서 同一하게 平均初婚年齡이 낮은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現年齡이 30-34歲인 女子의 出生地가 市部인 경우, 35-39歲인 女子가 高等學校教育을 받은 경우와 結婚前 職業이 事務職인 경우에서, 그리고 40-44歲된 女子의 結婚前 就業期間이 1年 未滿인 경우 등에서 역시 平均初婚年齡이 낮은 現象을 보이고 있다(〈表 18〉參照).

가장 最近資料인 1988年度 資料를 보면, 1974年이나 1976年과는 다른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現年齡이 20-24歲層의 女子가 25-29歲層의 女子보다 모든 要因別로 初婚年齡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出生地와 現居住地가 郡部인 경우, 女子가 大學教育을 받은 경우와 宗教가 無教와 佛敎인 경우, 婚前職業이 無職, 販賣·서어비스직과 농업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部門(단, 婚前就業期間은 資料關係上 省略)에서 現年齡이 25-29歲層의 女子가 30-34歲層의 女子보다 初婚年齡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女子의 婚前職業이 販賣·서어비스직과 단순노동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30-34歲層의 女子가 35-39歲層의 女子보다 初婚年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女子가 大學教育을 받은 경우와 宗教가 카톨릭인 경우, 婚前職業이 판매·서어비스직과 기술직인 경우에서 35-39歲層의 女子가 40-44歲層보다 初婚年齡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現年齡과 관계없이 女子의 特性要因別로 平均初婚年齡이 同一한 水準을 보이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現居住地가 市部인 경우에서 女子의 平均初婚年齡이 現年齡 25-29歲, 30-34歲, 35-39歲, 40

-44歲 年齡層에서 23歲로 同一한 數値를 보이고 있고, 女子가 中學校教育을 받은 경우 平均初婚年齡이 약 22歲를, 宗教가 佛敎와 基督敎인 경우 각각 22歲와 23歲를, 女子의 婚前職業이 무직과 전문직인 경우 각각 22歲와 25歲를 나타내므로써 女子의 現年齡 25-44歲層에서 同一한 水準의 平均初婚年齡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女子의 婚前職業이 판매·서어비스직과 기술직인 경우 약 23歲로 각각 現年齡 25-29歲層과 30-49歲층에서 동일한 現象을 나타내고있다(〈表 19〉 參照).

上記 現象들로 미루어 볼 때 1976年 資料에서 보이고 있는 25-44歲層 女子의 初婚年齡 下降은 그 정도가 微小하고 特定要因에서 部分的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初婚年齡을 下降시킬 만한 강한 영향력은 없으나 女子의 初婚年齡 上昇速度를 鈍化시키고 있다. 반면 1988年 資料에서 나타나는 20-24歲와 25-29歲에서 女子의 初婚年齡이 下降하다가 다시 30-34歲 女子의 平均初婚年齡이 35-39歲層보다 上昇하고 있는 傾向 등이 一部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걸쳐 全體的으로 나타나고 있고, 平均初婚年齡의 下降이나 上昇 程度 또한 微小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같은 要因들이 전체적인 初婚年齡의 水準을 결정시키는 作用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 要因중에서 女子의 初婚年齡을 결정하는데 비교적 많은 影響을 끼치고 있다고 思料되는 出生地, 婚前職業과 教育程度 등의 세가지 要因 中心別로 1974年과 1988年の 資料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要因인, 女子의 出生地別로 初婚年齡을 살펴보면, 1974年の 경우 15-19歲와 20-24歲를 제외한 모든 年齡層과 1988年の 경우 15-19歲層을 제외한 모든 年齡層에서 出生地가 市部인 女子의 初婚年齡이 郡部인 女子보다 一律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女子層일 수록 市部出生과 郡部出生間에 初婚年齡의 差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다. 또한 市部和 郡部間의 初婚年齡差異를 보면 1974年에 비해 25-29歲와 45-49歲를 제외한 모든 年齡層에서 市部和 郡部間

表19. 婦人の 諸特性別 年齢別 平均初婚年齢(1988)  
 Mean Age at First Marriage of Married Women by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Current Age

背景의 特性 Background Characteristics	現 年齢(Current 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計(Total)	17.4	21.1	22.8	22.8	22.5	22.2	21.1
出生地(Birth Place)							
市部(Urban)	18.5	21.1	23.3	23.6	23.6	23.1	22.3
郡部(Rural)	17.2	21.0	22.6	22.5	22.2	21.8	20.8
現居住地(Current Residence)							
市部(Urban)	17.5	21.2	23.0	23.0	22.7	22.5	21.8
郡部(Rural)	17.2	20.6	22.3	22.0	21.9	21.1	20.1
教育水準(Education)							
無學(No schooling)	-	20.6	20.3	21.7	21.7	20.5	19.5
國民學校(Primary)	15.6	19.9	20.8	21.2	21.2	21.2	20.7
中學校(Middle)	17.5	20.6	22.1	22.4	22.3	22.1	22.1
高等學校(High)	18.2	21.4	23.3	23.5	23.5	23.5	23.0
大學(College)	-	22.5	24.5	24.4	24.4	24.5	24.3
宗教(Religion)							
無(None)	17.7	21.0	22.8	22.7	22.5	21.9	20.8
佛教(Buddhist)	16.3	20.8	22.4	22.2	22.1	21.6	21.1
基督教(Protestant)	17.0	21.1	23.0	23.2	23.1	22.5	21.6
天主教(Catholic)	18.0	22.0	23.1	23.5	23.3	23.7	21.9
結婚前 就業期間(Pre-Marital Work Duration)							
1-12個月	-	-	-	-	-	-	-
13-24個月	-	-	-	-	-	-	-
25-60個月	-	-	-	-	-	-	-
61+個月	-	-	-	-	-	-	-
無職(Unemployed)	-	-	-	-	-	-	-
結婚前 職業(Occupation before Marriage)							
無職(Never)	17.5	20.4	22.0	21.9	21.7	21.5	20.7
專門職(Professional)	-	22.7	24.8	25.1	25.0	24.8	24.1
事務職(Clerical)	19.0	21.8	23.4	23.9	23.9	23.7	24.5
販賣職·서비스職(Sales·Services)	-	20.9	23.1	22.9	23.2	23.4	23.1
農業(Agricultural)	-	16.0	22.0	21.5	20.6	20.4	19.9
技術職(Skilled)	17.3	20.7	22.2	22.5	22.7	22.2	22.6
單純勞動職(Unskilled)	-	-	21.0	25.1	-	21.6	-

資料：文顯相 外, 1988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의 初婚年齡差異가 小幅이나마 점진적으로 減少하고 있는 現象을 보이는 것은 1970年代의 市部와 郡部間에 있었던 生活水準이나 기타 社會·經濟的 격차가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좁혀진 것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要因은 女子의 結婚前 職業狀態는 初婚年齡에 대단히 강한 影響력을 보인다. <表 17>, <表 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74年, 1988年 모두 結婚前에 就業經驗이 없거나 농업이었던 女子의 경우가 다른 직종들 즉 전문직, 판매·서어비스직, 노동직 등에 經驗이 있는 女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初婚年齡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1974년에 비해 1988년에는 婚前에 무직이나 농업의 經驗을 가졌던 女子가 다른 직종을 가졌던 女子에 비해서 結婚 年齡의 差異가 근소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70年代에 婚前職業이 結婚에 作用한 影響에 비해, 1980年代에는 그다지 큰 比重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0年代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세번째 要因인 女子의 教育水準은 初婚年齡에 有意한 差異를 가져오는 要因이며, 教育水準과 初婚年齡의 관계는 正比例 現象을 보인다(李興卓外, 1978). 女子의 教育水準別 初婚年齡의 差異를 살펴보면 調査當時 現年齡 20-24歲群 女子의 경우 無學인 女子의 初婚年齡이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보다 대체로 낮고, 年度別로 보면 1974년에 약 3歲, 1988년에 약 2歲로 無學과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初婚年齡의 差異가 줄어드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에 비해 1988년에 오면서 初婚年齡이 전반적으로 上昇하였으나, 無學인 女子의 初婚年齡의 上昇幅이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上昇幅보다 增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이와 같은 現象은 30-34歲, 35-39歲, 40-49歲群 女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여 結果적으로 教育水準과 初婚年齡과는 正比例의 現象을 보이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調査當時 女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無學과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初婚年齡의 差異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조사당시 40-44歲 年齡

層에서 無學과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間의 初婚年齡 差異를 年度別로 비교해 보면 1974년에는 약 7歲, 1988년에는 약 4歲 程度의 差異를 보이는데 반해, 20-34歲 女子層에서는 1974년에 대체로 약 4歲, 1988년에는 약 3歲 程度의 差異를 보여주고 있는 現象은 40-44歲層의 女子에게는 20-34歲層의 女子에 비해 시대적 여건상 教育의 機會가 적었고 또한 早婚傾向이 만연되었던 반면, 教育을 받았던 소수의 女子들은 晚婚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서 나타나는 現象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教育水準別 女子의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보면 1974년에 비해 1988년에는 無學부터 高等學校教育을 받은 女子의 初婚年齡은 약 2歲 程度의 一律的인 上昇勢를 보이고 있으나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初婚年齡은 1974년에 23歲에서 1985년에 24歲로 약 1歲 程度의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近來에 오면서 高等教育을 받은 女子層의 初婚年齡 上昇速度가 鈍化되고 있는 現象으로 생각된다(〈表 17, 19〉 參照).

#### I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에서는 센서스資料의 年齡 및 結婚狀態別 人口分布와 標本調査資料를 이용하여 1960年 以後 最近 30年間의 結婚率(有配偶比率)과 未婚率의 變動推移를 分析하고, 未婚率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推定한 初婚年齡의 變動推移를 고찰함과 동시에 初婚年齡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 諸要因을 分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結婚率 즉 結婚比率의 變動趨勢를 통해서 볼때 1960年 以後 1988年에 이르기까지 약 30餘年동안 初婚年齡이 꾸준히 延長되어 온것을 알 수 있고 이 傾向은 女子보다 男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女子의 20-24歲層과 男子의 25-29歲層이, 女子의 25-29歲層과 男子의 30-34歲層의

結婚比率이 비슷한 數値를 나타냄으로써 男女 모두 20대 후반에서 結婚의 集中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女子들은 29歲까지 男子들은 34歲까지는 結婚을 하는 것으로 볼 때, 男子가 女子에 비해 약 5歲 程度 늦게 結婚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地域別로 보면, 男女 모두 市部보다 郡部에서 結婚하는 比率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으며, 市部和 郡部間에 結婚率의 差異는 女子의 경우 20-24歲에서 12-25퍼센트의 分布를 보이고 25-29歲에서 5-11퍼센트의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郡部に 사는 女子들은 20-29歲 사이에 대부분이 이미 結婚을 한 것에 반해, 市部に 사는 女子들은 30-34歲까지도 계속 結婚을 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男子의 경우 두 地域間의 結婚率의 差異는 20-24歲에서 1-10퍼센트의 分布를 보이고 25-29歲에서 20퍼센트 以下の 比率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市部和 郡部地域에 사는 男子들 대부분이 25-34歲 사이에 結婚을 하고 있다. 특히 1980年代 中半에 접어들면서 20-29歲 年齡層에서 市部地域에 사는 男子들이 郡部地域 男子들보다 높은 結婚率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郡部地域 女子들의 絶對수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郡部に 사는 男子들이 35歲 以後에도 未婚으로 남아 있어야하는 現象을 반영한 것으로 思料된다.

둘째, 未婚率의 變動樣相을 보면, 1960年 以後 1988年에 이르기까지 30餘年동안 男女 모두 15-34歲 年齡層에서 점차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어서 初婚年齡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最近에 들어와 부쩍 늘어나기 시작하는 女子가 晩婚하는 傾向을 間接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地域別로 보면, 女子는 20-34歲 年齡層에서 郡部보다 市部에서 未婚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男子에서는 1960年 以後 1970年代까지는 女子와 같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1980年부터 20-34歲層에 걸쳐 郡部地域이 市部地域보다 未婚率이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市部和 郡部間의 未婚率의 差異幅은 1960年 以後 1988年에 이르기까지 점

차 줄어드는 現象이 男女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郡部の 未婚率이 큰 쪽으로 上昇한 結果로 思料된다.

셋째,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보면, 1960年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30年間 男女 모두 平均初婚年齡(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이 계속 높아져 왔는데 이는 20代와 30代의 未婚率이 계속 上昇하므로써 오는 現象으로 보인다. 이유는 지속적인 經濟·社會發展에 따라 젊은 年齡層의 教育 및 社會參與 機會擴大에 따른 晩婚傾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差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女子의 初婚年齡이 다소 上昇한데서 기인된다. 男女의 平均初婚年齡을 地域別로 보면, 市部에서는 미세한 정도이나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差는 1960年 以後 減少趨勢에 있으며, 특히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미세하나마 더욱 좁혀지고 있다. 한편 郡部에서도 역시 소폭이나마 上昇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男女間의 差는 1960年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약 4歲 程度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는 郡部の 男·女 平均初婚年齡이 같이 上昇한 結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市部와 郡部間의 平均初婚年齡 差를 보면 男子의 경우 1960年 以後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1985年 以後에는 오히려 郡部地域에 비해 市部地域의 男子의 初婚年齡이 減少趨勢에 있다. 이는 市部地域에서 初婚年齡 자체가 높아지지 않은데다가, 初婚年齡이 비교적 낮은 郡部地域 男子들이 市部로 흡수·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女子의 경우, 1960年代에는 2歲 程度의 差를 보이다가 1970年 以後 1980年 中半까지 1歲 程度의 差를 보이고, 1988년에 와서는 2歲 程度의 差를 다시 보이므로써 市部地域에 거주하는 女子의 경우 상당수가 晩婚을 하는 傾向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로, 女子의 出生 및 結婚 Cohort別로 平均初婚年齡(Mean Age of First Marriage)을 비교하면, 대체로 各 出生年度別로 上昇하는 正比例 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1926년에 出生한 女子의 初婚年齡이 17歲에서, 1962

년에는 23歲로 37年間に 약 6歲 程度 上昇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結婚年度別로 보면, 역시 各 結婚年度別로 平均初婚年齡이 上昇하는 正比例 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1959年 以前에 結婚한 女子層의 平均初婚年齡은 18-19歲 사이에 集中되어 있고 1965年 以後부터 22-24歲에만 상당히 集中되어 있던 平均 初婚年齡이 1985年 以後부터 25-29歲로 서서히 分散되어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로, 初婚年齡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 諸要因別 特性은 다음과 같다. 먼저 女子의 出生地別로 보면 1974年の 경우 現年齡 15-19歲와 20-24歲를 제외한 모든 年齡層과 1988年の 경우 15-19歲를 제외한 모든 年齡層에서 出生地가 市部인 女子가 郡部인 女子보다 一律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 女子 일수록 市部出生과 郡部出生間에 結婚年齡의 差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結婚前 職業狀態를 보면 初婚年齡에 대단히 강한 影響력을 보이는 요인으로 1974年, 1988年 모두 婚前에 職業經驗이 없거나 농업이었던 女子의 경우가 다른 직종들 즉 전문직, 판매·서서비스직, 노무직에 경험이 있는 女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初婚年齡을 보이고 있다. 女子의 教育水準別 初婚年齡의 差異를 보면, 無學인 女子의 初婚年齡이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보다 대체로 낮고 年度別로 보면 1974년에 약 3歲, 1988년에 약 2歲로 無學과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初婚年齡의 差가 줄어드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에 비해 1988년에 접어들면서 初婚年齡이 전반적으로 上昇하였으나 無學인 女子의 初婚年齡 上昇幅이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上昇幅보다 增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結果를 綜合해 볼 때, 우리나라의 初婚年齡은 점진적으로 上昇하여 왔지만 男女 모두 그 上昇速度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男子의 경우 初婚年齡의 上昇幅이 점차 鈍化되고 있는 듯하며, 女子의 경우도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이미 停滯現象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男女의 初婚年齡은 앞으로도 계속 上昇幅이 鈍化되면서 停滯現象을 보일 것으로

차 줄어드는 現象이 男女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郡部の 未婚率이 큰 폭으로 上昇한 결과로 思料된다.

셋째, 初婚年齡의 變動樣相을 보면, 1960年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30年間 男女 모두 平均初婚年齡(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이 계속 높아져 왔는데 이는 20代와 30代의 未婚率이 계속 上昇하므로써 오는 現象으로 보인다. 이유는 지속적인 經濟·社會發展에 따라 젊은 年齡層의 教育 및 社會參與 機會擴大에 따른 晩婚傾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差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女子의 初婚年齡이 다소 上昇한데서 기인된다. 男女의 平均初婚年齡을 地域別로 보면, 市部에서는 미세한 정도이나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男女間의 初婚年齡의 差는 1960年 以後 減少趨勢에 있으며, 특히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미세하나마 더욱 좁혀지고 있다. 한편 郡部에서도 역시 소폭이나마 上昇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男女間의 差는 1960年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약 4歲 程度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는 郡部の 男·女 平均初婚年齡이 같이 上昇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市部와 郡部間의 平均初婚年齡 差를 보면 男子의 경우 1960年 以後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1985年 以後에는 오히려 郡部地域에 비해 市部地域의 男子의 初婚年齡이 減少趨勢에 있다. 이는 市部地域에서 初婚年齡 자체가 높아지지 않은데다가, 初婚年齡이 비교적 낮은 郡部地域 男子들이 市部로 흡수·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女子의 경우, 1960年代에는 2歲 程度의 差를 보이다가 1970年 以後 1980年 中半까지 1歲 程度의 差를 보이고, 1988년에 와서는 2歲 程度의 差를 다시 보이므로써 市部地域에 거주하는 女子의 경우 상당수가 晩婚을 하는 傾向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로, 女子의 出生 및 結婚 Cohort別로 平均初婚年齡(Mean Age of First Marriage)을 비교하면, 대체로 各 出生年度別로 上昇하는 正比例 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1926년에 出生한 女子의 初婚年齡이 17歲에서, 1962

년에는 23歲로 37年間に 약 6歲 程度 上昇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結婚年度別로 보면, 역시 各 結婚年度別로 平均初婚年齡이 上昇하는 正比例 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1959年 以前에 結婚한 女子層의 平均初婚年齡은 18-19歲 사이에 集中되어 있고 1965年 以後부터 22-24歲에만 상당히 集中되어 있던 平均 初婚年齡이 1985年 以後부터 25-29歲로 서서히 分散되어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로, 初婚年齡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經濟 및 文化的 諸要因別 特性은 다음과 같다. 먼저 女子의 出生地別로 보면 1974年の 경우 現年齡 15-19歲와 20-24歲를 제외한 모든 年齡層과 1988年の 경우 15-19歲를 제외한 모든 年齡層에서 出生地가 市部인 女子가 郡部인 女子보다 一律의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 女子 일수록 市部出生과 郡部出生間에 結婚年齡의 差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結婚前 職業狀態를 보면 初婚年齡에 대단히 강한 影響력을 보이는 요인으로 1974年, 1988年 모두 婚前에 職業經驗이 없거나 농업이었던 女子의 경우가 다른 직종들 즉 전문직, 판매·서버비스직, 노무직에 경험이 있는 女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初婚年齡을 보이고 있다. 女子의 教育水準別 初婚年齡의 差異를 보면, 無學인 女子의 初婚年齡이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보다 대체로 낮고 年度別로 보면 1974년에 약 3歲, 1988년에 약 2歲로 無學과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初婚年齡의 差가 줄어드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4년에 비해 1988년에 접어들면서 初婚年齡이 전반적으로 上昇하였으나 無學인 女子의 初婚年齡 上昇幅이 大學教育을 받은 女子의 上昇幅보다 增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結果를 綜合해 볼 때, 우리나라의 初婚年齡은 점진적으로 上昇하여 왔지만 男女 모두 그 上昇速度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男子의 경우 初婚年齡의 上昇幅이 점차 鈍化되고 있는 듯하며, 女子의 경우도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이미 停滯現象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男女의 初婚年齡은 앞으로도 계속 上昇幅이 鈍化되면서 停滯現象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1960年以後 1980年代 初까지도 市部の 初婚年齡이 郡部보다 높은 趨勢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市部地域 男子의 初婚年齡이 오히려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都市化로 인하여 初婚年齡이 비교적 낮은 郡部地域 男子들이 市部로 吸收·編入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都市化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1990年代 以後에도 市部地域 男子들의 初婚年齡은 계속 減少趨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女子의 初婚年齡이 男子의 初婚年齡보다 빨리 上昇하기 때문에 男女差가 그동안 좁아져 왔으며 夫婦의 結婚年齡이 각각 독립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年齡差가 있어서 상호 의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男女의 初婚年齡의 差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一時的인 現象이 아니라면 家族生活에 큰 變化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男子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市部·郡部間 初婚年齡의 差異 減少 및 消滅 現象은 당분간 지속될 展望이며, 언젠가는 男女를 막론하고 初婚年齡의 市部·郡部間의 差異는 사라지게 될 것인 바, 앞으로 市部和 郡部라는 개념은 점차 무의미하게 되어 家族生活의 樣式이라는 점에서 점점 同質的으로 되어갈 것이다.

### 註

Hajnal Method : 각연령에서 미혼자의 비율이  $S(x)$ 이며, 결혼할 수 있는 연령층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나 인구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 연령에서 일어날 결혼 빈도수는  $d[S(x)] = n(x)dx$ 가 된다. 그러므로 가임기간중 결혼하게 될 사람의 평균 결혼연령 ( $\bar{x}$ )은 다음 공식에 의해 쉽사리 구해질 수 있다.

$$\begin{aligned}\bar{x} &= \frac{\int_d^D xn(x) \cdot dx}{\int_d^D n(x) \cdot dx} \\ &= d + \frac{1}{S(d) - S(D)} \int_d^D [S(x) - S(D)] dx \\ &= d + \frac{1}{S(d) - S(D)} * \left[ \int_d^D S(x) \cdot dx - (D-d) \cdot S(D) \right]\end{aligned}$$

여기서  $d$  : 재생산기간의 하한이 되는 연령

$D$  : 재생산기간의 상한이 되는 연령

$S(x)$  : 연령  $x$ 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단 이때 결혼이 시작되는 최초의 연령이  $d$ 세라면  $S(d) = 1$ 임을 유의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1960年 人口住宅國稅調查報告」  
\_\_\_\_\_, 「1966年 人口 센서서 報告」  
\_\_\_\_\_, 「1970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 報告」  
\_\_\_\_\_, 「1975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_\_\_\_\_, 「1980年 人口 및 住宅 센서스 報告」  
\_\_\_\_\_, 「1985年 人口 및 住宅 센서스 報告」  
\_\_\_\_\_,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產力調查」, 1977.
- 權泰煥, 金斗燮, 「人口의 理解」, 서울大 出版部, 1990.
- 高甲錫, 車正根, “初婚年齡 上昇이 低出產力에 미치는 影響—우리나라 婦人을 中心으로—”, 「人口問題論集」, 第10號, 人口問題研究所, 1970.
- 金慕妊 外, 「結婚年齡의 相關要因과 이의 人口調節政策으로서의 意義」,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80.
- 金太憲, “韓國의 初婚年齡과 出生間隔”,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會報」, 第1卷, 서울大學校 人口 및 開發研究所, 1982.
- 金玄操, “人口增減에 關係되는 몇가지 要因에 대한 意見分析”, 「人口問題論集」, 第11號, 人口問題研究所, 1971.
- 金柔敬, 崔仁鉉 外, “結婚力 變動과 出產力”, 「韓國의 出產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文顯相 外, 「1982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83.  
\_\_\_\_\_, 「1988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朴丙台 外, 「1976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8.

- 朴丙台, 文顯相, 「全國 家口 및 結婚數 推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卞鐘和, 高甲錫,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產力實態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9.
- 徐明姬, 金正銀, “韓國人的 簡易 結婚 生命表”, 「保健學論集」, 第34號,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82.
- 李榮勳, “우리나라 婦人의 結婚年齡 變動과 出產力”, 「家族計劃論集」, 第4號, 家族計劃研究院, 1977.
- 李興卓, “婚姻力: 韓國出產力 變動에 미치는 影響”, 論文集(人門 社會科學編), 第13卷, 大邱 嶺南大學校, 1980.
- \_\_\_\_\_, “韓國의 人口 現況과 展望”, 「家族計劃事業 評價大會 報告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 李興卓, 韓大愚, 「初婚年齡과 出產力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1974年과 1976年의 出產力 調查資料를 土臺로」, 家族計劃研究院, 1978.
- 梁在模, 金慕妊, 「韓國 3個 地域의 結婚, 結婚年齡 및 出產力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人口 및 家族計劃研究所.
- 曹大熙, 高甲錫, “最近 初婚年齡의 變化에 관한 小考”, 「韓國人口學會誌」, 第6卷, 第1號, 韓國人口學會, 1983.
- 崔 焯, “最近 우리나라 婦人의 初婚 樣相”, 「家族計劃研究」, 第3號, 家族計劃研究院, 1972.
- \_\_\_\_\_, “韓國人的 初婚年齡 Pattern의 變動에 관한 人口學的 研究”, 「韓國人口學會誌」, 第6卷, 第1號, 韓國人口學會, 1983.
- 崔 焯, 崔仁鉉, “韓國人的 婚姻 Pattern에 관한 研究”, 「人口 綜合分析 시리즈」,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 \_\_\_\_\_, “結婚類型的 最近動向”, 1990年 韓國社會學會 發表資料, 未發刊.

- Agawala, S. N., *Age at marriage in India*, Allahabad : Kitab Mahal, 1962.
- Akers, Donald S., "On Measuring the Marriage Squeeze", *Demography*, Vol. 4, No. 2, 1967.
- Atkinson, M. P. and Becky L. Glass, "Marital Age Hetrogamy and Homogamy, 1900-198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August 1985) : 685-691.
- Basavarajappa, K. G. : M. I. Belvalgidad, "Changes in Age at Marriage of Females and Their Effects on the Birth Rate in India", *Eugenics Quarterly*, Vol. 14, No. 1, 1967.
- Becker, G. S., "A Theory of Marriage : Part 1",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4 : 813-846, 1973.
- \_\_\_\_\_, "A Theory of Marriage : Part 2",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2 : 811-826, 1974.
- Becker, Gary S.,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2, 1974.
- Bogue, D. J., *Principles of Demograph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69.
- Bumpass, Larry, "Age at Marriage as a Variable in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Fertility", *Demography*, Vol. 6, No. 1, 1969.
- Chidambaram, V. C. and A. V. Zodgekar, "Increasing Female Age at Marriage in India and Its Impact on the First Birth Interval : An Empirical Analysis"(mimeo), 1969.
- Coale, A. J., "Age Pattern of Marriage", *Population Studies*, Vol. 25, No. 2, 1971.

- Chung, Kyung-Kyun, "Population, Family and Welfare (In) The Seminar on Population Growth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Seoul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1974.
- Coale, Ansley J., "Age Pattern of Marriage", *Population Studies*, Vol. 25, No. 2, 1971.
- \_\_\_\_\_,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of Nupti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Nemer special : 131 - 150, 1977.
- Dixon, Ruth B. "The social and demographic determinants of marital postponement and celibacy : A Comparative Stud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1970.
- \_\_\_\_\_, "Explaining Cross-Cultural Variations in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 Never Marrying", *Population Studies*, July, 1976.
- Eshleman, J. R., *The Family : An Introduction*, 5th ed. Allyn and Bacon, 1988.
- Fawcett, J. T.,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Nuptiality",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iege, 1973. Liege : International Union for Scientific Studies of Population, Vol. 2 : 19 - 23, 1974.
- Goode, W. J., *The Family*, Prentice-Hall, 1964.
- Hajnal, J.,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 Single", *Population Studies*, Vol. 7, No. 2, 1953.
- Kim, Mo Im, "Nuptiality in Korea" : Changing Age Marriage and Fertility", (IN)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Seoul, KDI, 1978.
- Kim Yun, "Age at Marriage and The Trend of Fertility in Korea",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eoul, MHSA, 1970.

- Kwon, E. Hyock and Kim, Tae Ryong, "The Population of Korea", Seoul,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968.
- KDI, "Summer Seminar on Population(Korea : A Case Study)", Seoul, KDI, 1978.
- Kwon, T. H.,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3.
- \_\_\_\_\_, *The Population of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5.
- Lado, T. Ruzika, *Nuptiality and Fertility*, January, 1979.
- Lapiere, Adamcyk Evelyne and Thomas, K. Burch, "Trends and Differentials in Age at Marriage in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 255 - 260, 1974.
- Lee, Byung Moo, "The Impact of Marital Age Distribution(Age at First Marriage), Induced Abortion and Family Planning Program on Fertility", *Annual Report of Family Planning*, Vol. I, National Family Planning Center, Seoul, 1970.
- Leslie, G. R. et. al., *The Family in the Social Context*,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Logone, P., "Variations sur le Mariage", *Population et Societe's*, Mai, (número, 14), 1969.
- Malaker, C. R.,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for the Single Population in India ; 1901 - 19331", *Demography*, Vol. 10, No. 4, 1973.
- Matras, Judah, *Introduction to Population*, Prentice-Hall, 1977.

- \_\_\_\_\_, "The Social Strategy of Family Formation : Some Variations in Time and Space", *Demography*, Vol. 2, 1965.
- Mertens, Walter, "Methodolog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of Nuptiality Tables", *Demography*, Vol. 2, 1965.
- Muhsam, H. V., "The Marriage Squeeze", *Demography*, 1974.
- Nye et al., *The Family*, Prentice-Hall, 1973.
- Palmore, J. A. and A. B. Marzuki, "Marriage Patterns and Cumulative Fertility in West Malaysia : 1961-1967", *Demography*, Vol. 6, No. 4, 1969.
- Park, Byung Tae, Choi, Byoung Mohk and Kwon, Ho The,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Seoul, KIFP, 1979.
- Retherford, R. *Nuptiality Tables*, Unpublished mimeograph, 1979.
- Ruzicka, L. T., "Age at Marriage and Timing of the First Birth", *Demography*, No. 3, 1976.
- Saveland, Walt and Paul C. Glick, "First-Marriage Decrement Tables by Color and Sex for the United States in 1958-60", *Demography*, Vol. 6, No. 3, 1969.
- Schoen, Robert, "A Twi-Sex Nuptiality Table", *Demography*, Vol. 14, No. 3, 1977.
- Shryock et. al., *Method and Materials for Demography*, Condensed ed., 1965.
- Sklarm J., "Role of Marriage Behavior In Demographic Transition : The Case of Eastern Europe Around 1900", *Population Studies* 28, No.2 : 231-249, 1974.
- Smith, P. C., "Index of Nuptiality : Asia and the Pacific", *Asian and Pacific Census Forum*, Vol. 15, No. 2,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78.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irst Marriage : Patterns and Determinant*, United Nations, 1988.

UN, ESCAP, "Multivariate Analysis of Nuptiality and Fertility for Selected ESCAP Countries",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9, Bangkok, United Nations, 1983.

Van de Walle, "Marriage and Marital Fertility",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1972.

Yoon, Jong Joo, Koo, Sung Yeal and Kim, Nam-II,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 第11章 우리나라 人力需給構造의 變化展望

具 成 烈\*

- I. 序論
  - II. 人力供給 構造 展望
  - III. 人力需要 構造 展望
  - IV. 需給構造의 問題點과 對策
-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과 範圍

1960년대의 본격적 經濟開發以後 우리나라는 人力需給構造에 현저한 변화를 겪어 왔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供給側面에서 볼때 우선 급격한 人口 增加率의 둔화는 약 15년의 시차를 갖고 노동력 인구의 수와 연령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력 상승으로 인한 인구의 질(교육수준) 향상, 노동력의 여성화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또 인구의 노령화가 출생율 및 사망률 감소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력 인구의 연령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학력과 경력등 인력의 질적측면에서 향상

---

\*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經濟學科 教授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需要側面에서도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그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화(자본집약화, 노동절약화) 및 첨단 산업화와 더불어 점차 양적 노동을 절약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수출 수요 비중 하락 혹은 내수 산업의 비중 증대로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구조 변동을 통하여 노동 수요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需給 兩面에서 극심한 구조적 변동을 겪는 가운데서도 需給上의 均衡을 어느 정도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需給上의 構造的 不均衡이 경제외적 요인과 결합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마찰(실업, 자원낭비, 노사분규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제에 그 간의 인력수급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여 보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經濟活動人口의 學歷構造를 展望하였는데 학력별 취업구조가 198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업별 잠재 공급인력을 학력별로 추계하였다. 제3장은 總需要를 展望하고 이에 대한 파생수요로서 산업별 노동수요를 추계하였는데 산업별 취업가의 학력구조가 198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수요 인력을 학력별로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산업별 학력별로 수급구조의 問題點과 對策을 논하고 人口政策에 對한 示唆點을 제시하였다.

## 2. 需給展望의 推計 方法

人力需給展望을 위한 추계모형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인구(나이, 성, 학력별)추계치에 인구특성별 경제활동율을 적용하여 경제활동 인구(성, 나이, 학력별)를 산정한다. 여기에 학력별 취업(산업)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산업별 잠재공급인력을 추계한다.

需要側面에서는 우선 最終需要를 展望하고 이에 대한 파생수요로서 인력수요(성별)를 추계하는데 1,2차 산업부문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및 노동계수를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며 3차 산업부문은 직접적으로 추계한다. 여기에 산업별 고용(학력)구조를 적용하여 산업별 수요인력을 도출한다.

이와 같이 별도로 展望된 需要 供給展望에서 산업별 인구특성별(성, 학력) 초과 공급(수요)전망을 도출한다.

人力需給展望을 推計하기 위하여 기존의 모형(윤석범·구성열, 1989)을 활용하였는데 本 研究는 인력 수급의 양면에서 學歷이라는 人口特性을 追加시킨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II. 人力供給 構造 展望

### 1. 15歲 以上 人口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人口推計는 조사통계국의 新人口推計이다. 이에 따라 歲別出產力 및 合計出產力(1.7명)은 매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平均壽命은 매년 약 0.4세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歲別生殘率은 조사통계국의 생명표를 근거로 하여 선형내삽방식으로 산출하였다. 純移民人口는 조사통계국에서 가정한 순이민 인구규모와 비슷한 규모가 되게 純移民率을 상정하고 이 율을 균등하게 모든 인구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推計結果를 요약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規模의 變動보다는 構

造의 變動이 보다 현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85-200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85년의 4081만에서 2000년의 4654만으로 연평균 0.876%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15세이상의 생산연령인구는 과거의 높은 출산력과 평균수명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1985년의 2850만에서 2000년의 3674만으로 총인구보다 두 배의 증가율에 해당하는 연평균 1.695%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5세이상 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은 1985년의 69.8%에서 2000년의 79.0%로 거의 10%「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30세 미만 인구의 구성비가 15년간 12.1%「포인트」 감소하는 대신 30-49세는 6.7%「포인트」 증가하며 이와 더불어 50세 이상도 5.4%「포인트」 증가함으로써 점차 고령화 하여 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2. 就學人口 및 學歷(系列)別 人口展望

본 연구에서 人力需給展望을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취학인구와 학력별 인구를 추계하는 것이다. 그 시발점은 초기년도의 性別·年齡別·學年別 學生數 및 學歷別 人口數이다. 초기년도가 되는 1985년의 性別·연령별 학생수는 「센서스」의 在學生人口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이를 학년별로 세분하기 위하여 1988년도 문교통계의 학년별 성·연령분포를 적용하였다.

초기조건이 주어지면 入學率 및 進學率 그리고 生殘率을 적용하여 차기년도의 학생수와 학력별 인구수를 산출하게 된다. 입학율과 진학율의 추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진학율은 고등교육기관과 고교이하로 나누어 별도의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우선 고교이하의 경우 각급학년에서의 연도별 진학율은 다음과 같은 중퇴율의 장기추세식에 의해 추계되었다.

$$\ln(1 - ADV_g) = a + bT + cS$$

T = 연도

S = 여학생 「더미」

ADV<sub>g</sub> = 학년별 진학율

대학(교) 학생수는 1980년 7월 30일의 교육개혁조치이후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정원의 확대로 크게 늘어났으나 6차 계획기간 중에는 고급인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증원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방침이 200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학진학율은 대학1년 학생수/고교졸업자수에 의하여 역산하였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 제외) 취학인구의 구성은 1988년도 문교통계자료에 나타난 대학생 성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非就學人口의 比率은 취학인구의 잔여로서 산출되며 이들의 學歷構造의 變動은 다음과 같이 추계된다. 즉 t시점에서 어떤 「코호트」의 학력수준을 e(국민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4)라고 할때 학력수준 e인 인구의 수는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POP_{e=0,t} = POP_{e=0,t-1} - \text{국교입학자수}$$

$$POP_{e=1,t} = POP_{e=1,t-1} + \text{국교입학자수} - \text{중학입학자수}$$

$$POP_{e=2,t} = POP_{e=2,t-1} + \text{중학입학자수} - \text{고교입학자수}$$

$$POP_{e=3,t} = POP_{e=3,t-1} + \text{고교입학자수} - \text{대학입학자수}$$

$$POP_{e=4,t} = POP_{e=4,t-1} + \text{대학입학자수}$$

### 3. 經濟活動人口의 規模와 構造 展望

民間 經濟活動人口를 推計하기 위하여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민간인구를 제외하여야 한다. 1980년 센서스에 의하면 해외공관원, 전투경찰원, 교도소 및 소년원 수감자와 육해공군에 속하는 특별조사구의 인구 118만중

해외공관원을 제외한 15세이상의 비민간인구의 수는 75.4만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규모와 성·연령구성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민간인구를 산출하였다.

經濟活動率의 推定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가지 요인을 고려에 넣었다. 첫째, 25세 미만인구의 경우 취학율의 상승이 지속되며 이는 경제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출산력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활동율의 변동도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산업화 또는 도시화의 진전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율이 다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도시인구의 비율이 인구특성별(성별 나이별)로 향후 20년간 평균 20%「포인트」내외의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인구특성별 경제활동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위의 가정을 토대로 할때 1991-2000년간 경제활동율은 점차 상승하여 10년간 3.4%「포인트」증가할 전망이다. 상승추세는 남여가 공통적이거나 연령구조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경우 25세 미만인구의 활동율은 취학율 상승과 도시화등으로 저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2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정체 내지 완만한 상승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55세 이상 인구의 경우 도시화등에 힘입어 상당히 상승할 전망이다.

여자의 경우 고용기회의 증가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50세 이상 인구에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이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상쇄효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10년간 3.6%「포인트」상승에 그칠것으로 전망된다.

#### a. 經濟活動人口의 規模와 學歷構造 展望

經濟活動人口는 規模보다는 質的 構造的 側面에서 그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1990년 현재 연간 3%내외의 증가에서 2000년경에는 1.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性別 構造面에서는 女性 人力의 증가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經濟活動率은 學歷別로 다소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고학력자의 경우 비활동(여가 선택)에 대한 기회 비용(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력차에 따른 활동율의 차이를 전망하려면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하고 여기서는 經濟活動率에 있어서 學歷別 隔差가 없는 것으로 단순화하기로 한다.

經濟活動率이 學歷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할 때 性別·學歷別 經濟活動人口의 增加率展望은 <表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국졸 이하의 학력자수는 남자의 경우 지금부터, 여자의 경우에는 1992년 이후부터 절대 감소하게 된다.

중졸학력자의 수도 1999년경에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 1996년부터 절대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하며 그 정도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자의 경우에도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어 2000년 이후에는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고졸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도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기까지 고졸학력자의 경우 연간 2.8%, 대졸학력자의 경우 연간 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증가율(1% 이하)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적 증가율(1.7%)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취학을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就學率 上昇傾向은 특히 여자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 고졸학력자의 증가율은 남자에 비하여 1%「포인트」이상, 대졸자의 경우에도 0.5%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b. 産業別 人力供給 展望

지금까지 추계한 性別·학력別 경제활동인구는 産業別로 어떻게 配分될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즉 産業別 潛在的 勞動供給을 推計하

기 위하여 1986년에 관찰된 學歷別 就業構造를 적용하였다. 특정연도의 취업구조를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경직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유익하다면 문제시될 것이 없다. 즉 만일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양상이 노동집약산업보다 기술·자본집약산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된다면 고학력자의 供給展望値는 노동집약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도,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學歷別 活動者數를 1986년도의 學歷別 就業構造에 따라 배분하여 산출한 産業別 人力 供給展望은 <表 2>와 같다. 이에 의하면 학력수준의 전반적 상승경향에 힘입어 판매, 금융, 기타서비스업등 서비스업종에는 인력공급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은 인력공급이 평균이하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광업은 1995년 이후부터 인력공급이 절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에너지 산업등은 평균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력의 경우 위의 패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농림어업이 평균 이상의 여성인력 공급증가율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제조업, 에너지, 금융업 등은 평균이하의 여성인력 공급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이며 판매업도 평균수준의 여성인력 공급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요컨대 學歷構造의 上昇에 따라 판매, 금융및 기타서비스쪽으로 人力供給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게 되며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 부문에는 여성인력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表 1> 産業別 年度別 學歷別 人力供給의 增加率 展望

단위 %

년 도	무 학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합 계
남자						
1986	-0.054	-0.018	0.013	0.044	0.081	0.029
1987	-0.053	-0.018	0.010	0.044	0.076	0.028
1988	-0.053	-0.018	0.007	0.046	0.073	0.029
1989	-0.054	-0.020	0.009	0.042	0.064	0.027
1990	-0.058	-0.023	0.008	0.041	0.056	0.025
1991	-0.059	-0.024	0.006	0.040	0.055	0.024
1992	-0.060	-0.024	0.003	0.035	0.053	0.022
1993	-0.063	-0.024	0.001	0.032	0.050	0.021
1994	-0.064	-0.026	0.002	0.028	0.047	0.019
1995	-0.061	-0.026	0.001	0.026	0.045	0.018
1996	-0.061	-0.027	-0.002	0.024	0.042	0.017
1997	-0.063	-0.025	-0.003	0.023	0.040	0.016
1998	-0.064	-0.025	-0.005	0.023	0.039	0.016
1999	-0.065	-0.026	-0.005	0.023	0.037	0.016
여자						
1986	-0.029	-0.002	0.032	0.058	0.104	0.032
1987	-0.027	0.001	0.033	0.071	0.083	0.036
1988	-0.028	0.003	0.034	0.061	0.079	0.035
1989	-0.025	0.002	0.028	0.053	0.065	0.030
1990	-0.020	0.001	0.024	0.058	0.057	0.030
1991	-0.018	0.001	0.025	0.052	0.060	0.030
1992	-0.020	-0.000	0.023	0.044	0.051	0.025
1993	-0.018	-0.001	0.023	0.043	0.050	0.026
1994	-0.017	-0.001	0.020	0.040	0.050	0.024
1995	-0.037	-0.011	0.013	0.037	0.046	0.018
1996	-0.037	-0.013	0.011	0.039	0.045	0.019
1997	-0.037	-0.016	0.008	0.036	0.049	0.018
1998	-0.038	-0.017	0.006	0.039	0.046	0.018
1999	-0.039	-0.018	0.005	0.039	0.044	0.018

〈表 1 繼續〉

년 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합 계
합계						
1986	-0.038	-0.010	0.021	0.049	0.088	0.030
1987	-0.037	-0.008	0.019	0.053	0.078	0.031
1988	-0.037	-0.008	0.018	0.051	0.075	0.031
1989	-0.036	-0.009	0.017	0.045	0.064	0.028
1990	-0.033	-0.011	0.015	0.046	0.057	0.027
1991	-0.032	-0.011	0.014	0.044	0.056	0.026
1992	-0.033	-0.012	0.012	0.038	0.052	0.024
1993	-0.033	-0.012	0.011	0.036	0.050	0.023
1994	-0.032	-0.013	0.010	0.032	0.048	0.021
1995	-0.044	-0.018	0.006	0.029	0.045	0.018
1996	-0.044	-0.019	0.004	0.029	0.043	0.017
1997	-0.045	-0.020	0.002	0.028	0.043	0.017
1998	-0.046	-0.021	0.000	0.028	0.041	0.017
1999	-0.046	-0.022	-0.000	0.028	0.039	0.017

<表 2> 性別 年度別 産業別 人力供給의 增加率 展望

단위 : %

년 도	계	농림	광공	에너지	건설	판매	운수	금융	기타
남자									
1986	0.029	0.001	0.035	0.040	0.014	0.040	0.024	0.048	0.043
1987	0.028	0.000	0.034	0.039	0.014	0.039	0.024	0.047	0.042
1988	0.029	-0.000	0.035	0.040	0.014	0.039	0.025	0.048	0.043
1989	0.027	-0.001	0.032	0.037	0.013	0.036	0.023	0.043	0.039
1990	0.025	-0.002	0.030	0.036	0.012	0.033	0.021	0.041	0.037
1991	0.024	-0.003	0.029	0.035	0.012	0.032	0.021	0.040	0.037
1992	0.022	-0.004	0.027	0.031	0.010	0.030	0.019	0.036	0.033
1993	0.021	-0.005	0.025	0.029	0.009	0.029	0.017	0.034	0.031
1994	0.019	-0.005	0.023	0.026	0.007	0.026	0.016	0.031	0.028
1995	0.018	-0.005	0.022	0.024	0.006	0.025	0.015	0.029	0.026
1996	0.017	-0.006	0.021	0.023	0.006	0.024	0.014	0.027	0.024
1997	0.016	-0.006	0.020	0.021	0.005	0.023	0.013	0.026	0.023
1998	0.016	-0.006	0.019	0.021	0.005	0.022	0.013	0.025	0.023
1999	0.016	-0.006	0.019	0.021	0.005	0.022	0.013	0.025	0.022
여자									
1986	0.032	0.040	0.021	0.008	0.009	0.031	0.011	0.022	0.058
1987	0.036	0.050	0.026	0.010	0.012	0.036	0.013	0.023	0.052
1988	0.035	0.045	0.025	0.012	0.013	0.034	0.015	0.024	0.050
1989	0.030	0.039	0.021	0.009	0.011	0.029	0.012	0.020	0.042
1990	0.030	0.043	0.022	0.009	0.011	0.030	0.012	0.019	0.039
1991	0.030	0.039	0.022	0.010	0.011	0.030	0.012	0.020	0.041
1992	0.025	0.033	0.019	0.008	0.009	0.025	0.010	0.017	0.035
1993	0.026	0.033	0.019	0.008	0.009	0.025	0.011	0.017	0.035
1994	0.024	0.031	0.018	0.007	0.008	0.024	0.010	0.017	0.035
1995	0.018	0.026	0.011	-0.002	-0.001	0.018	0.001	0.009	0.029
1996	0.019	0.028	0.011	-0.003	-0.002	0.018	-0.000	0.008	0.029
1997	0.018	0.026	0.009	-0.005	-0.004	0.018	-0.002	0.008	0.031
1998	0.018	0.028	0.009	-0.007	-0.005	0.018	-0.003	0.007	0.030
1999	0.018	0.028	0.009	-0.007	-0.005	0.018	-0.003	0.007	0.029

〈表 2 繼續〉

년 도 계	농림	관공	에너지	건설	판매	운수	금융	기타	
합계									
1986	0.030	0.016	0.029	0.028	0.012	0.036	0.019	0.041	0.049
1987	0.031	0.020	0.031	0.029	0.013	0.038	0.020	0.040	0.046
1988	0.031	0.018	0.031	0.030	0.014	0.037	0.021	0.041	0.046
1989	0.028	0.016	0.028	0.027	0.012	0.033	0.018	0.037	0.040
1990	0.027	0.017	0.027	0.026	0.012	0.032	0.017	0.035	0.038
1991	0.026	0.016	0.026	0.026	0.011	0.031	0.017	0.035	0.038
1992	0.024	0.013	0.024	0.023	0.010	0.028	0.015	0.031	0.034
1993	0.023	0.013	0.023	0.022	0.009	0.027	0.015	0.030	0.032
1994	0.021	0.012	0.021	0.020	0.008	0.025	0.013	0.027	0.030
1995	0.018	0.010	0.017	0.015	0.005	0.022	0.009	0.024	0.027
1996	0.017	0.010	0.017	0.014	0.004	0.022	0.008	0.023	0.026
1997	0.017	0.010	0.016	0.013	0.003	0.021	0.007	0.022	0.026
1998	0.017	0.011	0.016	0.012	0.002	0.021	0.007	0.021	0.026
1999	0.017	0.011	0.015	0.012	0.003	0.020	0.007	0.021	0.025

### Ⅲ. 人力需要 構造 展望

#### 1. 推計方法

人力需要를 展望하는데 있어 그 추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수요의 증가 추세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요부문별로 성장율을 전망하였다. 최종수요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12개품목으로 구분하였다.

소비(6개 품목) : 음식료품, 주거, 광열, 피복, 잡비, 정부소비지출

투자(2개 품목) :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4개 품목) : 농·광산물, 경공업제품, 중공업제품, 서비스

최종수요의 부문별 전망을 산업별 노동수요로 연결하기 위하여 산업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 a. 有形財產業 部門

그 하나는 最終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産業別로 推計한 다음 이를 勞動需要 展望으로 연결지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산성의 변동추이가 비교적 분명한 유형재산업(농업과 광공업부문)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有形財產業의 勞動需要에 對한 展望(자세한 내용은 윤석범, 구성열, 1989 참조)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단계로 추계된 것이다. 첫째, 주어진 최종수요전망을 시계열자료에서 추정된 부가가치전환계수를 적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전망으로 전환시켰다. 산업의 구분은 농수산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의 4개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주어진 부가가치전망을 노동수요와 연결하기 위하여 생산함수(부가가치)를 추계하였다. 여기서 산업의 구분은 자료관계로 농수산업, 광공

업으로 대별하였으며 부가가치생산의 결정요인으로는 산업별 취업자 인당 투자율, 취업자수, 여성취업자수, 청장년(25-50세) 취업자수, 취업시간(주당 평균)을 고려하였다.

셋째, 생산함수에서 추정된 노동수요계수를 적용하여 주어진 산업별 성장(부가가치)전망을 노동수요전망으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有形財產業의 勞動需要의 展望을 위하여서는 산업별 성장율이외에도 취업자 인당투자의 증가율, 노동시간증가율, 여성취업자 구성비 증가율 및 청장년취업자 구성비 증가율 등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수요의 추계에 관련된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투자 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을 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노동시간 증가율 : 과거의 추세치를 근거로 하여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전망.

$$\text{농수산업} = \text{연간} - 0.435\%$$

$$\text{광공업} = \text{연간} - 0.578\%$$

여성취업자 구성비 증가율 : 과거의 추세치를 근거로 하여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전망.

$$\text{농수산업} = \text{연간} + 0.219\%$$

$$\text{광공업} = \text{연간} 0.971\%$$

청장년 취업자 구성비 증가율 : 과거의 추세치를 근거로 하여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전망.

$$\text{농수산업} = \text{연간} - 1.771\%$$

$$\text{광공업} = \text{연간} + 2.63\%$$

## b. 建設 및 서비스産業 部門

다른 하나는 最終需要의 變動과 이로 인해 유발될 雇傭量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건설 및 서비스산업의 勞動需要를 推

計하는데 적용하였다. 서비스産業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생산성의 개념이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고용에 대한 시계열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종수요의 고용유발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함수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_i = \alpha D_j + d_1 \text{ Census} + d_2 \text{ ESS}$$

$E_i$  = i산업 취업자수

$\alpha$  = 최종수요에 대한 고용유발계수 행렬

$D_j$  = 최종수요 지출 벡터

$d_1$  = Census년도 더미변수

$d_2$  = 고용구조 특별조사(ESS)자료 더미변수

위 식의 추정은 就業者의 性別로 구분하여 推定하였고 産業別로 자료사정에 맞추어 別度로 推定하였다. 즉 時系列資料가 1963년 이후부터 있는 건설업의 경우 최종수요를 12개부문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센서스 이외의 시계열자료가 1982년 이후부터에만 한정되어 있는 비건설 서비스업의 경우 최종수요를 소비, 투자, 수출의 3개부문으로 크게 묶어 추정하였다.

推定結果를 産業別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면 건설업의 경우 노동수요(고용)은 남자의 경우 경공업제품 수출에 (-)방향으로, 여자의 경우 정부소비지출에 (+)방향으로 유의적임을 보였으나 그 외의 추정계수는 전반적으로 비유의적이었다. 그러나 설명계수( $R^2$ )가 90% 이상이어서 예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비건설 서비스부문의 경우 판매, 운수, 금융업에서는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판매업에서는 노동수요가 소비지출에 (+)방향으로 유의적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총수출에 대하여 (-), 여자의 경우 투자에 대하여 (-)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운수업도 판매업

과 유사하게 노동수요가 소비지출에 (+), 수출에 (-)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금융업에서는 남자의 경우 투자에 (+), 여자의 경우 소비지출에 (+)방향으로 유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에너지산업과 기타 서비스산업은 대체로 설명력과 유의성이 다 같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위에서 추정된 최종수요의 고용유발계수행렬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유의할 점은 건설업의 경우 最終需要를 12항목으로 세분하여 추정하였으나 건설업이외의 산업에서는 最終需要를 3개 항목으로 일괄추정하였기 때문에 추정된 유발계수행렬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 투자, 수출의 세부항목별 고용유발계수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2. 最終需要 및 有形財產業의 成長 展望

이제 最終需要에 對한 展望이 주어지면 有形財產業의 成長展望과 雇傭(勞動需要)展望을 도출할 수 있다. 또 건설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고용전망도 아울러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최종수요에 대한 향후 전망과 그에 따른 유형재산업의 성장전망을 논의하기로 한다.

### a. 最終需要 展望

전망의 초기년도에 있어서 最終需要에 대한 項目別 增加率을 1980년대의 增加 趨勢와 項目別 所得彈力度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민간소비 : 4.0-7.7%

음식료품비 4.0, 주거비 7.4, 광열비 및 피복비 4.7, 잡비 7.7%

정부소비지출 : 5.1%

투자지출 : 8.5%

수출(실질) :

경공업 제품 7.0, 중화학제품 9.8, 서비스 6.2%

초기년도 이후에 대하여서는 고도성장의 장기지속을 가정하는데 따른 비현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수요의 증가율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매년 0.1% 포인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b. 有形財産業의 成長率 展望

주어진 總需要의 增加展望아래 農水産業의 成長率은 1991년의 2.0%에서 2000년에는 4.8%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광공업은 1991-2000년간 성장율이 7.9%에서 7.3%로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광업과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화학공업도 9.4%에서 8.7%로 성장율이 다소 저하될 전망이다.

### 3. 人力需要와 構造 展望

주어진 經濟成長 展望아래 2000년까지의 人力需要를 推計하였다. 여기서는 그 주요 결과를 산업별 수요전망과 학력별 수요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a. 産業別 勞動需要

주어진 성장율 전망아래 산업전체에 대한 노동수요는 3%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勞動需要展望<表 4>을 산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업 : 노동수요는 1990년대초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감소추세는 점차 약화되어 1997년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수산업의 성장율이 점차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 때문이다.

광공업 : 주어진 성장율 전망과 고용구조아래 노동수요는 1%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계속 저하되어 2000년경에는 거의 정체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금융업 : 건설업은 노동수요 증가율이 1990-2000년간 10%내외에서 7.5%로 저하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금융업과 함께 가장 고용흡수력이 큰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운수업 : 노동수요 증가율이 마찬가지로 저하추세에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건설·금융부문 다음으로 고용증가율이 큰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기타서비스업 : 에너지산업은 노동수요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서비스업도 5%이내에서 안정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 b. 學歷別 人力需要 展望

지금까지 推計한 産業別 勞動需要는 質(學歷)的인 側面에서는 어떠한 構造를 가질 것이며 學歷別로 볼때 人力需要 展望은 어떠한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1986년에 관찰된 産業別 雇傭人力의 學歷構造를 適用하였다. 특정연도의 취업구조를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경직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유의한다면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점은 경제활동인구를 학력에 따라 각 산업에 배분한 3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산업별 노동수요를 1986년도의 학력구조에 따라 배분하여 산출한 학력별 노동수요전망은 <表 5>와 같다. 이에 의하면 앞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보다는 고졸이상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表 3〉 最終需要의 雇傭誘發係數：建設 및 서비스産業 部門

	민간 소비지출					정 부 소비지출	투 자		수 출			
	음식료품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 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농광산물	경공업품	중공업품	서비스
남자												
건설업	-0.01978	0.078250	-0.09216	0.239206	0.067412	0.130681	-0.05919	0.044068	0.063469	-0.11528	0.007964	0.05273
기타	-0.00452	-1.5953	0.730491	0.54429	0.12562	0.014477	-0.09441	0.113343	0.523249	-0.23369	0.095272	0.132082
에너지	-0.00152	-0.00152	-0.00152	-0.00152	-0.00152	-0.00152	0.002049	0.002049	0.000418	0.000418	0.000418	0.000418
판매	0.072512	0.072512	0.072512	0.072512	0.072512	0.072512	-0.01025	-0.01025	-0.02518	-0.02518	-0.02518	-0.02518
운수	0.021179	0.021179	0.021179	0.021179	0.021179	0.021179	0.006881	0.006881	-0.00754	-0.00754	-0.00754	-0.00754
금융	0.009874	0.009874	0.009874	0.009874	0.009874	0.009874	0.000865	0.000865	0.003334	-0.03334	0.003334	0.003334
서비스	0.040677	0.040677	0.040677	0.040677	0.040677	0.040677	-0.05064	-0.05064	0.015438	0.015438	0.015438	0.015438
여자												
건설업	0.002502	-0.01084	-0.03035	0.005862	-0.01292	0.036139	-0.00257	0.013592	0.015444	-0.01166	0.006114	0.003299
기타	0.105285	-1.07053	0.205392	0.073362	0.134777	-0.04708	-0.05120	0.042936	0.51837	-0.18252	0.066892	0.135333
에너지	0.000520	0.000520	0.000520	0.00520	0.000520	0.000520	-0.00017	-0.00017	-0.00017	-0.00017	-0.00017	-0.00017
판매	0.091636	0.091636	0.091636	0.091636	0.091636	0.091636	-0.06179	-0.06179	-0.00904	-0.00904	-0.00904	-0.00904
운수	0.006932	0.006932	0.006932	0.006932	0.006932	0.006932	0.002844	0.002844	-0.00583	-0.00583	-0.00583	-0.00583
금융	0.000148	0.000148	0.000148	0.000148	0.000148	0.000148	0.006052	0.006052	0.002115	0.002115	0.002115	0.002115
서비스	0.025830	0.025830	0.025830	0.025830	0.025830	0.025830	-0.05124	-0.05124	0.027541	0.027541	0.027541	0.027541

〈表 4〉 性別 年度別 産業別 勞動需要의 增加率 展望

단위 : %

년 도	계	농림	광공	에너지	건설	판매업	운수	금융	기타
남자									
1986	0.043	-0.034	0.120	0.139	0.026	0.045	0.049	0.109	0.016
1987	0.037	-0.020	0.054	0.146	0.103	0.021	0.081	0.062	0.074
1988	0.022	-0.081	0.057	0.021	0.104	0.062	0.068	0.086	0.043
1989	0.025	-0.076	0.007	0.042	0.098	0.058	0.065	0.083	0.042
1990	0.026	-0.071	0.005	0.020	0.095	0.055	0.064	0.080	0.041
1991	0.028	-0.063	0.003	0.039	0.091	0.052	0.062	0.078	0.041
1992	0.029	-0.055	0.002	0.057	0.088	0.049	0.058	0.077	0.040
1993	0.030	-0.047	0.000	0.036	0.085	0.046	0.057	0.074	0.039
1994	0.031	-0.037	-0.001	0.052	0.082	0.043	0.055	0.074	0.038
1995	0.032	-0.025	-0.003	0.066	0.080	0.039	0.053	0.070	0.038
1996	0.032	-0.014	-0.004	0.062	0.077	0.036	0.050	0.070	0.037
1997	0.033	-0.002	-0.005	0.058	0.076	0.033	0.049	0.069	0.036
1998	0.033	0.012	-0.006	0.068	0.073	0.030	0.046	0.067	0.036
1999	0.033	0.026	-0.007	0.064	0.071	0.027	0.045	0.067	0.036
여자									
1986	0.072	-0.008	0.205	-0.250	0.149	0.031	-0.048	0.115	0.070
1987	0.024	-0.035	0.061	0.667	0.221	-0.001	0.050	0.168	0.044
1988	0.019	-0.077	0.031	0.200	0.170	0.056	0.127	0.074	0.057
1989	0.022	-0.073	0.023	0.000	0.145	0.053	0.099	0.072	0.056
1990	0.024	-0.066	0.021	0.167	0.143	0.049	0.090	0.074	0.056
1991	0.025	-0.060	0.020	0.000	0.132	0.046	0.082	0.072	0.056
1992	0.027	-0.051	0.019	0.143	0.129	0.043	0.065	0.075	0.055
1993	0.028	-0.042	0.017	0.000	0.120	0.040	0.051	0.073	0.056
1994	0.029	-0.033	0.016	0.125	0.117	0.037	0.049	0.072	0.056
1995	0.030	-0.021	0.015	0.000	0.113	0.034	0.028	0.072	0.056
1996	0.030	-0.010	0.014	0.111	0.105	0.030	0.027	0.071	0.056
1997	0.031	0.003	0.012	0.000	0.106	0.028	0.009	0.073	0.057
1998	0.031	0.016	0.012	0.000	0.102	0.024	-0.009	0.073	0.057
1999	0.032	0.030	0.011	0.100	0.099	0.021	-0.018	0.070	0.058

<表 4 繼續>

년 도	계	농림	광공	에너지	건설	판매업	운수	금융	기타
합계									
1986	0.055	-0.022	0.154	0.100	0.035	0.038	0.041	0.111	0.038
1987	0.031	-0.027	0.057	0.182	0.113	0.010	0.079	0.098	0.061
1988	0.021	-0.080	0.046	0.038	0.109	0.059	0.073	0.080	0.049
1989	0.023	-0.075	0.014	0.037	0.105	0.055	0.069	0.080	0.048
1990	0.025	-0.068	0.012	0.036	0.099	0.052	0.066	0.077	0.047
1991	0.027	-0.061	0.010	0.052	0.096	0.049	0.063	0.077	0.047
1992	0.028	-0.053	0.009	0.049	0.092	0.046	0.059	0.075	0.046
1993	0.029	-0.044	0.007	0.047	0.088	0.043	0.057	0.074	0.046
1994	0.030	-0.035	0.006	0.045	0.086	0.040	0.054	0.073	0.046
1995	0.031	-0.023	0.005	0.057	0.084	0.037	0.051	0.072	0.046
1996	0.031	-0.012	0.004	0.068	0.081	0.033	0.048	0.071	0.045
1997	0.032	0.000	0.003	0.051	0.078	0.030	0.045	0.069	0.046
1998	0.032	0.014	0.002	0.060	0.077	0.027	0.043	0.069	0.045
1999	0.033	0.028	0.001	0.068	0.075	0.024	0.040	0.068	0.046

상대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1990-2000년간 대졸자에 대한 수요는 4%내외에서 머물 전망이다. 고졸자에 대한 수요도 4%-3%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졸 이하자에 대한 수요는 년평균 1%-3%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노동수요전망에 있어 성별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녀 모든 노동수요증가율이 2%수준에서 3%수준으로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별로 이를 세분하여 보았을 때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증가율은 여자의 경우가 남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表 5〉 學歷別 勞動需要의 增加率 展望

단위 : %

년 도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합 계
남자				
1986	0.027	0.058	0.058	0.043
1987	0.025	0.044	0.056	0.037
1988	-0.001	0.040	0.050	0.022
1989	0.012	0.033	0.041	0.025
1990	0.016	0.033	0.041	0.026
1991	0.019	0.033	0.040	0.028
1992	0.022	0.033	0.040	0.029
1993	0.025	0.032	0.039	0.030
1994	0.027	0.032	0.038	0.031
1995	0.029	0.032	0.037	0.032
1996	0.031	0.032	0.037	0.032
1997	0.033	0.031	0.036	0.033
1998	0.034	0.031	0.035	0.033
1999	0.035	0.030	0.035	0.033
여자				
1986	0.062	0.098	0.079	0.072
1987	0.012	0.048	0.045	0.024
1988	0.006	0.045	0.052	0.019
1989	0.009	0.045	0.054	0.022
1990	0.012	0.043	0.051	0.024
1991	0.015	0.043	0.050	0.025
1992	0.017	0.041	0.050	0.027
1993	0.019	0.040	0.049	0.028
1994	0.021	0.039	0.050	0.029
1995	0.023	0.039	0.049	0.030
1996	0.024	0.037	0.049	0.030
1997	0.025	0.037	0.049	0.031
1998	0.027	0.036	0.050	0.031
1999	0.028	0.035	0.049	0.032
합계				
1986	0.044	0.071	0.062	0.055
1987	0.019	0.045	0.053	0.031
1988	0.002	0.042	0.051	0.021
1989	0.010	0.037	0.044	0.023
1990	0.014	0.036	0.043	0.025
1991	0.017	0.036	0.042	0.027
1992	0.020	0.036	0.042	0.028
1993	0.022	0.035	0.041	0.029
1994	0.024	0.035	0.041	0.030
1995	0.026	0.034	0.040	0.031
1996	0.028	0.034	0.039	0.031
1997	0.029	0.033	0.039	0.032
1998	0.031	0.033	0.039	0.032
1999	0.032	0.032	0.038	0.033

## IV. 需給構造의 問題點과 對策

### 1. 人力需給構造의 問題點

供給展望과 需要展望으로부터 需給構造에 대한 展望을 導出할 수 있다. <表 6>은 人力供給에서 수요를 차감한 초과供給의 형태로 이를 追計한 결과이다. 이에 依하면 1986년 현재 人力의 초과供給규모는 92만이지만 1992년까지 94만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후 점차 감소되어 1998년에는 (-) 즉 부족( 초과수요)상태로 反轉되며 이후부터 양적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量的問題보다는 構造의 不均衡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구조적 문제는 특히 高學력 과잉, 低學력 과소라는 學력구조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學력별 人力의 초과供給 전망은 비교의 기준년도인 1986년부터 低學력인력은 과소, 高學력인력은 과다供給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不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表 6>의 追計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 하여야 한다. 즉 學歷別 就業構造를 1986년 현재를 기준(Base)으로 하였는데도 기준년도의 초과供給율이 실제의 실업율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大졸자의 초과供給율이 여자 51.8%, 남자 18.2%로 과다追計된 것은 문제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學력별 경제활동율의 차이를 供給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表 6>의 해석에 있어서 초과供給 규모 및 비율 자체보다는 그 증감추세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學歷別 超過供給 展望을 보면 중졸이하 學력자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초과수요현상이 전망되며 그 정도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중졸이하 學력자가 供給에 比하여 부족율이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71%에 이

〈表 6〉 性別 年度別 學歷別 人力供給의 過不足 展望

단위:천명, %

년 도	인 원 수				부 족 율			
	증졸	고졸	대졸	합계	증졸	고졸	대졸	합계
남자								
1986	-175	523	331	675	-4.0	13.8	18.2	6.7
1987	-327	500	392	560	-7.5	12.6	20.0	5.4
1988	-479	522	453	493	-11.0	12.6	21.4	4.7
1989	-514	567	525	574	-12.0	13.1	23.1	5.3
1990	-609	626	599	610	-14.3	13.9	24.8	5.5
1991	-727	682	660	611	-17.2	14.5	25.9	5.3
1992	-869	737	724	587	-20.9	15.1	26.9	5.0
1993	-1,032	770	788	522	-25.1	15.2	27.8	4.4
1994	-1,214	792	852	426	-29.9	15.2	28.6	3.5
1995	-1,412	797	909	291	-35.2	14.9	29.2	2.3
1996	-1,624	789	967	127	-41.1	14.3	29.7	1.0
1997	-1,855	774	1,021	-66	-47.7	13.7	30.1	-0.5
1998	-2,101	751	1,069	-285	-54.8	13.0	30.3	-2.2
1999	-2,364	727	1,119	-523	-62.6	12.3	30.6	-3.9
2000	-2,640	703	1,166	-776	-71.1	11.7	30.7	-5.7
여자								
1986	-329	155	422	250	-8.5	8.9	51.8	3.9
1987	-568	102	476	11	-14.6	5.6	52.9	0.2
1988	-592	151	532	93	-15.1	7.6	54.6	1.4
1989	-578	189	586	198	-14.6	9.0	55.7	2.8
1990	-588	215	629	258	-14.8	9.7	56.2	3.5
1991	-615	257	668	312	-15.3	11.0	56.4	4.1
1992	-652	290	713	353	-16.1	11.8	56.8	4.5
1993	-706	309	749	353	-17.3	12.0	56.8	4.4
1994	-771	328	787	345	-18.8	12.3	56.9	4.2
1995	-850	344	826	320	-20.6	12.4	56.8	3.8
1996	-979	352	862	236	-23.9	12.2	56.7	2.8
1997	-1,125	369	899	144	-27.6	12.3	56.6	1.7
1998	-1,289	382	943	38	-31.9	12.3	56.6	0.4
1999	-1,468	408	984	-75	-36.6	12.6	56.4	-0.8
2000	-1,661	434	1,023	-203	-41.9	12.9	56.2	-2.2

〈表 6 繼續〉

년 도	인 원 수				부 족 율			
	중졸	고졸	대졸	합계	중졸	고졸	대졸	합계
합계								
1986	-504	679	753	924	-6.1	12.2	28.6	5.6
1987	-897	602	868	571	-10.9	10.4	30.3	3.4
1988	-1,070	674	986	586	-13.0	11.0	31.9	3.4
1989	-1,092	756	1,110	772	-13.2	11.8	33.4	4.3
1990	-1,197	841	1,228	869	-14.5	12.5	34.7	4.7
1991	-1,341	939	1,329	923	-16.3	13.3	35.6	4.9
1992	-1,520	1,027	1,437	940	-18.5	14.0	36.4	4.8
1993	-1,737	1,079	1,537	876	-21.2	14.2	37.0	4.4
1994	-1,984	1,120	1,639	771	-24.3	14.2	37.6	3.8
1995	-2,262	1,141	1,735	612	-27.8	14.0	38.0	2.9
1996	-2,604	1,141	1,829	363	-32.3	13.6	38.3	1.7
1997	-2,981	1,143	1,919	78	-37.4	13.2	38.5	0.4
1998	-3,389	1,134	2,013	-246	-43.0	12.8	38.8	-1.1
1999	-3,832	1,134	2,103	-598	-49.2	12.4	38.9	-2.7
2000	-4,302	1,137	2,189	-980	-56.0	12.1	39.0	-4.3

르러 초과수요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초과공급상태가 지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규모와 비율면에서는 초과공급이 현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의 경우에도 초과공급이 존재하며 그 규모도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에 대비한 초과율은 현재의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졸학력자의 경우 수급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겠다.

人力供給의 過不足 展望을 産業別로 살펴 보면 〈表 7〉과 같다. 우선 농업, 광공업등 유형재산업은 점차 초과공급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하여 건설, 판매, 운수, 금융업 등은 초과수요가 심화될 전망이어서 대

〈表 7〉 性別 年度別 産業別 人力供給의 過不足 展望

단위 : 천명

년 도	계	농림	광공	에너지	건설	판매업	운수	금융	기타
남자									
1986	675	-74	-17	16	-7	186	-103	116	557
1987	560	-3	-208	13	-16	186	-122	97	614
1988	493	37	-215	10	-92	224	-165	95	600
1989	574	193	-151	11	-177	193	-203	81	626
1990	610	327	-86	11	-267	158	-242	64	646
1991	611	439	-21	12	-364	119	-283	45	664
1992	587	529	52	12	-466	82	-327	23	681
1993	522	600	123	11	-576	45	-372	-2	692
1994	426	654	197	11	-692	7	-420	-30	700
1995	291	692	270	10	-816	-32	-469	-64	701
1996	127	713	344	8	-947	-69	-520	-100	697
1997	-66	718	420	5	-1,085	-103	-571	-140	690
1998	-285	709	495	3	-1,231	-134	-625	-184	681
1999	-523	682	575	0	-1,383	-158	-678	-230	670
2000	-776	639	660	-4	-1,543	-175	-732	-280	657
여자									
1986	250	-350	102	28	240	-432	335	1	326
1987	11	-286	-178	29	232	-445	343	-19	335
1988	93	-164	-250	27	219	-392	345	-53	359
1989	198	19	-256	27	207	-447	343	-68	371
1990	258	179	-266	27	195	-506	341	-84	373
1991	312	331	-270	26	180	-561	339	-103	370
1992	353	466	-273	27	165	-615	337	-122	369
1993	353	581	-277	26	147	-671	335	-145	358
1994	345	682	-279	26	128	-723	335	-169	345
1995	320	772	-281	25	107	-771	334	-195	329
1996	236	841	-294	25	80	-826	331	-225	303
1997	144	901	-305	24	53	-873	328	-257	273
1998	38	947	-316	24	21	-916	327	-292	242
1999	-75	985	-325	24	-12	-950	326	-330	205
2000	-203	1,010	-332	23	-48	-975	327	-369	162

〈表 7 繼續〉

년 도	계	농림	광공	에너지	건설	판매업	운수	금융	기타
합계									
1986	924	-424	85	44	233	-246	232	117	883
1987	571	-289	-387	42	216	-259	220	78	949
1988	586	-126	-465	37	127	-168	180	42	959
1989	772	212	-407	37	31	-254	140	14	996
1990	869	506	-352	38	-74	-349	98	-20	1,019
1991	923	770	-290	38	-184	-442	54	-58	1,034
1992	940	996	-221	38	-302	-532	10	-99	1,050
1993	876	1,181	-154	37	-429	-626	-37	-146	1,050
1994	771	1,337	-82	36	-564	-716	-85	-200	1,045
1995	612	1,463	-11	36	-709	-803	-135	-258	1,030
1996	363	1,554	51	33	-866	-895	-188	-325	1,000
1997	78	1,620	115	30	-1,033	-976	-243	-398	963
1998	-246	1,656	180	27	-1,208	-1,050	-298	-475	923
1999	-598	1,668	251	23	-1,396	-1,108	-353	-560	875
2000	-980	1,650	328	19	-1,591	-1,151	-405	-649	819
증줄이하									
1986	-504	-1,003	149	30	261	-430	264	76	151
1987	-897	-944	-157	29	240	-497	248	60	125
1988	-1,070	-868	-247	27	174	-509	217	46	90
1989	-1,092	-636	-245	26	105	-618	186	32	57
1990	-1,197	-440	-281	26	30	-730	155	18	24
1991	-1,341	-276	-314	26	-49	-842	123	3	-12
1992	-1,520	-143	-345	26	-132	-952	89	-14	-49
1993	-1,737	-40	-375	25	-221	-1,061	55	-32	-89
1994	-1,984	36	-401	24	-315	-1,168	20	-50	-130
1995	-2,262	88	-427	23	-414	-1,272	-15	-70	-173
1996	-2,604	111	-463	22	-521	-1,381	-55	-93	-224
1997	-2,981	108	-499	20	-633	-1,486	-95	-118	-278
1998	-3,389	80	-535	19	-752	-1,586	-136	-144	-335
1999	-3,832	25	-572	18	-878	-1,682	-176	-171	-396
2000	-4,302	-57	-605	15	-1,010	-1,770	-217	-201	-458

〈表 7 繼續〉

년 도	계	농림	광공	에너지	건설	판매업	운수	금융	기타
고졸									
1986	679	515	-241	19	42	-265	-57	44	624
1987	602	580	-404	19	46	-264	-59	24	658
1988	674	655	-420	17	30	-220	-70	3	678
1989	756	749	-399	17	13	-241	-82	-10	708
1990	841	833	-354	18	-7	-266	-94	-25	735
1991	939	921	-301	19	-28	-286	-107	-42	761
1992	1,027	1,003	-246	19	-51	-305	-120	-60	788
1993	1,079	1,073	-195	20	-78	-330	-134	-83	805
1994	1,120	1,142	-143	19	-107	-354	-148	-109	820
1995	1,141	1,206	-94	20	-139	-378	-163	-138	828
1996	1,141	1,265	-45	19	-175	-402	-179	-170	829
1997	1,143	1,324	6	18	-214	-421	-195	-206	829
1998	1,134	1,379	59	18	-254	-437	-210	-246	825
1999	1,134	1,437	115	16	-298	-445	-225	-287	820
2000	1,137	1494	176	15	-345	-446	-239	-332	813
대졸									
1986	753	65	180	-5	-69	449	27	-3	110
1987	868	76	177	-5	-69	500	32	-6	166
1988	986	87	204	-7	-76	559	34	-6	193
1989	1,110	101	239	-6	-86	605	37	-8	231
1990	1,228	113	284	-7	-96	645	38	-13	260
1991	1,329	125	327	-6	-106	683	40	-19	284
1992	1,437	137	373	-7	-118	723	42	-25	312
1993	1,537	148	419	-7	-130	763	43	-33	333
1994	1,639	158	467	-8	-141	804	44	-41	355
1995	1,735	168	514	-7	-155	844	46	-50	376
1996	1,829	178	563	-8	-169	886	47	-61	395
1997	1,919	188	610	-9	-184	927	48	-74	412
1998	2,013	197	660	-10	-199	971	50	-87	433
1999	2,103	205	710	-10	-216	1,015	51	-101	450
2000	2,189	213	760	-12	-233	1,062	52	-117	465

조를 이룬다. 기타서비스와 에너지산업은 초과공급상태가 정체내지 완만한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2000년에는 농림어업과 기타서비스가 가장 큰 초과공급부문이 되고 건설업과 판매업이 가장 큰 초과수요부문이 될 전망이다.

産業別 超過供給展望을 學歷別·性別人口 特性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 : 중졸이하의 과소공급, 중졸이상은 과다공급상태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모든 학력계층에서 초과공급상태가 될 전망이다. 과다공급전망은 남녀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광공업 : 고졸이하 학력자는 과소공급, 대졸자는 과다공급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졸이하의 경우에만 과소공급이 심화되며 고졸자는 점차 과소공급상태가 완화될 것이다. 대졸자는 과다공급이 심화될 전망이다. 성별로 볼때 남자의 경우 과다공급, 여자는 과소공급 상태이며 그 정도는 제각기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건설·금융업 : 전학력계층에 걸쳐 과소공급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성별로 볼때도 남녀 모두 점차 과소공급의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판매·운수업 : 고졸이하의 과소공급이 심화되며 반면 대졸자는 과다공급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다. 성별로 볼 때 남녀 모두 과소공급의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단 운수업의 경우 여성인력이 과다상태에서 정체를 전망한다.

기타서비스 : 중졸이하자만 과소공급이 심화되며 고졸이상자는 모두 과다공급상태가 심화될 전망이다. 성별로 볼때 남녀 모두 과다상태에 있으나 남자의 경우 심화, 여자의 경우 완화될 전망이다.

에너지 : 여타산업과는 달리 대졸자가 과소상태며 이러한 과소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고졸이하자도 과다상태에 있으나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성별로 볼때 남녀 모두 과다상태에 있으나 남자의

경우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 2. 示唆點과 對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人力需給展望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量的 不足보다는 構造的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構造的 不均衡問題는 學歷面에서 볼때 저학력자의 과소, 대졸자의 과다공급으로 나타나며 산업면에서 농림어업·기타서서비스부문의 과다, 건설, 판매업의 과소공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건설·운수업은 남자인력의 과소공급, 제조·판매·금융업의 경우 여성인력의 과소공급이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결론으로 제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產業構造高度化에 따른 就業構造(學歷別)의 變動可能性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업간 불균형성장에 따른 인력수급구조의 변동은 분석하기에 무난한 것이라 믿는다.

위의 결론이 갖는 시사점으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人口의 質(學歷)이 증가한 속도가 경제성장속도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低學歷者 過小 및 過多라는 소위 學歷 인플레問題는 취학율의 전반적상승에 따른 당연한 추세로 볼 수 있다.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면 그 1차적 적응의무는 당연히 요소수요측면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기술이 저학력 단순노동이 절약되고 고학력 기술노동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양성(교육)정책도 재고되어야 한다. 고학력화는 불가피한 추세라 할지라도 이를 산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측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장기적으로는 정규교육의 체제개편, 단기적으로는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서비스의 확대공급 등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현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人的資源에서의 動態的變化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생산요소의 측면에서 인력의 양에서 질로, 질에서 기술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력의 질적 양성은 불가피하며 또 지난 30년간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셋째, 그러나 단기적으로 비교우위의 정태적 측면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우리나라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현 시점에서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人力的養成이라는 長期的側面에 못지않게 주어진 人力的活用이라는 短期的側面이 강조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기술수준은 단순노동집약형인데 인력만 고학력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저학력 단순인력의 활용율이 높아진다면 이와 보완적인 생산요소 예컨대 자본, 기술, 경험 등의 활용율도 아울러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低學歷單純人力的不足現象은 현재의 주어진 임금체계와 소득수준에서 볼때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굶은일은 임금수준도 낮은 실정에 있다. 사회적체면을 중시하고 불로소득의 여지가 큰 사회경제 여건 아래서 낮은 임금에 굶은일을 하겠다고 누가 나설 것인가? 그러나 유통 및 서비스부문이 생산부문보다 많은 인력을 흡수한다는 것은 수출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경제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산업(제조업)부문의 기술과 자본, 경험의 사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다섯째, 그렇다면 國內人力的部門間 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 예컨대 농업부문과 기타서비스부문이 인력공급과잉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공급부족이라면 부문간 이동은 어느 정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농업부문의 인력을 여타부문으로 전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는 전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입직의 감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농업인력의 인구특성이 저학력, 고령, 여성인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직에 따른 비용도 크다. 그러나 서서비스부문의 인력배출은 상당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부문에 경험이 있는 인력, 특히 여성인력의 경우 적당한 인센티브만 주어진다면 제조업생산직에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서서비스직중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경우는 물론 그에 못지 않게 현재의 비활동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그러나 國內人力の 部門間 動員에는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海外人力の 活用이 하나의 중기적 해결방안이 된다. 해외인력의 활용방안으로는 인력수입을 하든가 해외투자를 하는 두가지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과밀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가 보다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볼때 앞으로 다가올 高學歷時代에 대비하여 人力需要側面에서는 기술진보에 의하여 産業人力の 需要構造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력공급측면에서는 기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학력인력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노동절약적 발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인력 재배치 및 재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의 양적공급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재고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생각된다. 인구의 수가 억제되는 대신 인구의 질이 높아지는 인구변천과정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추세이며 적어도 인구의 절대감소가 있기 전까지는 양적 증대보다는 자질향상 및 그 활용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 구성열, “우리나라 노동력의 잠재적 공급원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제 21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pp.49-70.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기업애로요인과 기업환경분석」, 1990.
- 기협중앙회, 「중소기업 기술실태조사」, 1990, 1.
- 김수곤, 박훤구, 하태현, 「복지사회의 인력대책과 직업안정」, 한국개발연구원, 1981, 3.
- 김윤태 외, 「장기인력수급전망 ; 1977-91」, 과학기술처, 1978.
- 김중수, “노동력수급의 요인분석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1987, 7.
- 김중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기계량모형”, 「한국개발연구」, 제8권, 제4호, 1986, 12.
- 김중수, 박훤구, “산업구조변화와 인력대책”, 「한국개발연구」, 제8권, 제1호, 1986, 3.
- 김지수 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85, 10.
- 박남건, 이덕희, 김현정, 「산업인력의 업종별, 직종별 수급전망과 향후대책」, 산업연구원, 1990, 4.
- 박래영, “장기인구성장과 노동력수급전망”, 「한국인구학회지」, 제8권, 제1호, 1985, 3.
- 박래영, “인구성장둔화와 노동력수급전망”, 사회개발과 인구정책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구학회, 1989, 5. 10.
- 박성상, “2000년 한국무역전망과 장기정책 방행”, 「산업연구원 공청회토의 자료」, 1989, 6. 27.
- 박훤구,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대책”, 「한국개발연구」, 제3권, 제4호, 1981. 3.
- 백용호, 「한국의 3차산업현황과 발전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90, 7.

- 산업연구원, 「국가장기발전구상 ; 공업부문편」, 1985.
- 상공부, 「고급기술인력 수급전망」, 1990, 4.
- 윤석범, 구성열, 「우리나라의 장기인력 수급전망 : 신인구추계와 인구경제 모형의 적용」,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1989, 11.
- 은종관 외, 「고급기술인력 장기수급전망 ; 통신 정보분야」, 체신부 통신진흥협회, 1984, 12.
- 인력대책 심의위원회, 「산업인력 수급대책」, 1990, 7.
- 전자진흥회, 「전자부문의 기술인력 수급전망」, 1990, 6.
- 정택수 외,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인력수급연구」, 연구보고서 84-5, 직업훈련연구소, 1984, 12.
- 조사통계국, 「최근인구동태현황 및 신인구추계 결과」, 「한국인구학회지」, 1988, 12.
-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조사통계국, 「주요해외경제지표」, 각년도
- 조사통계국, 「한국경제지표」, 각년도
- 한국개발연구원, 「미래에의 도전 : 산업구조변화와 정책대응」, 한국개발연구원, 1987, 12.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1990, 7.
- 한국산업은행, 「산업구조고도화와 정책방향」, 1985.
- 한국은행, 「1985년 산업연관표(I)」, 한국은행, 1988, 8.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89.
- 한국은행, 「1970-1986 국민계정」, 1987.
- 한국은행, 「1970-1988 국민계정」, 1989.
-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8.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 인구 및 보건의료보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Koo, Sung-Yeal, "A Demographic Economic Model for the R. O. K. : Long Term Demographic Prospects and Policy Impacts", U. N. ESCAP, Modelling Economic and Demographic Development,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54. Bangkok, Thailand, 1983, pp.53 – 116.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Year 2000 : Prospects and Issue for Long-Term Development, Summary Report, KDI Press, 1986.



## 第12章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動과 展望

崔 焯\*

### I. 序論

### II. 韓國의 人口와 人口變動: 1960-1990

### III.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化

### IV. 要約 및 結論

---

## I. 序論

인구변동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인구연구는 대부분 논의의 초점을 전자에 두고 있다. 즉 인구변동과 사회구조의 변동에 관한 논의는 거의 대부분이 인구변동을 설명하는 결정요인의 하나로서 사회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구조의 변동요인으로서 인구변동이 지니는 중요성은 다소 과소평가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인구연구의 필요성이 주로 인구성장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관심과 결부하여 제기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은 주로 1955-60년의 연평균 3.0%라는 높은 인구성장률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 인구성장의 억제란 과제해결을

---

\* 東亞大 社會學科 副教授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연구에 대한 관심은 이와같은 인구정책의 시행에 의해 촉발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인구연구는 주로 인구성장의 요인을 찾아내고 설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사회구조의 변동은 인구변동 이외에 공업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이들 요인의 중요성에 압도되어 사회구조의 변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구변동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으며, 동시에 인구변동이 사회구조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거시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난 1962년 이래 주로 출산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의 변동을 통해 인구성장율을 둔화시킨다는 인구정책의 당초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을 입안할 당시에 1인당 평균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88년에는 1.6명으로 급속히 떨어졌으며, 그 결과 1960년의 3%이던 인구증가율도 최근에는 1.0%내외로 크게 떨어졌다.<sup>1)</sup> 최근 우리나라 부인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오래전에 이미 인구변천을 경험했던 선진제국의 합계출산율 보다 오히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sup>2)</sup> 이와같은 인구증가추세가 지속 될 경우, 서기 2020년경에 우리나라는 ‘제로 인구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up>3)</sup> 이처럼 인구성장의 둔화라는 당초 인구정책의 목표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문제는 이제 해결되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급격하게 성장하던 인구성장추세가 둔화되었을 뿐, 인구문제 자체는 해결된 것이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구는 ‘특정한 시점에서 어느 한 국가나 도시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성과 공간성이란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을 갖는 집합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인구

는 통상 변동의 차원에서 관찰되며, 인구변동은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 등 인구요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다. 인구변동은 통상 인구성장 과 동시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인구변동은 인구성장 뿐만 아니라 인구의 전이(轉移, Population Turnover)현상과<sup>4)</sup> 인구의 가령화(加齡化, Aging)라는 세 유형의 변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같은 인구변동은 주로 인구의 크기와 인구분포 및 인구구성 등과 같은 인구현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구조를 지위와 역할체계로 보면 인구변동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회관계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의해 기존의 사회체계가 해체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관계체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sup>5)</sup> 그러므로 인구문제는 인구성장 등과 같은 인구변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구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이와같은 사회구조의 부적응을 의미한다. 인구문제의 본질을 이와같이 정의해 보면, 인구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인구학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인구변동에 사회구조가 적절히 반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구성장추세가 급격히 완화되었다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인구변동으로 야기된 많은 문제가 인구문제로 인식 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하겠다.

1960년대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이 입안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성장율은 3.0%내외로 높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시현했다. 이처럼 높은 인구 성장율이 경제발전의 암적요인이 된다는 인식에서 인구성장의 억제를 인구정책의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범국가적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sup>6)</sup> 이와같은 인구정책의 목표 설정과 정책수단의 선정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효성(Efficiency)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들의 출산수준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제로성장'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구성장의 억제라는 인구정책의 정책목표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정부차원에서 입안하여 시행되는 인구정책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인구정책이 가장 효율성(Effectiveness)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은 종래처럼 인구성장의 억제라는 단일의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인구변동이 초래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의 인구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변동이 사회전반의 변동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먼저 1960-199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인구변동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해 본 후, 이를 기초로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에서 인구변동이 사회구조의 변동에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는 함축적 의미를 검토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이 글에서는 이와같은 일련의 논의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인구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동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 II. 韓國의 人口와 人口變動 : 1960-1990

지난 1960년 이래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인구변동은 인구성장률 분포 및 인구구성 등 인구전반에 걸쳐 관찰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가장 특징적인 인구학적 상황의 변동은 급격한 인구성장률의 둔화, 인구의 절대수의 급격한 증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주로 고학력 인구에 대표되

는 인구의 질적변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sup>7)</sup> 이 중에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극적인 변동은 주로 인구성장과 관련된 유형의 인구변동에서 관찰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인구정책이 입안되기 직전인 1960년의 경우 연평균 2.9%라는 고율로 증가하던 인구성장율이 1989년에는 1.0%내외의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인구의 성장속도와 관련된 이와같은 인구학적 상황의 최근 변동은 주로 ‘동태혁명’으로 불려질 만큼 급격하게 떨어졌던 출산력과 사망력의 저하에서 비롯한다. 출산력과 사망력의 저하현상과 더불어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학적인 의미는 인구성장속도의 억제보다는 인구의 절대수의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60-90년 기간중 우리나라 인구의 성장속도는 크게 둔화되었지만, 1960년에 2,500만명 내외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1990년에는 4,300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말해서 한 세대에 불과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약 1,800만명이 추가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1960년에 평방 Km당 254.1명이던 인구밀도도 1990년에는 43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성장율을 들 수 있다. 1960년 당시 우리나라의 시부인구는 전체인구중 28%에 불과했으며, 63%나 되는 대부분의 인구가 면부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나 1985년에는 반대로 시부인구가 전체인구의 6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면부인구는 불과 22.7%밖에 되지 않는다.<sup>8)</sup>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0년간 정주패턴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와같은 도시인구의 급격한 성장은 우리나라에서 시기별로 각기 성장패턴을 달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인구가 성장했던 1960-70년 기간중 도시인구의 성장은 주로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이 도시성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도시인구 성장은 주로 서울과 부산 등 100만명 이

상이 되는 두개 도시의 증가인구가 도시증가 인구의 반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수도 서울의 비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는 양적인 면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했지만,<sup>9)</sup> 도시의 증가인구 가운데 서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종전보다 훨씬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현상은 1970년대 이후 비로소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은 종전과는 달리 공업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시인구의 이와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는 1975년까지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증가한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5년 이후 농촌인구(군부인구)의 절대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985년의 시부인구의 수는 2,600만명을 넘어 섰으며, 약 1,400만명 밖에 되지 않는 농촌인구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시로 분류되지 않은 480만명의 읍부인구를 시부인구에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는 약 3,000만명을 넘게 되며, 전체 인구의 3/4이상이 도시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인구의 최근 감소현상은 주로 농촌으로 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이 된다는 사실은 도시로 이동해야 할 농촌의 잠재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나, 인구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최근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하겠다.

이상과 같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과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즉 1960년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고출산잠재력을 지닌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구조는 1966년을 기점으로 변동하기 시작하여 1980년 이후부터는 15세미만의 저 연령층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생산적인 인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1960-80년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저하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65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인구이동의 선

택성과 결부되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도 멀지 않은 장래에는 다른 선진제국에서와 유사한 노령인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로 인구의 전이현상과 관련된 인구의 질적수준의 변동이 온다. 주로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특히 1960년대 이후 부터 급격히 팽창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는 우리나라 인구중 특히 25세 이상 성인인구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1960년의 경우 국민학교만을 졸업한 인구가 27.2%로서 전체인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국졸인구보다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가 국졸인구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 이를 수록 대학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증가추세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보다는 여자쪽에서 증가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sup>10)</sup>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최근에 이르면서 급격히 고학력 인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60년이래 교육의 성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중 노동력인구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더불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최근에 이르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제 고용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같은 여성의 고용인구비율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최근에 이르면서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련의 변동은 최근에 이르면서 특히 여성노동력 인구가 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인구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III. 人口變動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化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는 특히 최근 30년동안 성장추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구조와 질적인 면에서도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 동시에 이 기간 중 한국사회는 구조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모를 경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관찰되는 급격한 인구변동은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업화 현상의 확산과정과 병행하여 일어났다. 따라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찰되는 사회구조의 변동을 전적으로 인구변동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동시에 이를 오로지 산업화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공업화와 인구변동은 내재적으로 서로간에 밀접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인구변동과 산업화, 그리고 사회구조는 모두 포괄성을 띤 거시적 개념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차원에서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인구변동이 사회체계의 변동에 미치는 논리를 기초로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인구변동이 사회구조의 변동에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함축적인 의미를 검토해 보는 데 논의를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인구변동이 사회체계에 미치는 효과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Plato와 Aristotole등 사회 정치사상가의 저작속에서 이미 그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Durkheim이 ‘사회분업론’을 발표한 것이<sup>12)</sup> 효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3)</sup> 즉 Durkheim의 사회분업론은 인구변동과 다른 요인의 변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환기시켜 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Hawley등과 같은 일단의 사회생태학자들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sup>14)</sup> 사회·생태학적 접근모형에

의하면 사회체계는 인구과정의 세 요인이 되는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 착안, 모든 사회체계는 인구학적체계가 되는 것으로 본다.<sup>15)</sup>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인구변동과 사회체계의 변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Durkheim에 의하면 특정한 지역에서 주로 인구성장으로 대표되는 인구변동은 직접적으로는 인구밀도를 높혀 주지만, 이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간의 접촉과 상호작용빈도의 증가로 정의되는 사회적밀도(Social Density)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이와같은 유형의 사회적 밀도의 증가는 인구변동뿐 아니라 기술발전예 따른 교통 및 통신수단의 보급과 더불어 더욱 가중된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배분받거나, 사회적보상(Social Reward)을 얻기 위해 더욱 첨예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유효성(Efficiency)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이 일어나면 기존의 사회체계내에서 제도화된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체되거나 와해된다. 그러나 사회체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새로운 구조의 사회관계를 재조직하게 되며, 이 경우 사회체계는 일반적으로 분업과 체계경제의 확장 및 혁신의 수용이라는 세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형이 결합된 과정을 거쳐 재조직된다.<sup>16)</sup>

인구변동으로 사회적밀도가 증가하여 사회적 자원의 유리한 배분과 사회적보상을 얻기위한 경쟁이 첨예화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택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관계체계의 변화가 사회적분업(분화)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같은 분업구조는 새로운 역할과 지위의 제도화, 기존의 지위와 역할행동 및 내용의 변동, 역할간 관계의 분화 및 조직기구의 분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분업화현상과 더불어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체계의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체계경계(Boundary System)의 확장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주로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간의 불균형적인 인구성장에서

비슷하는 현상으로써, 종래 체계 외부에 존재하던 영역을 체제 내부로 흡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주로 인구변동으로 인해 사회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회적보상의 획득을 위한 체계 간의 경쟁이 첨예화해짐에 따라 체계간 경쟁을 통제 내지 완화시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체계자체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혁신의 수용 역시 인구변동에 따라 사회체계가 반응하는 중요한 유형의 하나가 된다. 이 경우 혁신은 생산과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사회적·관리적기술의 수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인구변동의 여러 유형 가운데서 특히 인구의 전이현상(Population Turnover)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동안 한국사회는 인구증가로 인한 사회적 분화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 이래 불과 한세대 밖에 되지 않은 30년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당시 인구에 약 1,800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이 수치는 여러가지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수치는 1960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72%에 해당하는 인구로써, 거의 전부가 외부로 부터 전입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출산을 통한 증가분이다. 폐쇄인구(Closed Population)를 가정할 때 인구증가는 출생과 사망의 등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당시의 인구가운데 상당히 많은 비율의 인구가 새로운 세대의 인구로 대체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중교육(Mass Education)이 실시되어, 고등교육의 기회가 급격히 확대된 것도 이 시기가 된다.<sup>17)</sup>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며, 최근에 이르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성 차별현상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sup>18)</sup> 이와같은 제 변화는 종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세대간 가치관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시에 한국사회는 이 시기에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를 경험했다. 인구규모의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현상은 도시-농촌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이 기간중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산업화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지위와 역할집합(Role Set)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체계내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위와 역할 집합, 다시말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관심을 갖게 해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구조는 많은 부분에서 유효성을 상실, 급격히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같은 제 변화는 변화에 대해 사회체계가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교적 단기간에 급속히 일어났다는데 특징이 있다하겠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유형의 사회구조의 부적응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구조의 부적응 문제는 실제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하위집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sup>19)</sup>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보면 대체로 세대간, 계층간 그리고 생태학적 차원의 문제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가치의식의 균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문제가 된다. 인구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세대간 사회구조의 부적응문제는 주로 인구의 전이현상(Population Turnover)과 관련된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비율이 커짐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체계는 서서히 변동하게 되고,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이 기존의 규범체계를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고도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의 경우, 세대간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세대간에 가치의식의 극심한 분화를 초래하며, 심한 경우 사회적 권위체계(규범체계)가 와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간의 경험은 주로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유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의 와중에서 교육의 기능은 종래의 이를 수행하던 가족으로

부터 분리되어 전적으로 학교에 떠 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지난 30년간의 정치적질곡은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교육은 세대간에 경험을 공유토록 함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전승시키는 ‘메카니즘’으로써 교육이 갖는 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이 간접적으로 수준에서나마 세대간에 경험을 공유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가치의식의 단절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대문제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인구변동이 야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계층분화와 갈등의 문제가 된다. 사회계층의 개념을 희소가치를 지닌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구조라고 정의할 때, 인구변동이 계층구조의 변동에 미치는 측면은 주로 인구성장과 전이현상이 각각 계층구조자체와 사회적보상의 배분구조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다.<sup>20)</sup>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양적 구성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사회에서 계층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대체로 자본가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및 농촌부문의 몇 개 범주의 계급등이 중요한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결과를<sup>21)</sup> 근거로 1960년 이래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의 변화와 실태를 살펴보면, (1) 농촌의 자영농과 농촌하류계층(영세농, 농업노동자, 농촌실직자등)의 비율(1960년의 24.0%로 부터 1980년의 8.1%)과 독립자영농의 비율(1960년의 40.0%에서 1980년의 23.2%)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2) 양적인 구성면에서 중간계급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신중간계급의 경우, 1960년의 6.6%에서 1980년의 17.7% ; 주로 자영전문직, 자영상인, 자영서비스직 및 자영기능인으로 구성된 구중간계급의 경우, 1960년의 13.0%에서 1980년의 20.8%), (3)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인 성장(1960년의 8.9%에서 1980년의 22.8%)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2)</sup> 한국사회에서 계층구조의 이러한 일련의 변동은 주로 1960년 이래

우리나라 인구의 전이현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확대과정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 그 자체만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층분화는 각 계층에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계급의식을 분명히 의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Gliddens는 계급의식을 계급적 정체성을 의식하는 수준, 이익갈등에 관한 의식으로서의 계급의식, 및 혁명적 계급의식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계급의식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갈등의식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익갈등을 의식하는 계급의식의 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계급적 격차의 가시성이 나타나는 경우, 예컨대 단일장소에 다수의 노동자가 집결하는 대규모 공장의 출현이 된다고 본다.<sup>23)</sup>

따라서 이 점과 동시에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찰되는 격렬한 노사갈등을 고려하면, 계층간 계급의식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르면서 한국사회에서도 특히 근로자 계층을 중심으로 계층간의 분화현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노사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30대전반 이하의 젊은 인구층임을 고려하면, 이와같은 갈등이 계급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보상의 분배구조와 관련된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는 세대간 갈등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 배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구조의 부적응문제는 주로 한국사회의 도시화과정에서 형성된 도시-농촌간 인구의 불균형적인 분포의 문제와 관련된다. 1960년이래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농촌간 인구의 불균형적인 분포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태학적구조의 부적응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도시-농촌간 인구분포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되며,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인구구성의 차별적인 분포와 관련되는 문제가 된다. 대체로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보다 많은 상황에서 도시-

농촌간의 관계는 생활공간의 축이 농촌에 두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에 종속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도시-농촌간의 인구분포와 관련된 상황이 바뀌면 두 인구간의 기능적인 관계도 뒤바뀌어지게 된다.<sup>24)</sup> 즉 농촌인구가 기능적으로 도시인구에 종속되는 관계에 놓여지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보면 1975-1980년 기간중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년의 경우 도시인구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의 약 3/4이 되는 인구가 도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급격히 도시인구에 종속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같은 경향은 도시-농촌간 인구구성의 분포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들어난다. 1960년 이래 도시화과정에서 도시인구는 주로 농촌지역의 이출자의 전입인구로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해 농촌인구는 급격히 노령화되었다. 최근의 경우, 주로 자녀교육문제가 젊은 농촌인구의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농촌지역은 생산인구의 절대부족으로 상당한 부분의 농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변동에 따른 생태학적구조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간에 기능적으로 연계관계를 갖지 못한 데서 연유하고 있다.

#### IV. 要約 및 結論

1962년 이래 우리나라는 당시 우리나라가 당면한 급속한 인구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이 정책은 인구성장의 억제라는 당초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우

리나라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구정책이 인구의 양적성장의 억제라는 단일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온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변동은 인구성장과 전이 및 인구의 노령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구문제를 인구성장 등과 같은 인구변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구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구조의 부적응을 말한다. 따라서 인구문제는 인구변동으로 기존의 사회구조가 해체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구조가 재정립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는 그와같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동에 사회전체가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인구변동이 일어나면 기존의 사회체계내에서 제도화된 관계는 일시적으로 해체되거나 와해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새로운 구조의 사회관계를 재조직하게 되며, 이 경우 사회구조는 대체로 분업의 고도화, 체계경제의 확대 및 혁신의 수용이라는 세 유형을 통해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이상의 일련의 문제를 고려하면,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보면 최근의 한국사회는 도시화 및 산업화의 확대과정에서 인구변동에 따라 기존의 사회관계체계가 급격히 해체되는 과정에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적응은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성장의 둔화목적은 인구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의 인구정책이 보다 인구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유효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변동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원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워 볼 수 있다.

註

- 1)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인구·가족계획지표」, 1990. 7 : 3-5(표1 및 표6)
- 2) 이미 오래전에 인구변천을 경험했던 선진제국의 1985년도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미국(1.9명), 영국(1.8명), 프랑스(1.8명)가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높으며, 서독(1.4명)과 네델란드(1.4명)는 약간 낮으나 우리와 근접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위의 책 : 17-23).
-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최근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특징」, 1990
- 4) 인구의 전이(轉移) 현상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던 구성원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회 체계를 떠나고 새로운 사회성원으로 대체되는 인구현상을 의미한다.
- 5) 예컨대 친목단체의 경우, 처음 규모가 적을 때는 회원들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회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단체의 결정은 회원들간에 불만을 누적시키게 되기 때문에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인구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의 또 다른 예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문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주택공급의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지역사회에서 인구가 갑자기 크게 늘어 난다면 누군가가 이를 통제·조정해 주어야 할 사회의 요구가 커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주택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며, 이를 적절히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과 사회의 정부기관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 6) Kim, T. I, J. A. Ross & J.C. Worth,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New York : Population Council(1973) : 44

- 7) 최 순, “한국의 인구와 인구변동 : 1945-1985”, 「한국사회학」, 제19집 겨울호, 한국 사회학회(1985) : 3-35
-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계획지표 : 참고자료」, 1990. 7 : 5, 표-5
- 9) 1949-1970년간 우리나라 전체도시의 증가인구는 약 600만명이었다. 그러나 1970-80년의 10년간 도시인구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850만 명이 늘어났다.
- 10) 최 순, 앞의 글(1985) : 21-23.
- 11) 최 순, 위의 글 (1985) : 27, 도표-3 참고할 것.
- 12) Durkheim, 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eorge Simpson, New York : Macmillan (1933).
- 13) Matras, Judah, *Introduction to Population : A Sociologic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77) : 237-257.
- 14) Hawley, Amos H., *Human Ecology :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1950) : 149-233.
- 15) Zopf Jr., Paul E., *Population : An Introduction to Social Demography*, Palo Alto, California :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84) : 273.
- 16) Matras, J., *ibid* (1977) : 254-257.
- 17) 이와같은 사실은 30-39세의 평균 교육연수가 1966년의 경우, 남자 : 7.90년, 여자 : 4.49년(전체평균 : 6.15년)이던 것이 1985년의 경우, 남자 : 10.93년, 여자 : 9.28년(전체평균 : 10.12년)으로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는 사실이 잘 말해 준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 1988」 : 155 참조)
- 1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위의 책 : 156, 표 4-2 참조.

- 19) 예컨대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층원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립사대와 사립사대간의 갈등문제도 인구변동(교사와 학생인구)에 따른 체계부적응문제의 대표적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 20) Matras, J., *ibid*(1977) : 334-337.
- 21)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1983,
- 22) 홍두승, 앞의 글 : 82 참조.
- 23) Giddens, A.,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 Hutchinson (1973) : 112.
- 24) Matras, J., *ibid* (1977) : 322.

## 參 考 文 獻

- 최 순, “한국의 인구와 인구변동 : 1945-1985”, 「한국사회학」, 제19집 겨울호, 한국 사회학회 (1985) : 3-35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인구·가족계획지표」, 1990. 7
- 홍두승, “직업분석을 위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1983.
- Durkheim, 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e-orge Simpson, New York : Macmillan(1933).
- Giddens, A.,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 Hutchinson, 1973
- Hawley, Amos H., *Human Ecology :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1950) : 149-233.
- Heer, D.M., *Society and Population*, 2nd ed., Englewood Cliff : Prentice-Hall, 1975.
- Kammeyer, Kenneth C. W., *An Introduction to Population*, London : Chandler Publishing Co., 1971
- Kim. T. I, J. A. Ross & J. C. Worth,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New, York : Population Council(1973).
- Matras, Judah, *Introduction to Population : A Sociological Approach*,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77) : 237-257.
- Zopf Jr., Paul E., *Population : An Introduction to Social Demography*, Palo Alto, California :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84) : 273.



##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分析

---

1990년 12월 일 인쇄

1990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지 달 현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전화 355-8003~7 (교환)

인쇄처 아진인쇄

---